

의정부



의정부시사 議政府市史

5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시사

고향 마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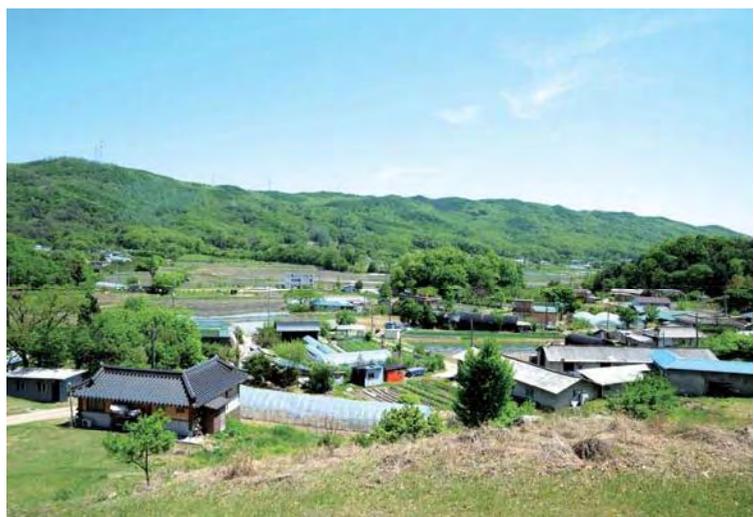


고산동 갯바위마을





☞ 고산동 구성마을



고향 마을 ②



☞ 녹양동 버들개마을



산곡동 검은돌마을



고향 마을 ③



산곡동 독바위마을





송산동 곤제마을



고향 마을 ④



신곡동 둔배미마을



자금동 귀락마을





고산동 모내기



마을의 봄·여름·가을·겨울 ②



고산동 들녘(봄)



고산동 들녘(여름)



고산동 들녘(가을)



고산동 들녘(겨울)



읍 고산동 들녘



송산배 ①



경남 갯바위마을 송산배 과수원



송산배 ②



☞ 갯바위마을 송산배 과수원



송산배 ③



📍 검은돌마을 송산배 과수원



종가를 이어가는 사람들



음 반남 박씨 종가를 이어가는 사람들



학교 동문



☞ 송양국민학교 운동장에서



☞ 의정부국민학교 소풍



☞ 의정부중학교 수학여행



☞ 의정부여자중학교 수학여행



의정부중학교 친구들과



의정부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선거(1962년)



의정부여자중·고등학교 교문에서(1967년)



의정부종합고등학교 학생대대 간부(1968년)

議政府市史 ⑤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제1편 다양한 토박이들의 삶

| | |
|-----------------------------------|-----|
| 제1장 동족 마을 토박이들의 어제와 오늘 | 34 |
| 1. 동족 마을에서의 삶 | 35 |
| 2. 동족 마을의 개발 | 40 |
| 3. 종친회 활동 | 46 |
| 제2장 시 발전과 함께 한 토박이들 | 56 |
| 1. 한국전쟁 전후 의정부 지역의 행정구역과 주요 시설 | 56 |
| 2. 미군의 주둔과 의정부의 발전 | 58 |
| 3. 도시 개발 사업-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63 |
| 4. 농업 분야의 발전 | 69 |
| 5. 시설의 확충-의정부문화원과 의정부시설관리공단 | 74 |
| 제3장 학교 동문들의 고향 이야기 | 82 |
| 1. 초등학교 생활-오랜 역사와 명성의 의정부중앙초등학교 | 82 |
| 2. 중·고등학교 생활-교육의 중심지에서의 학업과 학창 생활 | 86 |
| 3. 대학교 진학과 취업-학교 졸업 이후 의정부에서의 삶 | 96 |
| 4. 동창회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 100 |
| 제4장 토박이들이 그리는 내 고향의 미래 | 106 |
| 1. 내 고향 의정부 | 106 |
| 2. 의정부시의 발전 방향 | 111 |

제2편 이주민의 고향 만들기

| | |
|---------------------------|-----|
| 제1장 해방 전후 의정부 지역으로 온 사람들 | 124 |
| 1. 일제강점기 의정부의 모습 | 124 |
| 2. 해방과 한국전쟁 전야의 의정부 | 128 |
| 제2장 한국전쟁이 남기고 간 사람들 | 136 |
| 1. 판 세상이 된 의정부 | 136 |
| 2. 월남민의 의정부 정착 | 142 |
| 3. 전후 제대 군인의 의정부 정착 | 146 |
| 4. 미군 부대 노동자들 | 150 |
| 제3장 시 승격 이후 이주한 사람들 | 156 |
| 1. 시 승격 후 찾아온 삶의 변화 | 156 |
| 2. 농부에서 도시민으로 | 162 |
| 3. 미군과 함께하는 생활 | 166 |
| 제4장 1980년대 아파트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 174 |
| 1. 수도권 의 형성과 의정부 | 174 |
| 2. 미군 부대의 일부 이전과 시 개발 | 178 |
| 3. 아파트촌의 형성과 새로운 이주민들 | 184 |
| 제5장 이주민이 바라는 희망도시 의정부 | 190 |
| 1. 이주민이 살기 좋은 곳 의정부 | 190 |
| 2. 이주민들의 삶을 통해 본 의정부의 변화상 | 196 |
| 3. 이주민들이 바라는 의정부의 미래 | 201 |

제3편 다양한 여성들의 삶

| | |
|------------------------------------|-----|
| 제1장 종갓집 며느리의 회로애락 | 214 |
| 1. 변모하는 종법 제도하의 종갓집 며느리 | 214 |
| 2. 세 명의 여성, 종부 이전의 삶 | 215 |
| 3.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종부의 어려움 | 220 |
| 4. 행복했던 순간과 앞날에 대한 전망 | 229 |
| 제2장 농촌에 시집온 여성의 삶 | 232 |
| 1. '귀락마을'로 시집온 두 여성 | 233 |
| 2. 어른들 그늘에서 살 때가 "더 좋아" | 238 |
| 3. 외환 위기가 가져온 시련과 남편의 성공 후 찾아온 허탈감 | 243 |
| 4. 두 여성의 삶과 '귀락마을'의 미래 | 248 |
| 제3장 대를 이은 여교사의 생애 | 250 |
| 1. 내 인생의 네 남자, 그중의 최고는 아버지 | 250 |
| 2. 준비된 교사 | 254 |
| 3. 의정부의 교육을 디자인하는 교장 | 259 |
| 4. 나는 '의정부 산(産)' | 263 |
| 제4장 이주 여성의 삶 | 266 |
| 1.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결정하게 된 배경 | 267 |
| 2. 희망을 가지고 온 한국에서의 '고생'과 '어려움' | 270 |
| 3. 세 명의 이주 여성들이 느끼는 한국 | 275 |
| 4. 여성 이주자들의 삶과 의정부 | 279 |

| | |
|----------------------------------|-----|
| 제5장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삶을 일군 여성들 | 284 |
| 1. 미군 부대의 주둔, 도시의 발전, 기지촌 형성의 역사 | 285 |
| 2. 의정부의 역사적 조건을 활용하며 봉사하는 삶 | 288 |
| 3. 가장 취약한 여성들의 친정 '두레방' | 295 |

제4편 이곳저곳에 뿌리를 튼 삶의 현장

| | |
|-------------------------------|-----|
| 제1장 최고의 전통 시장, 제일시장 | 306 |
| 1. 한국전쟁 이후 5일장에서 상설 시장으로 | 306 |
| 2. 재래 시장에서 현대화된 상설 시장으로 | 312 |
| 3. 전통 시장의 위기와 제일시장 | 317 |
| 4. 제일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 321 |
| 제2장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 328 |
| 1. 부대고기의 기원 | 328 |
| 2. 부대고기 볶음에서 부대찌개로 - 오텝식당 이야기 | 331 |
| 3. 부대찌개의 탄생과 부대찌개 거리의 형성 | 336 |
| 4. 부대찌개 재료 수급의 변화 | 341 |
| 5. 대를 이어가는 맛 | 345 |
| 제3장 의정부 특산물, 송산배 | 350 |
| 1. 송산 이야기 | 350 |
| 2. 한국의 배 역사와 송산배 | 352 |
| 3. 송산배와 떡골배 | 357 |

| | |
|-------------------------------|------------|
| 4. 송산배의 자리 잡기 | 360 |
| 5. 송산배의 미래 | 367 |
| 제4장 육군 306보충대의 이모저모 | 372 |
| 1. 306보충대의 연원 | 372 |
| 2. 306보충대의 용현동 이전과 토지 수용 | 374 |
| 3. 306보충대 앞거리 식당가의 형성 | 376 |
| 4. 306보충대 입영일과 식당의 운영 | 380 |
| 5. 306보충대와 식당가의 변화 | 383 |
| 제5장 도시 속의 산업단지, 용현산업단지 | 392 |
| 1. 용현산업단지의 선정과 입주 | 392 |
| 2. 기업 유치 노력과 입주의 시작 | 396 |
| 3. 용현산업단지의 장단점 | 400 |
| 4.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 404 |
|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바람 | 410 |

* 일러두기

1. 구성

의정부시사는 총 8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생활공간, 제2권은 역사, 제3권은 현대생활, 제4권은 마을과 민속, 제5권은 주민의 삶과 생활, 제6권은 인물과 문화유산 등을 다루었고, 제7권은 자료와 통계·연표, 제8권은 사진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서술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상 현재의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근대 이전의 시기는 양주 지역을 포함하였고, 지역 간 비교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넓혀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각 편과 장의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각종 통계 및 서술 내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그 이후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편과 장의 주제 및 기획 의도에 부합하도록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의정부 지역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한 경우 양주 지역을 포함하였고, 중앙사나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해 윤문과 첨삭을 하였다.

3. 자료 및 사진 제공자

• 기관 및 단체

경기문화재단, 국가기록원, 녹양동성당, 동심원, 두레방, 문화재청, 서울대학교 규장각, 송양초등학교, 양주시청,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 의정부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재향군인회, 의정부시청, 의정부여자중·고등학교, 의정부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이주동지상담소, 의정부제일장로교회, 의정부중앙감리교회, 의정부중앙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청년회익스, 의정부화교소학교,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제일시장번영회, 주교좌 의정부성당, 푸른터마은의정부21 실천협의회, 한국사진작가협의회 의정부지부,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암초등학교, 한미동맹 60주년 사진전(<http://qsl.net/wd4ngb/korea%20pics.htm>)

• 개인

강경연, 강계순, 강영철, 강창신, 권원구, 김영태, 김옥희, 김용남, 김용일, 김옥완, 김인순, 김정숙, 김학현, 박소영, 손덕산, 송동현, 송용득, 송재숙, 스티븐 드래어, 안중석, 안창희, 안희정, 양미숙, 양암자, 윤영옥, 윤옥성, 윤춘지, 이귀용, 이영재, 이왕철, 임기만, 장기숙, 조순애, 조진영, 최문기, 최문용, 최영순, 최영희, 최재림, 최정식, 최종석, 최창기, 최형숙, 홍복선, 홍진숙, 황갈무

- 제1장 ————— 동족 마을 토박이들의 어제와 오늘
- 제2장 ————— 시 발전과 함께 한 토박이들
- 제3장 ————— 학교 동문들의 고향 이야기
- 제4장 ————— 토박이들이 그리는 내 고향의 미래

1

제1편

다양한
토박이들의
삶

동족 마을 토박이들의 어제와 오늘

의정부는 1942년 양주면에서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 경기 북부에서 최초로 시로 승격되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도시화가 일찍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의정부 지역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동족 마을의 수가 적은 편이다. 현존하는 의정부의 동족 마을은 장암동 반남 박씨(潘南朴氏), 녹양동 경주 최씨(慶州崔氏), 고산·산곡동 고령 신씨(高靈申氏), 산곡동 전주 류씨(全州柳氏) 등이다. 이 중 세거 대수 및 현달 인물, 동족 마을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민락동 평양 조씨(平壤趙氏), 고산·산곡동 고령 신씨, 산곡동 전주 류씨를 중심으로 동족 마을의 변화와 종친회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 조씨 현령공파(縣令公派)는 고려 충신 조견(趙楗, 1351~1425)의 후손으로 19대를 민락동에서 세거하였다. 고령 신씨 문충공파(文忠公派)는 조선 문인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후손으로 18대를 고산동과 산곡동에서, 전주 류씨 낙봉공파(駱峯公派)는 전침공(典籤公) 류세구(柳世龜, 1493~1553)의 후손으로 18대를 산곡동 검은돌마을(흑석마을)에서 살아오고 있다. 평양 조씨 동족 마을인 민락동 본민락과 별말은 2006년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마을이 해체되었지만, 고령 신씨 동족 마을인 산곡동 독바위마을과 전주 류씨 동족 마을인 산곡동 검은돌마을은 지금도 동족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1. 동족 마을에서의 삶

평양 조씨 현령공파 일가가 의정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충신 조견은 고려가 망하자 청계사에 머물렀다. 조견의 형이자 조선의 개국공신 조준(趙浚, 1346~1405)은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 함께 청계사에 머물던 조견을 찾아가 조선을 위해 함께 일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조견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청계사를 떠나 “송산에 가서 고사리나 뜯어먹고 살자.”는 뜻을 정하고 의정부 송산동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조견이 거처를 정한 곳이 민락동 ‘삼귀(三歸)마을’이다.

조견이 이성계의 권유를 피해 삼귀마을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그와 그의 첫째 아들 석산(石山), 둘째 아들 철산(鐵山) 그리고 석산의 세 아들 중 첫째 청로(淸老)와 둘째 충로(忠老) 두 아들 그리고 철산의 큰 아들 인(勳)의 묘소는 성남에 위치하고 있다. 의정부에 묘를 모신 첫 번째 조상은 조견의 손자이자 석산의 셋째 아들 현령공(縣令公) 정로(廷老)부터이다. 현령공의 묘는 의정부 낙양동에 위치하고 있다.

현령공의 첫째 아들이 민락동 본민락에, 둘째 아들이 낙양동 별말에 세거하여 동족 마을을 이루었다. 한국전쟁 이후 본민락마을에는 전체 58가구 중 평양 조씨 15가구, 별말에는 전체 70여 가구 중 평양 조씨 30여 가구가 거주하였다. 평양 조씨 현령공파인 조종호(1938년생) 씨에 따르면 2006년 민락동이 개발 부지로 수용되기 전까지 비슷한 마을 규모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고령 신씨 문충공파는 조선시대 문인 신숙주를 중시조로 한다. 신숙주는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 봉례공(奉禮公) 주(澍)와 다섯째 아들 소안공(昭安公) 준(俊)의 후손들이 고산동과 산곡동에 거주하고 있다. 첫째 아들 주의 증손(曾孫)이자 신숙주의 고손(高孫)인 수명(秀溟)의 첫째 아들 사직공(司直公) 강(壘)의 자손이 정자마을·능안마을·구성마을에, 둘째 아들 필선공(弼善公) 요(橈)의 자손이 독바위마을에서 세거하였다.¹

1 고령신씨대동보편찬위원회, 『고령신씨대동보』 권3. 봉례공파①, 2011.



산곡동 독바위마을



고산동 정자마을

한국전쟁 이전 독바위마을의 30여 가구 중 두어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령 신씨였으며, 정자마을·능안마을·구성마을에도 100여 가구의 신씨들이 거주하였다. 독바위마을의 경우 5·16군사정변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가구 규모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신씨들이 외지로 이주하고 타성들이 유입되면서 현재 30여 가구 중 고령 신씨는 15가구 정도만 거주하고 있다.

검은돌마을 전주 류씨는 6세 낙봉공(駱峯公) 현(軒)을 중시조로 한다. 현은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이 전침공 류세구이다. 류기정(1934년생) 씨는 류세구의 넷째 아들 회양공(淮陽公) 연(堧)의 후손으로 검은돌마을에서 18대째 세거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회양공파(淮陽公派) 종친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의 후손들을 회양공파라고 한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검은돌마을 40여 가구 중 25~30가구가 전주 류씨였으며, 현재는 100여 가구 중 20여 가구만이 전주 류씨이다. 마을의 규모가 현재와 같이 커



산곡동 검은돌마을 표지석



산곡동 검은돌마을 입구



산곡동 검은돌마을

진 것은 1970년대 후반 미군 부대 막사 공사 인부들이 마을에 유입되면서부터이다. 인부들이 캠프 스탠리(Camp Stanley)와 가까운 검은돌마을에 집터를 구해 살면서 거주 호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전주 류씨들은 한국전쟁 이후 이주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마을을 많이 떠나 현재와 같이 줄었다.

검은돌마을은 웃말, 양지말, 가운데말, 가외말로 나뉘는데, 마을 회관이 있는 가외말에는 한국전쟁 이전 집이 서너 채밖에 없었지만 미군 부대 주둔 이후 계속 늘어서 ‘해방촌’이라고도 한다. 미군 부대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빼빼 주민이었으나 검은돌마을에도 셋방살이를 하며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18대 이상 세거한 세 문중은 마을에서 양반으로 행세하였다. 양반으로서의 행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상이 낮을 때 상여를 누가 떼는가 의 문제였다. 세 집안 모두 한국전쟁 이후 10년까지는 상여를 떼지 않았고 타성인 ‘상사람’ 혹은 ‘하인’들이 떼 주었다. 민락동 본민락에서는 같은 집안끼리는 상여를 떼지 않았고 타성들이 떼 주었다. 그러나 이후 상사람들이 더 이상 상여를 떼려고 하지 않자 양반과 상사람 구별 없이 다 같이 떼는 것으로 바뀌었다. 산곡동 검은돌마을에서는 류기정 씨가 1965년 이후 마을 일을 볼 때 “(상여를 떼는데) 안 된다. 너거들, 다 메야 한다. 그래가지고서 집안사람들 다 떼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그 후부터는 상여 쓸 때는 누구 쓸 때는 누구든지 와서 메”도록 하였다. 민락동 본민락에

서는 상이 났을 때 마을에서 서로 도와 상례를 치러 주었는데, 이러한 상례를 위한 조 직을 ‘이중계’라고 하였다.

고령 신씨 문충공파는 이 지역 양반으로 행세하며 인근 구성마을 가짓말 전주 이씨 (全州李氏)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와 통혼하였다. 고령 신씨들은 상사람들에게 도지 를 주고 그 대가로 제사 음식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 이 후로는 반상 구별이 사라지고 제사 음식도 직접 마련하였다.

이 마을들에서는 농사가 주요 생업이었다. 논농사와 밭농사 중 논농사의 비율이 높 지 않아서 검은돌마을에서는 밭에 벼를 심는 밭벼를 심은 적도 있다고 하였다. 검은 돌마을은 논과 밭이 4대 6, 본민락은 5대 5 비율로 밭이 더 많았다. 독바위마을의 경 우 논이 3분의 2가 논이었다. 독바위마을에는 산꼭저수지가 있어 농지의 10% 정도가 이 저수지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밖의 마을은 그렇지 않아 서 지하수를 쉽게 공급할 수 있기 전까지는 모내기 철이 되면 물싸움이 나기도 하였다. 본민락과 검은돌마을은 모두 천수답이었고 마찬가지로 모내기 철이 되면 물 부족을 겪 어야 했다. 물 공급이 어렵던 시절에는 6월 초부터 말까지 모를 냈는데 여의치 않을 경 우(마냥모의 경우) ‘꼬작모’를 내기도 했다. ‘꼬작모’란 비가 오지 않아 논자리에 물이 없어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호미로 땅을 파서 모를 심는 것을 말한다. 경지가 작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의정부에서는 두레 형태의 농업 노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도 짓소² 등 소 관행도 드물었다.

농사 이외의 부업으로 검은돌마을 류기정 씨는 부모님이 각 마을로 다니며 팔, 쌀, 콩, 밤 등 곡물을 사다가 동대문 도매시장에 넘기는 장사를 했다고 하였다. 마을로 들 어가 각 가정에서 파는 것을 구입하여 한데 모아 놓고 짐차를 불러서 내다 팔았다. 은 행은 나무째 사서 떨어진 뒤 껍질을 까서 팔았다.

전주 류씨 검은돌마을에서는 종종 임야에서 나무를 해서 서울에 내다 파는 일을 하 기도 했다. 류기정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무장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였다.

2 도짓소에 대하여 산꼭등 독바위마을 신세후 씨는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송이지 한 마리를 사주고 1~2년간 기르게 한 뒤 성우(成牛)가 되면 팔아서 구입한 값을 제하고 시준 사람과 키운 사람이 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꼭등 검은돌마을 류기 정 씨는 송이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24개월 미만 동안 키워 성우가 되면 송이지를 구입해 준 사람에게 성우를 주고 성우가 낳은 송 아지는 키운 사람이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소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초저녁에 마을을 출발해 퇴계원 쪽으로 나가 동대문시장으로 소마차를 끌고 가서 나무를 팔았다. 류기정 씨는 아버지가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날이면 “침에다 생태 20마리 췌 거를 마차에다 얹어가지고 저녁에 오셔서는 그걸로 국을 끓여 주면은 얼마나 맛있는 줄 몰라.” 하며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던 때를 회상하였다.

이 동쪽 마을들은 마을 인근 경지 중 일부를 마을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이 경지를 도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고 여기서 나는 비용을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마을 기금은 대개 이와 같이 마을 공동소유의 경지에서 걷어 들이는 소득과 상례를 치를 때 상여 메기, 회다지기(달구질) 등을 도와주고 상주로부터 걷는 돈으로 마련하였다. 마을에 상이 나면 상여 운구 시, 다리 건널 때나 산에 올라가기 전 상주에게 “절해라, 돈 내라.” 하는 장난을 치거나 달구질할 때 새끼에 달아주는 돈을 마을 기금으로 하였다.

산곡동 검은돌마을은 마을 공동소유의 논이 있어 도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현재 마을 재산으로는 땅은 없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민락동 본민락에는 마을 공동소유의 땅으로 민락약수터 올라가는 부근에 800여 평이 있었다. 이와 같은 비용은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마을 제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독바위마을과 능안마을은 현재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과거에 서낭당 제사를 지냈으며, 민락동 본민락마을은 2006년 마을이 해체되기 전까지 산제사를 지냈다. 본민락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에 날을 받아 민락약수터가 있는 덕수봉에서 지냈다. 독바위마을에서 마을 제사인 서낭당제사를 지낼 때는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받고 가구마다 쌀을 걷어서 비용을 마련하였다.

검은돌마을은 지금까지도 산제사를 지내고 있다. 원래 산제사는 음력 9월이 되면 날을 잡아서 지냈지만, 마을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부정(不淨)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자 음력 10월 1일로 날을 고정하였다. 산제사 제물로 예전에는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익히지 않은 소머리를 올린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 경지를 경작하며 산제사를 맡아서 주관하던 관리인이 따로 있었으나, 7~8년 전부터는 부녀회에서 제물을 마련한다. 마을 경지에서 나는 것으로 제사 경비를 충당하나, 가물거나 소출이 나지 않아 경비가 모자랄 경우 가구마다 돈을 걷어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 마을 형태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며 마을 공동소유의 경지를 일구고

여기서 비롯된 재산으로 마을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던 토박이들은 개발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2006년 평양 조씨 현령공파 동족 마을인 본민락마을이 개발되었으며, 고령 신씨 문충공파 동족 마을인 독바위마을은 개발을 앞두고 있다.

2. 동족 마을의 개발

본민락마을은 2006년 개발이 되기 전까지 자연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마을이 해체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 했다. 따라서 생업이었던 농사는 더 이상 지을 수 없었고 전과 같은 이중계를 통한 상례와 마을 산신제도 유지될 수 없었다. 개발이 공시되면서 마을 공동소유의 땅 800여 평은 매각하여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현재 자연 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독바위마을은 개발을 앞두고 있다. 2008년 10월 24일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되어, 2010년 보상이 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 경전철 노선 연장, 하수처리장 신설 등을 요구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³ 고산동 주민들은 토지가 수용되고 조만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대출까지 받아 대토(代土)를 구입하였으나 개발이 지연되어 이자 부담과 경매 위협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정부시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실무협의 진행과 안병용 시장의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더해져 2013년 사업 추진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2013년 8월 지장물 조사 이후 동년 12월에서 2014년 2월까지 보상, 2018년 완공을 계획 중에 있다.⁴

개발이 공시되었을 때 마을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간의 갈등이 있었다. 2006년 개발이 된 민락동 본민락마을의 경우 개발이 공시되고 마을에는 일부 갈등도 있었지만 별 탈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조종호 씨는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차

3 「의정부시 고산보금자리 주택지구 5년 만에 개발 본격화」 『아주경제』 2013년 7월 10일.

4 「의정부시 고산보금자리 8월에 지장물 조사 실시」 『경인일보』 2013년 7월 12일.



고산지구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고산지구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문위원을 맡아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개발이 진행 중인 산곡동 독바위마을도 역시 찬성과 반대 두 입장으로 나뉘어 갈등이 있었다. 독바위마을은 지금은 찬성 쪽으로 거의 기운 상태로 2013년 8월부터 시작될 지장물 조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산곡동 검은돌마을에서도 2008년 개발의 이야기가 흘러 나왔었는데, 류기정 씨는 당시 이에 반대하였다고 한다.

류기정 여기도 그 무슨 지구인가, 저기.

면담자 여기도 개발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쪽 건너편에도.

류기정 건너편에.

면담자 고산동.

류기정 아니 거기도 지금 뭐 보상이 안 되니까 그냥 지금 난리를 치는데, 여기도 무슨 지구로다가 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를 그때 우리가 그 동네에서 반대를 했어. 옛날 그대로 살겠다.

면담자 어, 이 마을 분들은 반대를 하셨어요? 여기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류기정 어, 반대를 했거든, 무슨 지구라고 그러더라, 이름도



산곡동 검은돌마을 토박이 류기정 씨

잊어버렸네.⁵

면담자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쯤이었어요?

류기정 얼마 안 되었지 한 3년. 아니야. 한 3년 아니 5년째 되거나 보다 거진.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 계획은 다 되어 있거든. 여기 사람. 근데 그때는, 새로 그 집 짓고 하는, 해서 거 저걸 뭐라 뭐라고 그러더라. 그때 여기, 용현, 만가대, 고산동 뭐 어디 그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람은 반대를 했거든. 반대를 하면 하질 않겠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내가 내가 서서 반대를 하고서 나중에 좀 원망을 들었어요. (개발) 그렇게 했으면은 외레 나올 거 그랬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인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동네는 내 땅을 가지고서 내 땅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남의 땅 아니면은 하천부지, 종종 땅, 프로티지(%)를 따지니까는 내가 생각하기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그 내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 이거 물론 땅이 좀 있어가지고 내 땅에다 집 짓고 해서 근데 그렇게 지구로다가 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하면 본인이 땅을 얼마 내놔야 짓고 그런 게 있더라구.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거 쫓겨나는 사람은 아주 쫓겨나고 아주 인제 여기 떠나는 거고 돈 부족한 사람은 제대로 저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가지고서 반대를 해서 여기 사람이 한 80%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를 했었던 말야. 그랬더니 땅 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아이 그때 그 잘못했다고 그냥 했으면 저거 할 걸 그랬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게 뭐 5년이 지나고 다시 하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지금 아무 소리 없고, 그러니까 지금 모르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인제 이유 그때는 조금 80(%)도 안 되고 70(%) 얼마가 되었으니까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제는 다 가만히 있어야 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웃음) 그래서 인제 고향을 의정부에 고향에 사는 건 좋은데 그렇게 돼서 고향을 버릴 때는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⁶

류기정 씨는 고향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마을에서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정황을 고려하여 개발에 반대하였다.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건 반대를 하는 입장이건 의정부 토박이로서

5 류기정 씨는 2013년 9월 27일 보충 인터뷰에서 전원주택 지구라고 설명하였다.

6 2013년 6월 13일 산곡동 검은들마을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고향을 지켜왔던 이들은 개발로 인해 고향을 잃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조종호 씨는 고향을 잃은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면담자 그러면(개발이 되면) 직장도 잃는 거네요. 수용이 되면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조종호 농사짓던 사람들. 농사짓던 사람들 딴 데 가서 대토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그렇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갔다 은행에다 예치해 놓은 사람도 있고, 또 대토해 가지고 거의 다는 의무적으로 대토를 얼마 이상을 하면은 양도세 일부를 면제해 준다 뭐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대토를 했어.

면담자 대토도 인근 지역으로.

조종호 주로 이제 인근 지역이 뭐야. 저 포천이나 저기 연천. [면담자 : 연천 이쪽.] 여기 양주. [면담자 : 양주.] 가까운 근처에 다들 가서 전부 대토해 가지고 지내는 거지.

면담자 그렇구나. 그러면 흩어지고 나서도 본민락 사셨던 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도.

조종호 있지.

면담자 얼마나 자주 모이세요?

조종호 한 달에 한 번.

면담자 한 달에 한 번 모이세요?

조종호 나 오늘도 친목회 하고 나왔는데.

면담자 아 그렇구나.

조종호 그렇게 해서는 한 동네 살던 사람들 만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거지. 그것이 무너지면은 저 다 허사가 되는 거지.

면담자 여긴 몇 분 정도나 친목회 같이 하세요?

조종호 우리? 지금 현재 열아홉 집이지. 부부 동반해서 모이니까.

면담자 그래도 그 어쨌든 고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태어났던, 태어나서 자라 온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이 없어지니까 좀 마음이 그러셨을 거 같은데…….

조종호 안 좋지.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에 - 전에 거기 살 적에도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 민락동에 공영 차고지 있는데 우리 종종 산인데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어. 나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산소에 가서 문안 인사 드려. 그러면 그 동네 다 한

바뀌 돌아보는 거지. 내 살던 고장. 그리고 나는 거기 살 적에도 부모님 산소에 새벽에 꼭 가서 문안 인사 드리고 왔어.

면담자 그러니까 지금도 문안 인사 드리러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종호 그럼.⁷

민락동 본민락마을 주민들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기보다는 가까운 송산동을 새롭게 살아갈 터전으로 정하고, 인근 양주, 포천, 연천 등지에 대토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을 해체 이후 본민락마을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통해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조종호 씨는 고향을 잃은 아쉬움과 허탈함을 마을 주민들끼리의 친목 모임과 부모님 산소 문안드리기를 통해 위로하고 있다.

산곡동 독바위마을 신세휴(1938년생) 씨도 개발이 되면 농사지으면서 서로 돕고 살았던 고향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착잡해 하였다. 그리고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헤어지기 아쉬운 마을 주민들끼리 아파트 한 동에 모여 사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면담자 그럼 이제 고향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개발이 되면.

신세휴 고향이 없어지는 거지. 개발이 되면.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고향 아니야. 근데 아파트 들어서고 상가 들어서면 고향 없다고 봐야지. 안 그래?

면담자 어떠세요?

신세휴 착잡하지 뭐. 솔직한 얘기로. 돈은 호주머니로 몇 푼 쥐어서 주인 하는데 그 이게.

신영우 그냥 의정부가 그냥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웃음)

신세휴 부인 내 때 묻은 고향은 없어져 버려.

신영우 없어지는 거지.

신세휴 그런 거지.

면담자 고향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뭐 주민 분들끼리 뭐 어떤 걸 하자라든가 뭔가를 남기자 이런 건 따로 없으세요?

7 2013년 6월 15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근처 학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신세휴 아직까지는 뭐 대책 회의를 하거나 무슨 대책을 세운 건 없어. 완전히 돈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될는지 그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데 가서 집성촌으로 살기 힘들어.

면담자 네, 그렇죠.

신세휴 지난번에 여기서는 인제 그 같이 살게 하면 아파트 한 동을 다 달라 이거야. 다. 그럼 준대요. 그걸. 주택공사에서, 자, 우린 고향 떠나기 싫고 이러니까 중앙에다가 나 101동이면 101동장이요, 여기 산곡동 수용된 다음 다 지어 달라 다 그럼 해준다고, 그런 얘기는 장난삼아 한번 있었어.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야.

면담자 한 곳에 이제 모여 살게 해 달라.

신세휴 시공사와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면담자 그렇구나.

신세휴 세부적으로.

신세휴 부인 마을 사람들 뿔뿔이 헤어지니까.

신세휴 아니 지난번에 한 번 이왕이면 같이 떠나는데 나이 먹고 한 동네에서 한 건물 가지고 살자. 그런 얘기들을 술 먹으면서 한 적이 있지.⁸

고산동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은 것 중 하나가 서낭당 나무의 보존이다. 고산동에서 현재 유일하게 마을 제사인 서낭당 제사를 모시는 마을은 갓바위이다. 갓바위마을 서낭당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하여 전국 만신들이 자주 찾아와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 이 서낭당은 “베면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 개발 부지에 수용이 되었지만 길을 돌아내는 것으로 하여 서낭당 나무는 개발이 되어도 베지 않는 것으로 의정부시와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향을 잃었거나 앞으로 잃게 될 토박이들은 고향을 잃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으며 의정부 내 다른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향 마을을 기반으로 한 친목회를 조직하여 고향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종친회 활동을 통해서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8 2013년 6월 23일 산곡동 신세휴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신영우 씨는 고령 신씨 문중공 종약회 전 총무이다.



고산동 갯바위 서낭당 나무

3. 종친회 활동

종친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조상에 대한 봉사(奉祀)이다. 조상에 대한 봉사로 큰 공훈이 있어 4대 봉사 이후에도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불천위(不遷位) 기제사(忌祭祀),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서 지내는 시제(時祭) 등의 제사가 있다. 이와 같은 조상에 대한 봉사는 대개 조상이 모셔져 있는 묘소, 재실, 사당에서 지내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후손들이 조상의 터전이었던 지역으로 모이게 된다. 평양 조씨 현령공파, 고령 신씨 문충공파, 전주 류씨 낙봉공파 모두 동족 마을 인근에 조상들의 묘소가 위치하였다. 따라서 조상 봉사는 마을이 해체되어 흩어져 있는 후손이나 이전부터 이주해서 나간 후손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대개 음력으로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종친회에서는 종친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공휴일로 변경하기도 하며, 평양 조씨의 경우 종회에서 제사에 참석하는 종인(宗人)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일인당 1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한다.



송산사지 정면



송산사지 측면

세 집안의 조상 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 조씨의 송산공종회(松山公宗會)의 중시조인 조건은 고려 충신으로 의정부 민락동 송산사(松山祠)와 양주 정절사(旌節祠) 두 곳에 배향(配享)되어 있다. 두 곳 사당에서의 제사는 지역 유림이 주관하며 송산사에서는 매년 음력 3월 20일, 정절사에서는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⁹에 제사를 지낸다. 송산사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고려 말의 충신 원선(元宣)·이중인(李中仁)·김주(金澍)·유천(兪臧)·김양남(金揚南) 여섯 분,¹⁰ 정절사에는 조건과 남을진(南乙珍) 두 분을 모시고 있다. 조건의 기제사는 공주에 있는 사당에서 음력 5월 3일에 지내며 종인(宗人) 50~60명 정도가 참석한다.

가장 큰 조상 봉사는 평양 조씨 송산공종회 오파(五派)가 모두 참석하는 묘제(墓祭)¹¹이다. 묘제는 원래는 10월 초하루 날 지냈으나 후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11월 첫째 일요일로 날을 고정하였다. 묘제에는 600~7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다. 조종호 씨의 직계인 평양 조씨 현령공파의 묘제는 11월 둘째 일요일이다. 현령공의 묘제는 두 아들의 후손들이 다 같이 지내고 이후 각자 자기 조상을 따로 모신다. 첫째 아

9 중정일은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정(丁)자가 들어가는 날짜이다.

10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경기도의정부시 『송산사지』, 1996, 219쪽.

11 조종호 씨는 시제를 묘에서 지낸다는 의미로 묘제(墓祭)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숙주 묘역 전경



한글 창제 사적비

들의 후손인 조종호 씨는 16대조 현령공의 묘제를 작은 아들 후손들과 함께 모시고 이후 현령공의 아들부터 7대조까지 총 10명(현령공 포함)의 묘제를 지낸다.

고령 신씨의 경우 신숙주는 불천지위로 기제사를 모신다. 신숙주의 기제사는 음력 6월 23일, 그의 부인은 음력 1월 22일이다. 기제사는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위치한 손자 항(抗)의 사당에서 지낸다. 원래 기제사는 고산동 묘소 인근에 자리했던 사당에서 지냈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 당시 묘소 인근의 사당이 훼손되었는데, 이후 몇 년 동안은 묘소 인근의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점점 훼손 정도가 심해지자 현재는 성종의 부마(駙馬)였던 손자 항의 사당에서 같이 모시고 있는 실정이다.

신숙주의 시제는 원래 음력 10월 15일에 지냈으나 1971년 한글학회에서 신숙주의 한글 창제 공로를 기려 묘역에 한글 창제 사적비를 설치한 이후 한글날인 양력 10월 9일에 지내고 있다. 시제에는 전국에 있는 후손 700명 정도가 참석한다. 고산동 묘역에서 지내는 시제에는 현직 의정부시장이 참석하여 삼헌관(三獻官) 중 초헌관(初獻官)을 맡는다. 신숙주 묘는 1985년 경기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되었다.

중시조인 신숙주 이외 직계의 시제는 아들 봉례공(奉禮公) 주(澍) 음력 10월 11일, 손자 첨정공(僉正公) 종흡(從洽) 10월 15일, 그 아래 이천공(利川公) 염(濂), 아산공(牙山公) 수명(秀溟), 사직공(司直公) 강(樞), 영원군(靈原君) 경식(景植), 청주공(淸



신숙주 신도비



신숙주 묘

州公) 속(溍), 송화공(松禾公) 태징(泰澄) 모두 음력 10월 11일에 지낸다. 수명의 둘째 아들이며 독바위마을에 집성촌을 이룬 필선공(弼善公) 요(橈)의 시제는 음력 10월 9일이며 종인 60명 정도가 참석한다.¹²

검은돌마을 전주 류씨 낙봉공파 시제는 묘역이 검은돌마을과 그 인근에 모두 위치하여 매년 음력 10월 13일로 날짜를 정하여 한다. 그러나 전주 류씨 6세 낙봉공 현의 셋째 아들 전침공 세구의 넷째 아들의 후손인 회양공 연의 경우 묘소가 등나무 너머에 멀리 떨어져 있어 하루 먼저 시제를 모신다. 즉 회양공파는 회양공 연과 그 후손의 제사를 시제 전날 먼저 하고 시제 날에는 낙봉공의 아버지 침지공 계장(季漳)을 비롯하여 낙봉공과 그의 두 아들 전부공·활탄공의 시제에 참석한다.

또한 전침공 세구와 그의 후손 묘역이 낙봉공 묘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예전에는 시제를 서로 다른 날짜에 하였는데 지금은 오전에는 낙봉공 묘역에서 오후에는 전침공 묘역에서 시제를 한다. 낙봉공 시제의 참석 인원은 100명 정도이며 많을 경우 200여 명이 오기도 한다. 전침공 류세구 묘역은 2009년 의정부시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다.

12 고령신씨대동보편찬위원회, 『고령신씨대동보』 권3, 봉래공파①, 2011.



전주 류씨 낙봉공파 묘역

문중에서는 후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제 날에 맞춰 총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 신씨 문충공파의 경우 문중 총회를 2월에 따로 갖기도 하지만 대개 전주 류씨 낙봉공파와 같이 시제에 맞춰서 문중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문중 임원을 선출하고 문중 재산을 결산한다.

조상에 대한 봉사인 각종 제사를 모시기 위한 경제적 기반인 위토(位土)는 조상별로 따로 지정되어 있으며 묘소 주위에 위치한다. 대체로 문중에서는 각 위토를 관리자에게 도지를 주고 운영하여 여기서 얻은 소득으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며 묘소 주위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 신숙주 묘는 의정부 시내의 건물 한 동과 밭, 부용산 임야를 위토로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위토 받은 2005~2012년 동안 고령 신씨 문충공 종약회(宗約會) 회장을 지낸 신세휴 씨가 경작하고 있다. 건물과 위토에서 나온 소득을 시제 등의 경비로 사용하는데 1,000만 원가량의 시제 비용도 여기서 조달하고 있다. 제물의 마련은 며느리들이 직접 한다. 제물과 종인 700명의 음복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며느리 약 15명이 이틀에서 사흘 정도 정성을 다한다. 음식 마련 등 시제 준비는 5년 전 경기도와



신숙주 묘역 관리사

의정부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설한 관리사에서 한다.

검은돌마을 전주 류씨 낙봉공파의 경우, 빼빼에 위치한 낙봉공 묘소 인근에 위토가 있어 이에 대한 경작과 더불어 별초 등 묘소 관리 및 시제의 준비를 담당하는 관리인을 따로 두고 있다. 시제 비용은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회양공의 경우에도 위토가 따로 있어 여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제사 경비를 조달하고 있다.

문중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재실(齋室)과 사당(祠堂)의 건립이다. 조사 대상 문중에서 재실이나 사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류기정 씨는 사당이 없는 이유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허가 내기가 힘든지, 짓는다고 하더니 아직 못 지었다.”고 하였다.

고령 신씨 문충공파는 현재 문충공의 재실과 훼손된 사당의 재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충공파 재실의 경우 묘소가 모여져 있는 임야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 및 시청과 협의 중에 있

다. 사당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훼손된 것을 재건립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도움을 받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심의위원들이 시찰을 나오는 등 사업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신세휴 재실 관계 아까 어떻게 됐냐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의정부 문화체육과 하고 그 지금 거의 다 협의돼 가지고 건축 허가를 지금 신청 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사당, 아니 재실, 재실. [면담자 : 재실이요?] 재실, 근데 지금 서류 조건이 조금 미비가 돼가지고 반려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저거(서류 정비)를 하는 중이고…….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당이 그 6·25 때 훼손이 되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급히 지을 수도 없고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 아니니까, 후에도 후에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당이 자꾸 이렇게 훼손이 되다 보니까 복원해야 되는데 그.

면담자 지금은 완전히.

신세휴 지금은 완전히 없어. 사당이 없어.

신영우 복원, 이번에 복원하라고 심의위원들이 오시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하면은 대학 교수님들, 그 심의위원장님도 오셔가지고 거의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복원을 갖다 시방 의정부시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복원이 되면은 이제 영정이 영인분이 있잖아요. 영인분을 일루 모실 거예요. 저희가, 그 영정 때문에도 빨리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동족 마을이 개발되면서 종친회 활동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발 부지로 수용될 경우 묘소의 이장과 위토의 소실은 불가피하다. 문중들은 묘소의 이장지를 찾거나 화장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고산동 역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독바위 필선공 후손들의 묘소 중 일부가 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묘소뿐만 아니라 위토도 수용이 되어 문중 재산의 형태가 경지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된다.

평양 조씨 현령공파의 경우, 조건의 기제와 시제 비용은 성남시 여수동에 위치한 위토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성남시가 개발되면서 위토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아 서울에 빌딩을 마련하고 임대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 평양 조씨 현령공 정노(廷老)의 묘소는 낙양동에 모셔져 있는데 일부 조상의 묘소와 위토가 개발 부지로 수용되어 묘소의 이장과 보상이 이루어졌다. 현령공

의 위토 중 논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며 수용되지 않은 묘소 앞 밭은 관리인을 두고 경작케 하고 있다. 관리인은 이 밭에 나무를 심어 파는 일을 하여 제수비용을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이 외의 제사상 차리기, 별초 등 전반적 관리를 맡고 있다. 수용이 된 이후 농지로 가지고 있는 위토가 많지 않아 위토에서 나오는 소득이 줄어 종종에서는 묘제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평양 조씨 문중은 민락동이 개발되면서 조건 선생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져 있는 자리도 개발 부지로 수용되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송산공중회에서는 유허비를 이전하지 않고 원래의 자리에서 보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에 협조를 얻어 유허비를 그 자리에 보존하며 주변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안을 건의하였고 시에서 이를 받아들여 유허비는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종호 송산에 민락동. 송산에 어- 송산에 가서 고사리나 뜯어 먹고 여기나 가야겠다. 그래 갖고 청계산에도 있을 곳이 못된다 해 가지고 인제 오신 거여. 들어오셨는데 어- 거기에 인제 그 유허비라고 있어. 그 양반이 그 은거하시든 유허비가 있다고, 거기서 은거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야.

면담자 지금도 그 비석이 서 있는 거죠? 자리에 가면.

조종호 비석이 있지. 그래서 그 지난번에 거기가 인제 송양초등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민락 2지구가 인제 인제 저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면담자 : 네네 개발이.]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유허비도 인제 [면담자 : 이전을 해야 되는.] 우리 종종 위토였었는데 그 땅이 응? 그것도 인제 수용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갖다 인제 우리 문중에서 LH공사하고 시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걸 옮기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는 거로 그것을 보존하면서 그 유허비 주변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지금 조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 그 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 거기 인제 송산 조선생 유허비 안내판, 안내판을 도로변에다가 인제 포천 방향으로 하나 세우고 포천서 서울 방향으로 하나 두 군데 세워준다고 그 담당 과장한테 엇그제 연락을 받았어.

이렇게 동족 마을은 해체되었거나 해체 예정이지만 그 후손들은 사는 곳은 달라도 종친회 활동을 통해 동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종친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행

사인 조상 봉사, 그중 최대 행사인 시제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조상의 묘가 위치한 동족 마을에 모이도록 한다. 마을이 개발되면서 조상 봉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묘소를 이장하고, 문중 재산인 위토도 처분하여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친회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조상 봉사를 계승하며 종친들끼리의 친목과 지역의 유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혜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여 백



시 발전과 함께 한 토박이들

1. 한국전쟁 전후 의정부 지역의 행정구역과 주요 시설

1942년 10월 1일 의정부는 양주면에서 의정부읍으로 승격되며 경기 북부의 유일한 읍이 되었다. 의정부읍은 1963년 시 승격 이전까지 11개 법정리와 15개 행정리, 36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¹ 그 중심지는 의정부리(議政府里)로 1953년 동구(東區)·서구(西區)·남구(南區)·북구(北區)의 4개 구로 나뉘었다가, 1956년 동구를 의정부1리, 서구를 의정부2리, 남구를 의정부3리, 북구를 의정부4리로 개칭하였다.² 의정부1리와 의정부4리는 군청·읍사무소·등기소·세무서·경찰서 등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였고, 의정부2리와 의정부3리는 토목관구(土木管區)·위생 공장·제사 공장·곡물검사소·산림조합·새끼 공장 등이 자리한 산업 중심지였다.

의정부리 남쪽에 위치한 호원리(虎院里)는 범골(虎洞)·다락원(樓院)·장수원(長水院)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죽 공장·경제유통센터·여각이 자리하였다. 녹양동 버들개마을 출신으로 녹양동장을 지낸 최경수(1928년생) 씨에 의하면 ‘경제유통센터’는 다락원에 위치하였는데, 개인들이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고팔거나 사채업

1 의정부시, 『제2회 통계연보』, 1964.

2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29쪽.

자들이 돈놀이를 하던 곳이라고 하였다. 장수원 바깥말에는 여각이 있어 서울을 왕래하기 위해 지나는 마차가 쉬어갈 수 있었다. 의정부리의 서쪽에 위치한 가능1리(佳陵1里)는 가재울(佳佐)과 윗선돌(上立石), 가능2리는 윗곧은골(上直洞)과 아랫곧은골(下直洞)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지역에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장흥에서 내려오는 산골짜기 물을 제방으로 막아 가둔 인공 저수지였다. 저수지 주변은 전부 논이었으며 이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었다. 이후 그 자리에 미군 비행장이 건설되었다.

그 밖의 장암리(長岩里)·신곡리(新谷里)·녹양리(綠楊里)·용현리(龍峴里)·민락리(民樂里)·낙양리(洛陽里)·자일리(自逸里)·금오리(金梧里)에는 행정기관이나 공장 등의 특별한 시설이 없는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암리는 동막(東幕)·윗말(上村)·아랫말(下村), 신곡리는 가래울(楸洞)·발곡(鉢谷)·능골(陵谷)·둔밤이(本菴夜)·새말(新村), 녹양리는 아랫선돌(下立石)·본녹양(本綠楊), 용현리는 만가대(萬家堡)·탑석(塔石)·어룡(魚龍), 민락리는 오목(梧木)·삼귀(三歸)·본민락(本民樂), 낙양리는 방화(芳花)·벌말(坪村)·궁말(宮村), 자일리는 귀락(歸樂)·쇠골(金谷)·본자일(本自逸), 금오리는 상금오(上金梧)·중금오(中金梧)·하금오(下金梧)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주요 시설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의정부읍 내에서 의정부리는 행정관청과 공장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는 중심지였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변두리의 촌으로 인식되었다. 민락동 본민락마을 토박이 김영태(1947년생) 씨는 “의정부동이 중심지이고 변두리 지역은 녹양동, 민락동, 용현동…….”이라고 하였고, 신곡동 추동마을(가래울) 토박이 이귀용(1926년생) 씨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백석면 복지리 흥복 등지에서 나무를 해다가 의정부 시내인 의정부리로 가져다 나무 땀감을 팔았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주민들이 의정부리가 중심지로서 다른 지역보다 발전해 있었음을 기억하는 증언이다.

한국전쟁 전후 이와 같이 의정부리를 중심으로 한 의정부 지역의 모습은 의정부동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발전 등으로 기본 토대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군의 주둔과 도시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변화하기도 한다. 1963년 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의정부의 발전과 변화는 항상 지역민과 함께하였지만, 그중에서 특히 토박이들의 생애를 통해 의정부가 어떠한 발전을 하였는지 살펴보



의정부시 퇴직 공무원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모습

고자 한다. 토박이들의 생애사는 의정부시의 성장과 함께한 삶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2. 미군의 주둔과 의정부의 발전

한국전쟁 이전부터 의정부는 경기 북부에서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한국전쟁 이후 의정부에 미 1군단 사령부를 비롯한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군에서 파생된 일자리가 생겨나고 물품이 보급되자 이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며 새로운 발전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귀용 왜 그렇게 발전을 했는고 하니 6·25사변 나가지고 전부 다 피난을 갔는데 피난에 갔다고 오니까 6·25사변 1·4후퇴 때 그때 사람들이 지방에서 전국에서 모여들어.

면담자 의정부예요?



캠프 스탠리와 인접한 뻬뻬마을

이귀용 왜 의정부로 몰려들었느냐?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돈 벌려고,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부대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거기 들어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관리하고 그냥 시방에서 모여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의정부가.

면담자 예전에 캠프 주변에는 민가가 엄청 많이 늘었었겠네요.

이귀용 많이 늘었지.³

외지 사람들은 미군에서 떨어지는 ‘똥(달러)’을 찾아 의정부에 모여들었다. 의정부 4동 파발막마을 토박이인 곽일준(1922년생) 씨는 미군 주둔이 의정부에 발전을 가져왔다면서 “똥이 떨어지잖아. 똥, 달러. 인원이 한 사람 있는 것보다 열 사람 사는 게 돈이 많이 떨어지지.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이 돈을 많이 풀잖아. 전국에서 돈 많은 데가 의정부야. 달러가 많이 나오잖아.”라고 하였다. 산곡동 독바위마을 토박이인 신세휴(1938년생) 씨도 “옛날에 여기는 지금 다 미군 부대 덕분에 다 먹고 살은 거여. 의정부

3 2013년 6월 21일 신곡동 이귀용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는. 그렇다고 봐야 돼.”라고 하여 미군 주둔이 의정부 발전의 한 원인이었음을 설명하였다.

미군 부대가 들어서고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을 고산동 빼빼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빼빼는 캠프 스탠리(Camp Stanley)와 이웃한 마을이다. 이곳은 류기정(1934년생) 씨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이 3채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었으나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군부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지인과 ‘양색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이 유입되었다. 빼빼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어 가장 많았을 때는 500여 명의 ‘양색시’가 있었다고 한다. 미군 부대와 관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빼빼에 거주하였으나 옆 마을인 검은돌마을에서도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대림산업에서 미군 막사를 새로 지으면서 검은돌마을에도 관련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다. 금오동 출신인 김진수(1963년생) 씨도 미군 부대에 취업한 아버지를 따라 의정부로 이주한 경우였다. 김진수 씨 아버지는 미군 부대인 캠프 에세이온(Camp Essayons)에서 소방 일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정부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군 부대에서 일하려는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가운데 토박이들도 미군 부대에서 일거리를 구하였다. 검은돌마을 류기정 씨 또한 한때 미군 부대 경비 일을 하기도 하였고, 독바위마을 신세휴 씨도 의정부역 앞에 위치했던 미 8군의 장비 용역 회사였던 비넬사(Vinnell社) 기술 계통에서 근무하였다. 이 회사는 미 8군의 장비를 지원받아 용역을 담당하였다. 신세휴 씨는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의정부 주민들이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생활을 영위했는지를 들려주었다.

면담자 의정부가 미군 부대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거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 들어지고 (그랬나요?).

신세휴 일자리도 많고, 그 지금 따져보면 60년대가 보니까 의정부에 그 미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한 2만 명 되었어.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근데다 거기에 또 뭐, 참, 뭐 장사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고, 그러니까 거의 다 그 6·25 나고 그 한 1965, 1966년도까지는 결국 10년 이상 미군들 때문에 생활했다고 봐야지. 거의 다.

면담자 여기 근데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국 일용품 같은 거 구하기가 더 쉽고 그런 것도 있었나요?

신세휴 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미군 부대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지. 그 혜택을 많이 봤지. 사실은. 그런 거야 뭐.

신영우 요새 수입장이 많아져가지고.

면담자 예. 요즘에 뭐 그렇죠.

신세휴 그때는 뭐 우리부터라도 거기에 의존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뭐뭐뭐 돈 어디 벌 데가 있어?

신영우 많았죠. 부대에서 많이 나왔지.

신세휴 거의 다 그것 때문에 먹고살았다 그래야 돼. 그때는. 농사짓는 건 뭐 그건 미비하고 그냥 거기 농사짓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뭐 돈벌이가 되는 거 미군 부대 위주로 돈벌이 하는 거야.

신영우 결국은 양색시로 하여금 많이 나오는 거야. 양색시가 물건을 많이 빼냈지.

신세휴 기지촌 가면 말야.

신영우 기지촌에 미군들.

면담자 여기 빼벌? 그쪽에 많았다고 (하던데요?). 옛날에.

신세휴 거 다 기지촌이야. 옛날에.⁴

의정부 주민 중에는 벌이가 마땅치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미군 물품을 불법으로 구매다가 내다 파는 일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귀용 씨는 당시 금오리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의류품(衣類品)을 내다 팔았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기지촌에서는 양말, 유엔 잠바 같은 의류품이 뒷거래되었는데 이귀용 씨는 이것들을 사다가 장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뒷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있었는데 이귀용 씨는 이러한 루트를 알아내 낮에 업자들을 쫓아가서 약속을 잡고 밤에 금오리 기지촌에서 나오는 의류품을 한 짐 사서 등에 짊어지고 산등성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런 날이면 집에 서울에서 온 장사꾼들이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장사꾼들은 이러한 의류품을 배 이상의 값을 주고 사갔기 때문에 곱절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⁵

또한 미군의 영향으로 의정부에서는 ‘미제 물건’을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4 2013년 6월 23일 산곡동 신세휴 씨 지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5 이귀용 씨와의 2013년 6월 21일 1차 인터뷰, 7월 4일 2차 인터뷰와 회고록 『내가 걸어온 발자취』(2005, 52쪽)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7년 군인 아버지를 따라 의정부1동으로 이주한 송진호(1955년생) 씨는 경찰청에 근무하던 외삼촌댁에 잠시 기거하게 되었는데 ‘미제 물건’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당시는 의정부에서 중류층 정도면 ‘다이알 비누’ 등 ‘미제 물건’을 흔히 사용하였는데,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며 신기해 하였다. 송진호 씨가 의정부중앙국민학교(현 의정부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보니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친구들은 “도시락 반찬도 소세지로 다르고, 쓰는 것(학용품)도 다르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김진수 씨는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가져왔던 물건 중 ‘빠다’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 주었다. 빠다는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기름을 빼서 굳혀 놓은 것으로 아버지가 빠다를 가져오면 동네 부인들이 서로들 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였다고 한다.

면담자 뭔가 아버님이 많이 갖고 오셨나요?

김진수 먹을 건 좀 가지고 오셨는데, ‘빠다’라고.

면담자 버터요? 아닌가요?

김진수 버터? (웃음)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면담자 네. 먹어봤어요. 이 동네서.

김진수 그게 원래 옛날에 이제 옛날에 미군 애들 먹던 게 나온 거였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아버지가 ‘빠다’를 한 통인가 두 통인가 갖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미군 애들 식당 삼겹살 기름 빠진 거 있잖아요. 기름 모아 놓은 거. 굳은 거 걸러야 하잖아요. 기름을 쭉 모아 놓으면 그게 굳으면. [면담자 : 굳어서.] 굳으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걸 인제 갖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 그 당시 소고기를 많이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깐 지금 말하면 버터라고 해야 하나 약간 틀린데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굳은 건데 그걸로 쉰 김치 [면담자 : 네. 볶아서.] 볶아 먹으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이거였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풀일 때 그거 넣으면 맛이 그냥 환상적이죠. 그럼 이제 아버님 갖고 오시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달라고 서로. [면담자 : 노나.] (웃음) 우리 어머니가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면담자 : 재밌네요. ‘빠다’.] 그때 이름이 ‘빠다’ 였어요. [면담자: ‘빠다’ 라고 했어요?]

김진수 김치찌개 풀일 때도 이걸 그냥 넣어서 드시고.

면답자 밥 비벼 먹을 때 뭐 다 썼어요. 밥 비벼 먹을 때, 김치 볶아 먹을 때, 뭐.

김진수 감칠맛이나요? 기름? (웃음)

면답자 그 당시 그거는 뭐 거의 환상적이죠⁶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주둔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를 증가시키며 시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둔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물건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고급으로 인식되었던 '미제' 물품과 부대 부산물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주둔은 군사도시(전쟁), 기지촌 등 의정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고 도시 곳곳에 위치하는 미군 기지가 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3. 도시 개발 사업-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⁷

의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외지인이 유입되고 여기서 파생된 산업이 발달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며 도시의 현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 발전 저해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 때문에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노력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군사시설 중 하나가 의정부2동 일대의 탄약기지이다. 탄약고와 미군 시설은 시가지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도심의 불균형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의정부2동과 호원동 일대 약 45만 평의 탄약기지 부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군에서 징발하였다가 1970년 1월 1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가에서 원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증권으로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정식으로 사용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우

6 2013년 6월 12일 서울 가산동 김진수 씨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7 본 원고는 의정부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1995년 발행한 「의정부신시가지조성사 1981~1995」와 미군 기지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 사업 당시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던 의정부 토박이 광일준 씨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하였다.

선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980년대 추진된 신시가지 개발 사업은 탄약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주택과 행정시설로 개발하고자 계획한 사업이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시가지를 개발 후 공용 용지를 뺀 나머지 토지를 환매하되, 미군 부지 원소유자들이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계획되었다.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1980년 제12대 심대평 시장의 부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심대평 시장은 청와대와 군 관계자들에게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홍우준 제11대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협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원하여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심대평 시장과 홍우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1981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과 의정부시장 간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합의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정부 시내 소재한 육군 시설에 대하여 육군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시 부담으로 대체 시설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의정부시가 기부한 이후 지체 없이 육군 시설 부지를 의정부시에 양여한다.
- 국방부는 군용 토지는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증권 매수지는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매하며, 의정부시는 군 소요 부지를 의정부시 부담으로 확보 후 국방부에 기부 채납한다.
- 군부대 이전은 군이 제시한 설계 기본 요건에 의해 설계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국방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한다. 육군은 이전 지역의 부지를 선정하여 의정부시에 제시하고 완공되어 이전 시설에 대한 법 절차가 끝났을 때 지체 없이 군부대 이동을 실시한다.

합의 각서 체결 이후 신시가지 개발의 첫발은 1981년 5월 21일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과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기관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홍우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지주 이사 4명, 기업체 3곳(조흥은행, 삼양사, 교육보험), 중소기업주 3명, 정책자문위원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국방부의 군 대체 시설

이전 부지 문제, 즉 산림청 대토 매수 사업이었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이전 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 산림청은 의정부시의 매수 요구에 해당 지역이 시험림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정부시, 산림청, 국방부 간의 3자 협의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자 결국 청와대가 개입하여 마침내 산림청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조건은 의정부시에서 산림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97.5ha에 이르는 산림청의 대토를 확보하고 도로, 감시사, 전기 등의 시설비 및 시험목 이식비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미군 기지 이전은 국방부의 이전 계획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이를 해제해야 하였다. 게다가 미군 기지 이전 공사에 미군은 과도한 이전 설비를 요구하였다. 미군은 미국산 자재 사용과 미국식 건축 공법을 주장하여 의정부시가 산정한 이전 비용과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미군 당국과의 끈질긴 협의 끝에 1986년 5월 22일 최대한 국산 KS품 사용 국내 공법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원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걷는 것이었다.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정발 재산은 군사상 목적이 15년이 경과해도 계속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에 토지를 영구히 귀속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탄약고 자리인 군사시설 점유 토지는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86년 2월 28일 시효가 소멸되어도 원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환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13일 의정부시와 국방부 간에 군 시설 이전 합의 각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환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합의 각서 체결 시 환매권 문제를 의정부시의 책임하에 해결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법 절차에 따라 의정부시에 양여하는 조건을 두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군 시설을 이전 이후 원토지 소유자들에게 해당 부지에 대한 환매를 해주기로 하고, 원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최초 부담금은 1981년 5월 21일 열린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평당 5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미군 이전 기지 설계가 완료된 1984년 3월 7일 2차 정기총회에서 4만 원 증액되어 평당 9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1982년 4월 20일 도시 개발 사업이 도시과에서 사무국으로 이관되면서 부담금 수납



의정부시청

과 수납된 부담금을 시에 전달하는 일은 사무국의 주 업무가 되었다. 곽일준(1922년생) 씨는 당시 사무국장을 맡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의정부에 지역구를 둔 홍우준 국회의원과 당의원, 부위원장 등 신시가지 개발 사업의 중심인물들은 이 일의 책임자로 곽일준 씨를 추천하였고, 홍우준 국회의원이 직접 곽일준 씨를 몇 번이고 찾아와 함께해 줄 것을 청하였다. 곽일준 씨는 이에 응하여 신시가지 개발 사업 전반에 관여하여 12년간 이 사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업은 원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부담금을 거둬야 추진할 수 있는데 원토지 소유자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혹은 몇 단계에 걸쳐 토지 환매권을 매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원토지 소유자들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도 이전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사업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당 9만 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원토지 소유자들의 반응에도 미납자들에게 수시로 독촉장을



시청에서 바라본 신시가지

발부하여 환매 시효 소멸 시점인 1986년 2월 28일까지 무려 23회에 걸쳐 독촉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은 미납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국을 뛰어다니는 등 수납을 위해 전력투구하여 전국 안 가 본 데가 없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효 소멸 시까지 환매 신청 결과, 환매 대상자 중 공원 지역 편입, 환매권 상실, 토지대장 착오 등을 제외하고 부담금 미납 4건 8,190평을 뺀 19만 8,476평이 환매 처리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미납 4건 8,190평은 결국 1건 130평을 제외하고는 해체소위원회에서 주관한 소송을 통해 징수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받아낸 부담금은 관리를 엄격하게 하였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곽일준 씨는 100원을 지출하더라도 도장을 10번 받아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사무국장인 곽일준 씨가 결재를 하고 그 다음 총무, 도시계장, 도시과장, 부시장, 국장, 시장 등 8명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미군 기지 이전 공사는 1984년 4월 3일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그때그때 사무국이 부담금을 수납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척시켜, 1987년 9월 모든 공사

를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미군이 떠난 부지를 이용한 신시가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시에서는 이곳에 택지조성 공사와 가로 및 배수로 축조 공사,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공장, 학교, 하천과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많은 공공기관 용지를 계획하였다. 신시가지 조성 사업의 특징은 주거지역과 함께 공공시설 집중 지구를 개발하는 데 있었다. 즉 기존 구획정리 사업이 주택 보급을 위주로 한 사업인 데 반해 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행정타운 조성을 위주로 한 구획정리 사업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사이 신시가지에 새롭게 자리 잡은 행정 시설은 지구 서쪽에 자리한 시청(1987. 11. 26 착공~1989. 9. 24 완공)을 필두로 보건소(1992. 3. 2 착공~1992. 12. 27 완공), 경기통계사무소 의정부출장소(1990. 7 개소, 1996. 1 현청사로 이전, 2009. 1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로 개칭), 소방서(1994. 2. 15 착공~1995. 2. 4 완공), 의정부2동우체국(1994. 12. 30 개국),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1992. 11. 12 개소, 2010. 2. 25 양주시 덕계동으로 이전 및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칭), 한국감정원 의정부지점(1991. 5. 30 개점), 한국통신 의정부전화국(1989. 5. 22 개국, 2009. 6 KT의정부지사으로 개칭) 등이 있다. 복지시설은 노동복지회관(1993. 1. 7 개관), 종합복지회관(1989. 12. 20 착공~1990. 10. 20 완공), 장애인 복지회관(1990. 11. 30 개관), 향군회관(1989. 12. 21 개관), 청소년복지회관(1994. 1. 7 개관), 경기도북부여성회관(1989. 11. 21 착공~1990. 12. 5 완공) 등이 들어섰다. 그리고 의정부서초등학교(1989. 3. 2 개교)와 의정부서중학교(1990. 3. 1 개교)가 늘어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개교하였다. 또한 미관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청소년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회룡문화제 및 각종 백일장 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신시가지 개발 사업은 그간 소외되어왔던 서부 지역을 개발하였다는 점, 시청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배치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점, 주택 보급률이 증가했다는 점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신시가지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는 지하 차도 및 지하상가를 설치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구시가지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까닭에 서부 지역에 신시가지 조성하고도 동서로 다니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에서는 의정부역을 기준으로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 차도 건설을 계획하였다. 도시개발위원회 이사회는 지

하 차도 건설을 시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시는 건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주저하였다. 이에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설계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2년 지하 차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하상가도 전액 민간투자자로 유치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4. 농업 분야의 발전

시 승격 당시인 1963년 시의 농업 규모를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 6만 2,239명 중 농가인구 9,677명으로 전체 대비 15.5%, 전체 가구수 1만 1,642호 중 농가가 1,536호로 전체 대비 13.2%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⁸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 의정부에 살았던 이들이 기억하는 의정부에는 의정부리를 제외하고는 대개 농지가 많았다. 류기정(1934년생) 씨는 신곡동 지역이 전부 논이어서 겨울이면 물을 대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놀기도 했다고 하였다. 김영태(1947년생) 씨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광흥시장 들어가는 그 일대가 다 논이었어요. 중랑천 옆으로. 6·25사변 나고 나서 이렇게 제방 뚫 뒤에다가 판잣집 짓고 그 밑에 미나리 심고.”라고 하였다. 도시화가 된 의정부 시내와 가능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농지 비중이 높았고, 송산동, 녹양동, 가능동, 자금동 등이 농촌이었는데 특히 송산동(민락동, 낙양동, 용현동, 고산동, 산곡동) 쪽에 농지가 많았다.

김영태 씨는 의정부 민락동 토박이로 본민락마을에서 태어나 의정부종합고등학교(현 의정부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김영태 씨가 제일 처음 발령을 받은 지역은 양주군 수동면이었으나, 1974년 가능3동을 시작으로 의정부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1975년 9월 시청에 발령을 받고부터 2005년 송산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농업직으로 근무하였다. 김영태 씨는 농업직 공무원이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8 의정부시, 『제2회 통계연보』, 1964.

면담자 농업직이면 어떤 일을 하나요?

김영태 농업에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지도를 하는 데고 농업직은 기술 지도 잘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책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술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다음에 농사를 잘 짓게끔 농민들을 똑같이 뭐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보내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뭐.⁹

김영태 씨가 1974년 의정부시 공무원으로 발령받았을 당시는 정부에서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증산에 힘쓰던 때였다. 김영태 씨는 1975년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식량 증산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고 기억하였다. 그 당시 자급자족은 국가적 과업으로 농업직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증산을 위해 힘을 쓰던 일종의 ‘조장행정(助長行政)’을 하던 시절이었다. 증산을 위한 통일벼의 보급, 퇴비 장려, 병충해 방제 등의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는 농촌지도소와 농업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면담자 농촌을 방문해서 훈련을 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그쪽(농업직 공무원)에서 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김영태 워낙 먹고살기가 힘들 때니까. 에- 행정기관이 총출동 되가지고 농민을 교육시키는 ‘조장행정’을 했지요. 그게 바로 행정적인 역할인 거예요. 행정직이고 무슨 직이고 전부가 먹고살기가. 처음에 자급자족이 안되니까 통일벼 재배를 하려면 통일벼 종자 확보서부터 단계별로 거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못자리를 하는 과정서부터 모내기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다 수확을 할 것이냐 해서 규격 못줄을 이용해 모를 내야 하는데 못줄로 모를 내려면 몇 치 짜리 몇 센치(cm) 짜리 못줄을 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그 행정적으로 투어를 한 거죠.

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보급해야 할 농업기술을 교육시키고 각각 담당 마을을 배정

⁹ 2013년 6월 11일 의정부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하였다. 교육은 보통 월례 조회 때 하였지만 특별 교육을 계획하여 담당 공무원이 강당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마을에서 추진한 사업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마을 담당 공무원은 “당신이 게을러가지고 거기(마을) 가서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당신이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농민들이 쫓아오지 못한 거 아니냐.”는 등의 질책을 당하였다. 그리고 시·군별 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시장·군수가 꼴등을 하는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몇몇 공무원들의 경우 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강압적으로 농민들에게 강요하기도 하였다.

면담자 직접 마을 현장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퇴비 증산하세요 통일버하세요.

김영태 그러니까 나는 “통일버가 맛이 없어서 못 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일반 벼는 못 심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볍씨를 담가 놔서 심으려고 하는 것을 씨를 못 뿌리게 한다든지 못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벼를 심지 못하게 못자리를 밟아 놓는 사람도 있었구요. 뭐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이니까 그게 통했었어요.

식량 증산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통일벼 재배를 적극 장려하였다. 통일벼 이전의 생산량은 단보(300평) 당 250kg 즉, 80kg 가마니로 3가마 조금 넘는 정도였으나 통일벼는 그보다 2배가 많은 400~500kg 가량의 소출이 났다. 중앙 정부에서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종자 보급뿐만 아니라 모내기 기술에서도 못자리 과정, 못줄로 모내기를 할 때 줄 사이 간격(줄 사이 한자, 포기 사이 15cm), 한 평당 들어가는 주수 등 농업기술을 지도하였다.

중앙 정부는 통일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 다수확 증산왕을 선발하여 통일벼로 단보(300평) 당 600kg 이상을 재배한 농민에게 상을 수여하였고, 퇴비를 많이 생산한 마을 혹은 개인에게도 시상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벼의 보급이 시들해진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의정부시에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했던 업무 중 모내기 지원이 있었다. 모내기는 적기에 물과 노동력을 한꺼번에 공급하여야 하는 농사 단계로 제때 모를 내지



시 공무원들의 모내기 지원(1980년대)

못하면 많은 소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논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김영태 씨는 모내기 지원 시 노동력의 공급과 용수 공급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의정부에서는 1980년대 전라도에서 올라온 일꾼을 고용하여 모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고”, “시기를 다투는” 모내기 시기에는 의정부 소재 학교 학생, 군 인뿐 아니라 미군(AFKN 방송국), 의정부 인근 중앙 부서(감사원, 행정자치부, 치안부, 경찰청) 직원 등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하였다고 한다. 초등학교생들까지도 수업의 일환으로 모내기 작업에 동원되었으며, 심지어 논두렁에다 콩을 심는 논두렁 콩 재배 사업의 경우 일손이 부족하여 빼빼ل 가지촌 여성들까지 불러다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모내기는 논에 물이 공급되어야 가능한데 수리 시설이 부족한 의정부에서는 모내기 때 물을 공급하는 것도 농업직 공무원의 일 중 하나였다. 당시는 “밭보다 논 값이 더 비싸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벼를 심을라고” 하였다. 그래서 4단 양수 작업으로 물을 대기도 하였다. 4단 양수는 “송산 만가대 쪽에서 영석고등학교를 넘어서 의정부초등학교 앞까지 물을 끌어오는” 사업이었다. 김영태 씨는 생산 면에서 효과는 없지만, 그렇

게 해서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의욕을 고취시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다.

의정부시에서는 이와 같은 쌀 증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특산물로 유명한 송산배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도 힘을 기울였다. 송산배 농가의 교육을 위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가서 선진 기술을 배워오고 시 자체적으로도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중 하나가 배의 색탁(色濯)을 좋게 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김영태 씨는 공무원 생활 말년에 배의 봉지 색을 검정, 노랑, 빨강 등 다양하게 하여 어떤 색의 봉지를 씌웠을 때 배의 색탁이 가장 좋은지를 실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송산배의 육성 노력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한 민간 관계자는 그동안 의정부시가 송산배에 기울인 노력은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송산배 육성에 투자를 많이 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영태 씨는 송산배 육성에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 신고배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극조생종(가장 빨리 생산된 종) 묘목을 심어야 한다는 것, 지베렐린(gibberellin)¹⁰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 지역의 배와 차별화를 꾀할 것 등이다.

면담자 그래도 충분한 뒷받침을 못 해줬지만 그래도 송산배가 많이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김영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송산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안됐는데, 송산배가 주로 이제 다른 지역 배하고 똑같아서 신고배가 위주로 재배되고 있어요. 신고배는 다른 데도 똑같이 다 나오는 배입니다. 그래서 송산배가 다른 배보다 특별하려면 아주 조생종을 심지 않으면 안 된다. 조생종은 황금배라든지 원앙배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추석 때를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신고배 위주로 재배하니까 추석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송산배 당도는 다른 데보다 크지 않아도 좋게 맞출 수가 있게끔 하면 되는데, 조생종을 내보내야 한다. …… 근데 다른 데서 올라오는 배들이 지베렐린(지베렐린) 처리를

10 지베렐린은 식물 호르몬의 하나로 고등 식물의 생장과 발아를 촉진하며 농작물의 증수나 품질 개량에 이용한다[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http://www.doopedia.co.kr>)].

한다고요. 그런 틈새시장을 이용을 하면 돼요. 우리는 지베레린 처리를 안 한다. 그래서 섶탁이 원래 고유한 섶탁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저-저-홍보를 하면은 먹혀 들어갈 수 있는데.

5. 시설의 확충-의정부문화원과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신시가지가 행정타운으로 개발되면서 행정 시설이 신시가지로 신축 이전하거나 새로 개조하였고 비슷한 시기인 1989년 의정부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의정부의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들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이러한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였다. 의정부시는 1995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신시가지에 개소한 시민회관, 노인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등 시 소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이 절에서는 신곡동 추동마을(가래울) 토박이 이귀용 씨가 주도한 의정부문화원의 설립과 민락동 본민락 토박이 조종호 씨가 참여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정부문화원의 설립

의정부문화원은 의정부가 양주군에 속하던 시절인 1958년 6월 1일 의정부읍 의정부리 271번지에 양주문화원을 설립한 것이 그 시초이다. 설립자는 이성준(李成俊)으로 미국 공보원과 공보부에 문화원을 등록하고 미 1군단 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개원하였다. 1963년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자 양주문화원은 의정부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부1동 188번지에 40평 규모의 단층 슬래브(slab) 건물을 지어 1964년 10월 1일에 준공 이전하였다. 그러나 의정부문화원은 개원한 지 10년 만인 1968년 12월 재정난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모든 시설을 시에 인계하고는 자진 폐원하였다.¹¹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의정부시에는 문화원이 없다가 시정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이귀용(1926년생) 씨의 문화원 설립 발의를 통해 재건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면담자 그 문화원장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문화원을 아까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이귀용 아 문화원은 의정부에 문화원이 없으니까, 이 - 저 - 순춘한의원에 가서 원장하고 나하고 친구야, 돌아갔지만, 지금은.



신곡동 추동마을 토박이 이귀용 씨

면담자 어느 한의원(이요?),

이귀용 순춘한의원. 그 원장이 얘기. 얘기하다 보니까 의정부에 문화원이 없어. 그 문화원을 하나만 들어야겠다 그랬지만 거기서도 좋다고들 그래. 그래 문화원을 그 시청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얘기가. 그래서 문화원을 신설을 하게 된 거야. 내가.

면담자 그래도 그게 시의 지원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이귀용 맞아.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면담자 그것도 선생님께서 이게 필요한 거 같다고 시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시고 [이귀용 : 그럼.] 동의를 구해서 [이귀용 : 그렇지.] 하게 되신 거예요?

이귀용 아니 시에서 내가 시정자문위원이거든. [면담자 : 아, 네네.]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내가 일어나서 발의를 했어. 의정부에는 아직 문화원이 없다. 불모지다. 동두천도 있고 양주군도 있고 그런데 의정부만, 유독 포천도 있고 그런데 의정부만 유독 유난히 없으니 의정부에도 문화원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죄다 좋다. 오케이. 그래서 인제 오케이 했는데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그럼 누구를 회장 문화원장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 날보고 하라 이거야. 그렇게 된 거야.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면담자 어, 그렇구나.

이귀용 그래서 문화원장이 된 거야.

이귀용 씨는 당시 경기 북부의 다른 지역에는 문화원이 있는데 의정부에만 없는 것을 보고 문화원을 설립할 것을 의정부시에 건의하고 설득하였다. 의정부문화원 설립을

11 의정부시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의정부신시가지조성사 1981~1995』, 1995, 164쪽.

발의하고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귀용 씨는 회고록 『내가 걸어온 발자취』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¹²

우리 의정부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풍부한 고장이면서도 6·25의 참화와 미 기지촌의 굴레에 눌려 문화의 불모지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고장은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이며 통일을 향하는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를 새롭게 창출하여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하겠다고 나는 늘 생각해 왔었다.

일찍이 공자(孔子)님께서서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씀을 하셨다. 그 내용은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지식을 배움으로써 오늘을 사는 지혜를 터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옛 것을 소홀히 여기고, 선현들의 훌륭한 업적까지 도외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나는 아무쪼록 우리 고장의 젊은이들은 고장의 전통문화를 익혀서 선현들의 빛나는 얼을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정부문화원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

1989년 4월 6일 의정부시청에서 이귀용 씨를 중심으로 34명의 발기인이 참가한 가운데 의정부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의정부문화원은 「지방문화 조성법」을 근거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향토문화의 창달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등 지역문화 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1989년 5월 19일 의정부시청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문화원장에 이귀용, 부원장에 김창환, 박종휘 씨를 선출하였고 1989년 12월 23일 문화공보부 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의정부문화원이 출범하게 되었다.¹³ 이후 1991년 10월 향토문화 교육원 및 연구소가 개설되었으며, 뒤따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부와 같은 각종 문화단체들이 생겨났다.

이귀용 씨는 문화원 설립 시 양주와 포천의 문화원을 시찰하며 자문을 구하였다. 동의는 얻었지만 문화원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자 이귀용 씨는 3차에 걸쳐 기부금을 납부하였다. 1차 1억 원을 문화 기금으로 기부한 뒤에도 예산이 없어 “쨍쨍 매는 것”을 보고 2차 1989년 500만 원, 3차 1993년 500만 원을 사업 기금으로 기부하

12 이귀용 씨의 회고록 『내가 걸어온 발자취』는 1995년에 정리 및 집필한 것을 이귀용 씨가 팔순을 맞은 2005년 개인적으로 출간한 것이다. 회고록에는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과 사회봉사 활동 그리고 개인사 등이 정리되어 있다.

13 의정부시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의정부신시기지조성사 1981~1995』, 1995, 1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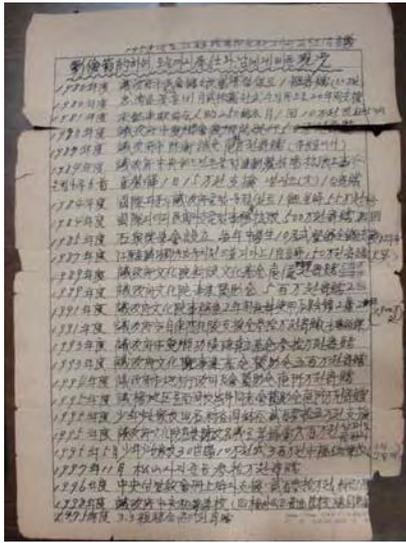


의정부문화원 개원식

였다. 이후 시에서는 문화원의 1년 예산으로 4,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초창기 문화원은 원장 이귀용 씨,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으로 운영되었다. 문화원 사무실은 의정부시민회관의 3명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간이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이귀용 씨는 1991년 본인 소유 건물인 석천회관 2층의 사무실 두 칸을 터서 2년간 무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의정부문화원은 설립 이후 전통문화의 계승과 향토문화의 창달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등 지역 문화사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향토 민속놀이와 풍속놀이의 개발 및 전승, 향토 자료집 발간, 문화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매년 가을마다 회룡문화제를 개최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귀용 씨는 의정부문화원 설립 이후 현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전신인 문예회관을 설립하는 데도 관여하였다. 1993년 11월 2일 의정부문화원에서는 문화부 장관을 초청하였으며, 1994년 4월 7일에는 이민섭 문화부 장관이 의정부문화원을 방문하였다. 이 자



이귀용 씨가 1971~1998년 의정부 지역사회에
기부한 내용을 작성한 기부내역

리에서 이귀용 씨는 의정부문화회관의 건립을 요청하였다. 이귀용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그랬더니(요청을 했더니) 장관도 머리에 그게 딱 들어와 있었던 거야. 현장에서 문화국장 이리 줌 와. 같이 대동하고 왔으니까. 문화국장 의정부문화회관 짓는데 예산이 있나 없나.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 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의정부문화발전기금 명목으로 회관 건축금을 지원받아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2) 기초자치단체 최초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민락동 본민락마을 토박이 조종호(1938년생) 씨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조종호 씨는 1995년 동장에서 퇴임한 지 사흘 만에 당시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신중대 시장은 1995년 1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을 세웠는데, 경영수익 증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경영수익 발굴 사업과, 공영주차장 및 시민회관·노인복지회관·노동복지회관 등 시 소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었다.¹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시에서는 조종호 씨에게 계장 5명을 지원해 주었고 3개월간 노력하여 1995년 9월 1일 내무부에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종호 씨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조종호 씨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자신의 공무원 생활과 의정부시 차원에서

¹⁴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5권, 2004, 285쪽.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면담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라든가 선생님 했던 일 중에, 그런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종호 의정부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거기고,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가 처음 탄생한 거야. 의정부가 최초야. 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탄생한 것은 의정부시가 제일 처음이야. 주차관리공단은 인제 부신은 주차관리공단 있었구 강원도 춘천에 주차관리공단이 있었지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탄생한 거는 의정부가 처음이야. 최초야. 어? 우리나라에,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설관리공단 거기가 인제 시설관리공단이구 우리나라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의정부까지 해서 세 개밖에 없었어. 기초자치단체에 (의정부) 하나 하고, 대구 하고 서울 하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세 개밖에 없었어. 어? 그러니까 95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람 있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 후에 그 후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니까는 그 나름대로의 인제 시의원들 있었아. 시의원, 기초자치단체 시의원들이 여기서 하던 사람이 안양시 여기서 인제 추진하던 분이 신중대 시장님이었는데 인제 그때는 관선 시장이었구. 민선 시장이 되다보니까, 이 분이 저 성남 부시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양 부시장으로 갔어, 안양 부시장으로 가서 이 분이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을 그 정도로 인제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는 안양시도 만들어야 되겠다 안양시에 가서 주장을 한 거야. 그때부터 안양시에서도 인제 그때 당시는 내무부니까 내무부 공기업과에 가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러 가니까 무조건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 가지고 나는 인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물어보면 오면 그거 브리핑(briefing)하는 게 내 한 달 일이었었다구. 그래서 지금 예술의전당 박병수 부장 그 친구 하구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인제 그 규정을 책자로 만들었어,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인쇄를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인제 물어보러 오면은 그거 한 권씩 줬어. 이대로만 해라. 이대로만 하면 된다. [면담자 : 정리한 자료를.] 워정권이고 거기에 인사 규정이고 보수 규정이고 모든 관계 규정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어. 문서를 해서 보관하고 아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들(덜)하게 그거 줘라. 포천시에 지금 문화원장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 친구가 포천시에서 기

회관리실장 할 때 그 친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맨들라고 나한테 자문을 받으러 왔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이대로 하라고, 포천시도 그렇게 만들었어. 지금도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 다. 심지어 서울에 그 각 구청에 각 구 단위에 시설관리공단.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광역 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니끼는 거기 가서 물어봐도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의정부. 그러니까 뭐 강남구청에서 오질 않나. 뭐 다 와서 다 가르쳐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거야.¹⁵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모델이 되었다. 이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이후 관련 규정 자료집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도움을 주었다.

조종호 씨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창립 멤버들은 3개월의 설립 기간 동안 모든 과정과 절차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립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시설관리공단 답사를 위해 서울, 대구 등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찾았다. 조종호 씨는 “여기는 큰 도시고 의정부는 여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걸(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겠는데 자세히 좀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었다. 이후 주차 관리 운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산주차관리공단과 춘천주차관리공단을 견학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초창기 공영주차장 21개소와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였다. 이후 1996년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로 이관되었고, 종합복지회관은 공립 새시대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 1997년 한가족쉼터, 1998년 직동수련원, 2001년 의정부예술의전당, 2003년 의정부 실내빙상장 및 스포츠센터를 추가로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¹⁶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현재도 전국적 모범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의정부의 농정, 신시가지 개발 사업, 문화원 및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등 의정부 발전

15 2013년 6월 15일 의정부 제일시장 근처 학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16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5권, 2004, 285쪽.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 빙상장

에 공헌한 공무원 출신 토박이들은 읍면동장출신동지회와 지방행정동우회 모임을 유지하며 은퇴 이후에도 친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정부 지역 퇴직 공무원 단체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읍면동장출신동지회는 의정부와 양주 출신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귀용 씨는 읍면동장출신동지회 회장을 12번 역임하여 현재까지 24년째 맡고 있다. 이귀용 씨가 처음 회장을 맡았을 당시 회원은 40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27일에 월례회의를 가지고 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의정부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했거나 타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더라도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면 가입 자격을 준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모임을 가지고 있다.

김혜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학교 동문들의 고향 이야기

1. 초등학교 생활 - 오랜 역사와 명성의 의정부중앙초등학교

의정부중앙초등학교는 1895년(고종 32)의 칙령 145호 「소학교령」에 의거하여 1896년(고종 33) 9월 20일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개교한 양주공립소학교를 전신으로 한다. 이후 1906년(광무 10) 9월 1일 양주공립보통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19년 8월 27일 의정부리 224번지(현 호국로 1291번길 17)로 이전하였다. 이후 1938년 4월 1일 양주공립심상소학교로, 1941년 4월 1일 양주공립국민학교로, 1950년 6월 2일 양주국민학교로, 1964년 12월 30일 중앙국민학교로, 1996년 3월 1일 의정부중앙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¹ 80~90대 구술자들은 대개 양주공립보통학교 등의 교명을 사용하던 1930~194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다.

일제강점기에는 양주군 각 면마다 보통학교가 한 개씩 있었으나, 대부분 4년제였다.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6년제 학교를 나와야 했는데, 당시 양주군의 유일한 6년제 학교가 유양리에 위치했던 양주공립보통학교였다. 따라서 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잘사는 집안 학생들은 양주공립보통학교에 다녔다. 동두천, 회천읍 덕정리, 노해

¹ 의정부중앙초등학교 · 의정부중앙총동문회, 『의정부중앙100년사』, 1999.



양주공립국민학교 조회(1941년)

면 창동에서는 경원선 기차를 타고, 남면, 백석면, 광적면, 주내면, 장흥면, 별내면에 서는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였다. 녹양동 버들개마을 토박이인 최경수(1928년생) 씨는 파주에서도 통학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하였다.

신곡동 추동마을(가래울) 출신인 이귀용(1926년생) 씨는 9세까지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을 다니다가 10세에 양주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당시 서당에는 신곡동 가래울 뿐만 아니라 능골, 새말, 발이술리에서 학생들이 왔으며 12명 정도가 함께 공부하였다. 수업료는 1년에 벼 한 섬(쌀 한 가마)을 지불하였다. 큰아버지는 보통학교 진학을 반대하였으나 이귀용 씨는 고집을 꺾지 않고 학교에 진학하였다.

이귀용 씨가 보통학교에 진학했을 때 1학년은 두 개 학급이었고 학급당 학생 수는 72명이었다. 1학년은 의정부리와 인근 학생들이었고, 2학년은 노해면 창동, 회천읍 덕정리, 동두천 등 의정부 외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었다.

의정부중앙국민학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 의정부 내 취학 대상자들이 진학하고 싶었던 학교이기도 했다. 김진수(1963년생) 씨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미군 부대가 있던 금오동이 고향으로, 집과 가까운 금오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금오국민학교에는 김진수 씨와 같이 군부대에서 일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1/4 정도가 다녔고 인근 고아원 출신도 많이 다녔다. 3학년 2학기가 되자 김진수 씨의 어머니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금오동 개울 건너 의정부동으로 이사하였다. 의정부동의 생활환경은 이전에 살던 금오동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동별 텔레비전의 보급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김진수 (웃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그 금오동 살 때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한 집밖에 없는 거예요. 동 전체에. 금오동. 하금오동 거기 꽤 많은 집들이 살 거 아니에요?

면담자 거기는 그럼 농촌은 아니에요?

김진수 농촌은 아니구요. [면담자 : 아니구요?] 근데 텔레비(텔레비전)가 있는 집이 딱 한 집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만 해도 유명했던 게 '타잔'.

면담자 '타잔'. 아-.

김진수 '타잔' 그 주말인가 토요일에 볼려면 그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고 뭐고 어른이고 뭐고 다 모이면 그때는 저 앞에 하나 있으면 거기에 요만한 쪼만한 놈들 저 같은 애들 거기 짝박 앉아 있고, 몇십 명씩 앉아 있고.

면담자 몇십 명이요? (웃음)

김진수 그럼 뒤에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 다음에 뭐야 어른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떠들면 나가라고. (웃음)

면담자 떠들면 나가라고 그래요? (웃음) 그 의정부중앙초등학교 갔을 때 약간 문화적 충격이 있었겠네요?

김진수 거기는 뭐 갔더니 거의 집집마다 텔레비(텔레비전)가 많이 있었죠.

면담자 집집마다요?

김진수 네. 다는 아니었지만 많이 있었죠.²

김진수 씨는 전학 시 배영국민학교와 의정부중앙국민학교 중 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역사가 오래되고 학교 규모가 컸던 의정부중앙국민학교를 선택하였다. 김진

2 2013년 6월 12일 서울 가산동 김진수 씨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수 씨는 의정부중앙국민학교로 전학을 가서 금오동과는 다른 ‘도시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의 외모와 복장 그리고 도시락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면답자 이 당시에는 웬만하면 초등학교에는 다 갔죠?

김진수 다 갔죠. 학교 가면 그 당시에 빵을 줬어요.

면답자 빵을요? 무상으로?

김진수 무상으로.

면답자 점심으로 주는 건가요?

김진수 빵을 줬어요. 요런 빵인데 딱딱한 빵이었는데. 빵 먹으러 학교 간다고.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주니까. [면답자 : (웃음) 그랬던 기억이 나오.

면답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는 규모가 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전학을 갔더니.

김진수 컸죠. 여기는(금오동) 시골이라고 느끼는 거고, 거기는 완전 도시죠. 애들 생긴 것도 [면답자 : 아 틀려요(달라요)?]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도시락 싸오는 것도 틀리고, 거기는 도시락 싸오는 친구가 몇 명 없었어요. [면답자 : 금오초등학교예요?] 거기는 갔더니 뭐 과자도 갖고 오는 놈, 사이다도 갖고 오는 놈. 그리고 학부모들이 있는(형편이 넉넉한) 집은 자기네 반(반에) 아들 잘 보달라고 그랬겠죠. 어머님들이 빵 돌리고.

송진호(1955년생) 씨는 국민학교 6학년 때인 1967년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경기도 양평에서 의정부1동으로 이주하여 의정부중앙국민학교로 전학을 왔다. 당시 6학년은 8학년이었고 학급당 학생 수는 70명 정도였다고 한다. 송진호 씨는 당시 의정부 시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의정부중앙국민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정부중앙국민학교를 많이 부러워했다고 기억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의정부중앙국민학교를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비유적으로 ‘하얀 고무신’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한다.

2. 중·고등학교 생활- 교육의 중심지에서의 학업과 학창 생활

1) 서울 학교로의 진학

80대 이상의 구술자들의 경우 양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70대 이하부터는 중학교 진학을 두고 의정부에 남느냐 서울로 진학하느냐의 선택에 놓였던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산곡동 독바위마을 출신인 신세휴(1938년생) 씨는 별내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서울로 다녔으며, 민락동 본민락마을 토박이 조종호(1938년생) 씨는 송양초등학교와 의정부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쟁 시기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다녔다. 다음은 조종호 씨의 사례이다.

면담자 선생님 사례(사례가) 유학가신 거잖아요? 서울로 [조종호 : (웃음)] 그런 분들이 좀 계셨나요? 의정부가 서울하고 밀접해 있기는 하니까.

조종호 별로 없었어.

면담자 많지 않았구요?

조종호 많지 않았지. 시골에서는 많지 않고, 시골에는 저기 의정부중학교 다니는 사람도 우리 동네에서 세 명밖에 없었어.

면담자 우리 동네라면 본민락(이요?).

조종호 어.

면담자 그쪽에서요?

조종호 그때 한창 저기 전쟁통이니까.

면담자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가신건가요? 여기 고등학교가 그때는 공교(였죠?).

조종호 농고지. 농업고등학교.

면담자 인문계는 없었던 거죠?

조종호 그럼. 이 동네 학교라고는 여기 저 의정부농업고등학교하고 그거 하나지 뭐. 의정부여고도 그 후에 생긴 거지.

면담자 그 후에 생기구요. 그러면 의정부에는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나가신 건가요?



의정부중학교 교문(1960년대)³

조종호 아니, 그렇지도 않고, 인제 그때 당시에는 농촌에 살면서도 농업학교니끼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솔직한 얘기하면은 중학교 다니면 어리잖아. 학교서 농사지었어.

면담자 (웃음) 학교에서요? 아- 예.

조종호 지금 의정부여고 있는데 전부 의정부농고 논이야. 그 짹(쪽)에 의정부 그 저기 밭이고, 근데 거기 거머리가 많아. 논에. 거머리가 뭔지 알아?

면담자 아- 네, 알아요. 피 빨아 먹고.

조종호 어. 의정부 애들 다리 종아리가 아주 시꺼멓게 매달려. 그래서 아이 안 되겠다. 여기서도 농사짓는데 아버지 농사짓는 거 보고 힘이 들고 뭐 하는데. 아유, 힘들어서 가서, 서울 가서 공부해 가지고 탄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암만 농촌 태생이라고 하더라도 농사하고는 힘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 해 가지고 그만 뜯 거지.

³ 의정부중학교, 『제12회 졸업앨범』, 1961.

조종호 그럼 서울에서 자취, 자취하신 거세요?

면담자 아니야. 고모 댁, 고모 댁에서.

조종호 고모댁에서. 그럼 대학도(요?)

면담자 대학은 못 갔어. 그때 당시에 어려운데 무슨 대학 가?⁴

조종호 씨가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본민락마을에서 의정부중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3명밖에 없을 정도로 중학교 진학률이 높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맞물린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나가 공부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대물림되는 농사가 아닌 다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였다. 조종호 씨는 당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고모 댁에서 자취를 하였다.

송진호 씨도 중학교 선택 당시 서울 학교로 진학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몸이 약해 가까운 의정부여자중학교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송진호 씨는 당시 시내에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가정의 경우 자녀를 의정부 소재 중학교로 진학시키지 않고 서울로 많이 보냈다고 하였다. 당시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 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대개 의정부 시내에 거주하여 의정부역까지 걸어 갈 수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주로 진학했던 서울 소재 학교는 기차역에 가까이 위치한 학교로, 남자는 광운학교, 여자는 수도여자학교를 많이 다녔고 서울역 근처 학교로도 많이 진학했다고 한다.

송진호 씨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통학의 주요 수단은 기차였으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서울행 버스가 수시로 운행하면서 통학의 수단이 변화하였다고 한다. 의정부 중앙로 근처에는 종로 5가까지 운행하는 ‘한진버스’ 정류소가 있었다.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 소재 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에 사는 친척집에 머물거나 자취를 해야 했지만, 시내에 거주하여 의정부역까지 걸어 다닐 수 있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은 기차나 버스를 타고 서울로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반대로 경기 북부 권역에서는 의정부가 교육 환경이 나은 지역으로 여겨져 일대의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기도 하였다.

4 2013년 6월 15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근처 학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의정부종합고등학교(1973년)

2) 경기 북부 교육의 중심지 의정부에서의 학창 시절

의정부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중·고등학교는 남자의 경우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여자의 경우 의정부여자중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이다.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공업고등학교는 1943년 5월 10일 인가를 받은 4년제 의정부갑종농업학교를 전신으로 한다. 의정부갑종농업학교는 1951년 '6-3-3-4'제도의 학제 개편에 따라 그해 8월 30일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농업고등학교로 병설되었다가 1970년에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 후 의정부농업고등학교는 1961년 3월 9일 의정부실업고등학교로, 1964년 2월 3일 의정부종합고등학교로, 1974년 3월 1일 현재의 의정부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⁵

5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6·7권, 2004, 455~456쪽.

의정부여자중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는 각각 1955년 4월 27일 인가를 받은 3년제 양주여자중학교, 1958년 3월 28일 인가를 받은 양주여자고등학교를 전신으로 한다. 양주여자중학교는 1969년 10월 1일 의정부여자중학교로, 양주여자고등학교는 1963년 10월 11일 의정부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⁶

의정부여자중학교를 졸업한 송진호 씨는 중학교 3학년⁷이 끝날 무렵 현재 학교가 위치한 가능동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였다. 의정부여자중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는 의정부1동 구 시민회관 자리에서 1959년에 이전하여 지금의 배영초등학교 자리에 병설되어 있었다. 이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69년 12월 18일 의정부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배영초등학교가 이전하였고, 그해 12월 31일 의정부여자중·고등학교는 가능동으로 이전하였다. 당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책상을 들고 이사를 갔었다고 한다. 이전한 학교 주변은 온통 배밭이었고 학교 앞에는 연못이 있었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과 방과 후에 운동장과 학교 주변 풀을 뽑는 일을 하며 학교 주변을 정돈하였다.

의정부의 또 다른 명문 학교인 의정부고등학교는 1974년 1월 5일 타 고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개교하였다. 김영태 씨는 의정부고등학교가 신설된 연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구술자 김영태 씨

면담자 의정부고등학교가 좀 늦게 생겼더라도
구요?

김영태 의정부고등학교는, 의정부종합고등학교가 인문계 학과가 있으니깐 그쪽에 1960년대 한 반에 애들이 점점 점점 인문계 학과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인문계, 의정부는 안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학교를 인문계 학과를 없애고 그리고 공업고등

6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6·7권, 2004, 452~453쪽.

7 1968년에 의정부여자중학교에 입학한 송진호 씨는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이라고 기억하였으나, 의정부여자중학교가 가능동으로 이전한 것은 1969년 12월 31일이므로 중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로 학교 명칭을 바꾸면서 인문계가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인문계 의정부고등학교가 생긴 거예요.

면담자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전에는 대학을 가고자 원했던 학생들도 의정부공고에 가서 인문계 반으로 가는 (식이었군요).

김영태 인문계반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처음 생겼고 그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그냥 대학 시험을 본 거고.

면담자 그러면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의정부 내에 따로 없었어?

김영태 없었어요.

면담자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구요?

김영태 그러니깐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학생들, 의정부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이니깐 의정부 시내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 그리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현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온 거죠⁸

김영태 씨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의 경우, 의정부고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는 의정부종합고등학교에서 1964년경 인문계 학급을 만들어 수요를 충당하였으나 점점 지원자가 증가하자 인문계 학교인 의정부고등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의정부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의정부에서 인문계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서울로 나가거나,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인문계 학급에 진학하였다.

이와 같은 의정부 소재 중·고등학교들은 모두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명문 학교로 명성이 높았다. 당시 의정부중학교에는 현 서울 상계동과 도봉동 지역인 양주군 노해면과 현 남양주 일대인 양주군 별내면, 동두천은 물론이며 포천, 연천 지역의 학생들까지 모여들었다. 의정부고등학교 5회 졸업생인 김진수 씨는 당시 의정부고등학교는 “한수 이북에 있는 공부 잘한다는 중학교 애들이 다 오는” 명문 학교로 포천이나 동두천, 전곡, 연천, 철원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였다. 김진수 씨는 시험을 치르고 의정부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커트라인 점수가 200점 만

⁸ 2013년 6월 11일 의정부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현재의 의정부중학교(좌)와 의정부공업고등학교(우)

점에 183점이었다고 기억하였다.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전교에서 등수에 드는 학생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그 이하가 되면 의정부고등학교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였다. 김진수 씨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보니 의정부 이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은 전교에서 1, 2, 3등이었다고 하였다. 만약 이러한 의정부 명문 중·고등학교에 시험을 쳤다가 떨어지면 재수를 하거나 동두천, 양주, 혹은 서울에 있는 2차 학교에 입학할 해야 했다. 이와 같이 의정부는 경기 북부에서 명문 학교들이 집결해 있는 지역이었다.

김영태 씨는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실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김영태 씨는 당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비율이 10% 정도였다고 기억하였다. 1961년경 의정부중학교 1학년의 규모는 4개 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가 60명 정도였다. 김영태 씨가 의정부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였던 1964년경 학제상 편제는 잠업과, 농업과, 토목과, 인문과로 편성되어 있었다. 잠업과와 인문과는 그해 처음 생긴 과였다. 김영태 씨는 잠업과에 지원했는데, 당시 누에고치 장려를 많이 해서 이를 전공으로 하면 관련 업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는 농가에 농업 이외의 마땅한 소득원이 없을 때로 누에고치는 새로운 농가 수익원으로 전국적으로 장려되었다. 당시 호원동에는 고치실을 뽑는 해성제사공장이 있었다. 김영태 씨가 의정부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인 1967년경

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30% 정도였다고 한다.

의정부중학교와 의정부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영태 씨는 민락동 본민락마을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통학을 했다. 새벽 6시쯤 집에서 나와 학교에 도착하면 8시 30분 정도 되었다. 김영태 씨는 “겨울 동안에는 별이 번쩍번쩍할 때 집에서 나와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별이 번쩍번쩍 들어와요. 선생님이 학교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늦게 종례를 하면은 야단을 치고 싶어도 집이 먼 애들 때문에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본민락마을에서 시내까지 운행하는 ‘마이크로버스’가 등장하였다. 마이크로버스는 봉고차처럼 생긴 작은 버스였다. 김영태 씨는 송산로터리까지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가서 송산로터리에서 학교까지 4km 정도를 걸어갔다. 버스 노선이 생겼지만 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버스 승객이 많아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딱딱 들어찬 콩나물시루”였기 때문이었다. 버스 승객 중에는 나물, 두부 등을 장사하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많았다. 아주머니들의 짐 때문에 버스는 더 혼잡했는데 짐을 건드리면 물건 망가진다고 야단을 하곤 하였다.

김진수 씨는 의정부중학교를 거쳐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김진수 씨가 입학했을 당시 의정부고등학교의 모습은 학교 앞뒤로 전부 논이었고 주위에 아무 것도 없어서 “붕 떨어진 데다 학교를 지어 놓은” 것 같았다고 하였다. 당시 의정부고등학교의 규모는 학년당 7개 학급에 학급당 학생수는 60명 정도였다.

김진수 씨는 당시에는 버스가 거의 안 다녔기 때문에 집이 있는 의정부동에서 가능동의 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하였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는 4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8시까지 등교하였다. 당시 야간 자율 학습은 없었고 4~5시쯤 수업이 끝났다. 방과 후에는 독서실에 다녔다.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잠을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바로 학교에 가곤 하였다. 김진수 씨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예전 송문당 자리 2층에 영어·수학학원이 있었으며, 학생들은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다녔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되면 대부분 서울 미아리에 위치한 학원으로 많이 다녔었다고 한다. 김진수 씨는 의정부고등학교 5회 졸업생의 경우 졸업생 42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대학에 진학했다고 기억하였다.



의정부여중 · 고 미국인 영어 선생님

1970년대 당시의 소풍은 '행군'이었다. 태극기와 학교기가 나가고 교련복을 입고 의장을 한 학생들이 이어서 의정부고등학교에서부터 장흥까지 열을 지어 걸어갔다. 2~3시간 정도 걸려 장흥 인근에 도착하면 점심을 먹은 뒤 친구들과 넓은 데 자리를 잡고 카세트로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어울렸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놀이로 김진수 씨는 지역 야구부를 만들어서 동네 대항으로 시합을 했던 추억을 들려주었다. 경기가 있으면 지역 야구부원 9~10명이 함께 가서 시합을 하였다. 경기장은 경기를 주최하는 지역에서 동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마련하였다. 당시 의정부 지역의 야구부가 잘해서 양주 덕정리와 동두천에서도 초청하여 경기를 하였다고 한다.

송진호 씨는 의정부여자중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송진호 씨가 학교를 다녔을 당시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 반대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께 고등학교 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송진호 씨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당시 의



의정부여자고등학교(1960년대)

정부여자중·고등학교에는 미국인 선생님이 있었다. 미국인 선생님은 학교에 상주하면서 3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이 미국인 선생님이 5~6년 전 한국을 찾은 적이 있는데, 동창회가 다리가 되어 당시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송진호 씨는 1968년 의정부여자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입학 경쟁률은 2.5:1이었다. 의정부여자중학교의 규모는 선배들까지는 3학급이었으나 송진호 씨가 입학할 당시 4학급으로 1학급이 늘었고 학급당 학생 수는 60명 정도였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선배들까지는 3학급이었으나 송진호 씨 때부터 1학급이 늘어난 4학급이었다.

당시 의정부여자고등학교는 인문계 학급과 직업 학급이 있었다. 인문계 학급이 3학급, 직업 학급이 1학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인문계 학급과 직업 학급을 결정하였다. 직업 학급은 인문계 학급과는 달리 타자, 부기, 주산 등의 과목을 배웠다. 송진호 씨는 인문계 학급으로 진학하였는데, 의정부여고 13회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인문계 3학급을 합쳐 10~20명 정도였다고 한다.

송진호 씨는 고등학교 시절 빵집으로 친구들과 많이 놀러 다녔다. 자주 가던 빵집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당시에는 시내에 나갈 때도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했고, 학생 주임, 규율부·학생부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며 학생들을 단속하였다. 시내에서 사복을 입고 다니다가 걸리면 그때 입었던 옷을 학교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압수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3. 대학교 진학과 취업- 학교 졸업 이후 의정부에서의 삶

의정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토박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혹은 결혼으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거나 혹은 여전히 고향인 의정부에 남아 삶을 꾸려나가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의정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토박이들은 어떻게 지역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김진수 씨와 송진호 씨의 사례를 통해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 의정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토박이들의 모습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김진수 씨와 송진호 씨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송진호 씨는 서울 소재 대학 무용과에 입학하였는데 대학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남편을 만나 졸업을 하지는 못하였다. 김진수 씨는 수원 소재 대학 전자계산학과에 진학하여 집에서 통학을 하기도 했다. 수업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의정부역에 내리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어울리게 되는 일이 많았었다고 한다.

면담자 기차 타고 다니시는 거였죠?

김진수 의정부, 성북역 아시죠? 성북역까지만 지하철 있었고, 대학교 다닐 때, [면담자 : 대학교 다닐 때요?] 성북역에서는, 네, 고등학교 때는 별로 기본 적이 없으니까, 성북역에서 이제 의정부까지 기차 탔죠, 한 시간에 하나씩.

면담자 한 시간에 하나씩, 한 시간에 한 대요?

김진수 네, 제가 1학년 학교 다닐 때는 자취 안 할 때 집에서 다닐 때는 (오후) 다섯 시 반 기차인가 다섯 시 기차인가 그래요, 그러면 화물칸으로,

면담자 화물칸이요?

김진수 네. 의고(의정부고등학교)같이 다녔던 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오-” 다른 학교 서울에 다녔던 애들도 다 “아-” 하고 와서, 그 의정부시, 그 역에 내려서 “한잔 해야지?” 그러면 그때 돈도 없잖아요. 학생이니깐. 그러면 ‘평양집’이라고 있었어요. 중앙역에. [면담자 : 중앙역이요?] 혼자 제일 엄청 유명했던 집인데 거기를 갔죠. 많이들. 학생들은 거기를 많이 갔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깐.

면담자 여기가 좀 싸게 (영업했나요?).

김진수 막걸리 한 통에 포천막걸리 큰 거 아세요? [면담자 : 들어보기는 했는데.] 요만한 거 큰 거. 큰 거 있어요. 지금 요만한 막걸리 말고 큰 통. 그게 600원.

면담자 아. 그 당시에.

김진수 그리고 그 집이, ‘평양집’이 빈대떡 집이에요. 빈대떡 여섯 개에 400원. 그래가지고 천 원만 있으면 막걸리 한 통에 그거 먹으니까 그거 먹고 한 다섯 명에서 먹으면 이제 돈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나 천 원 더 있다.” 한 놈이 그러면 생두부라고 있어요. 생두부. 두부라고 하는데 그걸 가위로 쪼개면 요만하잖아요. 그걸 이제 한 점씩만 먹는 건데. 고개 600원. 고거는, 그건 200원 더 해서 보테서 막걸리 한 통 해서 [면담자 : 아 재밌네요.]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이와 같이 김진수 씨는 대학교 시절 방과 후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범위를 넓혀 의정부시 대학생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김진수 씨는 대학교 1, 2학년 당시 의정부시학생회와 의정부청년회의소와 같이 의정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임에서 활동하였다.

의정부시학생회는 출신 고등학교나 대학에 상관없이 의정부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의정부시’ 학생회이지만 ‘시’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었고 김진수 씨가 활동할 당시 회원은 몇 천 명 정도의 규모였다. 김진수 씨는 1983~1984년 의정부시학생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정부시학생회뿐 아니라 당시 시 단위의 학생 모임들이 많았는데, 김진수 씨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깐 각각의 동창회들이 더 힘이 있다기보다는 시학생회를 중심으로 다 모였었다.”고 하였다.



의정부청년회의소



의정부청년회의소는 1969년 4월 20일 서울청년회의소의 후원으로 조직되었다. 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JC)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청장년을 회원으로 하며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운동 참여와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 건설과 세계 평화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세마을사업 지원, 한미 친선 시도, JC 간 교류 협력, 장학 사업, 불우 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치·경제·사회·체육의 각 분야에서 현재까지 의정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⁹

김진수 씨는 의정부청년회의소 내 대학생 모임인 Youth JC 소속으로 주로 연극활동을 하였다. 당시 Youth JC 회원 수는 각 대학에서 모인 대학생 30~40명 정도였다. 1학년 때는 배우로 활동하며 「블랙코메디」, 「에쿠스」 등을 공연하였고, 2학년 때는 연출을 맡아 이중섭의 「소」를 무대에 올렸다. 연극 연습은 당시 제일시장 2층 Youth JC 사무실에서 하였다. 1년에 한 번 공연을 하는데 학생들끼리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겨울방학 한두 달 동안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당시 의정부에서 가장 큰 극장인 의정부시민회관에서 하였다. 김진수 씨는 “연습을 아침에 갔다 저녁 늦게까지 해서 책을 볼 시간이 없어 공부는 못했어도 그때 참 재미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

9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5권, 2004, 524쪽.

다. 이와 같이 의정부에서는 타 지역 소재 학교를 다니면서도 의정부시 단위의 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취업의 경우, 의정부에는 큰 회사나 산업 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취직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의정부에 남아 직업을 구하는 경우 사업을 하거나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면담자 그 혹시 동기들 중에서 의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김진수 동기라면 어떤 동기?

면담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의정부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요).

김진수 우리 의정부 출신 중에서? 많죠.

면담자 많아요? 어떤 일을 하세요?

김진수 사업. 개인 사업.

면담자 개인 사업이요?

김진수 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의정부에 많죠. 지금 거의 420명 중에서 동기만 100여 명은 아마 의정부에서 사업을 할 거예요.

면담자 100여 명은 의정부에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김진수 예.

면담자 개인 사업이라면.

김진수 건설도 있고, 빵집하는 애도 있고, 식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면담자 네. 의정부 내에서 어떤 그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정말 약간 베드타운(bed town)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의정부가. 그래서, 어떤가 싫어서.

김진수 지금은 그런 생각 많이 벗었어요. 큰 회사가 없으니깐 여기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한다는 건 힘들고, [면담자 : 그래서.] 자기 것을 하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공무원. [면담자 : 공무원.] 공무원들도 많아요. 의정부시청 그 다음에 도청. 우리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은 취업이라는 거 자체가 공공 기관 하고 금융기관밖에 없어요.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송진호 씨도 의정부는 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없었고 의정부 내에서 일자리를 찾은 경우 금융기관에 취업하거나, 학교행정실, 동사무소나 군청 등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라고 하였다. 또한 의정부는 경기 북부에서 상업이 발달한 ‘소비도시’여서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송진호 씨는 동창 중 결혼 이후 지금까지 의정부에 남아 있는 비율이 50% 정도라고 하였다.

의정부 지역 학교의 동문들은 졸업 이후 상위 학교 진학과 직장 그리고 결혼 등 저마다의 이유로 의정부를 떠나기도 하였지만, 의정부에 남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동창회 모임을 통해 모교 발전 및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4. 동창회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본 절에서는 의정부의 명문 고등학교인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동창회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동창회가 동문 간의 유대 관계 지속뿐 아니라 지역 엘리트 양성과 사회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정부고등학교 동창회(이하 의고 동창회)는 1회 졸업 직후 조직되어 2013년 현재 37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한 가운데 기수 동창회는 22기까지 조직되어 있다. 의고 동창회는 총동창회 조직이 가장 상위 조직으로서 전체를 관리하고, 그 산하에 청운장학회, 청운체육회, 청운산악회 3개의 조직이 있다. 그리고 의고축구회, 의고농구회, 의고골프회 등 동호회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각 산하 조직은 회장, 총무 등의 운영진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각 기수별로 기수 동창회를 가지며 회장, 총무 등의 운영진도 별도로 선출한다. 총동창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각 기수의 회장들이 이사가 된다. 이사진들은 총동창회의 의결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

총동창회 임원 선거는 격년마다 열리는 5월 총회에서 실시한다. 총동창회 임원으로 는 사무국장·기획국장·홍보국장·문화국장·정무국장·조직국장·체육국장 등 35명을 선출한다. 5회 졸업생인 김진수 씨는 총동창회의 제18대 회장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동창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경에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이하 의정부여고)와 의정부여자중학교(이하 의정부여중)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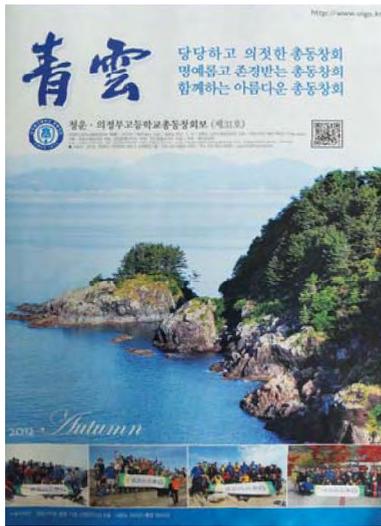
직될 때부터 동창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동창회 산하에는 편집부, 백학봉사단 등의 조직이 있다. 총회는 2년에 한 번 개최하며 이때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 선출은 의정부 여고와 의정부여중에서 각기 따로 선출한다. 이사회는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각 기수별 정기 모임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며, 각기 운영진을 별도로 뽑는다.

운영비의 경우, 의정부고등학교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회비는 매달 1인당 5,000 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수별로 금액을 정하여 더 많이 납부하는 기수도 있다. 회비 이외에 후원금을 받아 운영비에 보태기도 한다.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동창회(이하 의정부여고 동창회)에서는 운영비를 학생들이 졸업할 때 납부하는 '동창회 입회비(졸업비)'로 충당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동창회 입회비를 걷는 것에 대해 재학생들이 거부감을 보여 걷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동창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회장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동창회 입회비가 동창회 운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며 동창회 입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운영비는 그동안 동창회 운영진들이 동창회 입회비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축적해 놓은 것과 임원이 바뀔 때마다 납부하는 임원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 동창회의 공통적인 활동으로는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학교 기자재 설치 등 후학들을 위한 활동, 동창회원들 간의 단합을 위한 행사와 출판물 발행, 지역사회 봉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의고 동창회 산하 조직 중 하나인 청운장학회에서는 의정부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창회에서는 매년 2,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0~30명에게 1인당 한 학기에 80만 원 정도씩 수여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과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매 학기 다르게 선정한다. 2012년의 경우 청운장학회는 1학기 장학금 총 1,220만 원, 2학기 장학금 총 980만 원을 학생들에게 수여하였다. 청운체육회에서는 의정부고등학교 병상부, 축구부, 컬링부 등 체육부를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여고 동창회에서는 장학금 지급 활동과 함께 기자재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체육관을 건립할 당시에 암막과 시계탑을 설치해 주었으며, 몇 년 전에는 의정부여고의 자랑인 핸드볼 선수들을 위해 소형버스 한 대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의고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범조계와 각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선배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멘토로서 후배들



의정부고등학교 총동창회 회보 『청운(靑雲)』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동창회 회보 『백학(白鶴)』

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재학생 직업 상담 강연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의고동창회에서 하는 큰 행사로는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있다. 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2013년의 경우 5월 26일에 행사가 있었다. 올해 행사에는 동문과 그 가족 등 약 850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의정부실내체육관을 대여하여 행사를 치렀다. 행사 비용은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동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충당하였다. 각 기수별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창회의 공통적 단합 활동 중의 하나는 동창회보를 발행하는 것이다. 의고동창회에서는 매년 『청운(靑雲)』을, 의정부여고 동창회에서는 매년 『백학(白鶴)』을 발행하고 있다. 『청운』에는 동창회 행사 및 활동 현황, 동문 탐방, 모교 소식, 동문 및 외부 기고문 등의 기사가 실리며, 매년 10월경 홍보부에서 발행을 주관하고 있다. 발행에 필요한 경비는 이사회에서 각 기수마다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으고 있다. 『백학』에는 동창회 활동 보고, 동문 모임 소식, 동문 기고문 등의 기사가 실리며, 편집부에서 발행을 주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고동창회에서는 『의고인명록(議高人名錄)』, 『직장·직능·지역별명

부』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의고인명록』은 졸업 연도별로 동문들을 정리한 것이며, 『직장·직능·지역별명부』는 법·행정·교육·금융·언론·의료·예술 등 직업 분야별로 동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출판물들은 5년에 한 번씩 편찬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이 2012년판인데 동문들에게 판매되어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 외에 의고 창회에서는 2012년 청운산악회를 조직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모토로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동문들의 친목 도모와 취미 활동을 돕고 있다. 의정부여고 동창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하며 친목을 도모한다.

동창회의 또 다른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봉사가 있다. 의정부여고 동창회에서는 2007년 백학봉사단을 조직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영아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창회원 중 의정부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며, 서울에서 오는 동문도 있다. 의고동창회에서는 2011년부터 의정부에 거주하는 불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의정부시 소년소녀가장 돕기 청운문화제’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으로 의정부 내 소년소녀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면담자 음~, 혹시 뭐 의정부 동문회가 다른 의정부 내에 있는 조직과 연계해서 뭐 활동하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김진수 다른 조직이요?

면담자 네.

김진수 다른 조직들과는 안 하고 별도로 인제 저희가 뭐 동창회 목표가 1번이 이제 모교, 모교를 위하는 게 1번이구요, 행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 이게 제 1번이예요, 저희가, 두 번째가 인제 동문들, 동문들이 다 발전을 해야 하니까 동문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 다 잘해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제 지역사회, 향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고 놈들은, 아휴 의고 놈들은 지네끼리만 의리가 있어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보는 시각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보는 시각들이 좀 그런 거지, 그게 좀,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시청에다가 중학생들, 그러니까 가정 이 좀 안 좋은 학생들 장학금 지원해요, 고거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두 번, 그러니까 2011년 한 번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청운문화제라고 해서 문화제를 했어요, 예술의전당 빌려 가지고

그 수익금을 또 시정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깐 우리끼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 뭐야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게 저희 동창회 목표예요.

면담자 문화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김진수 옛날에는 인제 뭐 그림 갖다 걸고 막 이랬는데 그건 다 안하고, 제가 오케스트라 초청을 해가 지고 오페라 이렇게 해서 진짜 가족들, 동문 가족들 또 외부 분들도 다 와서 티켓을 판매를 했죠. 저희가. 그거 하고 고 수익금을 저희가 이제 시정에 전달을 한 거예요.

면담자 시정에 전달하고.

김진수 좋은 사업도 많이 해요.

의고동창회는 이와 같이 문화제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회, 운영 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학교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2013년부터 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 체제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변경되면서 학교의 수준 하락과 동창회 결속력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송진호 씨는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걱정을 하긴 하는데, 학교의 어려움을 보완해 간다면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학교를 위해서 학교, 동문, 시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하며, 의정부의 인재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여기서 활용을 하려면 좋은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혜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여 백

토박이들이 그리는 내 고향의 미래

1. 내 고향 의정부

의정부 토박이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 대한 자부심과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의정부에 대한 애정이다. 민락동 본민락마을 토박이인 조종호(1939년생) 씨는 고려 충신 조견(趙楨, 1351~1425)의 후손으로 고향 의정부에 대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면담자 그 의정부가 고향이시니까 의정부가 고향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내 고향 의정부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조종호 내 고향 의정부를 생각하면 내 여기 애착심밖에 더 있어.

면담자 어디 가면 고향을, 어디 가서 '고향이 어디세요' 물으시면 의정부라고 말씀하세요?

조종호 그럼 의정부라고 그러지.

면담자 여기가 서울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좀 그런.

조종호 의정부라는 거는.

면담자 좀, 예, 토박이라고 했을 때도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고 그런 거 같았어요, 고향 뭐 그랬을 때.

조종호 그런 거 없어, 토박이야.

면담자 네네, 그래서.

조종호 우리 직계조 할아버지가 은거하시던 고장.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뭐.¹

또한 토박이들은 고향 의정부에 대해 편안한 마음, 안식처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금오동 토박이인 김진수(1963년생) 씨는 서울에 직장이 있으나 가족은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집안의 가훈 때문에, 또 고향인 의정부가 주는 안식처의 느낌이 좋아 여전히 의정부를 떠나지 않고 있다. 김진수 씨는 의정부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 연꽃이 감싸 안고 있는 형상이어서 의정부에 오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면담자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의정부가 고향이다 했을 때나 뭐 의정부에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거 같으세요? 이미지 이런 것들이.

김진수 이미지는 잘 뭐.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의정부가 44만이잖아요. 토박이들은 아마 4분의 1도 안 될 걸요.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면담자 개발되고 하면서.

김진수 그렇죠. 근데 그 저는 바깥에 갔다가 출장 아니고 서울서 지금도 서울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외곽 많이 타거든요. 송추C를 딱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여튼 뭐가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면 그 송추C만 지나가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외부에서도 다른 쪽에서 와도 하여튼 어느 정도 의정부를 별내C 통과해도 그냥 편안한 게 있어요.

면담자 또 의정부 자랑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김진수 의정부 자랑이요?

면담자 네.

김진수 일단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 이렇게 보시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수락산, 도봉산, 사패산. [면담자 : 사패산이요?] 네. 사패산.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게 불곡산이라고 있어요. 수락산 이쪽에 이제 불암산인데, 불암산은 서울 쪽에 더 가깝지만 상계동 쪽에. 이렇게 보면 음, 연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싸 안는 형상이구요. 이게, 남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을 좋아해 가지고, 고 안에 의정부가 살고 있고 살고 있는데 전 서울 나와서도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됐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열심히 사

1 2013년 6월 15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근처 학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의정부시

는 살 수 있는 이유가 요런 기들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 뭐 부처님들도 다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유 산신님들이 의정부 시민들을 잘 보호해서 우리 의정부 사람들이 잘되어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약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수지리학적으로 봐도 나쁜 지리는 아닌 거예요. 받들고 있다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웃음)²

그러나 의정부가 개발되면서 고향을 잃었거나 앞으로 잃게 될 토박이들은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민락동 본민락마을 토박이인 조종호 씨는 2006년 민락동이 개발되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고산동 독바위마을 출신인 신세휴(1938년생) 씨는 2018년까지 고산보금자리주택단지가 개발됨에 따라 고향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조종호 씨는 본민락마을이 개발된 이후 송산동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

2 2013년 6월 12일 서울 가산동 김진수 씨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하고 고향 주민들과의 친목회를 통해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세휴 씨도 의정부를 떠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토박이들은 의정부가 토박이보다는 이주민으로 형성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귀용(1929년생) 씨는 의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이주민이 많이 유입되어 발전된 도시라고 하였다.

면담자 의정부 고향에 대해서는 의정부 내 고향이 의정부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의정부 토박이들은 뭐 이런 사람들인 거 이런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귀용 의정부는 내가 볼 적에는 어- 원주민은 얼마 안 되고 전부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의정부야. 왜? 6·25사변으로 나가선 전부 어 여기 전쟁터 일선 지구였으니까 말야 뭘. 동두천 여기가 다 일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깐 원주민은 몇 프로(%) 안 되고 전부가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사는 그런 인구가 모여서 사는 데야.

면담자 그렇죠.³

충청도 출신으로 의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이병식 씨는 의정부가 텃세가 없는 지역, 지역 차별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였다. 이병식 씨는 충청도가 고향인 다른 친구의 경우 의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텃세를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왔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를 들며 지역 차별이 없는 것을 의정부의 특징으로 꼽았다.

면담자 의정부 하면, 의정부가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그런 거라든가.

이병식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내 고향은 충청도인데 여기 와보니까는 딴 데 가면은 '타관'⁴을 굉장 히 타요. 이렇게 직장 같은 데 있어도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의정부는.

조종호 여기 지역은 안 가려.

3 2013년 6월 15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근처 학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4 지역 차별을 '타관'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병식 여기 이해심이 참 좋아.

면담자 안 가려요?

조종호 어.

이병식 그게 좋더라구. 내가 그거 아주 절실히 느꼈어.

조종호 공무원 생활을 시정에서 하면은 각 도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혼합돼 있잖아.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의정부 경기 뭐 포천 뭐 다 있어도 그 지역 차별이 없는 게 의정부야. 아주 좋아.

면담자 그렇구나.

이병식 근데 그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타관' 타는 게 몹시 못 건디는 거야. 지금 왕따처럼. 요즘 말로 왕따지. 내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충남 보령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파직 요청을 해 갖고 그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거기서 1년도 못하고 도로 올라왔어요.

조종호 여기만 못하지. 고향이라두. (웃음)

면담자 고향인데도요?

이병식 응. 곁을 안 준다는 거야. 고향이라두.

조종호 의정부시의 인구 분포를 봐도 각 도가 고루 안배돼 있어. 충청도민이나 경상도민이나 전라도민이나 거의 비슷비슷해. 한 15% 정도씩 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저런 게 없으니까는 각 도에서 고루 분포돼 있어. 의정부는, 어떻게 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야.⁵

이와 같이 토박이들은 의정부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을 포용하면서 발전한 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5 2013년 6월 15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근처 학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2. 의정부시의 발전 방향

토박이들은 의정부가 경기도 내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 남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발전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북부 쪽의 개발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 발전의 척도가 되는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의정부시의 인구 증가율은 2000~2005년 10.9%, 2005~2010년 4.7%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 13.6%와 7.6%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토박이들은 의정부가 산곡동과 고산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개발 포화 상태로 개발 가능 지역이 남아 있지 않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앞으로 의정부가 발전하는 데에는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의정부 토박이들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주었다.

〈표 1〉 의정부시 및 경기도의 인구 추이

(단위 : 명)

| 연도 | 지역 | 의정부 | | | 경기도 | | |
|------|----|---------|---------|---------|------------|-----------|-----------|
| | | 총인구 | 남 | 여 | 총인구 | 남 | 여 |
| 2000 | | 354,422 | 177,172 | 177,250 | 8,937,754 | 4,507,362 | 4,430,392 |
| 2005 | | 397,694 | 197,280 | 200,414 | 10,341,006 | 5,192,007 | 5,148,999 |
| 2010 | | 417,412 | 205,500 | 211,912 | 11,196,053 | 5,599,570 | 5,596,483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총인구조사.

1)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논의

1994년 3월 16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 해 3월 17일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전국 15개 시·도 내무국장 회의에서 시·군 통합 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의정부와 양주·동두천 통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지역의 통합안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의정부+양주 일부, 동두천+양주 일부, 양주+동두천 통합안 등이 거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양주+동두천 통합안이 확정되어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통합안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 양주군은 찬성 9.6%, 반대

90.4%, 동두천시는 찬성 75.2%, 반대 24.8%로 양주군의 압도적인 반대로 인해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⁶

이후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안은 2009년에 또다시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으며, 2011년에 다시 추진되었다.⁷ 2010년 9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통과되었고 10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1년 2월 16일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추진위는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의정부·양주·동두천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로부터 다시 통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어 2011년 12월 16일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의정부시는 2012년 12월 31일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다.

통합에 있어서 매년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에 대한 우려, 주민 정서상의 문제로 통합 후의 이질감, 지역이기주의, 공감대 붕괴 등이었다. 이에 대한 3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통합은 매년 불발로 끝이 났었다.

이홍규는 2000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의정부시, 양주군,⁸ 동두천시 간 행정구역 통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기초의원, 공무원, 주민들을 포함하는 의정부시민 719명, 동두천시민 377명, 양주군민 339명 총 1,4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정부시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총 719명 중 찬성 407명(56.9%), 그저 그렇다 150명(21%), 반대 158명(22.1%)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동두천시의 경우 377명 중 찬성 170명(45.5%), 그저 그렇다 108명(54.1%), 반대 95명(25.5%)이었으며, 양주군의 경우 총 339명 중 찬성 180명(54.1%), 그저 그렇다 65명(19.5%), 반대 88명(26.4%)으로 나타났다. 즉 의정부시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양주군과 동두

6 2000년 조사 당시 양주군민의 통합 반대 이유 중 가장 대두된 것이 동두천시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인구가 적고, 지역 경제 활동과 생활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동두천시 청사가 통합 시청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지리적 여건상 시청사 이용의 불편, 시 분리 13년 경과로 인한 이질감 형성, 학교의 역행, 세수의 불리 등이 제기되었다(이홍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양주·의정부·동두천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7~48쪽).

7 「행정구역 통합 서명 들쭉이는 경기도」, 『경향신문』 2011년 11월 17일.

8 양주시는 2003년 10월 양주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천시의 순이었다.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의정부시민만을 한정해서 살펴보면, 의정부 시민들의 찬성 이유는 460명 중 발전 가능성의 증대 및 지역 발전 209명(45.4%), 문화생활 공간 확대와 문화 혜택 82명(17.8%), 행정 통합으로 공공 기관 이용 편리 55명(12%) 순이었다. 반대로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208명 중 통합 필요 없이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 선호 58명(27.9%), 현재대로 나눠져 있는 것이 편리 48명(23.1%), 지역 불균형 발전 우려 38명(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의정부 시민들의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안 찬성 및 반대 이유

(단위 : 명·%)

| 찬성 이유 | 응답자 | 비율 | 반대 이유 | 응답자 | 비율 |
|-----------------------------|-----|-------|---------------------------|-----|-------|
| 지역이 넓어져 발전 가능성 증대, 지역 발전 | 209 | 45.4 | 통합 필요 없이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 | 58 | 27.9 |
| 문화생활 공간 확대, 생활 편리, 문화 혜택 | 82 | 17.8 | 현재대로 나눠져 있는 것이 편리, 행정 불편 | 48 | 23.1 |
| 행정통합으로 공공 기관 이용 편리, 행정 발달 | 55 | 12.0 |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우려 | 38 | 18.3 |
| 지역 통합으로 예산 증대 | 36 | 7.8 | 지역감정 때문에 지역 간 갈등 문제 발생 | 20 | 9.6 |
| 교통 발전, 교통 편리, 도로 확장, 교통비 인하 | 32 | 7.0 | 통합 시가 되면 세금만 증가한다 | 14 | 6.7 |
| 지역의 나쁜 이미지 개선 | 26 | 5.7 | 인구 증가로 교통, 주택 문제 등 발생 | 14 | 6.7 |
| 교육 시설의 개선, 교육 문제 해결 | 16 | 3.5 | 지역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 12 | 5.8 |
| 기타 | 4 | 0.9 | 기타 | 4 | 1.9 |
| 합계 | 460 | 100.0 | 합계 | 208 | 100.0 |

출처 : 이흥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양주·의정부·동두천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84·87쪽, 일부 재구성.

비고 : ①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반대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만난 토박이들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안에 대해 물었을 때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의정부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뿌리는 양주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연혁적으로 볼 때 의정부는 1963년, 동두천은 1981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양주에 속해 있었다. 토박이들은 대부분 의정부가 양주군에 속했던 시절을 살았고, 의정부가 한수 이북의 교육·행정·상업의 중심



미개발지인 고산동 들녘

지로 양주, 동두천과 같은 생활권에 묶여 있다고 인식하였다. 즉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들은 의정부와 동두천이 양주 문화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⁹

또한 의정부는 면적이 좁고 산곡동과 고산동을 제외하면 더 이상 개발지가 남아 있지 않다. 의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거나 개발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토박이들은 양주·동두천과의 행정구역 통합을 개발 포화 상태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하였다.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광역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곡동 검은돌마을 토박이 류기정(1934년생) 씨는 의정부시는 인구도 40만의 정체 상태에 있으며 “똥만 싸고 가는 데다. 아파트에 와서 똥만 싸고 돈은 서울 가서 쓴다. 잠만 자고.” 하며 의정부시를 ‘베드타운’으로 진단하면서 “통합이 되어 큰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귀용 씨는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이 되어서 양주군이 1개

⁹ 의정부시는 1914년 양주군 시문면이었다가 1942년 양주군 의정부읍으로,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동두천시는 양주군 이담면으로 있다가 1963년 양주군 동두천읍으로, 1981년 동두천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읍 16개 면의 규모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던” 당시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종호 씨는 의정부가 양주·동두천과 통합이 되었을 때 각각의 지자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공무원 조직 구성을 실례로 하여 설명해 주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인데, 통합이 되면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체를 관리하는 시장과 그 아래 양주와 동두천에는 각각 1개 구청이, 의정부에는 2개의 구청이 조직되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만큼 행정조직도 더 커진다고 설명하였다.

면담자 그 요즘엔 양주하고 통합(한다거나), 양주·동두천 통합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의정부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종호 의정부의 뿌리는 양주야, 거- 인제 뿌리가 양주야, 거- 양주가 서울 이쪽 번동, 상계동 이쪽까지 노원 어? 이게 다 의정부 양주야, 그 인제 창동이 양주군 노해면이 창동이야, 거기 면사무소가 거기 있었어, 그럼 그 저기 그,

이병식 남양주 마석까지지.

조종호 남양주 마석까지 다 양주야, 그런데 그거는 뭐 저 옛날 얘기는 제껴 놓더라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양주·동두천·의정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양주시청 자리 있는 데가 이제 중심지가 돼, 통합이 되면은, 지금 항간에 양주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양주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네하고 이해타산 관계가 조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또 시장 군수들, 그 뭐 여긴 전부 시장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거기 산하 공무원들한테 반대, 앞장서서 반대, 인제 통반장을 통해서 반대를 하면 뭐 우리 세금만 더 낸다 뭐 의정부시에 무슨 쓰레기만 우리가 다 받아 버리면은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긴 인목에서 내다 보야지, 어차피 쓰레기는 얼루 가던 가야 되는 거여, 쓰레기는, 그러면 양주시에서 통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인제 현재 시장들은 공무원 숫자가 준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승진할 기회도 다 날라가 버리고 이게 뭐냐 하는 얘가지, 허탈감에 빠진다 하는 얘기가, 천만의 말씀이지, 공무원 숫자가 더 늘면 늘지 줄지 않아, 줄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까?

면담자 예.

조종호 시장은 하나야.

면담자 예. 그렇죠.

조종호 양주는 지금 뜨고말지. 어? 양주구가 하나 생겨. 구청. 동두천구청 있고, 의정부에 구청이 두 개 생겨. 그럼 네 개 구청이지. 그럼 그 위에 하나 시장이야. 네 개 구청 위에 시장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동두천시장이고 양주시장 그 사람들 그대로 구청장 하면 돼. 어? 구청하고 여기 의정부에서는 구청장이 둘이 새로 탄생을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일개 구청 공무원 이는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 어? 지금 현재 시 단위의 업무를 봐야 되니까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야 돼. 구가 두 개가 더 늘면은, 그만큼의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야지 왜 줄어? 통합을 안 하려고 자기네들이 타산적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있으니깐은 그러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여. 내 계산이 틀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장은 하나가 더 늘고, 그레 수장은 하나 더 늘구 구가 네 개 구청이 생기게 되면은 구청장이 둘이 더 드는 거야. 동두천구청장, 양주구청장 그 시장들이 한타 치더라도 의정부구청장이 둘이 더 생기는 거야. 의정부시장이 시장이 된다고 했을 적에. 뭐 양주가 되도 되고 뭐 어디서 되도 그건 마찬가지니까. 공무원 숫자가 왜 줄어? 천만의 말씀. 더 늘지.

면담자 그러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조종호 답이 돼요?

면담자 예. 통합을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종호 발전되지 그럼. 광역, 광역 자치단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광역 자치단체가 되면은 시민들도 편하고 국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든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자꾸 개발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시민들이 살기 더 좋아지는 거지. 야후.

2) 미군 기지 이전

미군 부대의 주둔은 의정부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의정부는 경기 북부 일대에서 가장 달러화가 많은 지역 중 하나였다. 신세휴 씨는 “옛날에는 미군 부대라는 데가 참 떠나지 못하게 그냥 디밀었잖아. 근데 그 한국에 경제가 나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여기는 지금 다 미군 부대 덕분에 다 먹고 살은 거여. 의정부는. 그렇다고 봐야

데.”라고 하였다. 즉 의정부가 미군 부대 주둔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도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의정부는 미군의 주둔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시가지 개발이 제한되고 전쟁, 기지촌 등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의정부 토박이들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떠올리는 의정부의 이미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류기정 씨는 “군대 생활 할 때도 의정부에 산다고 하면 전쟁터에서 살아? 38선까지 얼마 안되고(멀지 않고) 미군 군대가 많고 하나까 거긴 위험하지 않느냐? 또 한참 지나니까는 (양)색시 동네, (양)색시 많은 동네”라고 했다고 하였다. 전라도나 경상도 등지 남쪽에서 올라와 의정부 부근 군부대에서 복무한 군인들은 제대 후 고향으로 내려가면 의정부는 “양색시 많고 전쟁터 같은 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곤 했다. 그래서 송진호(1955년생) 씨 친구들 중에는 “다른 데 나가서 고향을 의정부라고 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군사 지역이라 미군들 많고 미군 상대로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고 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토박이들은 현재 의정부시가 이와 같은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세휴 씨는 “미군 부대 사람들 있었던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김진수 씨도 “(의정부의) 이미지는 옛날에는 뭐 미군 부대가 좀 많아서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벗어났다”고 답했다.

미군 부대 주둔과 관련한 의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종합대학, 병원 등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의정부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¹⁰

면담자 그 의정부가 발전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세휴 지금 의정부 지역에 지금 그 미군 기지들이 많아요. 그래 있는 사람이 여기도.

면담자 그래도 많이 요즘 철수되고.

신세휴 여기도 캠프, 여기 그 여기 지역이 미국에서 캠프 스탠리라고 그러거든.

10 인터뷰를 통해서 만난 구술자(토박이)들은 대부분 미군 부대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의정부에는 미군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프 스탠리에 인접한 뱃벌마을의 경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정부의 미군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뱃벌마을 주변 상가 대부분이 휴업하는 등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 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하였다(「미군 기지 이전 보상촉구 건의문」, 『기호일보』, 2013년 7월 8일; 「의정부시의회 뱃벌마을 피해보상 촉구」, 『경기일보』, 2013년 7월 7일).



송산동과 캠프 스탠리 전경(1960년대)

면담자 이쪽에 크더라고요.

신세휴 아 여- 여기가. 캠프 스탠리가 인제 2015~2016년, 2015년도까지 떠나게 되면 건국대가 온다고 의정부하고 가조인식도 했을 거여. 그러니까 인제 발전되는 것은 의정부 시내 기지촌들이 완전히 지금 평택, 그 인제 거기 지명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요것이 가게 되면 의정부 발전이 많이 되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의정부 시내에도 지금 그 안에 저기 그 역전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으로도 지금 그 비행장 했던 자리도 거기도 있지. 금오동 지금 저기.

면담자 네네 금오동에도 있더라고요.

신세휴 무슨 대학교 들어온다고 그러지? 거기?

면담자 을지대학인가?

신세휴 을지대학. 거기두 그 빨리 가야 되구. 지금 그 그전에는 미군 그 지금 저기 제2청사 그 앞에 있잖아. 거기 다 옛날에 그 병기단이라고 미군 부대서 했던 자리야. 인제 그거 떠나고 발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것들도, 왜냐하면 을지대학교 들어오면 의정부 발전되는 거 아니여. 여기서 건국대학교 들어오면 발전될 거 아니여. 그러니까 기지촌이 하루라도 빠른 시간에 저기 그 평택, 그 그 지부로 반대로 가야 발전이 된다 말아야. 그 안에는

힘들어. 여기는.

면담자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되어야 [신세휴 : 미군, 그렇지.] 의정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구요.

신세휴 미군 부대 빨리 가야지.¹¹

의정부시는 2009년 건국대학교와 미군 반환 예정 공여 구역인 고산동 일대 캠프 스탠리(Camp Stanley)에 '건국대학교 KU Tech 의정부 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 이 부지에 컴퓨터, 전자공학, 생명과학, 축산식품생물공학과 등 77개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다.¹² 또한 경기도와 의정부시, 국방부, 을지대학교는 2013년 1월 21일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 관련 토지 매매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3월 대학교 개교, 2021년 부속병원 개원 예정에 있다.¹³

3) 친환경 역사 문화 도시로

의정부시에서는 2003년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현재 의정부 시민들의 지역사회 각 분야 교통, 주택, 환경, 교육, 문화, 예술, 편익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정부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조사의 문항 중 “의정부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200명의 의정부 시민들은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으며(94명, 42.73%), 다음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부족(41명, 18.64%), 편익 시설 부족(32명, 14.55%), 환경 오염(24명, 10.91%), 교육 문제(21명, 9.55%), 주택 문제(8명, 3.6%) 순이었다.

2003년 당시 가장 문제점으로 꼽힌 교통 문제의 경우, 주차 시설 부족이(69명,

11 2013년 6월 23일 산곡동 신세휴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12 「건국대, 2022년 의정부에 글로벌캠퍼스 조성」, 『아시아경제』 2009년 11월 4일.

13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병원 건립사업 '본궤도」, 『아주경제』 2013년 1월 22일.



의정부경전철

32.55%)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횟수 부족(57명, 26.89%)이었다.¹⁴ 그러나 현재 대중교통 체제가 변화하고 의정부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토박이는 없었다. 나아가 경전철 개통 이후에는 경전철 노선이 연장되어 의정부를 순환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박이들에게 의정부에 부족한 시설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많이 나아졌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교육 시설과 문화 시설을 부족한 부분으로 뽑았다. 송진호 씨는 “문화 시설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 예술의 전당 생기고. 그렇지만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곡동에서는 상수도 시설과 도시가스 설비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박이들은 무분별하게 도시가 개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김진수 씨는 무조건적인 개발은 고향을 잃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정부의 역사를 잃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의정부에서 살아왔던 현장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¹⁴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6·7권, 2004, 883~910쪽.

면담자 뭐 (의정부에) 오래 사셨으니까 뭐 의정부가 발전하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갖추어야 할 거 같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진수 신시가지 한다고 해서 하잖아요. 신시가지 하면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면담자 : 그렇죠.] 할아버지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나도 신시가지 이런 거 하는 거 반대인데. 좋아지는 거는 많다 이거죠. 근데 그만큼 잃는 게 많거든요. 글썄 나는 외국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살릴 건 계속 살려가면서 그게 나중에 다 역사가 되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시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지방 특색이거든요. 외국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새로만 짓고 뭐 하다보면 그 지방의 특색은 새로운 거 밖에 없어요. 과거는 무슨 박물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 후손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았던 데 이런 데를 보여줘야 이게 진짜로 마음속에 와 닿고 하는데 그런 거가 좀 저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시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작게 봤지만.

면담자 오히려 그 예전 것들을 지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전을 하는 방향이다. 음.

김진수 외국 많이 안 나가 봤는데 가보면 특히 미국도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도 다 헐고 새로 안 지어요. 꼭 필요한 데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진짜로 그 우리가 계속 어렵게 힘들게 자라왔고 이런 데는 놔두는 것도, 외국에 새 건물 거기는 세운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단지 사람 인식이 새 거 살고 하지만 쭉쭉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신세휴 씨는 “의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북한까지 본다면) 중심지”라고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제한이 완화되어 “의정부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예전 양주의 명성을 이어 나가면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혜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 제1장 ————— 해방 전후 의정부 지역으로 온 사람들
- 제2장 ————— 한국전쟁이 남기고 간 사람들
- 제3장 ————— 시 승격 이후 이주한 사람들
- 제4장 ————— 1980년대 아파트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 제5장 ————— 이주민이 바라는 희망도시 의정부



제2편

이주민의
고향 만들기

해방 전후 의정부 지역으로 온 사람들

1. 일제강점기 의정부의 모습

1) 역촌에서 읍으로

일제강점기에 오늘날 의정부를 이루고 있는 양주군 시둔면은 의정부리의 역전을 중심으로 서서히 발전하였다. 역전 로터리에 동두천 방향과 포천 방향으로 갈라지는 Y자형의 교통 요지가 형성되고 부근에 상가가 들어서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38년에는 시둔면의 명칭이 양주면으로 개칭되었고, 그 규모가 커지자 1942년에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다. 1949년 총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의정부읍의 인구는 2만 1,816명이었다.¹ 의정부가 읍으로 승격되기 전인 1935년 시둔면의 인구가 1만 1,190명² 인 것을 볼 때 읍 승격 이후에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의정부의 구시가지가 형성되었는데, 의정부시와 의정부문화원에서 2004년에 간행한 『시정40년사』에는 당시의 구시가지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에서 1949년 총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에서 1935년 총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이 당시 철도 교통이 편리한 점을 이용하여 구시가지는 의정부역 앞을 중심으로 직선 도로 왼쪽에는 초기의 민가가 밀집되어 있고, 조흥은행 의정부시지점, 대동이발관이 입지하고, 오른쪽에는 서울행 버스정류장, 광재병원, 의정부시 최초의 중앙감리교회, 구루마가게, 잡화상, 대장간 등이 입지하여 초기의 상업적 기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³

이러한 당시의 모습을 1925년에 시둔면 의정부리로 이주한 주내면 산북리 출신 송용득(1921년생) 씨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면담자 아- 그러면 여기 이사 왔을 때, 의정부는 그냥 조그마한 마을이었겠네요?

송용득 예, 이제 의정부역이 있고요, 이제 고 썩 와 가지고서 서울로 가는 거, 또 저 주내로 저기 저 포천으로 가는 거, 또 저 남양주 저 퇴계원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저 이 사거리에서 인제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야 벽제, 그리 가는 길 있었는데 의정부에 인제 그 가운데가 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일본 사람 집 몇 있고, 그래 가지고 가운데서 5일마다 저걸 봤어요, 장 [면담자 : 5일장] 어, 그리고 지금 (의정부)3동이 거기 인제 음식점이 있고 장이 서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경찰서가 고 조금 올라와서 거 있었고, 그리고 시, 그때는 의정부, 양주군 시둔면 의정부리 이렇게 했거든요? 게 (그게) 면사무소가 고 지금 저, 저기 뭐야 그놈의 호텔 거기 자리 있었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는 집이 여기 하나도 없었고,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저 고든골(곰은골) 거기 집 몇 채 있고, 그리고 또 인제 저 신곡동 집 몇 채 있고, 또 서울 가는데 몇 채 있고.⁴



구술자 송용득 씨

3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88쪽.

4 2013년 5월 3일 의정부2동 송용득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2) 읍에서의 생활

송용득 씨 가족은 주내면 산북리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땅을 빼앗긴 뒤 다섯 살 때 의정부리 한성정미소 뒤로 이사를 왔다. 의정부리로 이사한 후에 송용득 씨는 양주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송용득 씨는 당시 의정부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면담자 그 정미소 옆에다가 그 집을 지어서 오실 정도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셨네요?

송용득 아니, 그 그냥 하교방(판잣집) 같이 지어 가지고 그냥 나와서, 그 그때는 의정부역에서 경원선 가는 그 저게 기차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서 물 놓는 데 밖에 있어, 인제 석탄 갈구서 그걸 헐 제(할 때) 그 가루 주서다가(주워다가) 팔고 그랬어요, 예, 그 찌그매서(어렸을 때) 예, [면담자 : 석탄 주워다가.] 응, 찌꺼기 그거를 갖다 어디다 팔았냐 하면은 저거예요, 저거 있잖아, 연장 만드는 어, 그 왜 대장간! 응, 저 사거리 고 대장간 있고, 고, 요렇게 된 데가 인제 서울 가는 쪽, 이쪽 가는 쪽 요렇게 해 가지고서 고기서들 이렇게 장사하고 그래고 아주 낙후 지구였었지.

면담자 그러면 여기로 이사 오셔서는 아버님(송용득 씨)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송용득 학교 땡겼지(다녔지), 그전에 여기 양주국민보통학교 공립이야.

면담자 그건 여기 의정부리에 있었던 거예요?

송용득 의정부, 인제 논 가운데 인제 거기서 학교가 거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6학년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4학년 되면은 각처에 양주군 주내, 저쪽에서 공부하러 그리 와, …… 그래서 여기 가에 인제 이 그 졸업장도 받고 그러고 일본 때 그 총 이제, 그러니까는 4학년 되면은 목총 메고 훈련하고, 저 밤에 거기가 논바닥이거든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것도 짓고 학교서 그래 가지고 4학년 되니깐은 조선(조선어과목)을 갖다 폐지했어, 일본 놈이, 그래 가지고서 이 신발도 조리(ぞうり, 草履) 맨드는 거 신고, 그래야 학교 오지, 저거 고무신 신고 못 오게 했거든.

송용득 씨에 의하면 1942년 양주면이 의정부읍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읍이 되었어도 마땅히 취직할 데가 없었던 송용득 씨는 양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진 찍는 기술을 배워서 서울 종로에 있는 ‘금강관’ 사

진관에 취직을 하였다. 해방 이전 의정부읍에서는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고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1940년에 별내면 산곡리로 이주한 강창신(1934년생) 씨는 포천군 가산면 정교리에서 태어났다. 조부 강지형이 독립운동에 매진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져 부모님이 서울 창신동으로 이주하였다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외가가 있던 산곡리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강창신 씨는 당시 산곡리와 의정부읍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면담자 그러면 여기 인제 그 1940년에 오셨으니까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렸지만, 이 양주군 별내면 요 동네는 어땠어요?

강창신 그렇지요. 엄청 달라졌지. 그 당시에 저기 지금은 이게 인제 우리가 하천이 동네에 두 개 있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고, 다리가 지금은 이쪽(쪽)에 하나, 둘, 세 개 저쪽에 하나, 둘, 세 개 있구나. 메인(main) 다리 한 개 여기 동네 건너오는 큰 다리 오는 거 그 거 말고 지금 저쪽으로 세 개 이쪽으로 두 개가 있던 말이야. 그 당시에는 그 다리라는 게 없었지 하나도.

면담자 음- 그럼 어떻게 다녀요?

강창신 뭐, 다리 없으면 그냥 이렇게 뭐 생긴 대로 땡기는(다니는) 거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땡기는 거지. 지금 [면담자 : 물, 장마 때는 못 다니고] 아, 물 많이 오면 못 땡기는 거고, 게 인제 여기는 그렇게 비가 외도 한두 시간 세 시간 지나면 물이 딱 그쳐요. 예, 여긴 깊은 계곡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몇 시간 후면 또 건너 땡길 수 있는 거고, 그 핵교(학교) 땡길 제도(때도) 거기서 인제 여기 인제 어른들이 쫓아가서 애들 뭐 건너 주고 그래야지.

면담자 음- 그럼 여긴 주로 농농사 많이 지으셨어요?

강창신 여기는 어려워서 농농사고 밭농사고 뭐 그때 뭐 말이 아니지 뭐.

면담자 그래요? [강창신 : 그럼, 시는 게.] 외삼촌은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강창신 외삼촌이요? 외삼촌은 여기선 그래도 구학문도 배



구술자 강창신 씨

우고 뭐해 가지고 동네 산곡리 이장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외삼촌은 개화된 양반이지. 당시에.

면담자 농사는 안 지으시고?

강창신 농사는 짓는데, 지었죠. 농사를 그 양반도. 그 당시에 농사 안 짓고 먹을 게 뭐 있어요. 농사 지어서 먹고 땀나무해서 떼고 그게 일이지.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돈을 벌려고 해도 벌 데가 있어야 버는 거지. 일할 데도 없잖아 어디 가서. 죽으나 사나 해 뜨면 가서 농사짓고 여름. 봄. 가을까지는 또 가을 딱 접어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산으로 죄(내)빼는 거지 땀나무하러. 땀나무를 해서 저장을 해 놔야 봄에 이제 농사짓고 여름에 농사질 제(때) 그걸로 밥해 먹을 거 아냐. 그런 생활이지 뭐.

면담자 그럼 당시에 그 의정부는 그러니까 양주면 의정부읍이었죠?

강창신 모르겠어. 그런 것까진 모르고 하여튼 의정부가 하나의 읍이었었던 말이야. 조그맣게. 그리고 지금 그 양주군청 있는 그 뒤로는 읍. 우리가 알기에 우시장이 있었고, 의정부래야 뭐 지금 뭐야 여기 농협중앙회 있는데 고 전 우체국 자리 거기 조금 뻘하게 이렇게 있었지. 의정부라는 게 뭐 읍이래야. 별 볼일 없던 거지. 뭐.⁵

2. 해방과 한국전쟁 전야의 의정부

1) 갑작스러운 해방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소련군이 진주한 38선 이북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하하는 월남민들이 한수 이북의 교통 요지인 의정부를 거쳐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의정부읍에 월남민들을 위한 피난민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당시 서울 장충단을 비롯하여 개성, 인천, 연백에도 피난민 수용소가 만들어졌는데, 의정부 수용소에는 1948년까지 약 1,000명의 월남민이 거주하였다.⁶

5 2013년 6월 11일 산곡동 강창신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6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792~793쪽.



송용득 씨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산북리 출신 송용득 씨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해방을 맞았다. 당시 송용득 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금강관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총독부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일본인의 추천으로 히로시마에 취직을 하러 갔었다. 히로시마에서는 잡화상에서 일하였는데, 그곳에서 운전을 배워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진주하자, 송용득 씨는 미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1년 동안 일하였다. 그는 1946년 의정부로 돌아왔는데, 당시 그의 부모님은 강원도에 가 있었다. 해방되기 직전 의정부역에 큰 화재가 나서 그 인근 지역에 있던 그의 부모님 집도 거의 불타 버렸기 때문이다. 해방 후 38선이 그어지면서 부모님이 이주했던 강원도는 북한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38선을 넘어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시 고향인 산북리로 데려온 후, 본인은 의정부읍의 미 7사단 에이치(H) 부대에 취직하였다.

면담자 그래서 해방이 돼서 의정부에 왔을 때는 의정부는 어땠어요? 달라진 게 있었나요?

송용득 의정부 많이 달라졌던데요.

면담자 그래요? 일본 갔다 오시니까요?

송용득 집이 저기 인제 집이 많이 생기고, 그전에 학교 마당이 죄 저거였었거든. 밭, 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거기다 집 지고(짓고) 뭐 또 그랬던데. 네.

면담자 그러면은 그때 해방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사셨어요? 강원도에 가셨지만 집은 어디 있었어요?

송용득 집은 인제 고향에 가서 있었지. 그래 나만 여기 인제 취직돼 가지고, 미군 부대 취직돼 가지고 서 차 끌어 가지고, 거기서 돈 좀 생겨 가지고 집, 세 칸짜리 집 지어서 결혼하고 살았지. (웃음)

해방 당시 12세로 별내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강창신 씨는 해방 이후 의정부읍에 가 보았다고 하였다. 별내국민학교 6학년 때는 서울 종로5가에 가보기도 하였다. 당시 별내면 산곡리는 양주밤으로 유명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밤을 지게에 지고 걸어서 서울 종로5가에 가서 팔았다고 한다. 다음은 산곡리, 의정부읍, 종로5가로 연결되는 사람과 물품의 유통로에 대한 강창신 씨의 구술이다.

면담자 어 - 그래요? 음 밤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강창신 걸어가야지 뭘 가져가 그럼.

면담자 의정부읍에서 기차타면 되잖아요.

강창신 기차가 어땠어.

면담자 (웃음) 그래도 그때 일제시대에 의정부역에 기차 들어왔잖아요, 경원선.

강창신 아유 기차 타고 버스 탈 그런 여유가 어땠어. 그때도 버스는 의정부에서 그 뭐야 종로5가 클루(거기로) 인제 하루에 몇 번 왕래한 거 같애(같아). 내가 생각할 제(때)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인제 국민학교 6학년 땀가.

면담자 종로5가에 가셨나요?

강창신 네. 그 6학년 때인가 어느 때인가 기억은 아물아물한데, 이 수락산을 벌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수락산 근데 벌채, 벌채 허가를 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실어 나르는 차가 왕래를 했다고. 예, 그래서 그 차를 한번 그 차 얻어 타기가 지금 이마 세단 얻어 타기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강창신 씨가 거주하고 있는 산곡동 흑석마을의 현재 모습

[면담자 : (웃음) (웃음) 차 구경을 못하니까, 목탄차 그게 오면 인제 그 당시에 우리 외삼촌 이 이 동네서 그 목상을 하셨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인제 우리는 뺄(배경, Back Ground)이 있어 가지고 그 차가 오면 한번 타고 의정부도 나가 보고, 또 인제 그리고 의정부 나가서 그 차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만나 타고 오다가 목탄차니까, 먼지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목탄 그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눈병이 나가지고, 내가 인제 그 의정부엔 병원이 없으니 안과가 없으니까 서울에 종로5가에 뭐 공안과인지 무슨 안과인지 있었어. [면담자 : 어우- 그때부터 공 안과였어요?] 예, 거기를 국민학교니까 6학년이구나. 음, 그때 이제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6학년인데 그 뭐 중학교 입학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여기 별내초등학교 거기서 인제 담임 선생님 집 옆 어느 사랑방에서 뭐 과외, 지금 과외라 그러나 특별 학습 이라고 그러나 그걸 이제 했어, 게 나도 한다고 이제 같이 가서 있긴 있었는데, 눈이 아파서 그냥 그 이 뭐야 붓대 소금물로 닦아내고 뭐 하면서 그같이 합숙을 한 기억이 난다고,

면담자 어- 공부 잘하셨구나. 아니 그래서 1950년에 그러면 한국전쟁 나던 해에 의정부 관내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강창신 : 그렇지.] 아- 6월에? 6월에 입학이예요?

강창신 5월인지 6월인지 그 당시에는 이제 [면담자 : 학제가 달라서.] 학제가 틀렸어 우리, 지금 3월

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거기 때문에 3월이 아니고 6월에 했을거야. 아마 6월에 해서 한 25 일 다니고 나니까 “6·25가 났다.” 하고 이제 여기 일루(여기로) 그냥 저기 포천서 피난민들이 짊어지고 줄줄이 가던 이 길이 옛날에 큰 보행할 제 이 길이 국도나 다름없던 길이야. 큰 도로야 이게. 이제 포천서 축석고개로 해서 인제 고산초등학교 일로 해서 일로 해서 여기 이 바위소리라고 거기로 해서 사기막으로 해서 순화궁고개로 해서 덕릉고개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지금 그 한래개울(중랑천)이라고 그러지 성북구 개울을 갖다 한래개울로 해서 장위동 고개를 넘어서 거기서 인제 창신동 또 경동고등학교 뒤로, 그래서 인제 서울 그 종로5가 밤도 팔러 다니고 그랬다 그랬지.

2) 혼돈 속의 해방 정국

해방 정국의 혼란기에 의정부읍과 양주군에서는 좌익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송용득 씨는 한국전쟁 전에 대한청년단으로 활동하며 의정부 일대 좌익 세력들을 색출하려 다녔고, 그 일로 인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큰 고초를 당하였다.

면담자 네 – 근데 6·25 전에는 의정부에도 좌익이 굉장히 셧다고, 빨갱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송용득 그럼요. 아주 그냥 밤이면 내가 대한청년단 동촌이었거든? 근데 빨갱이 잡으러 댕기느라고(다느라고)(웃음) 저 회춘면 저기까정(까지) 갔었는데 양수리 그쪽까정(까지) 여기 청년단이.

면담자 어 – 그랬어요? 근데 왜 의정부에 이렇게 빨갱이가 많았어요?

송용득 여기가 이북 사람. 여 본토인은 죄 없고 이북 사람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바닥 빨갱이들이 많았어. 그냥 인민군이 (의정부를 점령하고는) 군청에 과장이 우리(집) 뒤에 살았었거든. 근데 (내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붙잡혀 들어가 있는데 그 과장이 심사를 하더니 “아이 송씨 어떻게 청년단에만 댕겼는데 어떻게 여기, 오늘 저녁에 나가시라.”고 해서 몰래 내보내 줘서, 그냥 그때부터 또 숨어. 산으로 가(서) 자고, 저 친척 멀리 파주에도 가고 있었고 그랬었어요. 숨어서.

면담자 어유 – 다행이시네요.

송용득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저 백석면 또 그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 돌아가신 바람에, 빨갱이들이

그때 후퇴해서 나가는데 그냥 상제도 아닌데 상제처럼 하고서 피난을 해서.

면담자 그래서 겨우 사셨네요?

송용득 네. 청년단 땡겼다고(다녔다고) 집안 빨갱이한테 붙잡혀 가 가지고 내무소에 어우.

면담자 그러니까 6·25 나기 전에 대한청년단 [구술자 : 6·25 나기 전이지.] 대한청년단에서 빨갱이 많이 잡으러 다니셨으니까 그렇죠. [송용득 : (웃음) 빨갱이 잡으러.] (웃음) 빨갱이들이 오니까 잡힌 거지요. 왜 피난 안가셨어요?

송용득 아니. (왜) 못 갔으면 집에 사람(아내)이 이제 애를 배가지고, 저기 한강에까정(까지) 갔는데 그게 [면담자 : 한강 다리가 끊어져서.] 쓰러져 가지고 도로 돈암정 와서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조사하니까. 내가 총자루를 메지 않고 사진 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휴 그래 가지고 집에까지 왔는데. 여기 의정부 호원동 저거 있어요. 인민군이 그 땅을 이렇게 파놓고 가래. 그 인민군들 죽은 거 시체. 그래 가지고 그거 밤새도록 파고서 이렇게 여기 오니까는 (날이) 흰히 밝던데.

면담자 아. 그래서 피난 못 가셨구나. [송용득 : 네. 못 갔어요.] 그래서 잡히셨구나.

송용득 네. 그래 가지고 인제 고향에 가서 또 저거 해 가지고 또 죄 (불)타고, 여기 없으니까는 또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고향에 가서 세 들어 있는데, 숨어 땡기는데(다니는데) 나와 가지고 붙잡혔지. (웃음) 집안 내 친척인데 그렇게 신으로 몰래 숨었다가 오다가 붙잡혀 가지고, 양주군청 앞에 거기 이런 비석이 있었거든? 그때는 저기 산이고, 거기다 세워 놓고 인제 총으로 썩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인민군 지프차가 오더니 “왜 이러냐?” 그래서 이게 반동이 라고 그래. 뭐라 그러니까 “에잇 데리고 들어가서 저거 하라고 이런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야단쳐 가지고 인제 거 양주 읍내 그 전엔 거기가 재판하고(하고) 말야. 목도 자르고 그랬던 데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인제 되게 맞아서 허리 그냥. (야구) 베트 방망이로 죽도록 그냥 맞아 가지고서, 인제 양주경찰서로 넘어와서 죽어 달라고 자꾸만 수소문은 오고, 밤이면, 나가면 양주 이 밤에만 나가면 죽는 거야. 그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 가지고서 숨어 땡겼지(다녔지).

면담자 근데 청년단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송용득 청년단 뭐지 저 다 들어가게 됐어.

면담자 청년단은 주로 [송용득 : 나이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송용득 아니야. 그때는 여기 인제 이 본토인들 많았어요.

송용득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의정부 일대에 좌익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 청년단의 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의정부읍이 속했던 양주 갑 선거구에서는 김덕열 후보가 제헌의원으로 당선되었다.⁷ 남한의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의정부도 한국전쟁이 날 때까지 평온을 유지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의정부읍은 다시 잿더미로 변하였고, 그 잿더미 속에서 의정부읍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되었다.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7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792쪽.

여 백

한국전쟁이 남기고 간 사람들

1. 탄 세상이 된 의정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정부는 서울에서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가 관통하는 관문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의 북방으로부터 32km 떨어진 의정부읍에는 한국전쟁 직전 양주군청이 소재하고 있었다. 당시 의정부를 통과하는 도로로는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는 경원선이 있었고, 비포장 3번국도(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와 비포장 43번국도(포천-철원-원산)가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그어진 38선은 의정부 북방의 포천을 지나 철원에 이르는 43번국도상에 그어졌다. 의정부에서 포천까지는 25km였고, 그곳에서 18km를 더 가면 38선이 있었다.¹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7사단이 인민군 4사단의 전차 공격으로 이튿날인 26일에 와해되며 의정부는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² 이후 의정부는 3개월간의 인민군의 지배하에 있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과 함께 수복되었다. 북진을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하며 서울을 내어주었으나, 1951년 봄에 재탈환하였다. 이후 1953년 정전이 될 때까지 38선 일대

1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794·795쪽.

2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801쪽.



의정부읍 중심가(1950년대)

를 사이에 두고 전투가 교착되었다. 이때부터 의정부는 동부전선을 담당하던 미 9군단과 10군단의 중간 기지가 위치한 군사 거점으로서 일대에 보급기지, 유류저장고, 통신기지, 사령부 등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³

의정부가 수복되자 충청남도 청양으로 피난을 갔던 강창신(1934년생) 씨와 강창신 씨의 외갓집 식구들은 산곡리로 돌아왔는데, 이미 의정부는 딴 세상이 되어 있었다. 미군 부대가 이미 주둔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의 모습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강창신 씨는 생계를 위해서 미군 부대가 있는 만가대(현 용현동)로 이사하여 하우스보이(house boy)로 일하게 되었다.

면담자 아- 딴 세상이 이미 돼 있었어요?

강창신 딴 세상이 돼 있어. 근데 거기는 인제 나, 외삼촌, 큰외삼촌, 누이들 둘하고 다섯 명 남고 나머진 먼저 올라왔단 말이예요. 거기서 인제 배급이라도 타먹으려면 쓸 만한 놈이 하나 있어야

3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8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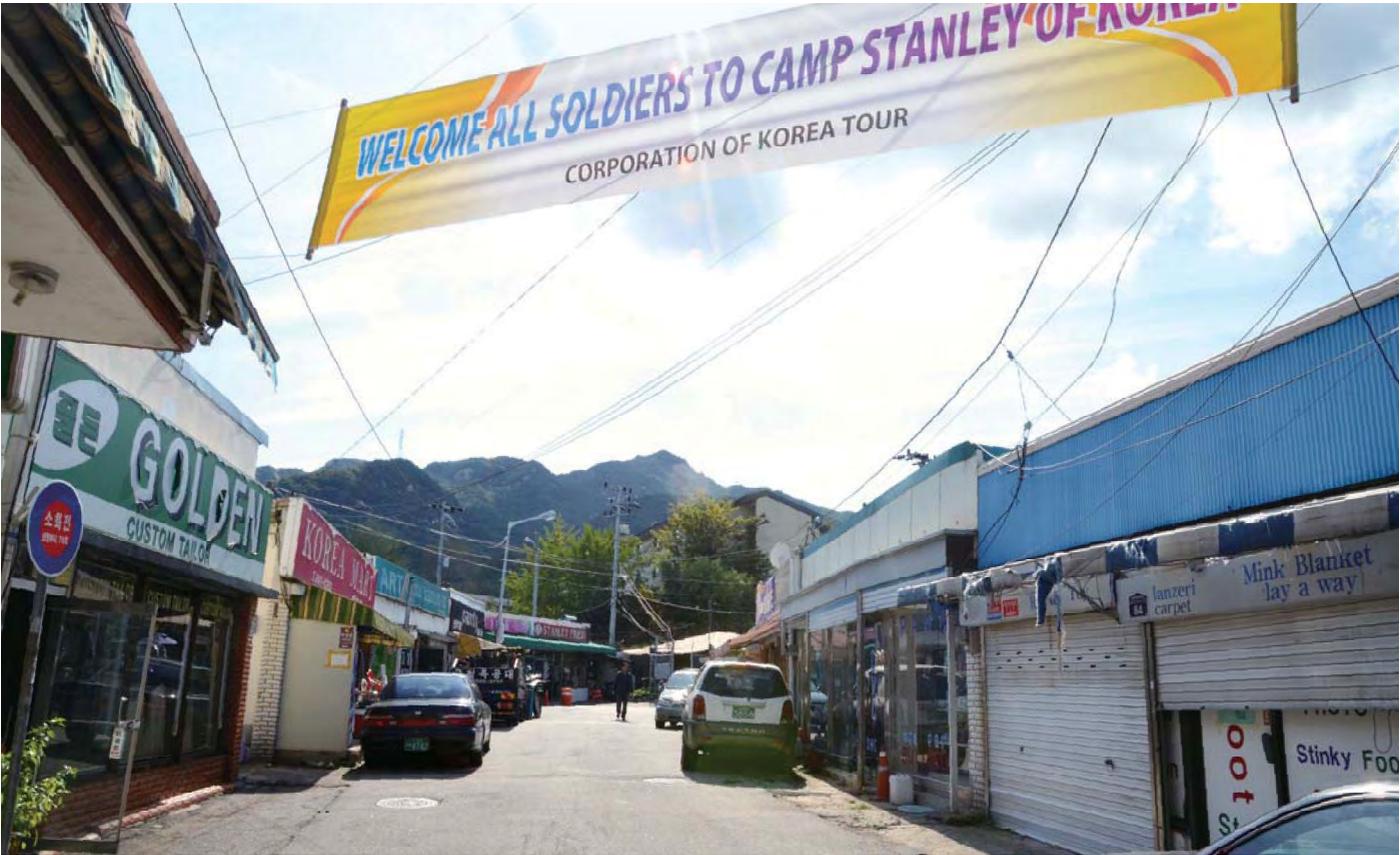


만가대 하우스보이 시절 강창신 씨



강창신 씨가 용현동 만가대에 거주하던 당시의 집(1950년대)

된다고 그래서 나를 잡아놓고는 내가 제일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면담자 : (웃음) 그랬으면 뭐 미군 부대를 쫓아댕기든지(다니든지) 뭐를 했지. 근데 여기 와보니깐 딴 세상이야. 그러니까 감동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뭐 아주 “무비(movie)”, “해부(have)”, “예스(yes)” 뭐 영어로 막 하고 그래. 애들이 여기 보니까 아주 딴 세상이야. 뭐 어찌구 어찌구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게. 그리고 인제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개울이 있지 저기서 물이 있었으니까 그냥 차(가) 오면 세차해 주고 강통 가지고 인제 매달려서 “와셔, 와셔(wash, wash).” 그러면 “하라.” 그러면 이제 세차해 주고 쪼고렛트(초콜릿)도 받고 뭐 1불(\$1)씩도 받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와보니깐 딴 세상이지 그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서 그래. 내가 속으로 ‘이야 나 한발 늦었구나.’ 인제 일찍 온 사람. 뚝뚝한 놈들은 그 하우스보이로 해서 쫓아갔지.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 와보니깐 6·25사변이 나서 다 망했는데 외삼촌이고 작은 외삼촌이고 누가 우릴 (돌봐 줘). 그때 어따(어디에) 기대. 기델 데도 없는 거지. 아무데도. [면담자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빼벌에 포리세컨 트랜스포테이션(42nd Transportation)이라고 수송중대가 있었고 만가대 514라는 수송중대가 있었어. 미군부대. …… 그러니까 여기선(산곡리) 살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인제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누이하고 저 글루(거기로) 내려간 거야. 거기. 만가대로 내려가서 빈집이 있었으니까. 그냥 빈 집에 가서 살면서 나중에 주인 오면 내주고 살면서, 거기서 인제 그 미군한테 저거 해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막사 종업원이라고 그러지. 하우스보이이지 뭐 미군들 침낭 개주고 구두 닦아주



현재 캠프 스탠리 인근의 빼벌 골목

고 물 떠다 주고, 거 이제 거기 가서 그거 내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뭐 사부사부(사바사바, さばさば) 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면담자 어- 경쟁이 치열했어요?

강창신 아니,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군들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또 미군들이 이제 저희 마음이니까 저희가 데려다 쓰고, 싫으면 나가라면 고만(그만)인 거고 무슨 그 당시에 뭐 미군이 관두려면 관두는 거. 한 막사에 열 몇 명씩 댔고 그랬었어요, 그게 천막에 거기 가서 이제 마음에 들면 데려다가 일 시키고 1불(\$1), 한 어떤 미군은 1불(\$1) 주고 어떤 사람은 2불(\$2)도 주고 어떤 사람은 아- 주지도 않고, 안주면 뭐 달랠 수 있나? 음, 그렇게 이제 생활했던 거지, 그게 그 당시에 난로도 이제 석유난로 아냐? 옛날 천막도 옛날 그런 천막, 옛날 미군 부대 그 천막에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자나 방 하나에? 그 천막에 물 떠다 놓고, 난로에 기름 떠다 놓고, 이 미군들 구두 닦아주고, 자고 일어나서 내 빼면 그 침낭 개어서 놓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일이에요, 근데 일정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면담자 한 달에 한 번씩 딱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강창신 그렇지 개들이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월급 타면 주는 거니까 주긴 주지. 근데 그게 일정한 보수가 아니고 2불(\$2) 주는 사람, 1불(\$1) 주는 사람, 5불(\$5) 주는 사람, 5불(\$5) 주면 엄청 많이 주는 거고 보통 주는 게 2불(\$2)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인제 우리 어머니는 인제 재주가 좋아서 미싱을 잘했어. 게 미군 애들 이제 옷 줄여주는 거 그런 것들 하고 그랬지. 그렇지. 그땐 철조망 있으면 철조망 사이로 위로 이렇게 주고 [면담자 : (웃음)] 그럼. 그리고 인제 그 당시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철조망 이렇게 치면 미군들이 밥 먹고 갖다 버렸잖아. 이렇게 먹고 트래시칸(trash can), 트래시칸이라고 그러지. 그 거기다 버리면 이렇게 얼른 들어가서 그거 바가지 갖다 퍼다 먹는 게 일이야. 그 당시엔 없는데 그거 먹어야지 뭐 먹어. [면담자 : 꿀꿀이죽.] 꿀꿀이죽이 아니라 그건 이제 그건 꿀꿀이죽은 공식적으로 그거를 인제 그 쓰레기 차(우)는 하차장에서 돈을 주고 맡아서 갖다가 해서 또 펴고 다시 주는 거고, 그건 그 가기 이전에 민간인들이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가서 훔쳐다 먹는 거지. '갓뎀 (God damn)' 소리 들어가면서. [면담자 : 아, 그러셨구나. (웃음)] 그런 걸 먹고 살면서 이제 우린 거기까지는 안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또 밀밥을 줘서 밀밥만 며칠 먹어 봤어요.⁴

한국전쟁 동안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의정부로 돌아온 송용득(1921년생) 씨도 미군 부대 기지촌이 된 의정부에서 미군 부대 물자를 수송하는 트럭을 운전하였다.

면담자 군대 제대하시고 나서 다시 의정부로 오신 거는 정전 후에 [송용득 : 그럼요] 의정부로 오신 거죠? [송용득 : 네.] 어— 근데 그때 의정부에 왔을 때 미군이 이미 주둔해 있었나요?

송용득 어어, 미군이 저기 일본 놈(들이 있었던) 거기 죄 있었고, 이제 고 지프차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게 여기에서 거기까정(까지) 가고, 차가 그때 인제 도요타(トヨタ, Toyota)도 뭐 나오고 그래서, 그 한진이 있었어 여기.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미군 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이제 군대 나도 갔다 와서 뭐 저거(직업이) 없으니까는, 이제 차를 산 사람이 날 (데려)가서 인천 있잖아요, 부두. 거기 가서 2년을 중국집에서 밥 먹어가면서 (웃음) 그 미군 물자 실어 날랐거든? 왕 십리로 그 도라무깡(드럼통), 근데 그게 인제 기차로 여기까정(까지) 오니까 여기서 밀리니깐

4 2013년 6월 11일 산곡동 강창신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한진이 또 저쪽에 저 신곡동으로 갔는데, 의정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 구름다리가 없었거든? 그래 가지고 가운데로 지금 거기다 공원을 뿌려 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냥 하루 30표씩 그냥 도라무(드럼) 날르고(나르고) 그래.

면담자 그러면 미군 부대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게 된 거예요?

송용득 그럼요, 저 저기 1군단 저기 있고, 이제 이쪽에 있고, 에- 또 저쪽에 있고, 그냥 무척 많았어요.

면담자 음-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여기 기지촌에 여성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송용득 그때는 동두천도 고 38선이 조금(조금), 지금 무슨 거기가 38선이었거든? 임진강 거기 못 가서 이쪽에, 거기가 38선이었어. (기지촌 여성들이) 없었지 그때는, 의정부 이쪽만 있었지. 여성은 요기 저 고든골 올라가는데 여기 개울 위에 거기 미군 섹시들 죄(다) 살고 그랬어. 그 1군단 앞에 죄(다) 그 여자들이 다 그 미군한테 얻어먹고 살았어. (그)게 의정부가 그렇게 많이 집을 짓고 그때부터 발전이 돼 가지고, 뭐 경찰서도 다시 짓고 뭐 이리 오고 법원도 생기고.

면담자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의정부에서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까지 가신 거잖아요. [송용득 : 그럼요.] 어- 그러면 나머지 의정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해서 먹고살았어요?

송용득 농사짓고 먹고살았지 뭐.

면담자 그리고 미군 뺨에 (먹고 사는 데 변화한 것이 있나요)?

송용득 6·25 끝난 다음에는 장사해 먹고 미군이 그거 저거 버린 것들 사서 먹고, 그래 꿀꿀이죽 [면담자 : (웃음) 그것들 먹고,

면담자 그래서 그 의정부 부대찌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송용득 아니요, 꿀꿀이죽이라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게 있거든. 그것들 사다 먹고 담배, 담배꽂초도 나와 거기에, 함악했었어.

면담자 근데 미군이 주둔하면서 또 여기 일자리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미군을 상대하는 장사요.

송용득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돈 벌었지.⁵

5 2013년 5월 3일 의정부2동 송용득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2. 월남민의 의정부 정착

1) 월남민이 많은 이유

38선에서 42km 이남에 위치한 의정부는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군사기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월남민들이 의정부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북의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월남민들은 조금이라도 고향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하였고, 또한 의정부는 미군 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장사를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황해도 황주 출신인 홍건호(1929년생) 이북오도민회 경기연합회 회장은 현재 의정부의 월남민 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면담자 음, 근데 회장님 여기 보시면 회장님도 인제 그 피난민 실향민이신데, 의정부에는 본토박이는 거의 없구요?

홍건호 15%, 기령 예를 들면 호남이 한 30%, 경상도가, 영남이 한 30% 내외, 이북 사람들이 한 15%.

면담자 월남민이 그것밖에 안돼요?

홍건호 그럼요, 그럼 많아 보이지만.

면담자 어 - 전 더 많을 줄 알았어요.

홍건호 응, 15% 정도요⁶

이렇게 월남민의 인구가 예상보다 적어진 것에 대해서 홍건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면담자 저는 실향민들이 여기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만큼 많은 줄 알았어요.

홍건호 처음엔 그렇게 좀 됐어요.

면담자 음, 제일시장도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홍건호 상권을 거의 쥐다시피 했죠, 상권을. 그런데 그게 돈 벌면 다 이 고향을 떠나, 지금 남은 숫자

6 2013년 6월 4일 의정부1동 이북오도민회·황해도민회 의정부지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가 그 정도 줄고 말았어요.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한데요. 여기는 배가 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배가 많이 실리면 거길 떠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는 얘기고, 그런 풍수, 풍수설이야. 일종의 '돈 벌면 여길 떠나라' 이거야. 떠나야 유지가 되지 돈 벌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가라앉는 그래서 떠나는 거요.

산북리 출신 송용득(1921년생) 씨도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에서 돈을 벌면 떠나야 한다는 풍수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오늘날 한국전쟁 직후보다 월남민의 인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풍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 주변의 중소 도시에서 성공하면 더 큰 규모의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서울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정부상이군경회 조정희(1927년생) 회장은 평안북도 용천이 고향으로 한국전쟁 중에 국군에 들어가서 정전되기 바로 직전 철원 지역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다. 정전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이군인이 되어 1958년 당시 양주군 노해면에 속한 창동에 살고 있는 누님을 찾아가 그곳에 머물렀다. 이후 1960년 공무원이 되어 부천시 교도소, 서울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근무하였다. 조정희 회장은 결혼 후 처음에는 서울 미아리에서 살았다. 하지만 공무원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렵자, 부인이 장사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965년 의정부시로 이사 왔다. 당시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누님이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조정희 회장의 부인은 제일시장에서 '505털실' 장사를 하였다.

면담자 그러면 여기에 누님이 있어 갖고, 여기 당시에 창동, 양주군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 의정부의 모습은 어땠어요?

조정희 그땐 뭐 여기 이게 탄약고고 여기 이, 철도 이쪽(쪽)은 다 탄약고였어요. 한수 이북에서 보급하는 탄약고 창고였(어요). 그리고 수복해서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사니까 원주민이 적어요. 여기 저-판데서들 다 와서 살고, 이북에서 나와서



구술자 조정희 회장

살고, 원주민이 적어요. 지방에서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뭐 이렇게 충청도에서 이북에서 (외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⁷

2) 의정부 상권을 장악한 월남민

1953년 정전이 되자 미군 부대가 의정부에 정식으로 속속 들어서면서, 미군 부대를 상대로 하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제일시장은 1955년 현재 의정부 구시가지 중심지에 160개의 점포가 모여 개설되었다.⁸ 1957년 의정부 KSC(Korean Service Corps, 한국노무단)에 근무하게 되어 의정부읍으로 이주한 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KSC지부장 김규호(1937년생) 씨도 제일시장의 상권을 월남민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면담자 음 - 제가 이제 의정부시사를 보면 그 초기 상권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의정부에서 제일 큰 데가 제일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일시장도 미군 부대와 관련된 상점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다 돼 있었나요?

김규호 그러니까 소비자는 미군 부대 종업원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인자 관계가 돼 있지 돼 있고, 그런데 인자 여기도 그 당시에 이북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까우니까 많이 거주를 하고, 그 시장 같은 데 이북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 [면담자 : 아 - 제일시장에.] 예,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 사람들도 생활력이 저 -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데 뭐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거예요 예.⁹

1965년에 제대를 하고 의정부로 온 이만수(1935년생)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1960년대 중반에도 월남민이 의정부 이주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의정부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7 2013년 4월 12일 의정부2동 의정부보호회관 상이군경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1차 인터뷰이다.

8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894쪽.

9 2013년 4월 29일 신곡동 의정부문화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면담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월남인들도 이북에서 오신 분 못 올라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만수 많지요. 옛날에 여기 오니까 제일 많은 그 지역민이 이북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면담자 아- 그때 1965년도에 오셨을 때.

이만수 이북 사람들이 좌지우지 경제권도 좌지우지하더라고요.¹⁰

조정희 의정부상이군경회 회장은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고 건축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의정부3동에 많은 주택들을 건설하여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다. 1984년에 의정부상이군경회 회장이 된 이래 현재까지 의정부의 상이군경들을 위한 회관을 짓는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월남민으로서 의정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면담자 근데, 의정부는 보면은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는 곳인 거 같아요, 본토박이보다.

조정희 이제, 피난, 이북 사람들도 피난 갔던 사람들이 고향 짝(쪽)으로 가깝게 올라고 다들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원주민보다 많죠.

면담자 근데 여기서, 의정부에서 이주민이 와서 사는 데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신 거 같아요?

조정희 예- 외려(오히려) 원주민보다 더 잘살아 [면담자 : 이주민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고 또 근면하고 뭐, 그래도 이제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쁜 소리는 안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근실하고 먹게 살게 되고(잘 먹고 살게 되고) 이렇게 허고(하고) 뭐 도와주면 도와줬지만 피해 끼치진 않거든요. 평안도 사람들.

조정희 회장은 시의 체비지(替費地)를 가지고 건설 회사에 팔아서 회관 건물을 구입하여 상이군경회 회관을 건립하였다가, 1989년에 경기도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는 수원외 경기도청에 수없이 다니면서 노력하여 지원을 받았고, 이는 그의 도움으로 건물을 지었으며, 시에 보훈회관으로 기증하여 운영비를 받게 하였다. 또한 조정희 회장은 1990년에는 의정부에 애향회를 조직하였고, 『국가안보신문』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10 2013년 5월 9일 호원동 신일유토티빌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3. 전후 제대 군인의 의정부 정착

1) 제대 군인에게 매력적인 의정부

한국전쟁 직후 의정부는 주변의 군사도시인 동두천, 연천, 포천 등의 사이에서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전후 거의 모든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는 필수적이었고, 이들은 대개 휴전선에 가까운 전방에서 근무를 하였다. 당시 의정부는 군인들이 인근 군부대로 이동하며 거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미군 부대로 인하여 외출 군인들이 모이는 소비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50년대 농촌 출신으로 의정부 부근에서 군대 생활을 한 군인들에게 제대 후에 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고향보다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의정부가 기회의 땅으로 비추어졌다. 당시의 상황을 김규호 씨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면담자 그러면 그 1957년 정도에 의정부로 오셨을 때 그 당시 의정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김규호 그 당시에 의정부는 한마디로 그 인구가 10만 미만일 땡니다(때입니다).¹¹ 그러니까 인자 전쟁에 뭐 여러 가지 폐허되고 뭐 해가지고 황무지인데, 그 개울갯이(개울가) 뭐 전부 판잣집이고 뭐, 응, 또 주민들 사는 것도 생활이 영 말이 아니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종업원들이 그때 한 일반 종업원들이 한 2,800명 약 3,000명 가까이 있었고 KSC가 2,200~2,300명 되었고 그래, 이 종업원들의 가족을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면담자 :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의정부 경제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됐는 거예요, 뒷받침이 됐는 거라고.

면담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의정부는 거의 뭐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돈이 돌고 그런 상황이네요.

김규호 그렇지 대부분 인자 그 주민들이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말이지, 그런데 그 옆집 저 집 미군 부대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고, 다 종업원들이고, 그리고 뭐 식당 술집밖에 더 있었어요? 그때 여기 뭐 소비도시니까 딱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날 거가서 미군 부대 종업

11 의정부시의 인구가 10만 명 미만이었던 때는 1970년대까지를 말한다.

원들이 앉아가지고 술 먹고 뭐 밥 먹고, 그러니까 도시가 그래 형성된 거야. 그런데 인자 인구가 조금 20만 넘어가고 하니까 인자 이게 달라졌는 거지, 의정부시가 이제 완전히, 저 미군 부대는 까 - 말게 잊어버리는(잊어버리는) 거야 미군 부대 종업원들은.

면담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노조 활동을 한 15년 정도 쪽 하시면서 이제 여기 의정부에 인구가 는다(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외지인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김규호 그렇지요. 그래 인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그 미군 부대 종업원들도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들어오고, 또 그 저쪽에 경상도나 전라도 저쪽에 수해 같은 거 나고 뭐 하면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도 많이 가지만은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인자 그 좌우기간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렸는 거야 주로.

면담자 음 - 근데 여기에 이제 일을 취업할 수 있는 게 그럼 미군 부대 때문에 취업이 훨씬 더 쉬웠다는 거죠? [김규호 : 그렇지 쉬웠지요.] 다른 지역보다.

김규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군 부대 종업원들이 뭐 전라도 경상도고 다 충청도고 그 저기 연관되어 있으니, 거기 인자 우선 동생이니 뭐, 뭐 조카니 하면서 다 불러다 여기 취직시켜주고 하니까 자연히 또 그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

의정부 구시가지에서 고흥안경원을 운영하는 송동현(1935년생) 씨는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에서 1958년에 의정부로 왔다. 제대 후에 사촌 형이 살고 있는 의정부로 온 것이다. 송동현 씨는 처음에는 회룡골에서 나무를 해서 나무장사를 하다가, 의정부역 앞에서 라이터, 하모니카, 만년필, 안경 등을 파는 '고마모노(こまもの)'라고 불린 노점상을 했다.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후에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고흥안경원을 열었다. 현재 고흥안경원은 의정부역 앞 새롭게 단장한 젊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옛 고흥안경원

2) KSC-전쟁 노무자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KSC는 한국인 노무자 부대로 일명 '지계부대(A-Frame Army)'라고도 한다. 미군과 UN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 내에서 이들을 지원해 줄 군대나 단체가 없었다. 따라서 1950년 7월 12일에 대전협정을 통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되자, 이승만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7조에 의거하여 미군의 군사지원을 위한 한국인 노무자 부대인 KSC가 강제 동원되었던 것이다. 김규호 전 KSC 노동조합 지부장은 1957년 임진강에서 미군 해병대와 함께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 후 KSC 제20중대가 있는 의정부에 취직이 되었다. 김규호 씨는 KSC 노동조합 설립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규호 길거리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붙들어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 붙들려 들어가는 거야. 그때, 그래서 그 비단 그뿐 아니고 전국에 시·도에 다 그 인원을 할당해가지고 저 모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원이 약 3개 사단 한 15만 됐어요. 15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임무가 그 미군 탄약 운반, 또 미군 그 살상자들 운반 및 매장, 도로 보수, 탄약 운반 이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걸 계속하다가 그 1950년 [1953년을 혼동] 7월 27일 날이 휴전이 되자 인자 그, 그 많은 사람들이 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고, 연고 없는 사람들, 인자 그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 안 그러면 남쪽에서도 가족이 없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약 한 5,000명이 남았어요, 그래 이 5,000명이 바로 미군들 역시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고, 미군 부대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일을 인자 시키면서 이 사람들 보수가 없는 거야, 보수가, 음 - 그러니까 인자 자기들 그 천막 쳐주고, 또 식사 제공해 주고, 이거는 인자 그 미군에서 제공해 해주었지만은 그 외에는 아무, 피복(군복) 인자 제공해 주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전연(전혀) 임금이나 이런 게 없었고 고(그) 조금(조금) 후에 인자 구분해 가지고, 그때 저 두 단계를 나눠 가지고 2,400원 주는 그룹이 있고, 4,200원 주는 그룹이 있었다고,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인자 그걸 받고 거기서 근무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어디.

면담자 근데 그 두 그룹을 나눈 그 기준은 뭔데요?

김규호 그 기준은 그 약간 기능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자 페인트칠하고 무슨 그 자동차 수리하고

뭐 하는 고려(그런) 그룹은 인자 조금 돈 더 주고, 그 다음에 인자 레바(lever) 인자 막일 하는 거는 인자 그 돈을 작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00, 그러니까, 1955년도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그때 34회가 국회에서 그 “이 사람들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자유 노무잔데 전시도 아니고 이런데 이렇게 혹사시키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인자 논의가 돼 가지고 이게 인자 국방부도 연락이 되고 법무부도 연락이 되고 했는데, 그때 1965년 2월 5일 날이 KSC 노동조합이 결성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방부나 육군본부 다니면서 이 문제를 그 노동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망글었고(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인자 보호를 못 받던 뭐 퇴직금 기타 수당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했는 거지(했던 거지).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 “주동하는 사람들 뭐 전부 해고시킨다.” 그러고 엄포 놓고 했지만은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인자 그래 싸워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쳐우개선을 완전히 했는 거라고, 그래서 인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래 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 외화 획득 아닙니까. 그 엄청난 돈이 그 그때 달러(달러, dollar)가 직접 들어왔다고, (웃음) 그래서 엄청난 우리가 그 기여를 한 거지 국가에 인제, 응?

의정부시에 KSC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곧 노조 회원들의 성금으로 KSC 노동회관이 만들어졌다. 1970년대까지 KSC 노동자들은 의정부시 인구(당시 10만 명) 중에 약 3,000명으로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집단 세력을 형성하였고, 이들의 외화벌이가 의정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김규호 씨는 노조 결성 이후 KSC 노동자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면담자 그러면 조합은 그 부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어요?

김규호 바깥에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 KSC 노동조합 사무실을 저 의정부 시내에다가 그때 조합원 성금으로 건립을 했어요. 해가지고 3층 건물이 아직도 있다고 거. [면담자 : 음 - 어디에요 거기가?] 거기가 저 어딘고 하면은 경찰서 가는 쪽에 그 우측에 KSC 노동회관이라고 써 놨다고. …… 우리가 그 2월 5일 날이 KSC노조가 결성이 됐어요. 1965년, 되자마자 인자 성금으로 그 지었는 거라고 그 당시에. 예 - 그뻐 뭐 대단했지, 대단했지. 예 - [면담자 : 3층 건물을 당시에 건립할 정도면은.] 대단했는 거지요, 그때, 그 저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뭐 성원이 그냥 그러니까 뭐 죽다가 살은 거지. 그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는 거지. 전부 그냥, 돈

뭐 서로 널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뭐 그 난리가 났는 거지. 거, 하루아침
 에 퇴직금 생기지 뭐 임금 따블(더블,
 double)로 올라가지. 보너스 생기고 뭐
 생기고 하는데 뭐 그거. (웃음)



김규호 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KSC 지부장

면담자 그런데 이 노조를 만드시고 그러는 거
 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
 으셨어요?

김규호 아이디어라기보다도 뭐 그냥 당장 우리가 아쉬우니까. 응, 그거 아니면 살길이 없다. 그때만
 하더라도 언제 전쟁 붙을지 모르고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냥 별로 그 목숨에 애착심이 없었
 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살 때는, 그래서 이게 뭐 나쁜 얘기지만 만날 돈 좀 나오면 술
 집 다 갖다 주고 술 먹고 뭐 (웃음) 종업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특히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고향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고 뭐.

면담자 아니 근데 이 KSC 종업원 중에서도 여기서 결혼해서 정착하고 그런 분들 많을 거 아녜요?

김규호 지금이야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은 사회 뭐 얼마한(웬만한) 그 대기업보다도 보수도 낮고 완
 전히 정착돼 있지. 그 정년 연장도 지금은 (다른 데는) 61세대 (우리는) 63세까지 보장해 주
 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 사회보다 훨씬 낫다고, 보너스도 그 저기 그러니까 1년에 임금을, 월
 금을 열아홉 번인가 탄다고, 보너스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28일 만에 인자 월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타고 지금은 괜찮아요. 이 사람들 다 뭐 서울 나가서 집 사고 뭐 해 가
 지고 다 잘산다고 지금. 지금은 생활이 완전히 생활이 많이 달라졌지.

4. 미군 부대 노동자들

1953년 정전 후 인구 6만의 의정부읍은 도처에 미군 부대들이 세워지면서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1953년 현 가능동에 미 1군단 사령부(현 캠프 레드클라
 우드)가 주둔하였고, 현 의정부2동(캠프 라파디아, 2007년 반환됨)에는 미 1군단 사령
 부의 직속 항공대가 건설되었다. 가능동과 녹양동에는 통신부대가, 덕정리에는 공병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한국인 노동자(1970년대)

원부대와 병기병참지원부대가, 그리고 금오리와 송산리에도 공병지원부대(현 캠프 스탠리)가 들어섰다.¹² 이로써 전후 의정부 주민들은 미군 부대와 함께 군사기지 의정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해 미군 관련 유흥업과 요식업·숙박업 등이 발전하였고,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일찍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된 미군 부대 노동자들이었다.

장기숙(1933년생) 씨의 남편 고 박태규(1929년생) 씨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의정부 KSC에 취직하였다가 미 1군단 수송부 통역관으로 전직하였다. 장기숙 씨는 1955년에 남편과 결혼하여 청주 시택에 있다가 1956년 남편을 면회하러 왔으며, 그제서야 가능동에서 살게 되었다. 장기숙 씨가 결혼 이듬해에야 의정부로 남편을 만나러 온 것은 의정부에 미군 기지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¹²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811쪽.

면담자 인제 점점 미군들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기지촌

여성들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적어지고.

장기숙 보지도 못했어. 인제 나중에는 보지도 못했어.

면담자 언제부터 이렇게 보지도 못하시고 [장기숙 : 오래됐
지 벌써.] 음-.

장기숙 못 본 지가 오래됐어. 한 이삼십 년 된 거 같아.

면담자 인제 의정부는 사실은 기지촌이라고 해서 그런 이
미지가 강하잖아요.

장기숙 나도 처음에 여기 기지촌이라고 못 가게 해서 안 올
라 그러다가, 뭐 실림하는 사람 집에서만 있으면 된

다고 그래서 그냥 온 건데, 뭐 처음에는 부모님들 반대했어. 여기 못 가게 했었어. [면담자 :
그럴 거 같아요.] 응.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괜찮았어. 아무렇지도 않고¹³



구술자 장기숙 씨

장기숙 씨는 서울 청과동 효창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충청북도 청주의 고향으로 내려
가 석교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청주여자상업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 양재
(洋裁)를 배워서 양복점에서 일하다가 결혼하였다. 그녀는 1956년 의정부읍에 처음
왔는데, 당시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면담자 서울에서도 살고 그러셨는데, 의정부에 처음에 와보니까 어땠어요?

장기숙 그냥 집 더러더러 군데 있고 썩대밭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면담자 : (웃음)] 말하자면
아무것도 그냥 건물 같은 게 없었어. [면담자 : 어- 전쟁 때문에.] 응. 시장 저기하고.

면담자 어- 의정부 역사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의정부역은.

장기숙 역도 있어도 시원찮았었어. 다 부서지고 뭐 차 타고 다니지도 않았거든. 버스만 타고 다녔지.
어, 버스, 차가 없었어.

면담자 버스, 그러면 청주에서 서울로 버스 타고 오셨나요?

장기숙 아니, 저기, 그렇지 청주서 오빠가 서울서 사니께, 서울 와서 며칠 있다가 인제 조카가 데리

13 2013년 5월 21일 녹양동 장기숙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고서 여기로 왔지.

면담자 그러면 서울에서 의정부는 다시 또 버스 타고, 오- 기차가 있었는데 기차는 (없었어요?).

장기숙 없었어. 못 봤어.

면담자 어- 버스 타고, 그러면 옛날 있었던 그 시외버스터미널로, 음- 그 여기 오니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기숙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시장 안에 저 하꼬방(판잣집), 하꼬방이 아니라 이렇게 포장 처(농)고 서 장사들 하고, 시장 안에도 그냥 저기 아주 정신없었어. 장사하는 것들도 시원찮았었어. 응.

면담자 그래서 거기서 가능1동에 있는 하꼬방으로 인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은 거기서 의정부버스터미널에서 가능1동은 걸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장기숙 걸어서 언제든지 땀겨지(다녔지). 근데 잘 안 나갔어. 무서워서. 미군들이 있기 땀에 무서워서 안 땀겨져. 집에서(집에서) 저기 하면 여자들 잘못 보면 쫓아오고 막 그래서 무서워서들 안 나가 돌아땀겨져. 집에서만(집에서만) 그냥 살림해고(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래 오자마자 인제 한 서너 너댓(3~5)달 있다가 인제 애기를 기졌어.

면담자 아니, 그런데 여기 혼자 사시면은 외롭지 않았어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장기숙 외롭고 뭐고 신랑 그냥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옛날이니(이니까) 뭣도 몰라. 그냥 근데 인제 그 친구 부인들하고 한 서너(3~4)집이 붙어 사니까 그냥 고 사람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가게 길라하면 그 한양(같이) 가고 쌀 사러 시장 길러면 또 한양들 함께 가고 그랬지 쌀 사러 시장으로 가서. [면담자 : 제일시장요?] 어, 제일시장이 아니라 시방(지금) 그렇지. 제일시장 있는데 거기여 그 자리여 옛날.

면담자 아, 그니까 그때는 아직 제일시장이 아니었어요?

장기숙 없어. 어, 그냥 시장인데 엉망이었었지.

면담자 그게 발전이 돼서 제일시장이 된 거예요? [장기숙 : 어, 그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시장 가는 거 외에는 거의 밖에 안가는 (거예요?).

장기숙 안가지 응. 안 땀겨고(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시뭇 있는 거지. 뭐.

면담자 근데 거기가 1군단 앞이니(이니까) 거기 그때에 기지촌 여성들 많았잖아요?

장기숙 거기는 얼마 없었고 저- 썩(저쪽) 저 시방으로(지금으로) 말하면 저 가능1동에서 올라가서 저 봉굴, 봉굴이 아니라 거기가 기지촌이었었어. 개울에 개울독에 응, 개울독 있는 데가 많았



가능동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장기숙 씨(1960년대)



미 1군단 수송부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 박태규 씨(1950년대)

었지. 많았어. 근데 우리는 가지도 그런데 못 가게 해서 안 가봤어.

면담자 아- 그러면 기지촌 여성들 사는 데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어요?

장기숙 그럼 분리돼 있지. [면담자 : 아, 같은 동(洞)인데도.] 응. 가능동에도 가능동에도 인저 어떤 집은 저 양색시도 세주는 사람도 있지 인저 하교방 집이래도. 근데 인제 있어도 우리는 본 척을 안 하고 뭐. 고 한집 옆댕이들 살기는 살아도 미군들 외도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들 살았어.

장기숙 씨의 남편 고 박태규 씨는 한국전쟁 전에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녔다. 그러던 중 군대에 가야 되자 형이 다니던 KSC에 취직을 하여 의정부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미 1군단 수송부 통역관으로 전직하였다. 장기숙 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미군 부대 직원들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장기숙 응. 그렇지 좀 낫지. (월급이) 돈 만 원씩은 됐지. 만 천 원 뭐. 응. 만 천 원. 만 원. 뭐. 그렇게 그리고 선생님들 월급이 3,500원밖에 안됐어.

면담자 어우. 그러니까 세 배잖아요. (웃음)

장기숙 (웃음) 선생님들 월급이 3,500원이었어.

면담자 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일하셨구나.

장기숙 응. 그래서 인저 그냥 나와서 살은 거여(산 거야). 그래서 고향에 간다고, 간다고 하면서도.

장기숙 씨는 세 아이를 낳고서 1961년 가평동에 61평짜리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집은 미군을 상대하는 섹시 장사를 하던 집이었는데, 장사가 안 되어 싸게 나온 것이었다. 그 후 박태규 씨는 미군 부대에서 정년퇴직을 하고는 녹양동에서 부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시 승격 이후 이주한 사람들

1. 시 승격 후 찾아온 삶의 변화

1) 읍에서 시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의정부읍이 미군 부대 주둔으로 군사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다. 1949년도 의정부읍의 인구는 2만 1,816명이었는데, 시 승격 전인 1960년도 의정부읍의 인구는 5만 1,336명으로 한국전쟁 후 인구가 배가 되었다.¹

196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의정부시 실태조사」 보고서는 1963년 시 승격 후 의정부시의 도시화 정도를 보여준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의정부시 총인구는 6만 2,239명이었으며, 이로부터 4년 후인 1967년에는 7만 7,579명으로 24.6% 증가하였다. 1963년부터 1967년 사이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5~9%로 빠른 인구 증가를 보였다.² 이는 의정부읍이 시 승격 전후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미군 부대 주둔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 분포를 보았을 때도 1967년 의정부동과 미군 기지가 있는 가능동에 의정부시 총인구의 68%가 거주하고 있었고, 20~29세 사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의 1960년 총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2 유혜경, 「의정부시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1969, 43쪽. 1966~1967년까지의 의정부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전국 인구 증가율(2.88%)과 경기도 인구 증가율(2.33%)보다 높은 3.71%이었다.

이의 여성 인구의 비율이 유달리 높았던 것은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의정부의 취락 구조를 살펴보면, 의정부동을 중심으로 시청, 세무서, 군청 등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그 주위에 은행, 영화관, 상점, 시장 등의 상업 시설이 모여서 구시가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구시가지를 벗어나면 곳곳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의정부시에 기지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의정부시청(1970년대)

의정부상이군경회 조정희(1927년생) 회장은 1965년에 의정부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의정부에 대한 첫인상은 군사도시라는 것이었다. 조정희 회장은 “여기 오니까 군사도시지요. 그냥 미군이 또 주둔해 있고. 그러니까 그 양색시들이 우굴우굴하고 어- . 그 배가 고파서 다 양색시 노릇허(하)고 먹고 살고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가.”라고 회고하였다.

면담자 아- 그러면 1965년도에 의정부가 양공주가 그렇게 많은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조정희 예. 이제 의정부가 집이 몇 채 들어섰더라구요. 의정부 시내 이 신시가지 말고 저쪽(쪽) 응. [면담자 : 구시가지] 보면 5거리, 6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길 냈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5거리, 6거리 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웃음) 그래서 이제 집 뭐 많지도 않고 있을 때고, 그 거기만 해도 이제 3동에는 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몇 채 없었지요. 뭐.⁴

의정부가 시로 승격된 후에 이주한 이만수(1935년생)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카투스(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United States Army, KATUSA)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미 5군단 군사고문단(Korea

3 강해근, 「의정부시 지역조사 보고」, 『녹우연구논집』 11, 1969, 169~172쪽.

4 2013년 4월 18일 의정부2동 보훈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2차 인터뷰이다.

Military Advisory Group, KMAG) 소속으로 물품 검사를 하러 의정부에 다니다가 체대 후 의정부에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의정부는 시 승격이 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초라한 소도시였다.

면담자 그러면, 처음에 의정부에 왔을 때 의정부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만수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층 건물도 뭐 한두 채 있을까 말까 없었어요. 시내가, 아주 시내가 빈약하고 말하자면, 여기에 인제 이 신시가지라고 시청이 있고 인제 의정부역 서부 쪽에 개발이 늦게 됐어요. 그 탄약고,⁵

의정부가 시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난 1968년에 의정부시로 이주한 홍건호(1929년생) 이북오도민회 경기연합회 회장에게 의정부는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기지촌이었다.

면담자 어, 그때가 그 1968년이었던 거예요?

홍건호 그럼, 처음이지요.

면담자 처음 왔을 때 의정부는 어땠어요?

홍건호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정부역 전후가 전부 다 미군 부대고 서쪽은 벌판 같은 탄약고가 펼쳐져 있고, 역전을 다닐려면 쇠구름다리를 넘어다녀야 정거장에 이를 수가 있었 습니다.⁶

황해도 황주 출신 월남민인 홍건호 회장은 인천에 살다가 의정부에서 『경기상공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는데, 당시 의정부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었다. 홍건호 회장과 같은 월남민에게도 의정부는 최전방의 군사도시였다.

면담자 인천에서 처음 오셔서 느낀 인상은 어떠셨어요?

5 2013년 5월 9일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6 2013년 6월 4일 의정부1동 이북오도민회·황해도민회 의정부지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홍건호 아이, 별 것이 있었나요. 그제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요. 미군 부대 가시철망이 둘러 쳐지고요. 야간이면 미군들이 술 취해 소리 질르고 떼지어 행패도 부리는 등 미군이 많기로 유명했었어요. 전방 냄새가 물씬한 'GI(Government Issue) 문화촌' 그대로였습니다.

면담자 그 시내에서도 막 미군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홍건호 그럼요. 이 좁은 지역에 큰 부대가 5~6곳이 널려 있으니 오죽했겠어요. 지금은 모두 이전하고 비어 있으니 (공유지) 경기 북부 행정타운이다 뭐다 해서 들어서고 있으니까 의정부 지역으로서는 덕을 보고 있는 셈이지요. 그곳이 사유지면 행정타운은 꿈도 못 꿀 일이지요.

면담자 근데 의정부에 오셨을 때 첫 인상이 전후에 그런 것이었다면은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는 어떠어요?

홍건호 뭐 그때 생활이라는 것이 모두가 곤궁하지요. 그때만 해도 무슨 복구가 있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정부, 동두천 하면 최전방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미개발 지역이니까요. 군인들이나 우글거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면담자 남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홍건호 그런 소문의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서부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귀향한 제대 군인들이 이 군 생활의 이야기가 퍼져서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구술자 홍건호 씨

2) 도시화의 진전

시 승격 이후에 이주한 이주민들 눈에는 의정부시가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은 초라한 최전방의 군사도시로 비추어졌을지 모르지만 당시 의정부는 도시화의 과정 속에 있었다. 한국전쟁 전만 해도 인구의 약 90%가 1차 산업 종사자였지만, 시 승격 후인 1967년에는 1차 산업 종사자가 13%에 불과하였다. 대신 3차 산업 종사자가 인구의



교외선(가능 - 의정부 5.4km) 철도 개통식(1963년)

80%를 차지하고 있었다.⁷ 당시에는 미군 관련 유흥업소,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비롯한 미군 부대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였다. 또한 동두천, 포천, 연천 등지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의정부로 외출을 나오게 됨에 따라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산업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아울러 1967년 당시 의정부시에는 총 27개의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었다. 당시 제조업 인구 비율은 3.1%로 농업인구 13.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업지대 중 수유리-창동 지역의 공업지대가 그 연장 지역인 의정부로 연결되어 호원동과 장암동, 가능동에 유지공업, 식품가공업, 염색

7 강해근, 「의정부시 지역조사 보고」, 『녹우연구논집』 11, 1969, 157쪽.

업 같은 화학공업이나 가발, 제빙업 같은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공장들이 설립되었다.⁸

또한 의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 교통의 요지로서 더욱 발전하였다. 경원선(1914년 개통, 서울-원산)과 평화로(3번 국도), 43번 국도, 39번 국도가 있었으며, 1963년에는 교외선 철도(서울-의정부)가 개통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심에서 버스로 40분이면 의정부에 도착하였고, 의정부를 통과하여 동두천, 연천, 포천으로 향하는 버스들이 빈번하게 운행되었다.⁹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은 의정부시를 서울의 위성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1969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7년 당시 통근자의 77%가 서울로 통근하였으며, 통학자의 85%가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였다.¹⁰ 당시 시내에는 초등학교 7개와 남·녀 중학교가 각각 1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와 종합 남자 고등학교가 각각 1개 뿐이어서 지역 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¹¹ 의정부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시내의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통학과 통근은 대부분 서울로 하였다. 의정부는 인근 지방의 배후지로 시 자체의 일상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서울 생활권의 일부에 속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의정부 도심의 가시적인 변화는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음- 근데 1970년대, 1980년대로 가면서 의정부가 뭐 변화되는 것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뭐 기지촌이었잖아요.

홍건호 1963년에 시로 승격이 됐지요. 전쟁의 흔적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늘어나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시가지가 하나 둘 개발되고 미군 부대는 하나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나름대로 개발이 시작됩니다.

면담자 음, 그게 언제쯤부터 변화가 느껴지셨어요?

홍건호 그것이 1974~1975년경 중반부터 공단도 조성되고, 그랬어요.

8 강혜근, 「의정부시 지역조사 보고」, 『녹우연구논집』 11, 1969, 166·168쪽.

9 강혜근, 「의정부시 지역조사 보고」, 『녹우연구논집』 11, 1969, 168쪽.

10 강혜근, 「의정부시 지역조사 보고」, 『녹우연구논집』 11, 1969, 178쪽.

11 유혜경, 「의정부시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1969, 63쪽.

12 강혜근, 「의정부시 지역조사 보고」, 『녹우연구논집』 11, 1969, 179쪽.

2. 농부에서 도시민으로

시 승격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던 1967년 의정부의 농가 수는 총 가구 수 1만 5,073호 중 1,602호로 9%에 지나지 않았다. 1967년도 표본조사(227세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전의 경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61.6%로 가장 많았다.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전쟁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1967년 당시 한국전쟁 이전부터 의정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한국전쟁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한 것으로 도시화(22.5%), 공장 증설(13.2%), 주택 증가 및 개량(11.5%), 미군 증가(8.4%), 인구 증가(6.6%)를 꼽았다. 한국전쟁 이후에 의정부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직과 서비스직을 가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사업을 위해서 이주한 판매업자들도 많았다.¹³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의정부 주민들은 농민에서 도시민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1968년에 의정부로 이주한 홍건호 회장도 당시 의정부에서 농사는 거의 짓지 않고 상공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홍건호 논밭도 별로예요. 땅이 원래 좁아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나면 골짜기 땅들인데 농업이 별로예요. 그래서 농촌지도소도 소규모였어요.

면담자 아, 그럼 의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산거예요?

홍건호 의정부가 한수 이북 지방의 교통 중심 지역입니다. 양주, 파주 지방 나아가 포천, 철원 지방까지 모든 지역 교통 통로가 의정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가지와 상업이 활발했지요.

일제강점기 산곡리로 이주한 강창신 씨는 1960년대에 산곡리에서 농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농사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에 강창신 씨는 미군 부대 경비원으로 취직하였다. 농사짓는 것보다 경비원 월급이 더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다시 산곡리에서 농사를 시도하였으나 이내 그만두고는 슈퍼마켓을 경영하였고, 나중에는

13 유혜경, 「의정부시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1969, 43·52~54쪽.



의정부 중심지(1960년대)

‘강호농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산곡리는 1980년에 의정부시로 편입되었지만, 1970년대 이미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사가 힘들어진 것이다.

강창신 이제 지금 (산곡리) 536(번지)에 살다가, 지금 532번지로 이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우리 친구의 집이었어, 그게 초가집이고 게 그 당시에 이제 뭐 5천 원인가? 그 당시에 5천 원에 전세 들어 있던 말이야, 당시에는 계약서 이런 것도 없이 그게,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내가 인제 그 집 앞 밭에다가 토마토 재배를 하기 위한 온상 육묘장을 만들어서 토마토 씨를 파종해서 키웠어요, 참외도 심어 보고 이것저것 다해 봤어요, 책 보가면서 그걸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저 서울에 있는 동생 약혼식에 갔다 오니까 이놈의 집이 팔렸어. (웃음) …… 그래서 일로 595번지로 오게 된 거지, 이거는 그때 완전히 폐가야, 음- 그 당시에 만 5천 원에도 안 사던 거야, 아무도 아주 폐가로 있던 거야, 게 내가 막상 사자고 하니가 만 8천 원을 달라는 거야, 또 그 어떡해 만 8천 원이라도 사야지,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인제 일로 오게 된 거고, 일로(여기로) 와서 이제 한 2년 동안 그렇게 그 농사짓다가 경비원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당

시에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돈 5만 원 백(배경, Back Ground)쓰고 들어간 거야 그것도요, 그때 만 원 얼마 탈 텐데 월급, 아니 그러니까 그거 깎돈 해서 겨우 그 깎돈 그거 붓곤 내가 때려치고 관둔 거야. (웃음)

면담자 그래도 그때는 그 별이가 농사짓는 것보다 더 낮기 때문이죠?

강창신 그럼 낮지, 낮지요, 그 당시에는 어휴, 농사지어 봤자 그까짓 거 뭐, 돼? 그러니까 서로 그 돈을 쓰기도 가지 못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 아니, 그 농사를 지었지, 근데 (웃음) 농사를 그 물어보니까 아무리 책을 보고 할아버지 보면서 잘 짓는다 그래(야) 농사도 또 안 맞아 이게, [면담자 : (웃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가 그 당시에 6·25 나가지고 다 셋방살이들이야 죄, 그 당시엔 다 한방에서 다 여럿이 지냈지, 뭐 방 있다고 그래서 뭐 애들 공부방이고 뭐 그런 게 없었어, 그 당시엔, 게 인제 여기 와 가지고는 보니까 우리 동네가 여기 인제 160세대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세대 수로는 호수로는 100호인데, 가게가 여기가 구멍가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심 아니야, 중심이니까 그때 내가 이제 생각한 게 다 이제 할 수 없어 가지고 가게가 있으니까 내가 가게를 해야 되겠다. (웃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상권이 있어야 되겠다, 뭐든지 그래서 인제 그 처음에 담배 허가를 냈다고 담배 허가할, 담배를 사야 하는데 그전에는 담배를 다 필 때니까 음, 그 당시에 인제 조흥은행에 당기던(다니던) 양반이 잘 아는 우리 아저씨별 되는 양반 있었는데, 그 양반 부탁이면 웬만하면 다 됐거든? 그리고 인제 그 당시에 여기가 인제 거리상으로나 뭐나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처음에 담배 가게를 먼저 내 가지고, 그 인제,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소주 다섯 병, 맥주 다섯 병, 다섯 병 그렇게 해서 가게 시작한 거지, [면담자 : 아, 가게를 하셨구나.] 네, 구멍가게 근데 우리는 그 당시부터 그래 구멍가게 어쨌든 무조건 비싸잖아, 근데 비싸게 안 받고 박리다매로 해서 하는 방도로 했지, 그때 그러니까 인제 하나, 하나, 하나 해서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다 인제 다 할머니가 하던 막걸리 집 뭐 하던 막걸리 (집) 다 죽고 한 집 두 집만 남게 된 거죠, 게 우리는 이제 한 집이 저거 건너, 지금은 하나 밖에 없어요, 하나도 안 되는데, 저 건너 개울 건너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하고 두 집이, 게 혼자 있으면 육을 먹게 돼,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를 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젊었으니까 술 같은 거 달라 그러면 그쪽에 가서 먹게 하고, 집에서 먹은 건 일체 안 팔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면담자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장사가 잘됐나 봐요.

강창신 아니, 잘돼 – 잘됐다고 봐야지.

면담자 그걸로 돈 버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적성에 맞으셨어요? (웃음)

강창신 그것도 맞는 게 어딴어? 안 맞는 게 어딴어. 그 인제 그래 가지고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 빼벌 기지촌에는 연탄 같은 것도 하는데 연탄을 자꾸 취급하라고 그래. 그거 힘들고 저거 한데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걸 취급해야 장사는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딱 건 하나지만 그건 최하 30개, 50개, 100개 그렇게 나가니까. 그 단위가 그거 아니라고. 그걸 하라고 자꾸 권장해서 그 연탄 장사, 쌀장사 다 했지. [면담자 : 음, 아 그럼 크게 하셨네요? 여기.] 크진 않아도 그냥. 그래도 그 인제 그 인제 쌀 같은 것도 나중에 허가를 내서 정부미도 팔고 연탄도 허가를 내어서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애길 해 어떻게 했는지, 그 연탄은 차로 한 차 오거든? 한 차가 4천 장이야 연탄이. 그 연탄 4천 장 한번 내리고 나면 그냥 백대기(빠)가 (웃음) 그냥 노골노골해져. 처음엔 못 했어. 근데 차츰차츰 하다 보니 나도 뭐 농사짓던 사람은 아니잖아? 장사해도 그렇게 심한 건 못했지. 농사도 그냥 그거 왔다 갔다 하고, 뭐 건달 일이나 하고 휘발유나 팔아먹고 하던 놈이 그걸 (히니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큰 각오를 먹고 연탄도 처음에 인제 그 당시에 리어카가 어딴어? 자전거지. 리어카도 부자나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도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갔다(가) 자전거 받쳐 놓으면 한쪽이 녹아 똥땅 자 빠져 흘랑 깨져 버리지. 그리고 나면 다 박살내 버리고 그냥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게.¹⁴

14 2013년 6월 11일 산곡동 강창신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3. 미군과 함께하는 생활

1) 미군 부대와 의정부 경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시 승격 직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67년 당시 한국전쟁 이전부터 의정부에 살았던 주민들 중 57%가 생활 형편이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것은 의정부가 타 도시에 비하여 취업이나 사업의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는 미군 부대의 주둔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는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아직은 취업의 기회가 적



의정부 미 1군단 위문 공연(1971년)

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정부는 미군 부대의 주둔으로 인하여 서비스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군 부대는 의정부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1965년도에 전역 후 의정부로 이주한 이만수 전 의정부시의 회 의장은 1960년대 의정부의 경제에 미군 부대가 끼친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면담자 근데 그때 의정부에 이제 처음 오셔서 정착하시게 될 때도 미군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요?

이만수 많 - 있지요, 그때만 해도 여 한미 1군단. 그땐 한미가 아니고 그냥 1군단 예 1군단 그리고 여 696부대라고 아주 주변에도 많았어요, 미군 부대 보급창.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경제가 의정부 경제가 그 외국 부대에서 나오는 그 급여가 상당한 그 의정부 경제를 좌우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우리 군속, 말하자면 그 부대에 종사원들이 많고, 예, 또 그때 당시는 인제 지금(으로) 말하면 양색시라 그럴까 뭐 그런 위안부, 예 - 그런 분들이 많아

15 유혜경, 「의정부시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1969, 52쪽.

가지고 그 이제 방세 같은 것도 잘 나갔고, 있는 대로,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미군 물자 그 면세 물자 그거 나오면 그 야매(야미, 뒷거래)로 인제 많이 팔고 뭐 그런 게 상당히 성행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담배도 한 보루 가지고 나오면 뭐 얼마 뭐 많이 남고 말하자면은, 양주 같은 거 뭐 깡통 간스메(간즈메, 통조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구술자 이만수 씨

면담자 그럼 그제 제일시장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 건가요? 어디서 그런 거를, 미군 물건 거래를 하나요?

이만수 그건 인제 개인, 그거 인제, 예- 위안부 양색시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사와, 인제 개인들이, 개인들이 직접 사 가지고, 그거를 또 인제 서울로, 그땐 그게 반출이 안됐어요, 면세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마에 뭐 몸에 숨기고 뭐 차, 가마 인제 서울 갖다 팔고 허, 뭐.

면담자 서울에서는 남대문시장에서 도깨비시장에서 [이만수 : 예, 도깨비시장이라고.] 거기 가면 살 수 있었잖아요. [이만수 : 그, 그 글로(거기로) 다 인제,] 글로(거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만수 그렇지요, 이제 여자들 그런 장사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막 몸에 지니고 뭐 중요한 거 뭐 이런데 저 조사 못하는데도 막 가져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요, 얘기 들은 바로는 옛날에는 그 물건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고, 또 뭐 차떼기로 하는 사람도 많고, 말하자면 크게 남자들이 말이죠, 그 검문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끼고 한다, 뭐 (웃음) 그런 얘기도 있었고, 6·25전쟁 이후에 우리 경제가 원체 낙후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 가지고 참, 그때는 우리 여기에 의정부 시민들은 예- 여기에 이제 기지촌이라는 그런 오명 이, 예- 인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저 한수 이남이나 이런 데서는 의정부를 기지촌으로 인정 을 하고 묘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저 살아가는 그런 쾌적한 뭐 교육도시(의 측면에서)나 뭐 환경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식이 됐죠, 이제, 뭐 그때는 뭐 저 (인구가) 6만 명 7만 명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43만 명이 넘으니까, 예.

홍건호 이북오도민회 경기연합회 회장도 1960년대 의정부의 경제에 미군 부대가 끼

친 영향에 대하여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면담자 그런데 제가 인터뷰해 보면 (1960년대 의정부에) 이렇다 할 공장이나 산업이 없었잖아요, 결국 미군들에게서 흘러나온 달러(dollar)를 갖고 생활했다고 하던데요, 그때 생활이 그랬나요?

홍건호 예, 그런 형태였어요. 미군들 물건 집합소가 제일시장이었어요. 그러면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지요, 상인들은 이를 피하느라고 아단법석을 떨고,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 연극하는 장면의 나날이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할 연극이었지요, 이렇게 발전한 곳이 의정부의 제일시장의 어엿한 상가의 모습입니다.

이만수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카투사에서 미군과 근무하면서 영어를 배웠으며, 전역 후 의정부 최초의 호텔인 미우미호텔에서 근무하였다. 지금은 없어진 미우미호텔은 의정부1동 제일시장 바로 옆에 있었으며, 근처에 버스터미널이 있었다. 미우미호텔은 주로 미군과 미군 부대를 찾아오는 미국인들을 상대하는 호텔이었다.

면담자 그러면 의장님 본인께서는 언제 의정부1동으로 오셔서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만수 처음에 호텔에서 근무를 했어요, 호텔. 그때 '미우미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의정부엔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었죠, 호텔이.

면담자 오 - 어떻게 거기 취직하시게 되셨어요?

이만수 아하 - 그거 내 영어를 조금 이제 하니까, 영어를 조금 했지요, 이제 회화를 근데 언제 뭐 부대 생활하면서 주사들은(주위들은) 조금 이렇게, 에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고, 군 생활하면서 (배운) 그런 영어가 그냥 어느 정도 소통이 조금 되니까, 그래서 용이했죠, 거기 들어가기 언제 직장을 구하기가, 그래 가지고 첨에는 언제 뭐 웨이터(웨이터, waiter) 같이 이래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총지배인까지 했어요, 거기서.

면담자 오 -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미우미 호텔'은 현재 없어졌나요? [이만수 : 없어졌지요.] 근데 그 자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만수 고 저 지금 (의정부)1동 가면 그 제일시장이라고 있는데 제일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미우미'가 옛날엔 거(그) 제일시장 옆에 그 저, 저기 있었습니다. (버스) 터미널 예, 거기 있었어요.

면담자 음 - 아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내리면 호텔이 딱 있는 아 -,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만수 주로 외국 사람들, 미군들.

면담자 그러니까 외국 사람 상대하는 호텔이었던 거죠?

이만수 그렇지요. 그러나 인제 말하자면 주 고객이 미군 군인들이지. 말하자면 미국 군인들이 주 고객. 물론 한국 사람도 있죠. 있지만 주 고객 제일 그래도 많고 돈 잘 쓰는 사람들이 인제 그 사람들이지요.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뭐 그때 경제가 좋지 않았으니까 큰돈은 못 쓰고, 물론 뭐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주 고객이 미군을 위주(로) 한 인제 영업을 했었지.

2) 일상생활 속의 미군의 존재

의정부 경제가 미군 부대 종사자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로 인해 큰 덕을 보았지만, 미군 부대의 존재는 또한 의정부 주민들에게는 사회문제가이기도 하였다. 196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의정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나는 단점들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미군 부대의 증가로 인한 미군 장병들의 풍기 문란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었고, 단순 노동자와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이 부진해졌으며,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인심이 각박해졌고, 기지촌 여성의 존재가 아동교육상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중 당시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는 윤락 여성으로 응답자의 27.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극빈자가 16.7%, 청소년의 풍기 문제가 13.8%로 그 뒤를 이었다.¹⁶ 청소년의 풍기문제는 윤락 여성의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지촌 여성을 사회문제로 보는 주민이 40%가 넘는 것이었다. 1979년에 의정부로 이주하여 택시 운전을 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에도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미군과 양색시들이었으며, 택시들이 한 미군 캠프에서 다른 캠프로 이동하는 수단이었다고 한다. 양색시의 존재에 대해서 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KSC 지부장 김규호 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16 유혜경, 「의정부시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1969, 67쪽.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경민대학교 앞의 도로

면담자 음 -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제 KSC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의정부에 많이 살게 됐는데. 그런데 또 미군 부대 때문에 사실은 여기 유명한 거는 기지촌 여성들이 [김규호 : 그렇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잖아요.

김규호 그 하여간 많았지요. 여기는 인자 부대가 좌-악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저녁에 나가면 뭐 전부 뭐 여기저기 그런 여성들이 그냥 좌-악 나와 가지고 휘파람 하고(불고) 뭐 또 그 상당히 의정부시에 뿌라스(플러스)시켰는 거야.

면담자 달러(dollar) 벌이로요?

김규호 예. (플러스)시켰다고.¹⁷

또한 의정부는 미군 부대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서 극심한 교통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한수 이북 지역의 중심지였지만, 내부의 교통 사정은 심각하였다. 의

¹⁷ 2013년 4월 29일 신곡동 의정부문화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정부역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탄약고가 있었고, 의정부2동에 비행장인 캠프 라과디아, 역전에 캠프 홀링위터가 있어서 시가 동서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남북으로 확장되어야 할 도로망이 미군 부대 때문에 건설될 수가 없었다. 교통 체증의 가장 큰 요인은 미 2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가평동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경민대학교 앞의 도로였다.¹⁸ 이처럼 도심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로 인해 의정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

3)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미군 부대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미국 이민이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1962년까지는 주로 전쟁 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 입양아와 유학생이 비이민의 형태로 이주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이후 중앙 정부의 이민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식적인 이민이 진행되었다.¹⁹ 그런데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변경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의정부 주민들에게는 미군 부대나 KSC에서 근무하게 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남편이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근무했던 장기숙 씨도 미국으로 이민을 갈 기회가 있었다.

면담자 근데 제가 듣기에는 또 미군 부대에서 오래 있다 보면 미국으로 이민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숙 우리 그때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안 갔어. 내가 못 가게 했어. 가지 말자고 가서 고생들

18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3, 834쪽.

19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의 전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연구한 윤인진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기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로 구한말 농민과 노동자들이 기근과 빈곤을 피해 중국, 러시아와 하와이로 이주했던 시기다.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해방, 즉 1945년까지로 일제 식민 지배로 인하여 발생한 농촌의 피폐로 농민과 노동자들이 주로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했던 시기다(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해요. 우리 아는 사람들, 그 아버지 친구들 두 사람 갔는데 가서, 두 사람인가 세 사람 갔어. 그 수송부에서 저기 그 통역일 있고 타자 찍고 하던 사람들은 다 갔어. 우리만 안 갔지. 저기 그이들은 가 갖고서는 가서 헬(할) 게 없으니까(까) 세탁소 하고 병원 청소부 노릇하고 그런 디야. 가서 고생 많이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살기도 그냥 우리네 같이 살았었는데.

면담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장기숙 미군들 거기서 찬스가 있었어. 미국에 가는 게.

면담자 어, 기회가 언제 와요? 그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일하면 생기나요?

장기숙 어, 일했는데 그때 장교들이 외국 가고 싶은 사람들 가라고 거(거기에 가서) 살으라고, 근데 가서 사무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들 갔는가봐 그때. 나는 그런 것도 몰랐었지. 근데 객지에 가기가 싫어서 안 갔어. 잘 안 갔지 뭐.²⁰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KSC 지부장을 15년간 역임했던 김규호 씨도 이민을 갈 기회가 있었고, 이민을 간 친구들도 많았다.

면담자 음 - 근데 아, 참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KSC에 있다가 중동이나 미국으로 간 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었나요?

김규호 기회는 자기 노력해서 가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군에 들어와 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또 바깥에(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범위가 크고, 거기선 기술이 또 늘고 경제적, 또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자 외국으로 교섭해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그 거(가) 가도 인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자니까 그 교섭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간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갔지.

면담자 그 KSC에 있으므로 해서 그렇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교섭하는 데는 좀 유리한가요?

김규호 거 많이 유리하지. 그럼 많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미군 부대 오래 근무하면은 우선권이 주는 거야 1번이야. 어, 그러니까.

면담자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요? 아 -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김규호 그렇지, 생기지.

²⁰ 2013년 5월 21일 녹양동 장기숙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이만수 전 시의회 의장은 1950년대 말에 의정부로 이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 승격 이후 의정부에 이주한 사람들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다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점차 월남민들이 적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월남민들 중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남민들은 의정부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를 가지고 이민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자 음. 근데 이 저기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옛날에는 이민 비자를 받는 게 요즘도 어렵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SC는 거기에 있으면은 뭐 미군 군속에 있었으니까, 이제 일정 기간 거기서 일하면은 그 자격이 나온대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미국에 이민을 가나요?

이만수 다른 분들은 뭐 저 재산, 몇 억, 3억이면 3억 이거 재산을 가지고 가는 이민, 이민자가 많았지.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그러고 인제 거기에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친척이나 가족들도 여기 많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면담자 : 초청해서.] 이 경우 뭐 우리 동생이나 뭐 우리 형이 갔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갖다가 줄 거를 여기서 돈을 한화로 현금 받고 미국 돈은 거기 가서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가지가는데(가져가는데) 아주 용이하다고요. 그래 많이 돈을 가져갔지.

윤태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1980년대 아파트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1. 수도권 의 형성과 의정부

1) 베드타운이 된 의정부

1963년 의정부가 시로 승격될 당시 의정부의 인구는 6만 2,239명이었다. 그 후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1980년에 13만 3,177명이 되었고, 1990년에는 21만 2,352명, 2000년에는 35만 5,380명, 2010년에는 41만 7,412명으로 1980년 이후 약 30만 명이 증가하였다.¹ 이러한 인구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970년대부터 강북의 인구 과밀로 인해 강남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1980년대에 강북의 인구가 강남으로 많이 이동하였지만, 동시에 서울 북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섬으로써 의정부는 서울과 더 밀접하게 되었다. 서울 도봉구 상계, 중계, 하계동과 창동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고, 1986년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개통되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은 1985년에 사당-상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상계-당고개 구간은 1993년에 개통되었다. 이처럼 주거지로 창동-의정부, 교통편으로 상계동-의정부가 연결됨으로써 의정부는 서

¹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의 총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플랫폼(1988년)

울의 일부로서 간주될 정도가 되었다.

의정부시는 1980년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와 산곡리를 편입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해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내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198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1980년대 말부터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한 의정부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의정부를 베드타운으로 만들었다. 이만수(1935년생)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의정부를 베드타운으로 언급하였다.

면담자 음, 근데 의정부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예.

이만수 그럼요, 여 베드타운(bed town)이라 그래, 의정부가 베드타운이다. 여 뭐 직장이 있어야지, 큰 회사도 없지, 공장도 없지 뭐 있을 수가 없어. 여기는 뭐 그렇다고 사업이 큰 거를 할 수 있고 상업이 뭐 도매상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 여기는 안되는 데예요, 말하자면 인구, 여기서 인제 물건을 하고 뭐 이러면 의정부 시장도 크잖아요, 그것도 도매상이 없어, 말하자면 서울 가

서 해 가져와 동두천이고 저기 양주고 철원이고 전부다 서울 가 가지고 물건 해 가지고 가고
거서 붙여가지. 그럼 의정부가 인제 중간 역할을 해야 되거든. 큰 도매상이 있어 가지고 여기
서 다 한수 이복을 카바(커버, cover)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인들이 탄생이 돼야 되는데, 그
런 게 없어요.

면담자 그럼, 제일시장도 소매인 거예요?

이만수 그럼 전부 소매지. 도매는 뭐 아주 극소수. 뭐 그 도매는 뭐 일회용품 이런 거²

1988년 서울 상계동에서 의정부 금오동 평화아파트로 이주한 김삼용(1944년생) 씨는
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서울의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의정부는 잠만 자는 곳이었
다고 한다.

면담자 여기 평화아파트 초기 입주자 원주민이신데요, 그때 여기 이주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셨어요?

김삼용 지금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다른 데로 갔고, 그래도 여기 아직 많이 살고 있죠.

면담자 초기 입주자들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김삼용 네. 많았죠 서울서. 인제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많았죠. [면담자: 서울의 집값보다 여기가 더
싸니까.]

면담자 근데 선생님은 봉고차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정부역에서 여기까지. (어떻
게 다녔어요?)

김삼용 38번이라는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다고.

면담자 그리고 외지인들이 왔다는 것은 여기서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사
람들이었죠?)

김삼용 출근했죠. 벌러 나가고 그랬지, 여기는 직장이 별로 없었죠.

면담자 선생님이 이사 올 때 여기 입주자 분들은 연령대가 어땠어요?

김삼용 내가 여기 이사 올 때가 마흔, 마흔 한 두 서넛(41~44)? [면담자: 젊으셨을 때.] (웃음) 지금
이 70인데, 여기서 반평생을 보냈지.

2 2013년 5월 9일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면담자 그럼, 그때 이주하신 분들도 거의 비슷한 나이였나요?

김삼용 비슷하죠. 내(나)보다는 전부 연배죠. 다 연배 분들이 많으셨지. 나는 여(기)서 살면서도 별로 여(기) 신경 안 쓰고 서울 나가서 일을 하니까, 서울에 가정집을 배달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생활을 했네. 생활을. 짐만 여기 와 자고.³

2) 서울을 포함한 일상생활

의정부가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되기 전부터 의정부 주민들은 서울로 통근과 통학을 해왔다. 그런데 통근과 통학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장보기도 의정부 주부들의 일상생활 중 일부였다. 남편이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근무했던 장기숙(1933년생) 씨는 의정부에 도매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서울에서 물건을 사다가 판 경험이 있었다.

면담자 기능동에서 사셨을 때도 인제 제일시장 같은데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녹양동에서도 제일시장 다니세요?

장기숙 아니야. 그전에는 경동시장 서울로들 댕겼는데 젊어서는 [면담자 : 진짜요?] 응. [면담자 : 경동시장까지?] 어. 거기 가서 뭐 북어 시러 가고 미역 시러 가고 그런 거 허러 시장 그리로 갔었어. 우리 경동시장. 또 저기 어디야 남대문도 갔지만은 고 동대문에서 그 생선 말- 이 파는 데가 있는데 청량리던가 하여튼. 응. 거기들도 가고, 거기를 장봤어. 옛날에는 의정부(에서 장) 안 보려면 거기 가서 물건 떼어다가 여기 와서 미역이고 멀치고 팔았어. 응. 거기(서) 사다가, 옛날 사람들 고생들 많이 했지 뭐.

면담자 아, 그러면 여기서 장을 보는 건 별로 아니(었)고 서울에 도매시장에 갔다는 거죠?

장기숙 그럼, 그럼 도매시장 서울로 갔었지, 우리네는.

면담자 여기는 도매시장이 없잖아요.

장기숙 응, 그러니까 서울로 갔었어. 우리는. 나는 서울로 갔었어. 그전에 가서 멀치고 미역이고 사다가 도로 팔았어. (웃음)

3 2013년 6월 18일 금오동 평화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면담자 음. 옛날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들고 다니면서 주위에. 어- 그러셨구나. 그럼 뭐 옷 같은 거 사는 것도 그럼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가셨고요?

장기숙 남대문시장 거는 옷이 좋아서 비싼데, 저기 저 평화시장 거는 옷이 똑같은 가격이라도 달라. 그래 갖고서는 사 입는 사람들은 그냥 싸니까 평화시장 거 입는데 아는 사람들은 남대문시장 거만 입어. 그래서 내가 팔은 것이 시방들도(지금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브라우스(블라우스)니 뭐 쓰봉(바지)이니 [면담자 : 세상에 몇 년인데] 50년씩 그 안 떨어진다야. 그냥 있다고 그러면서 브라우스 같은 거 요새 입고 왔더라니까 친목계 가면 [면담자 : (웃음)] 그렇게들 오래 입어.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옷을 오래 입잖아. (웃음)⁴

의정부가 베드타운이 된 현재에도 의정부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 사고 모임도 서울로 연결되어 있다. 김규호(1937년생) 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KSC 지부장은 현재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나 먹을거리를 찾아갈 때는 음식점이 다양한 창동으로 간다고 하였다. 이만수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사고 모임을 가질 때면 서울 강남의 음식점을 종종 이용한다고 하였다.

2. 미군 부대의 일부 이전과 시 개발

1) 그린벨트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

의정부는 1963년에 시로 승격되었지만 수도권 정비 계획상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제한에 묶여 도시 개발이 부진하였다. 1968년에 의정부로 이주한 홍건호(1929년생) 이북오도민회 경기연합회 회장은 당시 의정부 최초의 지역신문인 『경기상공신문』을 발행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면담자 음 - 근데 당시에 상공업이 별로 없었을 텐데 상공업 기사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4 2013년 5월 21일 녹양동 장기숙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홍건호 의정부는 그렇지만 남양주나 파주 지역에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 북부 중심지인 의정부에 (경기) 북부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면담자 그러면 의정부 지역은 별로였군요?

홍건호 그럼은요, 약 70%가 그린벨트(greenbelt)에다가 개발제한 구역들, 게다가 평지는 미군이 차지하고 있으니 남은 땅이 없었지요. 현재 용현동 산업단지라고 하고 있으나 공장이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의정부의 발전 저해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⁵

홍건호 회장이 『경기상공신문』의 발행을 시작했을 때 시의 가장 큰 현안은 그린벨트 해제였다고 한다. 그런데 1980년대 말이 되어서도 그린벨트는 의정부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의정부 주민들의 요구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했다.

면담자 음, 그러면은 신문 만드셨으니까 뭐 그 당시에 여기 지역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1989년도쯤의 의정부는 어땠어요?

홍건호 기회가 있으면 정부 관계 당국에 각종 개발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으나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천, 수원, 의정부가 시 승격이 되었으나 인제 인구 43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 안 되지요.⁶

면담자 미군 기지 이전은 아니었나요?

홍건호 그때 그 시절에는 미군의 이동 또는 해제까지는 아니었고요. 개발제한 해제를 줄기차게 외쳐왔으나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 지역의 수십 년 동안의 숙제로 남아 있지요.

면담자 그럼 이후에 좀 풀렸습니까?

홍건호 풀긴 뭘 풀어요, 안 풀렸지요.

면담자 왜 안 풀어요?

홍건호 난개발이 된다고 해서지요, 그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면 아마 수도권 일대가 난개발로 영

5 2013년 6월 4일 의정부1동 이북오도민회·황해도민회 의정부지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6 인천시는 이미 광역시가 되었고, 수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의정부시는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면담자 음,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미군 부대 시설 이전은요?

홍건호 에 - 그 문제는 한참 뒤에 있었지요. 미군 부대 시설 이전 문제는 지방정부에서는 직접 관여할 문제가 못 됩니다. 의정부시에서 이려고저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국무성 간의 문제로서 지방정부는 다만 중앙정부에 애로 사항을 호소할 뿐이지요.

면담자 음, 그래도 의정부는 미군 부대 시설이 많이 이전되지 않았나요?

홍건호 그렇지요. 의정부 역전 시설을 비롯한 기급(각급) 부대가 이남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금은 거의 전부가 이전되어 공유지로 남아있지요. 그곳에 각급 행정타운 기관들이 들어서고 있지요. 명실상부한 행정타운 규모가 갖추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면담자 음, 그래서 결국 의정부가 발전 단계에 들어선 모양을 갖추게 된 연유이네요.

홍건호 공유지, 그 바람에 의정부 역사에 신세계(백화점)가 들어서고 금오동 공유지에는 제2경기경철청이 들어서고, 하금오동에는 을지대학교 병원이 착공 단계로 개발의 효시가 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제자리하면 행정타운의 완성과 함께 교육, 문화의 개발과 함께 살맛나는 청정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의 도시 발전에 있어서 미군 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도심 내부 곳곳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도시 공간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로 인하여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군 시설로 인해 도심 내 동서 연결 체계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어서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의정부의 도시 경관이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⁷

다행히 오늘날 의정부 시내에 자리하였던 미군 기지들의 상당수가 반환된 상태이다. 의정부2동과 가능2동에 걸쳐 있던 캠프 라과디아,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에 걸쳐 있던 캠프 홀링워드, 금오동 일대에 위치하였던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 자금동 일대에

7 김환철·김태복, 「미군기지 현안문제 조사 및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행정학회보』 10-1, 2003, 80쪽.



캠프 시어즈 철거 전 모습(좌)과 철거 후 건립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우)

위치하였던 캠프 에세이온이 2007년에 반환되었다. 따라서 현재 도심에는 가평동과 녹양동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호원동의 캠프 잭슨, 그리고 고산동의 캠프 스탠리가 남아있다.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타고 오다 보면 호원동에 위치한 캠프 잭슨이 보이지만, 캠프 스탠리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의정부 신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 경관은 미군 기지촌이라는 인상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있다.

2) 신시가지 건설

의정부의 새로운 변신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3년에 시민회관이 준공되었고, 1986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며 의정부와 서울 간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그동안 의정부 개발에 걸림돌이었던 미군 부대 중 탄약고 이전 사업이 1987년에 완결되었다. 이어서 1-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보급을 위한 택지 개발이 시작되었고, 행정타운과 상업지역의 형성을 위한 4지구 택지 개발이 시작되었다. 또한 의정부2동, 호원동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되었다. 1988년에는 군사시설보호



신시가지 개발 조감도를 살펴보는 시민들(1989년)

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송산동, 녹양동, 금오동, 호원동, 가평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더욱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탄약고가 이전한 자리에 1989년 신청사가 건립되었고, 1990년에 종합복지회관, 경기도북부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이 건립되는 등 1990년을 전후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이 시기 의정부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30만 명을 넘게 되었다. 1994년에는 장곡동을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하여 13개 행정동이 되었고, 1995년에는 신곡동을 신곡1동과 신곡2동으로 분동하여 14개 행정동이 되었다. 2003년에는 호원동과 송산동을 분동하여 의정부시는 현재 15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었다. 신시가지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이만수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신시가지 조성을 의정부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보았다.

면담자 획기적인 거는 언제부터 좀 발전이 됐다고 보시나요?

이만수 신시가지 이게 개발되면서 아주 변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지요. 음 그걸 하면서 여기에 27만



아파트 건설 현장(1990년대)

평이 대지화돼 가지고 신시가지라 그래요. 그걸 신시가지, 시가지가 이제 새로 생겼다 그래 가지고 그 서부역 쪽에 그 상업지역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변화가 되고, 예, 명동거리라고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3천만 원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평당. 근데 이제 여기가 구시가지보다 여기가 더 훨씬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영 개발 같은 거 이제 막 터져. 그 군사(시설)보호지역 이런 거를 이제 그 회수시켜가지고 주택지가 너무 적다고 풀어도가(풀어달라고) 해 가지고 풀어서 1차, 2차, 3차 공영 개발이 활발히 움직여졌죠. 공영 개발이라 그러면은 개인이 땅을 사 가지고 그 아파트를 그렇게 크게 못 짓거든요. 보통 했다 그러면 20만 평, 30만 평 아래(이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가면 뭐 수천 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 전부 상업지역 에 - 저 생산녹지지역, 논이야 논밭 이런 들이야 옛날에는. 요 의정부가 옛날에는 저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고(거기)만 중심으로 조금 발전돼 가지고 도시화 돼가 있지(되어 있지) 옛날 읍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1963년 전에는, 50년 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시, 읍 도시인데 그게 발전을 못하고 있다가. 신시가지(에 있던) 탄약고 옮기고 저기 이제 그 공영 개발이 이제 터지고 계속 뻗어 나가는 거야.

3. 아파트촌의 형성과 새로운 이주민들

의정부는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유보권역(1994년 개정 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상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 택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의정부는 수도권 인구의 택지 공급 원으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⁸ 의정부 최초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1989년에 시작되어 1994년에 완성된 신곡지구 사업으로 이후에 장암지구, 금오지구, 민락지구, 송산지구 등에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택지 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주택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것은 유입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 전체 면적에 비해 가용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의정부는 도시계획 면적 중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⁹ 2010년 기준 시 주택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27.3%이고, 다세대주택이 10.1%, 연립주택이 1.8%인 반면, 아파트가 60.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따라서 오늘날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의 택지 부족과 의정부시의 인구 증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게 하였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서울에서 주택을 보유하기 힘든 사람들이 의정부로 이주해 온 결과였다.

1) 초기 아파트 입주자들

의정부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신곡지구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의정부에는 작은 규모의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용현동 동남장미1차아파트다. 1989년 서울 쌍문동에서 장미아파트로 이사 온 양경순(1934년생) 씨는 이주 당시 의

8 김평, 「택지개발지구내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의정부시 신곡 택지개발지구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1999, 282쪽.

9 김종환, 「의정부시 주택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4-2, 2004, 21·22쪽.

10 의정부시, 『제50회 의정부통계연보』, 2012, 192~193쪽.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면담자 근데 쌍문동에 사실 때 의정부 오시기 전에 의정부에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양경순: 안 와봤어.] 그런데 왜 의정부로 오셨어요?

양경순 의정부로 오면, 의정부가 집값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싸고, 앞으로 의정부가 많은 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때가 남편은 육십 넷(64)인가 다섯(65)인가 하고, 나는 50대예요. 50대 중반 넘고, 그래서 그냥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는 조용히 의정부에서 살고 싶어서 의정부로 온 것이 오자마자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냥 이 집을 지키고, …… 여기서 살을 거야. 죽을 때까지. 집 안 옮기고.



구술자 양경순 씨

면담자 그런데 의정부가 기지촌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양경순 그럼, 그렇죠. 미군 부대가 많으니까.

면담자 그런데 그때는 의정부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양경순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은, 기지촌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친구들도 몇 사람 이사 갔지 서울로, 그 이미지 땀에, 그런데 나만 바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나만 바르고, 우리 막내딸 그때 시집 안 보내고 여기 살았거든, 나만 바르면, 어디가(서) 산들, 나만 바르면 되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지.

면담자 의정부 여기 오셨을 때 초대 입주자 대표셨잖아요? [양경순 : 예, 예.] 그러면은 오셔서 여기 이 마을은 어땠어요? 당시 용현동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양경순 다르죠. 여기서 개천이 있고, 개천이고, 다 여기가 산이고, 다 이 집들 없었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있고 막, 이 동네는 장미아파트 하나 말고 주공(아파트)이 있었고, 그렇게만 있고, 아주 시골이죠 뭐, 아주 시골이고, 그때 우리가 이사 오니까는 1989년도에 온 거 같아요. 기억에, 그때 오니까는 자기용 있는 집이 우리 집 하나 뿐이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저 앞 동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둘 뿐이었어요. 전체가 둘이 있었어요. 여기가, 90세대가, ……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차가 없었으니까.

면담자 그러면 그때는 의정부역까지는 전철이 들어오지만 여기 용현동까지는 어떻게 다녔어요?

양경순 그때는 버스가 다녔어요, 버스도, 그러니까는 걸어 다니는 사람. 저 민락동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죠. …… 버스도 1번인가 하여튼 버스도 드물게 다니고, 택시도 기어코 오겠다는 사람은 택시도 타고 오고,¹¹

김삼용(1944년생) 씨는 서울 상계동에 살면서 생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1988년 광고지를 보고 금오동 평화아파트에 입주하여 의정부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면담자 그럼 의정부로 이주하셨던 때가 몇 년도예요?

김삼용 1988년도 3월 27일날 이사 왔어요.

면담자 그런데 의정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김삼용 여기 집 때문에 왔죠. 평화아파트 처음 입주할라고 왔는데.

면담자 분양받으신 거예요, 산 거예요?

김삼용 분양 아니고 그때는 그냥 산 거예요. 분양이 없었어.

그냥 용자받아 가지고 산거죠. 하여튼 여기 왔을 때는 성모병원도 없었고, 거성(아파트)도 옛날에 무슨 공장이 있었어요, 여계(여기에). 공장이 있었고, 하여

튼 이쪽(쪽)으로는 집이 없었죠. 전체가. 그러니까 의정부(에)선 촌. 깡촌이지. 완전 변두리. 요기 아파트라고 달랑 들어선 것뿐일 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논밭이었죠 뭐. 그때만 해도.

면담자 그때 의정부역에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역까지는 전철이 와 있었고.

김삼용 전철이 안 왔었죠. 버스 타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생수를 하면서 화물차 봉고차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봉고차로 운송이 된 거죠. …… 그래서 정말 아래 와서 5년만 살고 간다는 게. (웃음)



구술자 김삼용 씨

11 2013년 6월 18일 용현동 양경순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2) 아파트촌에서의 생활

양경순 씨는 1990년부터 의정부 적십자봉사회에서 활동하며 1,00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의정부토박이들의 모임인 의일동지회에 서 회장을 맡아 21년 동안 모임을 운영해 왔으며, 그 이후에는 의정친목계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경순 씨는 용현동 동남장미1차아파트에서 24년째 살고 있으며,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주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빈번한 이사로 인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면담자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다 바뀌었나요?

양경순 아 날마다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그래요. 여기 집값이 싸니까, 전세도 싸고, 뭐 시골세 싸니까. 밤낮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면담자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나요?

양경순 젊은 사람들이.

면담자 예전에는 (어땠나요)?

양경순 예전에는, 우리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았죠.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많아. 신혼, 결혼식 한 사람도 있고 뭐, 몰라요. 그리고 얼굴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기 살던 몇 년 살던 사람들은 나를 알아도 나는 몰라. 나는 여기 안 있으니까, 나가니까.

양경순 씨가 이사 온 1989년만 해도 용현동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고, 1999년에 용현공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의정부경전철이 개통되어 송산역이 단지 앞에 건립되었다. 그녀는 중랑천변에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김삼용 씨는 금오동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살고 있는 금오동 평화아파트 바로 옆에 1993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이주해 왔다. 또한 2012년 경기도방경철청 제2청이 금오동에 개청하였다. 현재 평화아파트는 낡고 오래되어 2012년에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천보산에서 바라본 금오지구 아파트 단지

면담자 평화아파트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어떻게 생활해요? 장은 어디서 보나요?

김삼용 장은 주로 시내에 재래시장에 다니고, 그리고 요즘 와 가지고는 거성(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 요즘은 마트가 많이 생겨 가지고 생활하기가 좋죠 뭐.

면담자 여기 성모병원이 생겨서 생활이 나아졌나요?

김삼용 아무래도 낫죠, 낫겠죠, 옆에 오니까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인원도 뭐 그렇게 되고, 뭐 첫째는 병원이 가까우니까 조금 낫겠지. (웃음)

면담자 근데 여기 오다가 보니까 아파트 외에는 사실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발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병원만 있는 거지.

김삼용 아유 아파트는 다 들어섰잖아요, 저 홈플러스니 뭐니, 그때만 해도 우리 여기 이사 올 때는 그 짹(쪽)은 논이었었어요, 논밭. 그러던 게 다 발전이 된 거죠, 그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면담자 그래요? 그 때는 의정부가 이렇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시고,

김삼용 못했죠. 그럴 줄 알았으면 땅이라도 정말 빗을 내서라도 사 났을 텐데. (웃음). 근데 몰랐잖
아요.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이주민이 바라는 희망도시 의정부

1. 이주민이 살기 좋은 곳 의정부

1) 각 도에서 온 다양한 이주민

196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의정부시 실태조사」에 의하면, 당시 원주민은 총인구(7만 4,642명) 중 40%이고 그 나머지 주민들은 타 지방에서 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¹ 이 보고서는 227세대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당시 의정부 전체 가구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 대상인 227세대 가구 중 이북 출신이 17.2%이고 이남 출신이 80.6%로 되어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남 출신 중 원주민 40%를 제하면, 나머지 이주민 60% 중에 약 17%가 월남민이고 43%는 이남의 타지방에서 왔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이주민 중에서 월남민의 비율이 이주민 중 약 30%로 비교적 높았으며, 본 편의 '제2장 한국전쟁이 남기고 사람들'에서 인터뷰를 한 의정부 주민들이 느꼈던 체감 인구 구성비를 뒷받침해 준다. 의정부 주민들은 의정부에 토박이는 매우 적고 월남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다. 시 승격 후인 1960년대 말에 이

1 유혜경, 「의정부시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1969, 44쪽.

미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이주민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한복신문』 발행인이었던 홍건호(1929년생) 씨는 2013년 현재 의정부의 인구 구성비를 호남 출신과 영남 출신이 각각 25~30%, 충청도 출신이 20%, 그리고 월남민이 15%, 토박이가 10~15%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각지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많은 까닭에 대하여 산곡동의 강창신(1934년생)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면담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정부가 이주민들이 활발하게 사는 그런 도시인 거 같고, 그리고 본토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강창신 그렇지요 본토박이가 많을 수가 없지. 6·25사변 전에는 여기가 뭐 사람 얼마 살던 데도 아니잖아 여기가. 만가대도 그렇고 조그맣게 시내라고 해야 장날이나 사람들 좀 오고 그러던 데인데 이게, 6·25가 나면서 미군 부대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하나의 기지촌 - 아니에요, 여기가 기지촌으로선 제일 변화했다고 봐야지 그걸로 번성한 거지. 그러니까 기지촌이라는 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이 많은 거지.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 평택 같은 데도 외부 사람이 많고, 동두천도 많고 그런데, 그 미군 부대가 있는 데는 다 그런 거지 뭐.

면담자 그러면 이주민들이 와서 살기도 좋은 곳인 거 같아요?

강창신 좋다고 봐야지. 뭐,²

한국전쟁 후에 의정부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각자의 고향을 중심으로 친척 및 지인들의 연줄을 통해서 의정부로 이주한 후 함께 모여서 산 것으로 보인다. 1956년 미 1군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을 따라 의정부로 온 장기숙(1933년생) 씨는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인데, 충청도 사람들과 근처에 같이 살았다고 한다.

면담자 근데 그 친구 분들도 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예요?

장기숙 그럼. 저, 충북 저기 대전서 온 사람 뭐 그게 뭐여 저기 여 하여튼 우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면담자 : 청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응, 괴산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응.

2 2013년 6월 11일 산곡동 강창신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가능동 미군 비행장 인근 주택가(1960년대)

면담자 그러면 다 충청도 사람들이네요? 아-.

장기숙 인제 우리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인제 우리 아저씨가 그냥 넣어주고 그랬지, 그냥 거기 와서 인저 저 수송부니까(까) 인저 차 고치고 해는 거니까(하는 거니까), 취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 뭐.

면담자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구나. 경상도 사람도 많고요.

장기숙 지방은(지금은) 많더라고, 여기 오니까 많지 그전에 저 가능동 있을 때도 그 이웃에가 다- 우리들 저기라(충청도 출신이라) 없었어, 별로.

면담자 어- 그리고 충청도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장기숙 지방(지금) 여기 충청도 사람 별로 많지 않아, 각처 사람이야. [면담자 : 각처 사람(이요?)] 응.

면담자 예, 그럼 당시에도 그렇게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네요.

장기숙 그래도 남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은 없었어, 응, 다 친절했어.³

3 2013년 5월 21일 녹양동 장기숙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1957년 의정부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 이하 KSC)에 근무하게 되어 의정부로 이주한 김규호(1937년생) 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KSC 지부장도 의정부가 선거 때 외에는 토박이의 텃세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하였다.

면담자 근데 이주민들이 여기 상당히 많은데, 물론 소수의 토박이들이 있었지만, 좀 살아 오시면서 여기 이주민으로서 의정부에서 사시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김규호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면담자 : 아- 그래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면담자 글썄 그거는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왜냐면은 대충 다른데 가면은 왜 좀 토박이 텃세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규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선거 때 뭐 이럴 때는 그 상당히 텃세가 세다고, 나는 그 경험자니까.

면담자 근데 그 외에는 별로.

김규호 예, 별로 뭐 없고, 그러고 인자 대부분 보면 뭐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가 되지, 토박이(토박이)는 또 없어, 없어 우리 주변에도 뭐 토박이(토박이) 없다고, 없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⁴

2) 더불어 사는 삶

의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군사도시가 되면서 월남민을 비롯한 각지의 이주민이 더불어 사는 곳이 되었다. 의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산업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한국전쟁 직후 이주민들에게 기회의 장소였다. 이주민들은 거의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았고, 각지의 출신들이 거리낌 없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었다. 남편이 1956년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취직하여 의정부로 온 지가 거의 60년이 돼 가는 장기숙 씨는 자신이 본토박이가 되었다고 하였다.

4 2013년 4월 29일 신곡동 의정부문화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면담자 그런데 보면은 의정부가 뭐 서울에서도 살아 보셨지만 의정부가 딱 어떤 특징이 있는 곳입니까?

장기숙 인심은 좋아, 그래도 이웃 인심이 좋아, 응, 서로 저기(힘담이나 싸움)는 안 해, 인심이 좋아.

면담자 근데 인심이 좋다는 건 그래도 [장기숙 : 인정들이 있다고.] 아니, 청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기숙 아니,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도 다 다정들 하더라고, 그냥 괜찮아, 뭐 누구 헐뜯고 이런 건 없어 다 친절해.

면담자 음 - 그래도 또 이주민으로서 여기서 살면서 뭐 본토박이가 있잖아요.

장기숙 없어, 본토박이 여기는 우리가 본토박이. (웃음) [면담자 : (웃음) 제일 처음에 이집 이렇게 지서(지어서) 하는 거 보고 돌아댕기다가(돌아다니다가) 이걸 내가 사서 이리(녹양동) 이사 온 거거든.

이렇게 의정부는 각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서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향우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북오도민회를 비롯하여 경상도민회, 호남향우회, 강원도민회, 충청도민회가 구성되어 지연을 중심으로 한 모임들을 꾸려가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 김규호 씨는 지역 내 향우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김규호 갈리는데 인자 그, 그 그래선 안 되는데, 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와서 여기 사니까 그럴 수도 있기가 하지만은 인자 그 뭐 호남회니 영남회니 해가지고 이렇게 갈리고 그래.

면담자 그럼 선생님은 영남 출신이니까 영남 쪽에 인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규호 아니야, 나는 도민회니 뭐니 옛날부터 없고,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뭐 내가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내 앞에는 그런 거 어떤 농이라도 말 못한다고, 그럼 내가 혼내주지, 그런 거 없고.

면담자 음 - 그러면 호남 출신, 영남 출신들이 다 뭐 향우회 같은 거, 도민회 같은 거.

김규호 그렇지, 있어, 있어요.

면담자 음 - 활동이 활발한가 봐요? 여기.

김규호 굉장히 활발해, 여기 제일 강한 데가 호남향우회가 제일 강하다고.

면담자 그만큼 도민회나 향우회가 활발하다는 거는 이주민이 그만큼 많다는. [김규호 : 그렇지 많은



미군 부대 근무자 야유회(1970년대)

거야.] 음 - 그러면 현재는 이 의정부 내에서 취직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상업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비중은 상당히 좀 적고 거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김규호 그렇지,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을 보기 싫으면 또 서울 나가 뿌고(나가 버리고) 뭐 여기 인자여 서울 나가는 건 잠깐이면 나가니까, 이사 가 뿌고(가 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한 집씩 이사 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지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2. 이주민들의 삶을 통해 본 의정부의 변화상

1) 의정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미군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의정부리에서 살기 시작한 송용득(1921년생) 씨는 의정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미군이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이후에 의정부로 이주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기지촌으로의 변신을 의정부의 첫 번째 변화로 꼽았다.

면담자 그러면 의정부시가 이렇게 발전돼 오면서요, 이제 가장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쯤이었던 거 같아요?

송용득 그러니깐 어- 미군 있을 때 그 발전됐지 많이. 집들 죄 다시 짓고 돈들 여서 벌고.

면담자 음 미군이 그러면은 의정부가 발전되는데 많이 좀 도움을 줬나 보네요.

송용득 네. 군인들 있는 바람에 많이.⁵

또한 미군 부대의 존재는 의정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67년도 「의정부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미군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경제적 도움(13.7%)과 실업자 구제(6.7%)였다.⁶ 특히 KSC는 1970년대까지 달러 획득에 큰 기여를 하였다.

김규호 그, 그러니까 그, 내 얘기가 그 얘긴데, 그 당시에 인자 중등 붐이 일어나고, 뭐 저 월남 또 인자 뭐 파병하고 뭐 해 가지고 거기서 인자 달러(달러, dollar)를 벌어들여온다고 인자 말은 물론, 또 달러도 많이 벌어들였겠지만은, 그러나 주한미군에서 그 우리가 외화 획득한 게 더 많았다고. 예- 그게 인자 오늘의 우리 경제에 상당히 뒷받침이 된 거야, 누가 뭐래도.

면담자 음- 그러면 사실 의정부가 당시에는 '주한미군 때문에 먹고 살았다.'라고 할 정도(인가요?).

5 2013년 5월 3일 의정부2동 송용득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6 유혜경, 「의정부시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1969, 69쪽.



미 1군단 소속 미군 장병들(1960년대)

김규호 할 정도지! 그럼요, 그건 하나도 거짓말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옛날 여기 사람들이 예.

KSC 외에도 미군 부대 종사자들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자들이 당시 의정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군 부대 노동자들은 당시에 임금도 높았으며, 미군 부대에서 암암리에 나오는 물건의 판매는 생필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던 전후의 경제 상황에서 의정부 주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발달하면서 의정부는 부근 군부대 소속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숙박, 요식, 유흥업으로 인해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의정부는 경원선이 지나는 역전의 조그만 읍에서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군 기지촌으로 변신하며 현대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의정부를 다시 변화시킨 미군 부대 이전과 한국 경제의 성장

오늘날 의정부는 과거 미군의 주둔에 따른 미군 기지촌으로의 첫 번째 변신과 마찬가지로 미군 부대의 이전에 따른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의정부 도심에서 대부분의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탄약고 자리에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의정부는 군사도시가 아니라 행정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면담자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렇게 5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의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조정희 많이 변화가 된 거는 그- 탄약고가 양주로 이전되면서 신시가지로 조성하게 되니까 그때 분창하게 됐고, 또 저쪽(쪽) 그 별판이었던 것도 채외(워)지고,

면담자 저쪽 별판이 어디예요?

조정희 (의정부)3동에 (의정부)3동 한 쪽(쪽)이 다 별판이었어요.

면담자 왜요?

조정희 논, 논 근데 이제 그게 도시계획이 되면서 집을 짓게 하고 또, 개울 저쪽(쪽) 중량천 넘어도 논바닥이었어요, 집 없었어요 다. 그게 또 도시가 됐잖아요. [면담자 : 아파트 단지(요?),] 아파트, 그러니까 50만 (명) 지금. [면담자 : 47만 (명이요?),] 47만 (명)?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원 하나 뽑았는데, 지금은 둘 뽑잖아요, 그때 이렇게 됐고.⁷

전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KSC 지부장 김규호 씨는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미군 부대가 주는 경제적 효과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면담자 이제 의정부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김규호 : 많이 발전했지, 예.] 그렇게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건 언제부터라고 느끼셨어요?

7 2013년 4월 12일 의정부2동 의정부시보훈회관 상이군경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1차 인터뷰이다.



캠프 라과디아 철거 전(좌)과 철거 후(우)

김규호 그러니까 그 인제 그 발전했다는 그 자체는 인구가 늘어났는 게 인자 그 증명이 되거든. 그래서 그 그니까 1980년도 이후에 인자 갑자기 여기 좀 그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인자 인구도 늘어나고, 그 우리가 그 당시에 기거할 때는 그 뭐야 10만 명 미만이야. 의정부 전체 인구가 그거 밖에 안됐어요.

면담자 음- 인구가 이렇게 1980년대부터 이제 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미군 부대가 이렇게 또 철수해 가는 이전해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김규호 이전해 가는 거 있어도, 그거 별 관계없어요. [면담자 : 어, 그래요?] 예, 이전해 가는 거 (관계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니까. 인제 오히려 뭐 미군 부대 뭐 떠나는 거 이런 걸 관심을 안 가지고 오히려 '기라.' 그러는데 뭐 그 1980년대 이후에는. 그 동두천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뭐 미군들 있던 자리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건물들 들어서고 더 발전하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 미군들 상관없는 거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의정부 신시가지 건설을 기점으로 의정부시는 미군 기지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수 이북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이 한수 이남에 있기 때문에 한수 이북 경기도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신시가지에 들어섰으며,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명실공히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신시가지 전경

주민들이 점차 교육, 환경, 생태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이점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 도시로의 탈바꿈도 진행 중이다.

3. 이주민들이 바라는 의정부의 미래

1) 개발 한계에 다다른 의정부

이주민들은 의정부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답하였다. 의정부에서 70년 이상을 살아온 송용득 씨는 의정부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들어서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송용득 더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지. [면담자 : (웃음) (웃음) [면담자 : 왜요?] 뭐뭐뭐 두었다가(무엇가지고) 뭘 해요. 다 지금 산에 저리 죄 집 짓고 했는데 하나도 집 질 자리도 없고 하는데 뭐, 외려 옛날보다 못해. 농사짓고 해서 그래도 쌀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사를 못 짓고 죄 아파트 짓고 그랬는데 뭐 공장이 하나 생겼어요? 뭐 이제 발전은 없어. 그래 가지고 용현동 저쪽에도 그. [면담자 : 산업 단지.] 응, 산업 단지가 되 가지고서, 그냥 죄 미군 거기도 미군 부대 댕기는(다니는) 사람만 좀 괜찮고, 죄 딱 데서 서울서 집 뭐 왜 팔아가(지고) 저거 해 가지고 보상금 받아 가지고 죄 나와서 여기 와서 아파트에 살고 죄 그러잖아. 여기서도 이제 저쪽 어렵게 살던 집 허는 바람에 6억씩 뭐 받아 가지고 뜨고, 요기 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쪽으로 옆이 의료원서부터 이렇게 활려 나가거든? [면담자 : 어, 그래요?] 네, 그 저쪽으로 쪽. [면담자 : 음, 그래요? 그걸 보상받아서.] 예, 그래 가지고 뜨고 그러잖아 죄.

면담자 음, 근데 의정부도 여기 미군 부대 다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송용득 딱 게 뭐 들어올 게 있어요? 미군 다 철수하면은 지금 저 송산 거기 미군 부대 하나 있고 [면담자 : 요기에 1군단(캠프 레드클라우드)] 1군단 미군 있고, 1군단도 미군 얼마 없어. [면담자 : 그래요?] 죄 군인 한국 군인, 유엔군.

면담자 아- 근데 그 송산 거기는 그래도 상당히 크잖아요.

송용득 거, 거긴 비행장이 그게 죄 그린벨트거든요? 여기 이, 있던 거 헬리콥터 공장 그리 죄 갔어.

면담자 음, 그래도 거기 뭐 또 평택으로 다 이전하면 그쪽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송용득 그쪽에 발전은 없어. 죄 아파트만 짓고 뭐 장사꾼만 뿐이지. 뭐 큰 저게 공장인가 뭐 이런 게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2동

들어서야 좀 허지(하지). 형무소 있고 뭐 그 형무소에서 또 사람 죽은 거 그냥 묘지 커다란 거 있고 해서 발전될 게 없다고, 그저 건설회사 뭐 이런 것들만 있고 복덕방 있고 변호사. (웃음)

2) 그래도 살기 좋은 곳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의정부에서 살아온 이주민들은 의정부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의정부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시켰다. 송용득 씨와 장기숙 씨는 의정부의 자연환경, 즉 공기 좋고, 산이 많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다는 것도 그 이유로 꼽았다. 두 사람은 모두 의정부의 구심인 의정부2동과 녹양동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면담자 그러면 의정부가 다른 도시나 서울에 비해서 어떤 특징 있는 도시인 거 같아요?

송용득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서울 갈려면 그거 하나 제일 좋지 뭐.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녹양동

면담자 음 -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송용득 살긴 좋죠. [면담자 : 어 - 어떤 게 좋아요?] 돈만 있음 먹고살(기 좋고), (웃음) 공기 좋고, 저 산에 놀러도 그냥 갈 수 있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걷지도 못 하(하)고, 매일 그 도봉산에 아침 3시면 올라갔었는데.

이에 대해 장기숙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면담자 지금 이렇게 생활하실 때 어떤 거가 좋으신 거 같아요? 의정부에 대한 자랑(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기숙 : 자랑?] (웃음)

장기숙 우리 의정부 뭐, 자랑, 공기 맑고 깨끗한 거 (웃음) 살기 좋은 곳이지, 좋아 서울보다 복잡하지 않고, 응.

면담자 산으로 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장기숙 그리고 우리 아들들 뭐 자식들 잘 키웠으니까 고마운데 뭐, (웃음) 착해 자식들이 다.

그러나 의정부에서 이들이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지에서 온 다양한 이주민들이 더불어 어울려서 살기 때문이다. 즉 의정부의 인심이 좋다는 것이다. 장기숙 씨는 기능동과 녹양동에서 근 60년을 살고 있고, 40년이 넘게 각처에서 온 이주민들과 친목계를 하고 있다. 친목계를 통해서 이들은 고향을 떠난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장기숙 어, 그전에 저 아저씨 저 친구들이나 뭐 직장 저기 계, 우리네는 그냥 각자 한 20명 쯤(정도) 가 다 각처 아줌마들끼리 시방도(지금도) 계 해요. [면담자 : 어머, 계가 있으세요?] 어, 모임 해요, 기능동에서 한 40년 넘게 계 해는 거 있어 계 모임, 삼거리가서 해지(하지), 응, 응. [면담자 : 기능 삼거리에서(요?),] 응, 기능1동 계.

면담자 어, 그러면 그거 그건 아줌마들은 그냥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장기숙 : 각처.] 어, 그러면 아저씨들은 그러면은 그럼. [장기숙 : 각처지.] 음 - .

장기숙 그전에 했었어, 근데 돌아가셔서 인저 한두 사람밖에 없어 다 돌아가셨어. 연세들이 많으니까.

면담자 그러면 아저씨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어떤 향우회라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그런 거 하셨어요?

장기숙 아니, 각처 다 똑같이 직장 사람들. [면담자 : 아, 직장 사람들] 응, 그 수송부에 한 40~50명이 넘었거든 그 수송부에.

면담자 어 - 어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 근데 그 집 옆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충청도 사람들이라면서요.

장기숙 아이, 충청도 사람 뭐 경기도 사람 뭐 다 섞였지 뭐, 그래도 괜찮아 다 잘해요, 서로들.

면담자 아, 그러니까 직장을 중심으로 같이 모이셨구나.

장기숙 아이, 직장도 인저 거 하교방 집(판잣집)이니께, 거기들 있으면 인제 하나 인제 마누라 데려 오게끔 하고, 또 결혼하면 또 데리고 오고, 결혼하면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들 살고 인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 또 미리 와 있었고,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미리 와 있었고, 그랬었어.

면담자 그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 하신 거예요?

장기숙 시방도(지금도)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여.

면담자 어이구야 - 40년을, 야 - 대단하시다, 어 진짜.

장기숙 응, 그러니까 외롭지는 않지, 인저.

또한 이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의정부에서 50년을 넘게 살다보니 의정부가 제2의 고향이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서울에 가기보다 친구도 많고 살기 편한 의정부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는 것이다.

면담자 음- 근데 의정부에서 사시다가, 또 왜 사람들은 뭐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갈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안가셨어요?

김규호 그 형편이 못되지, 근데 내가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친구들이 많고 인자 이러니까 가기 싫더라고 또, 그래서 그냥 여기 그냥 머물게 됐지, 그리고 뭐 서울 가면 별 수 있어요? 다 지께(자기 것이) 있어야지 뭐, 서울 가도 뭐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 (웃음) 그래서 그냥 여기 그냥 사는 거지, 서울 가면 꺾시 또 받는다고 돈 없으면은, 양 옆집이 다 잘살고 아파트 뭐 번들번들한데 그 저 외제차 아파트 앞에 갖다 놓고 그런데 사는데 어데 응? 아유 안 돼, 한 달도 못살아 그런데 가서, (웃음)

면담자 (웃음) 그럼 의정부가 뭐가 좋으세요?

김규호 그러니까 인자 돈 없어도 괜찮고 (웃음) 앞집 뒷집 다 이렇게 대화 잘되고 연락되고 그러니까 인자 사는 거요.

3) 의정부의 미래

의정부에 와서 반세기 이상 살아온 이주민들은 의정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정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대체로 이주민들 사이에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규제에 따른 개발 면적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면담자 근데 인제 주택이 뭐 이렇게 주택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이만수 그러니까 왜 여(기)가 이제 비싸졌냐하면 그때는 군사보호지역이 엄청 많고, 그린벨트가 많고, 근데 뭐 우리가 의정부시가 한 20% 정도만 사용할 겁니다, 지금, 그 의정부 면적에, 여 주거지역으로 뭐 상업지역으로 활용하는 거 한 20% 밖에 안 될 겁니다, 음, 그래도 군사보호지역은 많이 풀렸어요, 거진(거의) 시내에 있는 거는 거진(거의) 다 풀어서 아파트 들어가고 그

했는데. 그린벨트는 해제가 잘 안되지 인제. 음. 네.

면담자 의정부가 이렇게 많이 팽창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만수 인제는 의정부 지역이 손바닥같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이제 다 팽창될 데가 다 됐어. 그러 가지고 인제 더 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인제 그 잔여 그 땅이 없어. 말하자면 남아 있는 땅이. 음. 음.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양주시하고 동두천시하고 통합을 할라고(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수 이북 수부도시(首都都市) 역할을 할라고(하려고) 한다면은 통합이 필연적으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양주는 지역은 넓은데 인구도 아직 적고 또 뭐 지역이 넓어서 아직 발전이 통 안 돼(안 되어) 있고 다 분신돼(분신되어) 있으니까 도시화가 돼(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 양주도 뭐 인구가 20만(명) 넘어서, 그래서 인제 뭐 완전히 거기도 도시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인제 요 덕정리라든가 뭐 인제 그 양주에는 주택지를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해놨습니다. [면담자 : 아, 그래요?] 예, 몇 백만 평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인제 수요가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했는데, 그 아파트 인제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아직은 보상은 땅값 보상은 뭐 몇 천억이 풀렸지. 아- 몇 천억 풀렸는데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⁸

따라서 이주민 중 일부는 의정부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주·동두천·의정부를 통합하여 광역시화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정희 의정부상이군경회 회장은 원기영 전 경기도의원과 함께 3개 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만수 전 의정부시회의 의장도 의정부의 광역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3개 시의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2013년 6월 5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의정부시는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반대 또는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지역 갈등 양상까지 빚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⁹

면담자 근데 의정부가 제2의 고향이 되셨잖아요. 이제 50년 넘게 사셨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사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의정부가 이제 발전되었으면 하시나요?

8 2013년 5월 9일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9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무산」, 『중앙일보』 2013년 6월 5일.

조정희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뭐 아직도 추진 위원으로 여여(넣어) 놓드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도 이제 그 작업을 같이 했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3개 시가 …… 그러니까 양주, 의정부, 동두천 3개 도시 지금 추진 중에. 정부에서 그렇게 해라 돼 있어요. ……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그 강원도 거기 저 포천 지나서 강원도 철원, 철원도 국민들은 다 여기 저기 가려니 저 거기 도 – 청소재지가 어디죠? [면담자 : 춘천이요? 강원도 춘천.] 춘천. [면담자 : 보다 가깝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고 나고 경찰 가면은 여기로 다 데리고 와요. 예, 예 – 그러니까 생활권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포천 들어와, 철원 들어와, 연천도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광역시 중에서도 밀릴게 없거든요.

이에 대해 이만수 씨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만수 근데 이제 의정부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타운이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시는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소비도시기 때문에 뭐 발전 그 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 상당히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양주하고 합했을 때 정말로 우리 한수 이북 수부도시로 면모를 갖춰야지, 인제 그런 양주·동두천 공장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디다. 그리고 인제 그 인제 말하자면 서울 명동이라고 하면 의정부시가 이제 주축이 돼야지요. 그런데는 다 생산 공장들 그 또 뭐 이렇게 그 주택지라도 좀 정서적인 주택지를 좀 만들고 여긴 너무 변화간데, 앞으로 우리가 인제 통합만 되면은 정말 생산 공장에 많은 그 투자도 좀 해주고, 그 외국에 연결도 많이 시키고, 인제 그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제 한수 이남에 비해서 엄청나게 (여기)가 인제 발달이 안됐어요. [면담자 : 그렇죠, 수원에 비해.] 이주 그, 그래서 수원하고 뭐 대조적이지요 뭐. 성남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휘둘러요? 성남은 뭐 한참 그 도시 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우리에게 비해서는, 엄청나잖아요. 인양이나 수원 이런데 뭐 지금 뭐 저기 저 평택 이런데 보다 못해 지는 건데, 이제 거긴 더 발전. 이제 우리도 이북과 관계가 적대시, 적대 관계가 조금 완화되면서 어 – 한수 이북에 그 미개발지를 활발히 개발하고 좀 산업 분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지요, 딴 건 없어요. 여기서 더 우리가 바랄 게 말이지 어 – 공장도 많이 유치하고 뭐 생산적인 그런 산업 시설을 많이 우리가 확충해야 된다고 봐요.



의정부시 전경

의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통합을 통한 광역시로의 승격 외에도 현재보다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길 바라는 이들도 있었다. 산곡동의 강창신 씨는 산곡동에서 아직도 하수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였다. 한편, 『한북신문』 발행인이었던 홍건호 씨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개탄하였다. 그만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군 기지 반환에 관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미군 기지 반환 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공원 등 테마파크(38%), 시민공원시설(31%) 순으로 의견을 표출하였다.¹⁰ 의정부시가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중요한 행정 및 사법기관을 유치하여 행정도시의 면목을 과시하고 있지만, 문화도시 또는 친환경 도시로서의 측면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10 김환철·김태복, 「미군기지 현안문제 조사 및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도지행정학회보』 10-1, 2003, 86쪽.



면담자 근데 여기도 아직도 그 군사시설 때문에 개발 제한된 것도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김규호 그렇지, 아직도 근데 뭐 이 부대 자리도 뭐 이게 좀 괜찮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보니까 관공서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 뭐 안 좋지.

면담자 아니, 근데 의정부역에 그게 원래 그 미군 부대 있었잖아요 그게 철수했잖아요, 근데 왜 거기 아직 그대로 공터로 있어요?

김규호 거 공터 없어요, 거 저거 하잖아요, 저저 백화점 들어왔잖아.

면담자 근데 또 옆에 아직 빈 (공터가 있잖아요?).

김규호 아, 그 빈자리 그건 모르겠어, 그 백화점 땅이나 그럴겠지, 뭐 백화점에서 다 매수해 가지고 그 앞으로 뭐 할라 그러겠지, 그 시하고는 관계없을 거요, 그게 예.

면담자 백화점 땅이라면은 벌써 뭐 거기를 주차장 만들던지, [김규호 : 그렇지.] 만들었을텐데 아직도, [김규호 : 내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애.] 거기가 그렇게 험하니 남아 있어 갖고, 근데 뭐 공원 같은 거 만들지 않나요?

김규호 공원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야 돼. 시민 휴식처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거를 땅값이 비싸니까 그 시장이고 뭐고 다 장삿속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한다고 [면담자 : (웃음)] 괜히 경전철 그 거 해 가지고 괜히 국민 세금만 낭비하도록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

시로 승격된 지 50년이 된 현재 의정부는 또 하나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미군 기지촌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한수 이북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서울시가 강남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수도권 개발은 한수 이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수 이북의 중심지인 의정부는 기지촌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그 위상이 하락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미군 부대들이 이전됨에 따라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지로서 도약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 정부 기관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주변 지역이 이미 모두 시로 승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주, 동두천과 합하여 통합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시가 통합이 된다면 그것은 의정부시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합시라는 외연의 확장이 의정부시의 새로운 변신과 새로운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추구하는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여 백

- 제1장 ————— 종갓집 며느리의 회로어락
- 제2장 ————— 농촌에 시집온 여성의 삶
- 제3장 ————— 대를 이은 여교사의 생애
- 제4장 ————— 이주 여성의 삶
- 제5장 —————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삶을 일군 여성들

제3편

다양한
여성들의
삶

종갓집 며느리의 희로애락

1. 변모하는 종법 제도하의 종갓집 며느리

조선 중기 이래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전해져 온 종법(宗法)상에는 부계친족 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대종(大宗)과 4대 조부, 즉 고조부 이하의 각 조선(祖先)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 집단을 가리키는 소종(小宗)이 있다. 대종의 종가를 대종가(大宗家),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小宗家)라 하며, 증조부 이하의 조선을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는 흔히 큰집으로 부른다.

아울러 조선 중기부터 채택된 장자상속 제도에 의하여 종가에는 아들을 낳아 가계를 잇고, '봉제사(奉祭祀)·접빈객(接賓客)' 및 친족 집단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짐에 따라 특별한 지위와 집안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종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 친족 집단이 종가를 공동으로 돕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가에 시집을 온 며느리, 즉 종부는 종손과 동일한 신분과 지위가 부여되어 문중 내의 모든 부녀자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종부가 적장자(嫡長子)를 출산할 경우 그 지위는 더욱 높아졌다. 전통적으로 종부의 책임은 첫째, 적장자를 출산·양육하여 가계(家系)를 잇는 것이었다. 둘째, 종부는 종가의 봉제사 준비를 책임져야 했다. 셋째, 종부는 종가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을 접대하며 종가의 지위·위세·품위를 유지해야 하였다. 그 밖에 종가의 재산 관리, 문중 내의 부조, 부녀자들의 친목과 질서유지,

그리고 종손이 사망하였으나 그 자식이 어릴 경우의 대리 종손역할 등도 종부의 중요한 임무였다.¹

이와 같이 종가는 대종과 소종을 가릴 것 없이 종법 제도와 장자상속 제도에 의해 막중한 책임과 그에 따른 권위를 보장받았지만, 몰락한 종가나 가난한 종가의 종부는 주어진 자원은 없고, 책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매우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갑오개혁 이후 노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종부에게 부여된 가사 노동의 강조는 이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이후 비공식적으로 집안에 머슴이나 몸종들을 두고 있었지만 이 또한 세도를 누리지 못하거나 가난한 종가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친족 집단이 공동으로 종가를 돕는 ‘보종(補宗)² 관념’도 희박해졌다. 이로써 현대사회의 종갓집 며느리는 문중에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종가의 가계를 잇는 책임은 혼자서 짊어지고 오롯이 감내하며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의정부에 자리 잡고 4대 이상 선조들부터 대대로 살아 온 장암동 반남박씨, 낙양동 원주 원씨, 민락동 여양 진씨 종가에 시집온 세 여성의 삶을 통해 종갓집 며느리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변화가 의정부의 역사에 어떠한 변모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세 집안 종부들의 삶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세 명의 여성들은 그 변화를 각자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성으로서 또 한 집안의 종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세 명의 여성, 종부 이전의 삶

종갓집 며느리의 희로애락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자는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형숙(1934년생) 씨, 양암자(1936년생) 씨, 김인순(1954년생) 씨를 인터뷰하였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 양주, 경상남도 사천, 인천 출신이고 어릴 때 자라온 환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의 「종가」 및 「종부」와 강혜경의 「근현대 종부를 통해 본 유교전통 여성의 지위」(『유교문화연구』, 2008)를 참조하였다.

2 종가 또는 종중을 도와 가문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행위 및 사고방식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1).

경도 다르다. 최형숙 씨는 1958년 25살의 나이로 원주 원씨 14세손인 원선(元宣)의 19대 종손 원유선(1934년생) 씨와 혼인하였고, 양암자 씨는 1963년 28살의 나이로 여양 진씨 16세손인 진선(陳善)의 11대 종손 진기석(1932년생, 2011년 사망) 씨와 혼인하였다. 이 두 사람과 약 20세 차이가 나는 김인순 씨는 1980년 27살의 나이로 반남 박씨 15세손인 박세당(朴世堂)의 12대 종손 박용우(1952년생) 씨와 혼인하였다. 이들은 각각 신곡동, 고산동, 장암동에 거주하고 있다.

최형숙 씨는 경기도 양주의 양반가에서 1남 4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 두 형제가 요절하여, 언니가 있는 둘째 딸로 태어났어도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하지만 농사를 짓던 친정아버지가 여러 사업까지 하느라 분망하고 또 아버지 대에 형제가 없어 농사며 집안일은 친정어머니 혼자 맡아서 하는 것을 보고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최형숙 어린 시절에 세 살 먹었을 적에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자라면서 열 살 이상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산에 나무 깎는 목장도 하시고, 쌀가게도 하시고, 뭐 정미소, 의정부서 정미소도 하고 하니깐 만날 손님 치다꺼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 그러니까 우리 언니랑 나랑 어머니를 도와드리느라고, 그냥 열 살 이상 되면서 바느질도 내가 다 해 입었지 엄마 손에서 그거 해서 엄마한테 얻어 입으려고 하지 않고 바느질도 내거 내가 해서 입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만날 깨끗하게 입고 다니셔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옥양목(玉洋木), 명주(明紬) 바지저고리, 자미사(紫薇紗) 바지저고리 그런 것만 입으니까, 그거를 어머니하고 같이 도와서 하고, 어려서도 반동대거나 놀거나 일하기 싫어서 안 그랬어요³

한편 김인순 씨는 황해도에서 피난 온 부모님이 인천에 정착하면서 인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모님은 사업을 위해 인천을 떠났지만 자녀들은 인천에 그대로 남았다. 김인순 씨는 인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남동생 3명을 보살피는 등 집안 살림을

3 2013년 4월 9일 신곡동 의정부문화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최형숙 중부 결혼식(1958년)

도맡아 하였다. 반면 경상남도 사천에서 6남 6녀 중 7번째로 태어난 양암자 씨의 경우 어렸을 때 집안이 윤택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도 잠시 하였다. 윤택한 집안에서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양암자 씨를 제외한 두 중부는 결혼 전에도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도맡아 해서 살림이 몸에 익은 상태에서 시집을 왔다. 그런데 최형숙 씨와 양암자 씨는 1980년도에 혼인을 했던 김인순 씨와 달리 “혼인하기가 정말 싫었다.”고 과거를 회상하였다.

면답자 나이 스물다섯 살 먹었는데 왜 시집가기 싫어요?

최형숙 아. 난 이상하게 시집가기 싫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막 울고 몸부림쳐도 그렇게 그 양반이라는 바람에 일로 (이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싫어. 진짜. 나 서울에 당숙네 가서 놀러가서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날 끌고 내려오시면서 신랑 군대에 있었거든요, 와서 보고 가야 한다고 시집가야 한다고, 나 시집 안 간다고 몸부림을 쳐도

막 옛날엔 부모가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아휴 나는 싫어서, 진짜 싫어서 그랬는데.

결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양암자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양암자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내가 그 가까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못하고 방을 얻어서 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사표를 놓고 오니까 겨우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러고는 또 얼마 정도 집에 있다가 ‘서울에 디자인을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양재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미성자수 놓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가 또 그냥 그때 여름방학이 돼서 내려왔는데 또 못가라 (서울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떠밀려 왔어요. (식장에 가기가 싫어서 집에 있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하도 사정을 해서, “어떡하냐? 시간이 됐는데.” 마루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딱해서 가보자 하고, 그래 또 미장원에 갔어요. (밥도 안 먹고 집에만 있어) 빠삭 말라버려 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근데 미장원 앉아 있으니까 어, “신부가 왔냐 안 왔냐.” 해 싸코(해 대고), 11시(가) 식인데 12시가 다 되는데 안 온다고 막 야단. 그래 가지고 인제 적당히 차려 가지고 나타났죠.⁴



양암자 종부 결혼식(1963년)

양암자 씨의 남편 진기석 씨는 당시 직업군인으로 경상남도 사천에 내려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직접 양암자 씨 친정 쪽에 “민락동에 농사도 많고, 집이 아주 좋고, 농사짓는 거는 해마다 나오는 거 남을 쥐서 자꾸 늘어난다.”는

4 2013년 4월 11일 고산동 양암자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이야기를 전해 친정어머니가 “딸 하나는 밥 먹고 사는 데는 힘이 안 들겠다.” 하고 혼사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1980년에 결혼한 김인순 씨의 시댁은 종갓집이지만 시아버지 될 분은 서울에서 ‘한국전력’을 다녔고 남편 될 사람도 서울에서 ‘금성사’에 다



김인순 종부의 첫째 아들 돌잔치(1982년)

녀서 “길어야 한 6개월 시집살이하면 별 저기 없으니까 선을 보라.”고 해서 선을 보았다. 선 자리에서 보니 당시 김인순 씨는 비쩍 마르고 키가 큰 편이었는데 남편 될 박용우 씨는 키가 작은 편이라 서로 크게 호감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시어머니 될 분이 사주를 보았는데 “둘이 천생연분이니까 서로 싫다고 해도 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시댁 측에서 혼사를 서둘렀다. 어느 날 김인순 씨가 남편 될 사람을 세 번 정도 만났을 때 시어머니 될 분이 따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는 그날 바로 패물을 맞추고 약혼 날을 잡았으며, 약혼한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김인순 아.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보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 번 만났는데 어머니가 보잔다 그래서 수유시장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그냥 금은방 가서 패물을 맞추고 그 다음 주에 약혼 날 잡은 거야. (웃음)⁵

최형숙 씨는 “양반집”이라는 말에, 양암자 씨는 “딸 하나 밥 먹고 사는데 힘이 들지 않을 거 같아서” 혼처를 정한 집안의 뜻에 따라 혼례를 올렸다. 김인순 씨의 경우 마침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가세가 기울어 가던 친정에서 “직장도 괜찮고, 건실한 집안”이라

5 2013년 4월 11일 장암동 김인순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며 혼사를 추진하는 데다 시어머니가 혼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바람에 결정했다. 최형숙 씨나 양암자 씨처럼 싫은 혼례는 아니었지만 김인순 씨도 얼떨결에 온 시집이었다.

3.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종부의 어려움

최형숙 씨가 시집을 당시 집은 사랑채가 한 쪽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고, 남편은 직업군인으로 가끔 집에 오는 상황이었다. 안채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뒤가 쓰러져, 남편이 군대에서 토요일 날 집에 올 때 잭(jack)을 가지고 와서 받침거리를 피어 가지고 살았다. 게다가 시집오자마자 고된 일이 계속되었다.

최형숙 보리를, 그때 남의 땅을 얻어서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열두 가마니가 났는데 그걸 시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비었어요(베었어요). 새로 시집온 여자가, 난 모시 적삼만 해 가지고 갔는데 웬 베 적삼을 찾더니 날 입허가지고 낫 들러 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보리를 비라는(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어(베어) 가지고 머리로 다 여 드렸어요.

양암자 씨 남편도 직업군인이었지만,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부임지마다 따라다니고 있었기에 결혼 후 양암자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임을 따라다녔다. 따라서 양암자 씨는 최형숙 씨처럼 시집오자마자 고된 농사와 집안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적은 군인 월급으로 단칸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림을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남편이 3년 만에 전역함에 따라 다행히 시택 본가가 있는 의정부로 오게 되었지만, 시택에는 많던 돈도 없고 집도 없었다. 마침 고산동에 시누이가 마련해 놓은 판잣집이 있어 거기에서 ‘맨주먹’으로 종가 살림을 시작하였다. 김인순 씨 역시 “6개월 시집살이만 하면 된다.”고 들었던 것과 달리 처음 간 그 집에서 한 번도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결혼 전 동생들을 돌보며 살림을 도맡아 했다고는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살림은 달랐다.

면답자 그래도 딱 오시니까 준비도 하시고, 하던 것도 있었지만 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김인순 틀리죠(다르죠). 왜냐면 저희는 친정에서 제사를 간단하게 모셨지. 큰제사가 없잖아요. 명절, 차례하고 기제사. 기제사도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지. 할아버지는 이북에 살아계신 걸 보고 나왔으니까. …… 여기 오니까 뭐 제사들이 큰 게, 사당제니, 또 시제니 그런 게 있으니까.

더구나 기제사는 거의 음력 11월과 음력 12월에 몰려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생신도 음력 10월과 11월에 있어서 계절적으로도 일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김인순 씨 시어머니는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 양반집 자제였는데, 시집을 때 몸종 2명을 데리고 오셨다. 그 당시만 해도 종부의 지위가 높아 집안 행사가 있으면 동네 집안 분들도 와서 일을 도왔고, 작은 어머니들도 종부가 굶은 일을 못하게 하며 일을 거들었다. 일은 낫설고 힘들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집안 어른들도 일을 거들러 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미 김인순 씨가 시집을 때 머느리가 들어온다고 일하는 사람도 내보내고 없게 되면서 점차 종부로서 집안일을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면답자 근데도 농사 직접 지셨어요?

김인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논농사 저기 기창(장암동 도시철도 차량기지) 있는데. 일곱 마지기 있었죠. 1,400평. 한 마지기 200평. 그러지 여기) 위애가 한 600평. 해서 저 시집왔을 때만 해도 저 쪽에 목화 농사도 짓고 농사 여러, 다 많이 졌죠.

면답자 세상에. 그러면 정말 눈만 뜨시면 일하셨겠어요.

김인순 그렇지. 근데 일 할 줄 모르니까 맨날 힘들지. 그러니까 잡곡도 오곡 다 심었지. 콩만 해도 몇 가지잖아요. 잔잔한 풀매는 건 어머니가 하셨지만. 큰일은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 여기서 조금 살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큰일은 좀 거들어 주고. 그러니까 인제 집안의 당숙모서컨도(들)도 와서 도와주고. 그 당시 어머니가 시집오셨을 때만 해도 몸종을 둘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아씨, 아씨.”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실제 이런 일을 안 해보셨던 분이 서울에 사시다가 1958년도에 갑자기 내려오시는 바람에 황당했겠지. 그래도 적응하셨겠지. 그 당시만 해도 종부라면 대우도 해주고 또 작은어머니서(들) 다 종부가 굶은일 못하게 했잖아요. 다 당신들이 거들고 해서 뭐 하셨겠지. 그렇게 꾸려 나갔던 거 같아요. 저 시집오기 전에는. 그러다가 세월이 저 시집왔을 때만 해도 작은할머니도 그렇고. 제가

뭘, 저희가 추석 때면 열한 반상을 제사를 모셔야 되요, 11대를 모셔야 되요, 1대가 한 반상 인데, 지금은 그래서 추석 때 모시는 분이 스물일곱분인데, 그러니까 그 제물을 다 할려면 너무 힘드니까 인제 과일하고 주과포만 산소마다 가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는 그걸 작은 집에서 다 이고 다니고, 어머니 아프니까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모셨는데 저 시집오고 나니까 누가 와서 안 거들어 주는 거지, 새댁이 왔다고, 하하하. 그래서 산소마다 다 이고 다니면서 제사 지냈거든.

그러나 김인순 씨는 많은 일들을 오롯이 해냈으면서도 크게 고생했다고는 회상하지 않았다.

면담자 (시아머니 돌아가시고) 농사가 줄어들어도 4대조까지 기제사 모셔야 되고 (시제도 모셔야 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인순 어차피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어차피 종갓집 어른들, 선조들 봉양하는 게 종가의 의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뭐하고 얘기할 때도 제사라는 게 내 맘 편하자고 지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조상들이 와서 잡श्य요?



김인순 종부 시부모의 결혼식(1950년경)

김인순 씨는 시집오기 전 아직 아버지 사업이 기울지 않았을 당시 방학 때면 가고 싶다는 곳은 다 다녔다. 그런데 종갓집에 시집와서는 바깥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친정과는 다른 문화에 적응도 힘들고, 일도 할 줄 몰라 고되고, 또 농사는 즐었지만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문중 어른들이 점차 줄어들어 혼자 져야 할 책임이 커졌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이 모든 상황보다 ‘종중을 지키는 일’이었다.

1990년대 후반 지가가 오르자 종중에서는 종갓집 터를 비롯한 종중 땅을 팔 수 있는



서계 박세당 사랑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3호)

땅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종종 사람들이 땅 일부를 몰래 팔면 이를 다시 찾아오기가 반복되자 2004년도에는 사사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서계문화재단’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시제에는 땅을 팔지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나마 종종을 지키는 사람들만 오게 되었다. 종종 땅을 지키는 문제로 싸우다 너무 힘들 땐 “내 맘 편하게 하자고 지내는” 시제도 잇을 정도다. 게다가 현재 종갓집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2012년 거주하던 살림집에 화재가 나서 다시 지을 때에는 벌금을 내야 했다.

1999년 8월에는 종가가 경기도 전통종가 1호로 지정되었지만 전통종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2013년 시와 함께 추진한 ‘서계 박세당 고택 체험프로그램’이 문화관광부의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례 체험’ 및 ‘전통 혼례’ 등 행사를 국비의 지원을 받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예산도 넉넉지 않고 인력 지원도 없다. 그러나 더 힘든 건 행사 관련 부대시설인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종종으로부터 땅을 팔라는 압력과 시로부터 지원은 없이 제재만 받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의정부를 뜨고 싶은 마음”

으로 현재 종종 지키기를 버겁게 하고 있는 것이 김인순 씨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다.

반면 최형숙 씨는 종종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종갓집에 시집을 왔는데 시할아버지가 빗보증을 서서 집터를 제외한 주변 땅이 모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나마 남의 땅에 농사지으며 굶지는 않았지만 20여 명 되는 식구들을 건사하기란 고달픈 일이었다. 이처럼 살림은 궁핍해졌지만 종종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종가의 며느리인지라 시향(時享)을 적당히 넘길 수는 없었다.

최형숙 이 양반이 외아들이다 보니까 일은 태-산 같으구, 1년에 한 번씩 시향을 지내려면 쌀을 한 가마니씩 떡을 해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다 찌서 식혀서 괴야 되는데 괴는 건, 밤에 괴지만 몇 번씩 찌야 되니까 시루 닦는 게 너-무 힘들어요, …… 그 시향을 무섭게 지내는 걸 혼자 다 하고 그거 괴임새하고 떡을 여섯 밤이면 밤세도록 괴야 되고, 밤을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지내는 것을 우리 두 번을 지내야 되니까, 여섯 가구를 괴 가지고, …… 그리고 두 시 세 시까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20여 식구를 내가 다.

시아머니는 부지런한 분은 아닌 데다 최형숙 씨가 시집온 다음 해 막내 시누이까지 출산하여 최형숙 씨가 갖 태어난 시누이를 암죽을 끓여 먹이며 키웠다. 또 시댁의 작

은아버지 택 식구들은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장사하러 나간다고 빨래까지 최형숙 씨에게 맡겼다. 남편은 10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있으며 전역하기 전까지는 집에 가끔 들리는 형편이라 집안 사정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종부로 들어와 첫째 딸을 낳고, 둘째 딸을 낳자 “딸만 낳는다.”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최형숙 종부 시아버지 회갑연(1970년대)

최형숙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3년 만에 첫 딸을 낳아 가지고 애 낳고 그 이틀날 약을 먹었어요, 죽을라고, 내가 죽으면 애도 죽을 테

지. 누가 가꿀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 애 임죽도 안 해먹어서 내가 임죽도 다 해먹이고 그런 세월을 내가 살다보니까. 내가 왜 그 세월을 살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아파서 죽겠도록 고생을 하면서 살까 그 생각을 요샌 그 생각밖에 없어. 진짜. 노인네들이 아들 못 낳고 딸만 낳았다고 들어와 보지도 않고요. 4월 달에 애(둘째 딸)를 낳는데 방에 불도 안 때 줘 가지고요. 애기가 추워서 그냥 딸똥질만 하고, 그래도 애가 순하니까. 젖이 모자라서. 가난한 집에서 보리 강갱이(찌꺼기)만 먹고 그래서 젖이 안 나와서 우리 애들은 그냥 다 굶어서 살았어요.

한편 양암자 씨는 집도 논도 없는 종갓집에 시집왔는데 그나마 남편이 전역 후 시작한 사업까지 망하였다. 마침 고산동에 미군 부대를 짓는 공사가 많아지자 부대 바로 옆 자리에 판잣집을 짓고 살던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인부들 밥집을 하였다. 양암자 씨는 당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의정부로 떠나자 아이들과 함께 의정부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함께 인부들에게 밥을 지어 팔았다. 시어머니는 양암자 씨가 씻어둔 쌀로 밥만 했고, 양암자 씨가 거의 혼자서 하루 세끼 꼬박 다섯 가지 반찬을 만들고 매일 저녁 장까지 보러 다니는 생활을 2년 동안 했다.⁶ 이후에는 시누이가 용현동에서 공장을 하였는데, 시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작한 공장 일을 15년이나 하였다. 양암자 씨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버는 바쁜 생활의 와중에도 종부로서 시제 및 기제사까지 부지런히 지냈다.

면답자 시향 지내면 집안사람들 다 오시지 않아요?

양암자 산으로 갔었어요. 처음에는 상자에다 담고, 먹을 거뿐만 아니라 뭐 채릴(차릴) 그릇이고 뭐고 다 해서 가야지요.

면답자 1년에 한 번은 꼭 그렇게 크게 하셨네요?

양암자 그러니까 딱 50년을 갖다가 그래 지낸 거죠. 49년을 지냈죠. 그러다가 산소 안 가기 시작한 지가 한 7, 8년 전에. 다른 데서도 집에서 하더라. 그러고,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 차가 없

⁶ 양암자 씨가 고산동에서 미군 부대 공사장 인부를 상대로 밥집을 한 이야기는 본편의 「제5장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삶을 일군 여성들」에 상세히 나온다.

었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갖고 오기가.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제관들이 와요, 제관들이 와서 지내면, 여기서 끝나고 그래 갔는데. 작년에는 제사 지내게끔 저기 저 비닐하우스를 지어놨대요. 그럼 내가 채려서(차려서) 그리고 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처음 제사를 지내던 2012년에 음식을 해서 갔더니 사촌, 육촌 시동생들이 “형수, 이제 힘드시니 그만 하시라.” 했지만 양암자 씨는 딱 3년만 더 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해왔던 일이며, “어른들 잇고 손을 놓으려니” 그게 쉽지 않았고, 3년까지는 건강이 허락할 거 같은 이유에서였다.

면담자 대단하시네요.

양암자 그래도 재미예요. 그래 내가 타고난 종분가? 이게 왜 이런 게 하는 게 재미가 있을까?

‘집도 좋고 논도 많다’던 집이라 ‘딸 하나 밥 먹을 거 같아’ 억지로 보내진 시집에 와서 보니 몰락하다시피 한 종갓집이었고 남편 사업도 망하고 말았지만, 양암자 씨는 인부들 대상으로 밥장사도 하고 공장도 다니며 기제사에 시제 모시는 일까지 ‘재미있게’ 하였다. 정작 양암자 씨에게 가장 힘든 일로 기억되는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다. 시어머니는 ‘동네가 알고 집안이 아는’ 정도의 불같은 성미를 가진 사람으로, 양암자 씨가 시집을 때부터 며느리를 미워하였다.

양암자 이렇게 (나를) 보면 화가 나나 봐요. 그런데 나는 애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애 불쌍하잖아요. 애 셋이다.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성미가 무서웠던 시어머니는 양암자 씨를 무척 미워하자, 양암자 씨는 때로 시어머니를 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고 저러시려니” 하며 때로 이해하기도 하며 평생을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성미에 “친구까지 없을까” 걱정하여 1년에 두 번 동네 어른들에게 밥상을 차려 대접했고 이 일로 1984년 ‘대한노인회’에서 효부상을 받기도 하였다.



양암자 종부의 남편과 시어머니(1960년대 초) 양암자 종부와 진기석 종손(1963년)

양암자 그리고 또 그냥 봄, 가을 이렇게 내가 노인네들 모셔 놓고 하루 상을 차려요. 그러면 친구들 오시라고. 성미가 무서우니까 친구가 안 생길까봐. 자꾸 챙겨드려야지 친구가 오래 계실 거 아녜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여럿- 이 오셔요. 여럿이 오셔가지고 지내는데 다들 좋아라 하시지. 잡숫고 나면, 큰상을 차려드리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치매를 앓았는데 양암자 씨는 당시 공장에 다니면서도 병수발을 들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야 양암자 씨에 대한 ‘미움’을 풀었다.

면담자 돌아가실 때는 좀 마음을 풀고 돌아가셨어요?

양암자 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셨어요. 치매로 한 5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직장에 나가고, 하루에 요, 이부자리는 두 번은 빨았어요. 아침에 갈 때 싹 목욕 시켜서 딱 요를 깔아 드리고, 저녁 때 오면 별로 안 반가운 거 다 들어내고 새로 깔아 드리고,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내) 손만 이래 만지시면서 웃으셔. ‘아휴 난 이렇게 있다가 널(내일) 일도 못 나겠다(일어나지도 못하겠다).’ 그러고 자야지 하고 돌아누웠는데, 손이 탁

7 '고산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회'에서 수여한 상이다.

땅에 떨어져, 그러고는 가셨어요. 그래 풀고 가셨어.

시어머니는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양암자 씨 막내딸에게 당신이 “왜 니 엄마를 미워했나 모르겠다.” 하는 소리도 자주하였고, 돌아가시기 직전 치매로 정신이 없으면서도 양암자 씨의 손을 만지며 웃음을 보이는 것으로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그래도 아직 양암자 씨 마음속에 시어머니는 응어리로 남아 있다. 얼마 전 양암자 씨는 회고록을 쓰려고 펜을 잡았다가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먼저 쏟아져 나와 “아직 회고록을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었다고 했다.

이렇듯 세 명의 종부는 똑같이 종갓집에 시집와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며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였다. 하지만 세 명의 여성은 종부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였다. 최형숙 씨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수행했던 노동 자체를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양암자 씨는 자신을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김인순 씨에게는 종종 땅을 팔려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땅을 지키고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는 시의 정책 하에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종갓집 며느리로서 서로 다른 어려움을 이야기한 배경에는 종종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차이뿐 아니라 시집 식구들의 협조와 인정, 남편으로부터 받은 인정 여부가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인다.

김인순 씨에게는 종종으로부터 물려받은 14만 평의 땅과 임야를 어떻게 하면 종종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었던 반면 양암자 씨와 최형숙 씨는 종종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이나 땅이 없었다. 하지만 양암자 씨는 때가 되면 작은집 동서가 도우러 와서 함께 일하고, 남편도 양암자 씨에게 우회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주어 남편과 식구들이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양암자 우리 영감님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개월을 넘기고 나니까, 그래도 나는 1개월을 넘길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찌 1개월을 넘기고 나서는, “2개월을 넘길까.” 걱정을 했는데, 또 3개월이 돼서 살아주니까, “아- 이제 살려가 보다.” 안심을 했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참 미안하더라고.

반면 최형숙 씨가 종부로 수행한 노동 자체를 유독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건 일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가 되어도 도와주는 손길 없이 거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던 노동환경, 그리고 종부로서 해 온 역할을 남편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형숙 아니 신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도 오면은 '아, 나도 없는 사이에 고생했지?' 이런 말이라도 해 줬으면 내가 위안이 되고 그 말 한마디에 풀어졌을 거예요.

최형숙 씨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는 컸고 최근 몸까지 아프게 되자 “종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아도 귀찮을 뿐”이라고 하였다. 즉 종가의 전통을 지키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했지만 1960년대 이후 작은집 어른들은 시장에 나가 일을 하느라고 일손을 도울 수 없었고, 현대 부부사이에서 기대되는 정서적 측면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종갓집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최형숙 씨의 어려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행복했던 순간과 앞날에 대한 전망

세 종부는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기억도 달랐지만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도 달랐다. 최형숙 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시내에 나가 장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때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50평짜리 내 집을 장만했는데, 그 순간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였다.

최형숙 행복이라고 하면 열심히 내가 장사를 해 가지고, 열심히 알뜰히 해서, 의정부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처음 진(짓는)다고, 그래서 몰래몰래, 많이 파는 날은 조금씩 더, 못 파는 날은 만 원씩 이렇게 흠뻑다가 600(만 원)을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주택은행에 가서 노인네도 계시고 그래서 큰 평수를 해야 되니까, 큰 평수 허게(히게) 넣어 달라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다 서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로얄(로열, royal)층에다가 그게 분양이 되더라구요.

아주 우리 동이 제일 좋아.

양암자 씨는 스스로 “종부라고 내세울 것이 없어” 자신을 “종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순간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자녀들을 잘 키워내 “애들이 뭐 없다고 손 내미는 일이 없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남편과 여행을 자주 보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암자 아, (해외여행) 잘 보내줘요, 외국에, 중국에도 갔다 오고, 유럽 쪽에도 5개국을 갔다 오고, 캐나다도, 애들 돈 다 해줘서, 그래가 애들 그럴 때 좋고, 둘이(남편과) 나가니까 좋고, (웃음)

김인순 씨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가장 큰 보람을 “종중 땅을 힘들어도 버티고 지켜온 것”이라고 하나 그 덕을 시어머니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김인순 보람은 힘들어도 이거 버티고, 자부심은 이 땅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키셨으니까, 저는 그래요, 저가 지켰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이걸 지키셨으니까, 어머니가 지킨 땅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어른이 지킨 거니까.

최형숙 씨와 양암자 씨가 지내오던 시제는 이제 종중에서 사람을 사서 하게 되며 두 종부의 역할이 종중으로 넘어갔다. 기제사는 아직 두 종부가 지내고 있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한편 김인순 씨는 최근 큰며느리를 맞이하여 열심히 종부 일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선조의 유산인 땅을 지키고, 종가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종중 사람들, 시의 지원, 그리고 아들 내외의 전통과 종가에 대한 생각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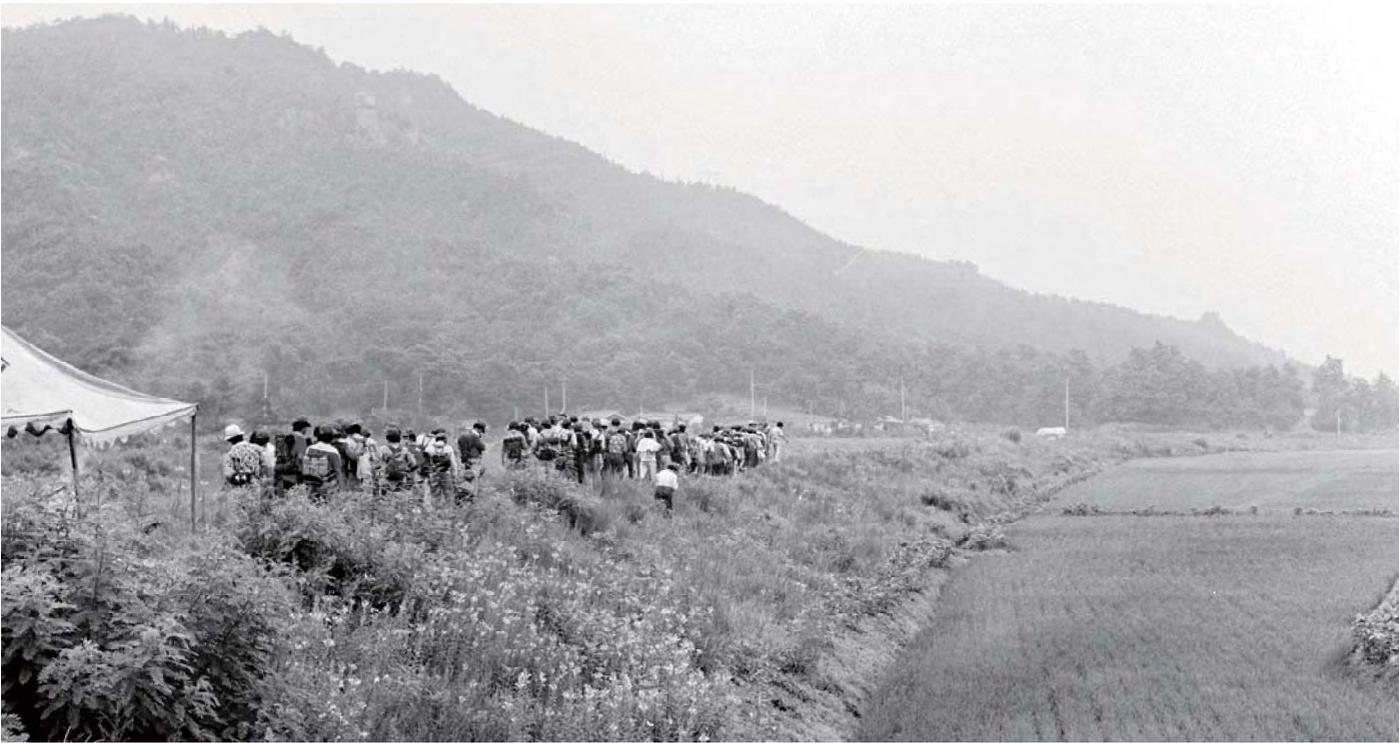
농촌에 시집온 여성의 삶

의정부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1963년의 시 승격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시에서 발행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역 내 총경지면적은 1966년 1,484ha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79년까지 1,400ha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1년 기준 역대 최저치인 377ha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농가 수의 경우 1965년 1,651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01년 647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기준 1,150가구를 유지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1974년 386가구에서 한우 588마리를, 468가구에서 돼지 4,801마리, 112가구에서 닭 14만 1,750마리를 사육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1년 기준 11가구에서 한우 221마리를, 6가구에서 돼지 131마리를, 4가구에서 닭 2만 5,86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¹

즉 의정부의 농업과 축산업은 시 승격 이후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다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의정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본장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이 번성했던 1980년대 전후 의정부의 농가에 시집온 두

1 의정부시의 『제13회 통계연보』(1975), 『제23회 통계연보』(1985), 『제44회 의정부통계연보』(2006), 『제50회 통계연보』(2012)를 참조하였다.



농촌 전경(1980년대)

여성이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며 의정부 농촌에서의 삶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들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 ‘귀락마을’로 시집온 두 여성

조정녀(1952년생) 씨와 김용남(1959년생) 씨는 자일동²에서 걸어서 1~2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서로 이웃하고 살고 있다. 조정녀 씨는 인천 소청도에서 5남 3녀 중 셋째, 딸로는 둘째로 태어났다. 이후 가족들이 모두 경기도 시흥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고

2 자일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시북면(柴北面) 자일리(自逸里)·귀락리(歸樂里)·금곡리(金谷里)를 합쳐 시둔면(柴屯面) 자일리(自逸里)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자일동이 되었다. 자일동이라는 지명은 『봉선사본말사약지(奉先寺本末寺略誌)』에 의하면, 600여 년 전 태고 보우(太古 普愚) 스님이 이곳에 천보사(天寶寺)를 짓고 자적유일(自適遊逸)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의정부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culture.ui4u.net>) 지명유래 참조].



귀락마을

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다. 25살에 자일동 귀락마을³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한 살 위 남편을 중매로 만나 1976년 시집온 후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김용남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1남 5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부모님이 둘째는 아들을 보기를 바랐지만 바로 밑은 딸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다.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남편 될 사람의 눈에 들게 되었다.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가진 후 25살이 되던 1983년에 결혼해 귀락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 남편은 당시 농사도 짓고 젓소도 키우고 있었다.

조정녀 씨와 김용남 씨의 시택은 서로 각별한 이웃이었다. 조정녀 씨의 시택은 한국 전쟁 때 불이 났었다. 그때 남편은 태중에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시어머니가 몸을 풀

3 귀락(錦樂)마을은 포천시 소흘면과 경계를 이루는 의정부시의 최북단 마을로, 조선 영조(英祖) 중엽 박해(朴海, 의정부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지명유래란이나 1997년 의정부시에서 발행한 『의정부지명유래』에서는 박해문(朴海文)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자일동에 위치한 묘비에는 '박해의 묘(朴海之墓)'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박해문이라고 알려져 온 것은 묘비의 지(之)자를 문(文)자로 오독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람이 평안도 도사(平安道 都事)를 지내다 이곳에 와서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에서의 삶을 늘 만족하게 생각했다. 하루는 그의 가노(家奴)들이 마을 이름이 없어서 불편함을 털어놓고 이름을 지어 줄 것을 간청하자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錦鄕) 여생을 즐겁게 지낸다(樂業)"라고 말하면서 마을 이름을 '귀락'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또한 일설에는 이곳의 지형이 거북이가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귀락(龜落)이라고도 했다고 한다[의정부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culture.ui4u.net>) 지명유래].



조정녀 씨와 남편 전덕선 씨의 결혼식 사진



설악산 신혼여행 사진(1976년)

곳이 없어 김용남 씨 시택으로 가서 몸을 풀었다. 즉 조정녀 씨 남편이 태어난 곳이 김용남 씨 시택이다. 김용남 씨의 남편은 조정녀 씨의 남편과 형제처럼 지냈고, 먼저 결혼한 이웃집 형의 아이들을 자신의 조카처럼 귀여워해 주었다. 이후 김용남 씨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자, 두 집의 아이들은 네 집 내 집 없이 한 동네에서 뛰어 놀며 자랐다.

조정녀 씨는 시택의 외숙모가 중신을 서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이 장남이라 부모님은 “가면 고생하고, 뭐하나 할 줄 없는 딸이 이런데 와서 사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중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농사를) 많이 짓는다. 굶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가면 그냥 살려나 보다.”하고 마음을 내서 시집을 오게 되었다. 예식은 시택 쪽에서는 “의정부에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냥 (서울의) ‘을지예식장’에서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신혼여행 후 시집에 처음 왔는데 “맨 침에는 기가 막혔다.”고 하였다.

조정녀 맨 침에 오니까 기가 막혔어요.

면담자 왜요?

조정녀 멋도 모르고 온 거잖아. 시집을. 아주 진짜. 꼬불, 꼬불, 꼬불. 아주 진짜. 옛날에는 진짜 꼬불

꼬불이야. 지금은 길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비 오면 장화 없으면 못 다녀요. 그 정도였고 뭐 아궁이에다 불 때서 밥하고.⁴

그래도 조정녀 씨의 시집은 기와집이었다. 방은 안방과 건너방 두 칸만 있었는데 세로 머느리를 들인다고 ‘오양간(외양간)’을 개조해 방으로 만들어 거기서 신혼살림을 살았다. 시할머니와 시부모, 시동생과 시누이해서 모두 7명이 함께 살았으며, 결혼 한 이듬해인 1977년에 딸을 낳았고, 1978년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김용남 씨는 친정아버지가 경기도 수원에서 건축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본인도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농촌에 살고 있는 남자와의 만날 기회도 없었고, 농촌으로 시집을 오게 될 것이란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귀락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쪼소를 키우던 남편과 중매도 아닌 연애결혼을 하게 되었다.

면담자 남편 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김용남 저희가 전에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4H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도 단위, 중앙 단위 행사를 하는데, 도 단위는 수원의 그 시민회관, 거기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원에 있는 유치원, 몇 개 유치원이 경진대회 할 때 위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왜 선배들이 후배들을 환영의 밤이랄까,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특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찬조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경기도 4H클럽의 경기도 회장을 했어요. 거기서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찬조 출연 나가고 하다가, 눈여겨봤대요. 자기 말로는, (웃음)⁵

4H(Head, Heart, Hands, Health) 경진대회에서 김용남 씨를 눈여겨 본 남편은 누군가에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당시 남편은 24살, 김용남 씨는 23살이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김용남 씨의 친정 부모님은 반대하였다.

4 2013년 4월 23일 자일동 조정녀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5 2013년 4월 16일 자일동 김용남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면담자 특히 누가 반대하셨죠?

김용남 다 하셨죠.

면담자 왜(요)?

김용남 맘여느리도 힘들지만 시골에 대한 걸 전혀 모르니까. (또) 층층시하(層層侍下) 사니까. 제일 먼저는 층층시하보다 너무 시골이니까. 너무 시골이니까 반대 하셨죠.

친정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용남 씨는 남편이 “모든 약조건을 다 덮을 만큼 너무 순수했고, 너무 진실해서” 본인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남편도 “도시로 나와 살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친정의 제안도 듣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그 점으로 인하여 친정 식구들의 점수를 따게 되었다.



김용남 씨와 남편 최영달 씨의 결혼 사진(1983년)

김용남 우리 아버지가 “도시에서 살면 허락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너 어떻게 하겠나?”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그랬대요. “지금은 정말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지만 {앞으로는 농업, 농촌이 각광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도시인 부럽지 않으니}6노력을 하겠다.”, 자기는 “어른들, 부모님 두고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를 다 이해해 주고 다 덮어줄 거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조금 흔들렸을 거 아녜요? 근데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나는 부모를 버리고 못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너 그럼 출퇴근해라. 너 농사짓고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떠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엄마도 그 말에 조금은 관찮은 녀석이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웃음)

결국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받고 1983년 의정부 ‘서림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

6 { } 안의 내용은 인터뷰 이후 검토과정에서 김용남 씨가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추가 설명한 것이다.

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김용남 씨는 남편의 ‘순수함’과 ‘집념’에 반했고 “농촌을 알았다면 달랐겠지만 어떤 곳인지 몰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회상하였다. 그런데 정작 농촌에서 생활해 보니 그 동안은 ‘환한 곳’에서 살았다면 농촌의 생활은 ‘어두운 곳’에서의 생활이었다.

김용남 도시는 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는 해만 지면 깜깜해요, 주위가 깜깜한 밤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해만 지면 딱 깜깜해지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고, 주위가 다 산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어두우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문화적인 거는, 문화생활은 일반 농촌보다는 저희 집(시댁)은 비교적 윤택했어요, 윤택했는데, 공원만 나가도 깜깜하고, 도시에서는 해가 저도 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만 지면 같혀 산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었어요.

집안에 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할머니에 시부모, 시동생 둘에 시누이 둘이 있는 대가족이었지만 밤이면 깜깜해지는 농촌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김용남 씨는 남편이 키우고 있는 젖소들에 둘러싸여 “푸른 초원을 거니는 낭만적 시골 생활”을 상상했으나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적 어려움은 농촌의 ‘어두움’이었다.

2. 어른들 그늘에서 살 때가 “더 좋아”

조정녀 씨는 “시집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해서”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살림을 배웠다. 처음에는 집에서 장작을 땀었는데 1970년도에 들어 연탄으로 바뀌었으며 1980년대부터 가스를 사용하였다. 낫선 일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낫선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잘해 준 ‘신랑 덕’이라고 하였다.

조정녀 하기 싫다는 건 없었어요, 시집을 왔으니까 다 해야될 거 아녜요? 몰라도,

면답자 낫선 데도 불구하고 적응할 수 있었던 건요?

조정녀 그래도 신앙이 잘해 줬으니까 그래도 여지껏 살아왔겠조? 버티고.

가난하진 않았지만 농사는 거의 자급자족하는 정도여서 첫째 딸을 낳고 둘째가 연년생으로 게다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는 분유 하나 사 먹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젃소 30마리 정도를 사서 목장을 한 덕에 자녀들 학비며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장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을 무렵 그만 두었다. 조정녀 씨는 삶의 굴곡은 있었지만 자녀들도 다 대학 졸업시키고 “쌍둥이를 기를 때 힘든 것”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의 삶을 “평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도 남편은 농사를 짓고 있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예전 집에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살며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의 손녀딸을 돌보며 틈틈이 김용남 씨와 함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다.



조정녀 씨 3남매 모습(1980년대 초)

김용남 씨는 시집와 보니까, 시아버지가 가스레인지까지 놓고 안쪽으로 목욕탕까지 따로 만들어 도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한 나름의 준비를 해 두었다고 하였다.

김용남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결혼한다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걸 데려와야 해서 그랬는지, 전에는 내가 왔을 때는 {아궁이에} 불 때는 거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와 보니까) {주방을 입식으로 하고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화장실, 목욕탕까지 타일을 붙여서 주거환경이 잘 돼서} 난로 떼고, 불 떼고 그런 건 몰랐어요.

결혼 후 한 1년까지는 크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오자마자 살림 사느라 고된 것은 없었다. 시집 식구들은 다 좋았는데 특히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누구보다 ‘도시 며느리’를 예뻐해 주었다. 농사일은 주로 어른들이 하고 김용남 씨는 옆에서 밥을 내다 주거나, 벗짚 거두는 일을 돕거나 착유(搾乳, 소의 젃을 짜는 일)를 도와주는 정도였다.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치원 교사를 하였기 때문에 살림을 배울 기회가

없어 밥을 할 줄도 몰랐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살림을 주로 하고 살림에는 '선수'였던 시누이가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김용남 시누이가 살림을 워낙 잘하니까 그냥 시누이 하는 대로 시어머니 하시는 대로 따라했죠.

면담자 호되게 훈련은 안 받으셨네요?

김용남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도시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애가 와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신통하구나. 그러셨으니까요. 좋으셨어요. 특별하게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힘들진 않았어요.



고부 3대(좌로부터 시어머니, 시할머니, 김용남 씨)

시집은 지 1년이 지나면서 농사일은 물론이며 80여 마리 되는 젓소 목장일도 조금 더 거들게 되었다. 김용남 씨가 1984년에 큰 아들을 낳고는 1년 정도 있다가 살림꾼 시누이가 시집을 갔다. 따라서 김용남 씨가 해야 할 살림은 늘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987년에는 막내아들까지 태어나며 집 안팎으로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 갔다.

하지만 농촌이었기에 아이들은 마을에서 이웃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고, 시어머니도 함께 살림을 살아, 김

용남 씨 혼자서만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경제권도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김용남 씨는 만뉘느리지만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면담자 그럼 생활비나 이런 건 다 살림은 누가 사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김용남 저희 결혼하고 12~13년은 시아버지가 살림을 살았어요.

면담자 경제권 가지시고? 찬값 다 본인이 당신이 쓰시고?



김용남 씨 시어머니 회갑연(1996년)

김용남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시아버지가 경제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니가 해라.”하고, 시동생 둘 장가가고, 시누 시집가고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는 거죠.

김용남 씨의 시부모님은 이렇게 1990년대 중·후반 정도까지 경제권을 가지고 직접 경운기나 택시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다. 이후 김용남 씨가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차를 운전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다. 김용남 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경제권을 넘겨주고 2003년 돌아가셨다. 경제권을 물려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한 집안의 어른이 되었지만 김용남 씨는 오히려 어른들 밑에서 살림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하였다.

면담자 큰살림 사시니까 좋던가요? 경제권 받아서?

김용남 그게 이 시골은요, 다 오픈(open)되다시피 하잖아요. 도시처럼 문 닫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시골은 누구네 집에 오늘 저녁에 반찬 뭐 먹는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살림을 맡아서 집안이 부흥,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든 거 같아요. 경제권 받고 나니까, 세 분이 계시니까 어른들이 전에는 당신들이 장을 봐 오시니까 당신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잘 사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십몇 년을 살아도 오늘은 아버지가 뭘 들고 싶은지, 어머니 할머니가 뭘 들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면 제 임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 밑에서 살 때가 더 좋았던 거 같아요. 돈 씀씀이도 그렇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김용남 씨의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맏며느리를 아껴주었고 보는 ‘눈’이 많은 농촌 마을에서 며느리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 하도록 큰 방어막이 되어 주었다. 예를 들면 김용남 씨는 자녀들만은 “시골 애 같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깔끔하게 씻기고 옷차림도 신경을 썼으며, 유치원도 의정부 시내 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차편이 없어서 직접 오토바이를 배워서 자녀들을 오토바이에 태워 유치원 버스가 오는 축석검문소까지 다녔고, 초등학교 들어갈 땐 운전면허를 따서 차에 태워 통학을 시켰다. “시골에서 유난을 떤다.”는 소리가 나왔을 법한 일이었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하나 뭐라 하지 않았다.

김용남 근데 인제 그렇게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도요 어르신들이 이해해 주셨으니까 했죠. 어르신들이 애를, 그 시골 어른들도 뭐라 그래야 될까 보수적으로 애를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고 그러시면 못했을 거예요. 주위 분들이 젊은 여자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애 데려다 주고, 차 끌고 다니면서 애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반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단호하게 동네 분들한테 해 놓으시니까 동네 분들이 말씀을 못 하셨죠.

김용남 씨가 시부모님으로부터 경제권을 받은 후 책임은 무거워졌다. 경제권을 물려 받은 직후에 닥친 외환 위기로 인해 사료 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자 김용남 씨는 목장을 처분하게 되었다. 얼마 후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김용남 씨는 농촌에 시집온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맞게 되었다.

3. 외환 위기가 가져온 시련과 남편의 성공 후 찾아온 허탈감

좋은 시집 식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집념이 강한 남편”과 함께, 비록 남편이 농촌 활동한다고 시간이 나면 집에 있지를 않아 그 점이 “속이 상했지만” 큰 일 없이 자식 키우며 평탄한 삶을 살았던 김용남 씨에게도 1997년에 닥친 외환 위기는 시련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김용남 인제 목장을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IMF(구 제금융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 우유가 때로는 납품이 안 될 때가 때로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송아지 값이 사료 값을 못 따라가주는 거예요. 우유 값이나 소 값이 사료 값을 못 따라가니까, 그 사료 짐승은 먹어야 되고 돈은 회수가 안 되니까, 저희가 그 사료 살 때 그때 빚은 많이 졌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김용남 씨가 운영하던 젖소 목장

게다가 당시에는 자녀들 학비와 시아버지의 폐암과 시어머니의 재생불량성 빈혈로 병원비까지 많이 들 때였다.⁷

김용남 더 이상 가다가는 정말 도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목장을 그만뒀어요. 다 팔고 {우유, 쿼터 등 모든 것을} 정리를 했는데도 사료 값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또 그 안에 {아버님이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을 해서

7 인터뷰 이후 감독 과정에서 “당시 땅으로 치면 1,000평 정도 가격이 들었다.”고 하였다.

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 약값도 안 나오는 상태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당장 생계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결혼 전부터 지역농협조합장을 꿈꾸며 농촌 운동과 새마을운동 등에 열심이던 남편은 초지일관 자신의 꿈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남편은 농사와 농촌활동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

김용남 저희 남편은 오직 고지식한 그, 진짜 농사꾼이에요. 오직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고 앞만 보지 그 옆에 결눈질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도 고지식하고 남편도 똑같이 고지식해요. 그 말은, 동네 분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 날 때 마다 팔고 땅을 샀으면 우리 동네 전체 땅을 다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김용남 씨는 공여지책으로 생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목장이 있던 초지에 주말농장을 시작했다.

김용남 {목장 할 때 남편은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와 '우유두부(치즈)'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식품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도 해 보고 우리 마을 전체를 '생태공원마을'을 만드는 계획도 세우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였지만 주위 여건과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그 꿈도 접었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생각했어요. {사로 깊이 빛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제가 남편을 1년 이상을 설득했어요. 주말농장을 하자. 그 당시 주말농장이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농장을 하자. 초지를 우리가 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야 판로도 없고 주말농장을 하자. 그래서 주말농장을 시작했어요.

“밭만 만들어 주고, 당신은 농사짓고 하고 싶은 농촌활동을 하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시작한 주말농장 일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다. 농자재를 내어 주는 일부터 뒤치다꺼리까지 모두 김용남 씨 책임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빚에,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으므로 김용남 씨는 여기에 주말농장 온 사람들이 식사를 할



좌측 빨간 벽돌집이 살림집, 우측 초록색 지붕이 식당건물이다.

수 있는 식당까지 해보기로 하였다.

김용남 그래서 인제 주말농장을 시작했죠. 공여지책으로 주말농장을 한 거예요. 주말농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식당)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도 생기고 또 아이들도 커지니까 {학비와} 생활비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씨는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큰 돈은 안 되었다.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도움이 될 뿐이었다. 식당은 계속 운영하였지만 주말농장은 2~3년 후에는 “시간적으로만 매어 있게 되어” 그만 두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되었던 또 다른 수입원은 오리와 우렁이 농법과 같은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흑미 농사였다.

김용남 식당만 하다가, 저희 남편은 논농사 하면서, 저희는 논농사도 일반 농사를 하지 않고 무농약 농사를 지었어요. 끼만 쌀이라든가, 흑미 {홍미, 당노쌀}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약간의 돈이

되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논에 오리는 수거해 생오리나 시식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판매했어요}

김용남 씨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고 있던 절의 신자들에게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 이들의 입소문 등을 통해 판로가 확보되었다.

면담자 판로는 어떻게 했어요?

김용남 아는 분들 통해서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처음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절에를 다니니까 절에다가, 절에 보살들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까지 갔어요.

현재도 친환경 농사는 예약을 받아서 받은 만큼만 생산하여 팔고 있다. 하지만 식당은 남편이 농협조합장이 되면서 그만 두었다. 김용남 씨 남편은 2009년 겨울 본인이 청년 시절부터 꿈꾸던 농협조합장에 드디어 당선되었다. 장남이 농협조합장을 꿈꾸던 것을 알고 있던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아들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던 그해 여름에 돌아가셔서 시부모님과 기쁨을 함께 할 수는 없었다.

면담자 남편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셨는데요?

김용남 농협조합장이요, 지금 현재 농협조합장이예요.

면담자 높으시네요.

김용남 아, 높으시긴요, 농민 대표일 뿐이에요.

농촌 청년으로 도시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던 아내를 만나 처갓집의 반대와 회유에도 울퉁이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에서 살며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는 외고집 남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을 도와 열심히 보조만 해서 남편이 성공하면 그것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용남 씨에게 뜻밖에 찾아온 것은 일종의 ‘빈 등지증후군’과 같은 허탈함이었다.

면담자 보통 그렇게 되면 “아휴 남편은 지 할 일밖에 모르고 나는 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용남 아, 그렇더라고요. 저희 남편 조합장 되고 나니까, 같이 농사꾼으로 살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게 할까, 돋보이게 할까, 최고가 되게 할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하고, 제가 원하는 일이 딱 되고 나니까요. 돌아보면 빈 둥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상까지 갈 때는 정말 거기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착역에 딱 닿았을 때 텅 빈 느낌. 그러고 어, 나는 뭐야? 이래지는 게, ‘아, 나도 옛날에 괜찮았는데.’

당시 20여 년을 한 지붕 밑에서 산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늘 주변을 맴돌며 농사를 짓던 남편은 출근을 하고 없고, 더구나 아들들도 모두 군대 입대해 있었다. 친정에서 자랄 때도 대가족이었고 시집와서도 대가족 속에 살았는데 집에 혼자 남게 된 것이다.

면담자 허탈(함인가요)?

김용남 허탈도 있고요. 20년 동안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 적으로 하여튼 그런 노력은 많이 했는데, 남편이 조합장이 돼 버리니까 저하고는 너무 격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힘들었어요. 한 몇 달 동안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김용남 씨의 남편은 바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었다.

김용남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참 남편이 영리했던 거 같아요. 제가 남편이 딱 (조합장이) 되고 나서 몇 달을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저 산 속에 한번 데려가 보면 어떨겠냐.” 그랬어요. (남편이) “왜?” 그래서 “소리 좀 한번 실컷 질러보고 와 보게.” 그랬어요.

김용남 씨 남편은 “알았다.”고 하며 어느 날 갑자기 김용남 씨를 차에 태우고 떠났다. 여행지에서 김용남 씨 남편은 “전화도 자주하고 더 많이 신경 써 줄게.” 하고 약속하며 김용남 씨의 “허탈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김용남 씨는 많이 좋아졌고 요즘은 조합장 아내로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4. 두 여성의 삶과 ‘귀락마을’의 미래

조정녀 씨 역시 1997년 외환 위기 때 쫓소를 처분하며 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최근 귀락마을에 40년 가까이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을 느끼고 있다. 바로 동네 소음이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느껴지는 자연마을이었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주말이면 찾아오는 외지인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조정녀 여기요 처음엔 진짜 조용했어요. 옛날에 시집와 가지고, 진짜 조용한 데였는데 지금은 좀 틀려(달라) 졌어요

김용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오면요 “니네 동네는 개미도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그랬는데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네들은 바람 쐬러 들어온다고 그러다고 하지만 뭐 집 앞에서도 차를 그냥 (시속) 40km, 50km 달려 대지 않나. 차를 아무 데나 세워 놔서 그것도 공해를 일으키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고 그냥 농사를 지어도요 남아나는 게 없어요. 점점 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뭐 심었다 하면 그냥 뽑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외지 사람이 자꾸 드나들면서 어수선해지고 시끄럽고, 또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열어 놓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소풍 삼아 드라이브 삼아 귀락마을에 들어오게 된 건 한 7~8년 전부 터이다. 팻말을 써 붙여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 더구나 귀락마을 옆으로 ‘소풍길’이 나서 주말에는 시끄러운 것이 “시내보다 더 하다.”고 하였다. 부역에 앉아 창문 밖을 봐도 산이고 들이고, 대문을 열고 나가도 산이고 들인 풍광 좋고 산수 좋은 곳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어도, ‘외지인’ 문제로 조정녀 씨는 “강원도 산골이라도 가겠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의정부에 시집와 산 지 올해로 딱 30년이 된 김용남 씨는 ‘깜깜한 게 너무 무서웠던’ 새색시에서 이젠 고향 경기도 수원을 삭막하게 느끼고 오히려 귀락마을에서 따듯한 정을 느끼는 중년 부인이 되었다. 김용남 씨 역시 조정녀 씨처럼 외지인으로 인한 번거움을 느끼고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최근 들려오는 개발 소식이다.

김용남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우린 그린벨트 풀어주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그린벨트 때에도 고생을 했어요. 하다못해 사료 창고 하나 지붕만 엮어도 와서 부시고(부수고) 이랬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근데 아까 99칸, 들어오시는 입구에 집 헐고 막 그랬죠? 글로(그리로) 고속도로가 나요.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의정부를 생각하면 아직은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나서 그렇게 돼 버리면 따뜻한 온기가 없어질 거 같아요.⁸



구술자 조정녀 씨(좌)와 김용남 씨(우)

아직도 자연부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귀락마을 한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나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조선 영조 때 평안도 도사를 지낸 박해(朴海)가 ‘이곳에 돌아와서(歸鄕) 여생을 즐겁게 지낸다(樂業)’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귀락마을에 외지인이 더 늘어나고,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보다 시집온 귀락마을에서 더 오랫동안 살며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이며, 외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도 극복해 내며 살아온 두 여성의 삶과 귀락마을의 미래는 도시 개발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⁸ 2013년 4월 23일 자일동 조정녀 씨 자택에서 진행된 김용남 씨 인터뷰이다.

대를 이은 여교사의 생애

최승천 녹양초등학교 교장은 1960년 의정부1동의 현재 '부대찌개 골목'이 자리하고 있는 '대추나무 집'에서 6남매 중 다섯째, 딸로는 막내딸로 태어났다. 최승천 교장의 아버지 최양화 씨는 1922년생으로 만주에서 사범학교를 졸업 후 양주국민학교(현 의정부중앙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으며, 장학사 및 연천군 학무과장을 거쳐 중앙국민학교(현 의정부중앙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였다. 최승천 교장 역시 인천교육대학(현 경인교육대학교)을 나와 가흥국민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한 후 장학사를 거쳐 현재 녹양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 중이다.

여기에서는 대를 이어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33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최승천 교장의 이야기를 통해 의정부에서 반세기 넘게 교사로 살아온 한 집안의 역사와 그 의미를 새겨 보고자 한다.

1. 내 인생의 네 남자, 그중의 최고는 아버지

최승천 교장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네 명의 남자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한 명은 “승천아, 너는 우리 학급에서 머리가 제일 좋구나. 너는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잘 하겠다.”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학급 학생들에게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

던) 말해 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인 물리 선생님이 다. 최승천 교장은 물리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아 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또 한 명은 교사로서 있을 때 “맡겨드리에다 아이를 셋이나 뒤서 승진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최승천 교장에게 관리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준, 당시 근무하던 학교의 김윤식 교장이다. 또 한 명은 “언제나 서포트해 주는 남편”이며,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남자는 ‘아버지’이다.

최승천 교장의 아버지 최양화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서 평택 내기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야 갈 수 있는 만주의 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하고 처음 발령받은 학교는 양주국민학교였다. 최양화 씨는 혼자 방을 얻어 살면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방학 때 외가가 있는 경기도 오산에 가곤 하였는데, 외가 건넌집에 살고 있는 최승천 교장의 외삼촌이 “잘생기고 흰칠한 시골에서는 최고의 인텔리(intelligentsia)인 선생님”을 보고 “너무나 맘에 들어 하며 여동생을 증매”하였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마친 “정말 순수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의정부 자취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최양화 · 최승천 교장 부녀

최승천 그래서 그 오두막집에 아버지가 자취를 했던지 몰랐던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에 엄마가 온 거죠.

면답자 오두막집이라 하면 그 무허가?

최승천 그 집 방 하나만 있고, 부엌도 없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가마, 누테기라 그러냐? 이런 거 들고 들어가서 {들추고 들어가서}¹ 밥하고, {다들 가난했던 전쟁 중이었으니까요}.²

1 { } 안의 내용은 인터뷰 이후 검토 과정에서 구술자가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추가 설명한 것이다.

2 2013년 4월 30일 녹양동 녹양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밥걱정 안 하는 오산의 땅 많은 집 큰 딸”로 살았던 어머니로서는 아버지의 초라한 살림에 실망을 하였다. 그래도 외삼촌은 시골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우시니까” 가을마다 소달구지에 쌀과 온갖 곡식을 싣고, 또 몇 년에 한 번씩은 초가집 지붕을 갈아주기 위해 이엉을 싣고 오는 등 ‘처남 식구’ 지원에 열심이었다. 외삼촌은 올 때마다 처남 집에 며칠씩 묵으며 최승천 교장을 비롯한 조카들을 모아놓고 도깨비 이야기며 방앗간 이야기 같은 이야기보따리도 푸짐하게 풀어놓았다.

최양화 전 교장은 양주국민학교에서 10년 넘게 교사생활을 하면서 1950년에 첫 아들을 낳고, 이어서 딸, 아들, 딸을 2~3년 터울로 낳았다. 그 다음으로 최승천 교장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두 순서상 아들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족보에 올리기 위한 남자 이름이 주어졌고, 최승천 교장은 딸임에도 불구하고 ‘승천’이라는 남성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최승천 내 이름을 불러준 게 창피했어요. 출석을 부르면 뭐 하늘로 올라가? 누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성 최씨(隋城 崔氏)가 족보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인가, 3년에 한 번씩인가 올리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날은) 9월 10일인데, 그해 6월이 (족보에 올리는 시기였어요). 엄마 배는 불렀죠,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아들, 딸, 아들, 딸 낳고 지금 뻗 거는 아들인 거예요. 이번에 못 올리면 3년 후에 올리니까 이름을 미리 족보에 올려놓은 거예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아들인 ‘승천’(이 된거죠).

최승천 교장은 부모님께 몇 번이나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디서 물어보고는 “관운이 있는 이름이라는데 바꿀래?” 하는 소리에 “여태까지도 지났는데 그냥 하겠다.”며 자신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연수를 가면 이름 덕분에 남자인 줄 알고 남자 교사들과 같은 방에 배치되는 등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이제는 언니들이 “족보에 올라간 덕에 잘되나 보다.”라며 부러워하였다.

최양화 씨는 최승천 교장을 낳은 이후 1963년에 막내로 남동생을 하나 더 낳아 모두 3남 3녀를 두었다. 최승천 교장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최양화 씨는 의정부시 장학사로 근무하였다. 이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최승천 교장에게 최고로 멋진 모습이었다.

최승천 제가 중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의정부시 장학사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잘 생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제 손을 잡고 교문에다 저를 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중앙초등학교면 길 하나 건너면 교육청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서 놓으면, 그 앞에서 교통지도하시던 선생님들이 아버지한테, 장학사이니까, 선생님들이 막 고개를 숙이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게 막 자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자다가 목이 말라 한밤중에 깨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책상도 없던 집에서 아버지가 한밤에 상을 띄고 공부하시던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억들이 최승천 교장으로 하여금 “공부하게끔 한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었다. 최승천 교장에게 아버지는 “멋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자 또 다정다감하고 공평한 분이였다.

최승천 저희 식구가 여덟 식구였으니까 김장을 옛날에는 100포기 200포기씩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항상 미늘을 열 개씩 끼라는 거예요. 김장이 되면, (그러는데) 아버지 원칙이 있었어요. 이번 주가 시험 보는 딸, 아들 가는 다 본인이 끼는 거야. 다 10통씩 나눠 주고.

최양화 씨는 어머니에게는 100점짜리 남편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최승천 교장에게는 100점 아버지였다고 한다. 최양화 씨는 양주 풍양국민학교(현 남양주 풍양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34세의 나이로 장학사가 되었다. 10년 정도 장학사로 근무하고 다시 교사생활을 하다가 의정부 호암국민학교 교장이 되었다. 50대에는 연천군 학무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첫 교직 생활을 하였던 의정부 중앙국민학교로 돌아와 교장으로 퇴임하였다. 얼마 전 어머니가 별세한 이후 급격히 쇠약해지고 약한 치매 증세도 있어서 지금은 포천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요양하고 있다. 예전 일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다 없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막내딸인 최승천 교장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교사로서 지내온 지난 삶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면담자 최승천 교장님 어렸을 때였어요?

최양화 개 정말 똑똑하고 내 뒤를 이을 딸이다. 자식이다 그렇게 믿었죠.

면담자 가장 보람이었던 일은요?

최양화 교직 생활에 보람이 있었던 건 내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모범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칭찬 속에 교직을 했었죠. 그 당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 없다.”, “우리 선생님 최고다.” 그런 속에서 교육을 했고 또 나도 그러한 보람으로 살았죠.³

최양화 씨는 “교사로서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했고, “속 썩이는 애들도 없어 어려웠고 힘들었던 일도 없었다.”고 과거를 회상하였다. 가난한 살림에 자녀 여섯을 기를 때는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물었더니 “오직 교직에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면담자 후회되시는 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최양화 전 여태 후회 같은 거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후회는 없어요.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사랑한 최양화 씨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현직 국회의원인 문화상 의원도 그 중 한명으로 “잊을 수 없는 양주국민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라고 주례를 부탁해 와 최양화 씨가 주례를 서기도 하였다. 최승천 교장에게 아버지는 네 명의 남자 중 최고로 어린 시절부터 본받고 싶은 사람이자,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

2. 준비된 교사

교사 집안의 교육열 덕에 최승천 교장은 의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엄한 집안의 분위기상 “여자가 나가서 잔 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였기

³ 2013년 5월 2일 포천에 소재한 포천실버타운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필자에게 최양화 씨는 초코파이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다. 갑자기 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혼자만 받은 것 같아 신이 난 초등학교생이 된 기분이었다.

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의정부에서 서울 청파동까지 통학을 하였다. 그리고 집안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친구들은 당시 “종로(에 있는) 학원 같은 데도 다녔지만” 최승천 교장은 그런 데 가는 건 꿈도 꾸지 못 하고 고교시절을 보냈다.

최승천 요즘 박카스 선전 있죠? 9시만 되면 헬레벌떡 뛰는 게 저예요.

면답자 버스가 있었어요? 청파동까지?

최승천 두 번 타야 되요. 종로5가까지 12번 버스 타고, 거기서 전철 타고, 의정부에 전철이 없었을 때잖아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한 9시 반쯤에 출발하면, 11시쯤 도착하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렇게 성추행이나 이런 위험이 지금 같지도 않았는데 이 막내딸을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 우유랑 사과예요. 딸기 우유랑 사과를, 술이 너무 취했는데 여기서 하나씩 넣고 이려고 버스 종점에 와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최승천 교장은 아버지를 너무도 좋아하고 “이순신 장군보다 세종대왕보다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닳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교직이 자신의 길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더구나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을 존경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이과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말은 너무 잘 들어 자신이 싫증 날 때”조차 있었던 최승천 교장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교대에 지원하였다. 사실 부모님이 최승천 교장에게만 교대에 가라고 권유하였던 건 아니다. 집에서는 큰언니에게도 작은언니에게도 모두 교대에 진학하기를 권하였다. 하지만 큰언니가 입시에서 떨어지자, 아버지 혼자 6남매를 길러야 하는 빠듯한 살림에 “재수란 없다.”란 원칙이 있었기에 큰언니는 딸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만 졸업하였다. 둘째 언니는 “끝까지 무릎 꿇고 울면서 ‘아버지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불어과”를 갔다.

최승천 교장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와 지질학과에 원서를 썼는데 “재수란 없다는 말에 기가 죽어 이불 뒤집어쓰고 며칠 울고”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다. 서울교육대학교 가능성이 있었지만 “무슨 소리냐.”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가 있는 경기도에 배정 받을 수 있는” 인천교육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최승천 교장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신나게 대학 생활을 즐길 줄도 몰랐다. “다

른 친구들은 이렇게 룰루랄라 놀 때” 최양화 씨가 딸에게 해 준 “공부 못하면 저 이불 싸들고 시골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최승천 교장에게 은연중 영향을 미쳤다. 교대에 입학하였다고 해도 아직 교직이 천직이란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최승천 교장은 장학금을 받으며 착실한 대학 생활을 하였다.

최승천 저는 교대 다닐 때 지금 생각에 항상 천 원을 아침에 받았어요. 그럼 제물포까지 전철 170원, 왕복 340원. 밥, 라면이나 짜장면이나 분식을 먹으면 130원, 커피, 대학교 댄데 커피를 마시면 100원. 그러면 100원에서 200원이 남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1주일을 모으면 500~600원이 되죠. 그러면 종로쯤 나가서 종로에 ‘웨이브’라는 화신(백화점) 앞에 다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인천에서 커피를 마시면 100원이지만 거기 가면 한 2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친구들과하고 낭만, 고작 떨어졌던 낭만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찍 철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엄마 아버지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최승천 교장은 1982년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기능초등학교에 첫 부임을 하였다. 당시 첫 월급이 17만 원 정도였는데,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면 용돈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최승천 교장은 그 돈을 받아서도 허투루 쓸 줄을 몰랐다.

최승천 생각하면 옷도 사 입고 다방도 가고 이렇 텐데, 저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의 저를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종로2가에 가면 YMCA 빌딩에 가면 의정부에 없는 클래식 감상반, 바이올린반, 서예반,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학원들이 의정부에 없는 게 있는 거야. 영어 회화반, 펜글씨(반),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좋아하는 모범생, 음, 선생님이 돼서 칠판 글씨를 잘 써야 하니까 그 글씨를 배우러 다녔다니끼요. ‘아, 나는 좋은 선생님이 돼야 돼.’ 훌륭한 모범적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서예도 배우야 되고, 칠판 글씨 그걸 무슨 글씨라 그러지? 펜글씨! 펜글씨도 배우고, 오르간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 바이올린으로 가르치면 얼마나 애들이 좋아할까. 바이올린도 배우고, 그 5만 원을 가지고 한 강좌를 끊으면 한 만원에서 8천 원이었어요. 그 짓을 했다니끼요.

30년 전 당시의 학원비, 교통비, 커피 값 등 천원 단위까지 기억하고 있는 기억력에



첫 부임지인 기능초등학교

필자가 놀라움을 표시하였더니 최승천 교장은 “너무 불만스러웠기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하였다.

면담자 아니 저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뭐가 얼마였는지, 대학 때 커피 값이 얼마였는지.

최승천 아, 저는 그게 너무 불만스러워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교대를 졸업하고, 아— 이 너무 이 짧은 피, 여기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은데, 아이들을 이렇게 답답(하게 가르쳐도 되나?),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노력을 하면서도 반대방향으로는 ‘이건 내 길이 아닌 거 같애.’ 나를 위한 그 무엇이 있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탈출할 생각도 병행했어요.

마음속에는 늘 탈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하는 일은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 덕에 당시 상위 3% 정도만이 의정부, 성남, 수원, 안양, 부천 등 5개 시에 발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승천 교장은 5개 시 중 고향인 의정부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 최승천 교장은 교사가 된 이후에도 ‘진짜 나의 길’에 대한 탐색을 멈추지 않고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지원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최승천 그래서 동시에 이 길은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내 상황을 헤쳐 나갈 수는 없는 길이
다. 뭔가 있지 않을까 늘 고민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행정학과를. 행정학과
를 들어가면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가서, (교대) 2년제를 졸
업한 나머지 3년을 더 다녀서 4년 학사 자격을 딴 거죠.

마지막 학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졸업 시험을 칠 때 임신까지 하였지만 “의지의
한국인”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 갔다. 최승천 교장의 남편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아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승천 근데 그때 임신이 만삭이 돼서 졸업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
때 동국대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볼 때 데려다 주고 끝날 때까지 시우나 하면서 기다
렸다가 나를 데리고 오고 그런 기억(이 나오).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을 때 쯤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이자 동시에 15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는 만머느리로서, 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살았다. 하지만 마흔 무렵
“그동안 말 잘 듣는 딸로 어른들이 말하는 ‘FM(Field Manual)’으로 살았지만 최승천
을 찾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마침 인천교육대학이 4년
제가 되면서 교육대학원이 생겼고 그동안 좋아했지만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영어
교육과에 입학하였다. ‘커다란 꿈이 있었던 것도 승진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나를 위해
공부할 시간을 갖자.’는 마음에 시작한 공부였다. 한참 어린 학생들과 함께 원서를 보
며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영어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도 ‘아버지의 흐름’을 받아 공부에 대한 열정은 그칠 줄 몰랐다. 인터뷰 당시 최승천 교
장은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 6학기를 마쳐 가는 중이었다.

3. 의정부의 교육을 디자인하는 교장

최승천 교장도 아버지처럼 남양주 풍양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장학사로 나가게 되었다. 5년간 동두천시, 의정부시, 경기도교육회 장학사를 지낸 후 2007년 3월 1일자로 교감이 되었다. 그 당시 모시고 있던 교장 선생님이 일보다 바둑을 좋아하여 당시에는 불만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 덕에 교장 업무까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직을 간절하게 원하던 것도 아니었고 항상 어딘가에 '나의 길'이 있을 거라고 꿈꾸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갈고 닦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은 더 좋은 교사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최승천 교장은 2011년 녹양초등학교 교장 공모에 당선되서 당당히 의정부 최연소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녹양초등학교가 교육과학부 지정 '창의인성모델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의정부혁신지구 창의지성행복학교'로 지정받게 하는 쾌거도 이루어내었다.

현재 녹양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경희 교사는 "30년 교직생활하며 여러 교장을 겪었지만 최승천 교장 선생님은 마인드 자체가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뿐 아니라 학교 구석구석,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까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였다.

조경희 마인드 자체가 혁신이에요. 동료 교사들한테 사랑. 애정이 많으세요 무슨 일을 놓고서 "이거 해라"가 아니라 "한 번 좀 알아서 해보세요" 하면 나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시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교사들을 편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구석진 곳까지 예를 들면 어디냐 저기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조리원들 그런 분도 다 보살피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하세요⁴

조경희 교사는 처음에 공모제로 교장이 온다고 해서 "어렵겠다."는 우려를 가졌지만, 3년을 함께 일하며 처음에 가졌던 '우려'는 '함께 일하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4 2013년 4월 30일 녹양동 녹양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최승천 교장 인터뷰 중 교장실을 방문한 조경희 교사와 진행된 인터뷰이다.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던 최승천 교장은 교장이 되어서도 ‘모범 교장’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학교 재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최승천 {첫째} 굉장히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게 지침인 거예요. 아버지 누가 안 되게 시택에 누가 안 되게. 첫 번째 교장 되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심 없이 교장 노릇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교를 오는 행복감에 설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최승천 교장은 그런 차원에서 ‘혁신학교’를 꿈꾸었고, 모든 교사들도 교장의 뜻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마침내 녹양초등학교는 2013년 3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최승천 교장은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교사를 지원 받고, 학급당 학생 수는 18~21명 선으로 유지해도 되는 좋은 조건에서 그간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교육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최승천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교육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고, 그 해맑은 웃음을 짓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제 나이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교장실 문을 딱 열면, “아- 행복한 하루!” 이라고 들어와요. 새로운 선생님은 뭐가 불편할까. 나이 드신 선배님은 뭐를 필요로 할까. 일반직은 뭐가 필요할까. 밥 짓는 사람들은 어떤 게 부족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이런 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최승천 교장은 교장이 행복하니 아이들도 행복해한다고 하였다.

최승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를 알아요. 아이들은요.



녹양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최승천 교장

최승천 교장은 어릴 때 집에 올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외삼촌에 대한 추억, 또 다정다감한 아버지와 형제들과 재미있게 자라던 추억을 생각하며 아이들도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으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최승천 저는 와서 운동장 조희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기억에 운동장 조희하는 건, 따가운 햇볕밖에 기억이 안 나요. 교장 선생님 무슨 말한 게 난 한번도 기억이 안 나요. 방송 조희하거든요. 조희 때도 뭐 질서를 잘 지키자, 휴지를 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말. 아이들이 정말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운동은 왜 해야 하는지, 음악은 왜 필요한지, 효도는 왜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듣는 거처럼 해서 좋아해요.

녹양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경쟁이나 등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에 최대한 노출되어 있다.

최승천 몇 등 물론 없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로서의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충분히 누리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체육을 잘하는 애도 있고, 글짓기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악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개네들이 햇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는 시험 점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평가 제도예요.}

그래서 1년 12달을, 각각의 재능이 '햇빛을 볼 수 있게' 다양한 도전의 날을 만들었다. 예컨대 '리더십(leadership) 도전'의 날에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의 재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과학의 날'에는 과학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의 재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의 날'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최승천 교장의 핵심 모토(motto, 신조)는 '행복'이다. 이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하고 교장인 본인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승천 저는 교장 되고 학교 오면, 옛날의 첫사랑 만나러 갈 때 그 기분으로 운전하고 와요. 그런데 이걸 나 혼자만 이러면 이걸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럼 선생님들도 그래야 된다.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나 얘기해 보자. 아이들이 도전의 날 할 때도, 아이들은 너무 신나 죽겠는데 선생님들은 이거 억지로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행복이에요, 선생님의 행복. 네. 그래서 그런 거로는 제가 조금은 자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내에서도 멀고 전철역도 없어 교사들이 부임하기를 기피하는 학교 중 하나였던 녹양초등학교는 이제 새로 부임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많아졌으며 경력 교사는 더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다.

4. 나는 ‘의정부 산(産)’

최승천 교장은 의정부1동 부대찌개 골목 코너에 있는 ‘대추나무 집’에서 태어났다. 약 70년 전 아버지가 처음 의정부에 교사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이자, 어머니가 시집와 ‘거적 같은 것’을 들추고 들어가 밥을 해 먹던 곳이었다. 남의 땅에 무허가로 있던 집이었는데, 15년 정도 지나 땅 주인이 땅을 팔자 “온 데(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땅을 인수해 벽돌집으로 새로 지었다.

최승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온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어요. 지금의 그 집을, 중학교 1학년 때.

집 앞 마당에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대추나무가 상징이 되어 동네 사람들은 최승천 교장네 집을 ‘대추나무 집’이라고 불렀다.

최승천 (이젠) 거의 폐허가 됐죠. 그 집에 저희가 지으면서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대추 따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뭐 하나면, 대추나무가 맨 처음 심었을 때는 마당에 있었지만, 가지가 커서 (길까지 뻗어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 밑에 손주가 아홉이예요. 그 아홉이 다 그 천막을 잡고 네 구석을 잡아서, 외삼촌이 털면, 대추를 다 따 가지고, 그 다음날은 큰 대추, 작은 대추 분류해서 몇 가마씩 땀어요. 우리 집이 ‘대추나무 집’이었어요.

최승천 교장은 ‘대추나무 집’에 살며 교사로 있다가 1984년 당시 근무하던 학교 선생님의 중매로 의정부에 살고 있던 교육자 집안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교감으로 퇴임한 시어머니 역시 의정부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최승천 제가 결혼도 또 의정부 사람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정부가 친정에, 시댁에, 타고난 고향에, 29년의 근무에, 의정부랑 사실은 너무나 {밀접한 삶}. 맑은 공기 이런 걸 마시고 살아 온 거예요.



의정부1동 대추나무 집

남편은 언제나 최승천 교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고 시대도 ‘온화하고 배려하는 문화’였으며 시부모님도 따뜻한 분들이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했고, 또 지지해주는 남편과 배려하는 시대 식구들이 있었기에 최승천 교장은 여성으로서, 만며느리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의정부의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교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의정부 출신’이란 것이다. ‘의정부 출신’이란 것이 교장 공모에 지원했을 때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장이 되고 난 후에도 의정부는 ‘친정’이자 ‘시댁’이기에 더욱 ‘바른 교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짐을 항상 가지게 하였다.

최승천 공모 올 때 도움이 됐어요. 학부모들하고 운영 위원들하고 발표를 할 때 그걸 강조했죠. 나는 의정부에서 타고 났고, 의정부 교직 생활을 28년 했고, 이런 거가 이슈화는 됐지만, 내가 의정부 사람이라는 거. 의정부 교육의 애정, 의정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런 거가 저한테 있어요. 내가 심은 곳이 이곳, 교육계, 의정부 교육계. 그럼 꽃피어야 되지 않나.

최승천 교장은 이렇게 의정부에서 태어나 의정부에 꿈을 심어왔고, 의정부의 공기를 마시며 교장의 자리에서 있는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 행복한 노력을 하며 지내고 있

다. 대학 때는 기지촌이 있는 곳이라 미팅을 나가서 사는 곳을 이야기 할 때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젠 의정부 출신이란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였다.

최승천 아무튼 의정부에서 나서 (대학 때까지는)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기지촌이라는, 네, 그 일반화된 그런 선입견. “나 의정부 살아.” 미팅 갔을 때 집 바래다 줄 때. (웃음) 어렸을 때 생각은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의정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의정부의 교육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헌신할 수 있고, 어떠한 새로운 모델을,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을 그런 학교, 그래서 그건 사실 의정부의 힘(力)이죠, 의정부 산(産). 내가 의정부 산이 아니라면, 의정부 교육을 위해서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들을 의정부 교육에 헌신하게 하고, 네, 그거는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세 명의 자녀는 모두 장성하여 큰딸과 사위는 함께 의사의 길을 가고 있으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던 막내아들은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둘째 딸은 교사 부부로 최승천 교장이 걸어온 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승천 교장은 자신이 교사로서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 하면서도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는 『의정부시사』에 본인의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남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최승천 얼마나 또 많은 시행착오를 하겠어요? 기본 철학은 가지고 있지만, 조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아, 이걸 잘못이구나.’ 할 수 있고 해서.

최승천 교장의 말대로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아버지인 최양화 씨처럼 훗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후회하는 일도”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이주 여성의 삶

결혼 이민자 가족은 다문화가족이라고도 불리는데, 2011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35만 2,991명이며 이중 경기도가 9만 2,338명으로 전국에서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2011년 5월 기준 안산시가 1만 560명(11.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수원시 8,458명(9.2%), 부천시 7,391명(8%), 성남시 6,321명(6.9%) 순이며, 의정부시는 2,886명(2.6%)로 경기도에서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다문화가족 수는 2007년 1,580명에서 2011년 2,886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표 1〉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7 | 2008 | 2010 | 2011 |
|-----------|-------|-------|-------|-------|
| 계 | 1,580 | 2,034 | 2,696 | 2,886 |
| 국제 결혼 이민자 | 544 | 1,107 | 1,080 | 1,167 |
| 혼인 귀화자 | 474 | 474 | 550 | 589 |
| 자녀 | 322 | 453 | 1,066 | 1,130 |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중복방지에 관한 연구』, 2012, 19쪽.

1 박재규의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중복방지에 관한 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제2장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2007년 설립된 의정부외국인
력지원센터와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돕
고 있으며, 2000년에는 천주교 의정부교구에서 녹양동성당에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
소를 개소하였다.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비
롯한 다양한 활동 및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2013년 현재는 노동, 의료, 산재 관련 상
담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가정불화, 언어 소통 불편, 육아 관련 상담은 물론이며 한
국어 교육과 이주 가정 아동 공예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장의 서술은 한국 남성과의 혼인으로 의정부시에 살게 된 결혼 이민자 여성(국적
미취득자 포함) 3명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였다.²

인터뷰한 3명의 여성은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제3대 상담소장 배준희 신부와 그
곳에서 활동하는 이주 여성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 구술에 참여한 여성은 필리
핀에서 온 마리아 테일(1965년생) 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로비야 울다(1983년생)
씨,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쿠엔 티 킴 티엔(1986년생) 씨이다. 면접자는 구술자 출신
국가의 언어를 모르고 구술자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관계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
기에는 제한적이었지만, 모두 한국에서 짧게는 7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상 살고 있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국적도 다르고, 가족 배경도, 자라온 환경도 다른 3명의
이주 여성이 한국과 그리고 의정부와 인연을 맺게 된 경위와 세 여성의 삶에 의정부가
각각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결정하게 된 배경

마리아 테일 씨는 필리핀의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였고, 1995년 29살에 결혼하
여 1997년 10월에 한국에 왔다. 슬하에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두고 있다. 남편은 “한국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통일교”에서 만났다. 통일교는 필리핀에 있을 때 친구

2 본고에서는 3명의 결혼 이주 여성을 인터뷰하였는데, 이 중 베트남의 쿠엔 티 킴 티엔 씨를 제외한 2명은 신분 보호가 필요하여 이
름, 국적, 자녀 이름, 나이, 가족 상황 등을 모두 변경한 후 구술내용만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의 소개로 다니게 되었다.

면담자 그럼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통일교 다녔어요?

마리아 데일 친구가 소개해줘서, 우리 필리핀에서도 통일교 좀 반대하지만, 저기 처음에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 사는 건 어떻게, 집 안에 애들한테 어떻게 키우는지,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면담자 그런 게 좋았어요?

마리아 데일 네.³

필리핀에 있을 때 “외국에 나갈 생각은 없었지만 종교 때문에”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남편은 1961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6형제 중 장남이었다.

면담자 장남? 형제자매는 (몇이나 되요)?

마리아 데일 6명. 다 남자. 남편 밑으로 다 남자 5명. [면담자 : 와-.] 저 고생했어요.(웃음)

마리아 데일 씨는 성격이 긍정적이고 밝아서 “저 고생했어요.”하고 웃었지만 그녀의 ‘고생’은 추억으로 웃어넘기기엔 힘든 ‘고생’이었다.

로비야 울다 씨는 2003년 20살에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대만 사람과 결혼해서 로비야 울다 씨도 대만 쪽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한 것은 “돈 때문은 아니라고” 하였다.

면담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떠나고 싶었어요?

로비야 울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어요, 친구들이 대만 다 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저보고 너 가족들이 가난한데, 가, 가면 엄마 아빠 도와주고 잘살 수 있잖아, 그런데 돈 있으면 뭐해

3 2013년 4월 4일 녹양동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요? 있다고 해도 행복한 것도 아닌데. 저 그런 거 다 생각했어요. 나이 어리지만. 한국 오면 못 되면 운이 나쁜 거고, 좋은 사람 만나면 운이 좋은 거다.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잘살았으면(시댁의 형편이 좋으면) 좋을 거고(좋은 거고), 못 했으면(시댁의 형편이 나쁘면)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어요.⁴

남편은 로비야 울다 씨보다 20살 이상 위였지만 로비야 울다 씨 자신은 그 점이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으며,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로비야 울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창피 안 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랑해 주고 하니까 창피 안 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변함에 따라 로비야 울다 씨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가정 폭력으로 2010년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에도 로비야 울다 씨의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쿠엔 티 김 티엔 씨는 1986년생으로 3명의 여성 중 가장 나이가 어리며, 2005년 19살에 결혼하였다. 쿠엔 티 김 티엔 씨는 바로 위 친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형부의 친구였는데, 언니와 형부를 좋아하고 믿은 만큼 2005년 11월에 만나 그 달에 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형제 중 장남이고 쿠엔 티 김 티엔 씨보다 15살 위인 “착해도 너- 무 착한 사람”이었다.

현재 쿠엔 티 김 티엔 씨는 의정부에 사는 친언니와 자주 왕래하고 있으며, 언니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에서 친절한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2007년에 태어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지만 요즘은 아이를 더 낳는다면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다. 쿠엔 티 김 티엔 씨가 한국으로 시집오기로 결심한 것은 한국에 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기도 하였지만, 한국에 더욱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이 좋았고 편하게 살지만은 않으리란 것을 알았지만 “내가 원해서” 온 것이었다.

4 2013년 4월 2일 녹양동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구술자 쿠엔 티 김 티엔 씨

면담자 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쿠엔 티 김 티엔 음, 저는 사실은, 좋아요. 인제 드라마도 보고, 아, 그렇게 하면, 인제 나는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은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도 힘들어. 가족이(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니까 가는 거예요.⁵

이렇게 3명의 여성은 각자 종교적인 배경에서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하였다.

2. 희망을 가지고 온 한국에서의 ‘고생’과 ‘어려움’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데일 씨의 ‘고생’은 “제사도 지낼 줄 모르는 외국인”을 만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반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결혼해서 남편은 직장이 의정부였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었다. 마리아 데일 씨는 시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들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으로 내려가서 살았다. 시어머니는 의정부에 있던 아들이 군산으로 내려오면 아들 양말이나 속옷까지 직접 빨고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꿰매 달라 해도 빼앗아 직접 꿰맸다. 그 와중에 마리아 데일 씨에게 가장 힘든 건 먹는 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었다.

면담자 제일 마음 아팠던 기억 있어요?

마리아 데일 (웃음) 한국에는 원래 남자들 먼저 식사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저 좀 미워하니까 밥 없어. (제가 먹을) 밥 안 남아요. 그땐 많이 울었어요. 한국에 못 살겠어. 집에 가겠어. 근데 그때는

5 2013년 4월 2일 녹양동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애기 있어서 저 가면 애기(는)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애기 없으면 저 아마 갔을 거예요.

남편은 중간자적 입장에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시어머니에게 바른 소리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아내 편이구나.”하고 더욱 화를 내었으며, 급기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싸우게 되자 마리아 테일 씨는 더욱 힘들어졌다. 마리아 테일 씨는 첫째 딸을 낳고 바로 둘째를 임신하자 남편에게 더 이상 시택에 살기가 힘들다며 남편이 있는 의정부로 오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힘들어도 군산의 본가가 더 크니 아이들과 참고 있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마리아 테일 씨는 남편이 작은 방에 거처하며 돈을 모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의정부로 오겠다고 결심하고 둘째를 낳고는 아이들과 상경하여 의정부에서 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계속 마리아 테일 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다 큰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될 무렵부터 “많이 편해졌다.” 바로 밑 시동생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마리아 테일 근데 저 애들은 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조금 많이 편했어요(편해졌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남편 둘째 한국 며느리(가) 애기 낳고 3개월 후에 도망갔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애기 키우니까 힘들잖아요. 저 외국 사람이니까 더 힘들 거 같다고 그동안은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연락하니까 저한테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니가 외국 사람이어도 열심히 사니까 고맙다고.

처음에는 제사도 못 지내는 외국인이라 마리아 테일 씨를 싫어했던 시어머니는 한국인인 둘째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도망가자 손주를 키우며 맏며느리가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고 그동안 미워했던 것을 사과하였다. 마리아 테일 씨도 더 이상 마음의 응어리는 없으며 자신을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하였다.

마리아 데일 왜냐면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노인들은 남편도 없고, 아들을 시어머니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거 아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 와서 사랑(을) 뺏기니까 좀 미워할 거 (한 것) 같아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미움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지만 5명이나 되는 시동생 가족들이 장남인 남편과 형수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할 때는 힘들었다. 시어머니에게 돈은 보내고 있었지만 시동생들의 돈을 달라는 요구는 거절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도 마리아 데일 씨는 이러한 힘든 과정을 종교, 자녀, 그리고 “착한 남편” 과 함께 여태까지 잘 넘기며 밝게 살고 있다.

마리아 데일 그래도 남편은 착해요. 남편은 잘 해주고, 근데 돈은 없지만 남편은 좀 착해요. 저는 돈도 많이 없고 별로 없는데, 근데 남편은 착하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로비야 울다 씨의 어려움은 시댁과의 갈등이 아니라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였다. 결혼하고 처음 5~6년간은 아주 행복했다고 하였다.

로비야 울다 사실은 처음에 행복했어요. 돈이 있던 없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직장(에서) 하루 몇 번, 점심시간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물어보고) 막 서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마음이 바꾸는 게 참 쉽다.’라는 생각 못했어요.

너무 행복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으나, 남편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남편이 본인의 직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아내에게는 집안 살림만 하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반면 로비야 울다 씨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데서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불안정한 데서 생긴 불안과 밖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한 것이다.

로비야 울다 항상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은 너 다 따라 오라고, 뭐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래요. 그 사람 저를 보고 너는 내 주먹 안에(주먹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로비야 울다 씨는 큰 목소리를 싫어하는데 남편은 목소리도 컸다. 그냥 설명해도 싸우는 말소리 같았다. 로비야 울다 씨는 남편을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로비야 울다 씨도 남편에게 자신을 ‘당신’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 로비야 울다 씨가 ‘당신’이란 말을 싸우는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로비야 울다 씨의 요구대로 남편은 그냥 ‘여보’라고 부르던지 자녀 이름을 붙여 ‘아무개 엄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남편은 “밖에서 힘든 거는” 아내에게 풀었다. 자녀 앞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폭력도 휘둘렀다. 한번은 “아이가 이제 학교도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야 하냐고, 일을 해봐야 돈도 쓰는 방법을 알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가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남편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던졌다. 상자는 로비야 울다 씨를 맞고 아이 앞에 떨어져 부서졌다. 약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로비야 울다 씨는 이야기를 꺼내며 그 때의 충격에 눈물을 흘렸다.

로비야 울다 그 자체(를) 보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울음) 그 자체 너무 그게 아 …… 그게 저 원래 안 운다고 했는데, 당당하게 안 운다고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도 (눈물이) 있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애기 안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울음)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 참 많은 걸 이해해 주고 많은 걸 사랑해 줬었는데, 너무 사랑해 줬는데, 돈 많은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 어린 것도 아닌데, 사랑해 주는 것만 해도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결혼이주여성 중 아마 돈 때문에 결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로비야 울다 씨는 그 사람들과 자신은 “달랐다.”고 이야기 하였다. 로비야 울다 씨는 기대했던 사랑이 상처로 되돌아오자 집을 나와 쉼터에 있다가 2010년 남편과 이혼하였다. 쉼터에 있는 동안 딸은 “엄마를 찾았고” 변호사에게 “돈 못 받아도 좋지만 애기만 키우게 해 달

라.”고 했지만 양육권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우즈베키스탄에는 딸을 데려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현재는 매주 한 번 정도 딸을 만나고 있다. 요즘은 비교적 딸을 편하게 만나고 있지만 이혼 후 1년까지는 딸을 만나는데도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 이를 목격한 딸은 결국 “엄마가 이렇게 나를 만나고 여기 오면 그게 항상 아빠랑 싸워. 엄마 힘들어. 그럼 오지 말고 전화해.”라고 엄마에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젠 딸이 커서 서로 보고 싶을 땐 전화도 하고 혼자서도 약속 장소까지도 잘 온다고 한다. 하지만 딸은 “엄마가 떠날까봐 불안한 점이 많다.” 로비야 울다 씨는 그럴 때마다 딸에게 “엄마는 절대 떠나지 않아.”라고 말하며 안심을 시킨다고 한다. 지금은 처음처럼 딸을 못 만날까봐 걱정하지는 않는다. 로비야 울다 씨는 딸을 만나면 특별한 곳이나 특별한 음식을 사 먹으러 다니지 않고 집에서 딸이 가장 좋아하는 ‘오프라이스’를 만들어 준다.

마리아 테일 씨나 로비야 울다 씨의 어려움에 비해서 쿠엔 티 킴 티엔 씨는 비교적 평탄한 생활을 해 왔다. 처음엔 드라마처럼 완벽한 ‘한국’을 그리며 왔지만, 살다 보니 한국말도 잘 안통하고 베트남에서처럼 심심할 때 이웃을 드나들 수 없는 것도 힘들었다.

쿠엔 티 킴 티엔 베트남에서는 심심하면 옆집 동네 이웃(과) 막 얘기 하는데, 한국은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뿐이에요). 여기 한국 와서 얼마 안 되고 바깥에 사람(과) 대화도 못 하고, 어떤 사람 인 줄도 모르고, 가족끼리만 집에 있고 그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쿠엔 티 킴 티엔 씨는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남편이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것,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빚벌이를 하고 있지만 가사와 육아 등은 본인이 더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 등 일상에서 오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다.

면담자 남편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쿠엔 티 킴 티엔 있었어요. 7년 살았는데, 음-술, 직장 다니는 데 회식 그런 것도 해줘야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9시다 그러면 10시, 11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싫은 거예요. 9시(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왜 11시(에) 들어와. 그러면 아, 술자리 시간 길어서, 그거 때문에

싸우는 거. 돈 문제거나 직장 문제거나 싸우는 적 없어요. 술 하고 담배만 싸우는 거예요.

면담자 속상한 거는?

쿠엔 티 김 티엔 뭐든지 제가 혼자 하니깐 그거 속상해요. 남편이 직장 다니니까. 주말에 도와주지만. 힘들어서. 내가 혼자 키우고 기저귀 갈고 뭐든지.

그리고 또 가장 큰 고민은 첫째가 너무 예뻐 힘든 것도 잊어버릴 정도이지만, 자녀를 또 하나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쿠엔 티 김 티엔 음. 고민하고 있어요. 날까 말까 되게 그래요. (웃음) 낳아도 (임신) 기간도 그렇고. 임신하고 출근하고(기) 그렇고.

하지만 시부모님도 남편도 누구도 둘째 아이에 대한 재촉은 하지 않아, 이로 인한 큰 스트레스는 없이 지내는 편이다.

3. 세 명의 이주 여성들이 느끼는 한국

마리아 데일 씨는 자연에 둘러싸여 살았던 필리핀에서의 삶이 도시화된 한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면담자 한국에 올 때 처음 느낌이 어땠어요?

마리아 데일 좀. (웃음)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나무도 없잖아요. 나무 다 빠졌는데(나뭇잎이 다 떨어져 없는데), 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초록색 나무도 없고 날씨도 좀 쌀쌀해 그때는. 그때 공항에 나와서 “어휴 나 못 살겠어.” (웃음) 한국은 왜 이러지? 왜냐면 진짜 나무도 없고, 또 날씨도 춥고, 아무 것도 없어요. 필리핀(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다 있어, 보면 더 아름다워요. 한국은 볼 게 별로 없어.

‘볼 것도 할 것도 많은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에 내려 “볼 게 없었다.”라고 말하는 마리아 데일 씨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볼 것’의 기준이 개발이나 소비 중심적 가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있는 군산에 내려갔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아파트에 살아야 하였다.

마리아 데일 (웃음) 또 남편 집에 가니까, 필리핀에선 큰 집(에) 마당도 커요. 필리핀에는 원래는 아파트는 너무 별로예요. 필리핀 사람은, 나는 아파트는 제일 싫어하는데, 별로고, 나라도 좀. (웃음)

하지만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이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냥 살았다. 아이들도 가끔 필리핀에 데려가면 좋아한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텔레비전만 보고 공부 외에는 할 것도, 갈 곳도 없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 데일 필리핀에는 집도 마당도 있고, 또 자연이, 나무도 있고, 아버지 집에 그거 언뜻 같은 거 물고기 키우고, 물고기 밥 주고, 자연(이 있어요). 어디 데려가도 가기 싫어(해)요. 그냥 집에 (놀 거리가 다) 있고, 강아지(랑) 같이 놀고, 그거 다 있어. 닭도 있고, 새도 있고, 애들은 그런 거 보면 마음도 편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집 안에만 있고, 컴퓨터, 티비만 있고, 아 스트레 스 많아요. 게임만 하고.

마리아 데일 씨는 한국 사람들이 정(情)도 많지만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하였다. 이상한 사람들이란 “외국에 별로 다니지 못해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몰라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다.

면담자 한국 친구들도 좀 있어요?

마리아 데일 네,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좀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웃음) 한국 사람은 좀 외국에 간 사람은, 갈 수 있는 사람은 ‘외국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건 조금 알아. 차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못 하는 (못 가본) 사람(은) 차별(이) 많이 있어요.

면담자 어떻게 차별해요?

마리아 데일 네, 무시해요. 외국 너 여기 와서 못 살았구만(너희 나라에서 못 살아서 여기 왔구만). 근데 저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저 마음 좀 아파요. 이 사람들 외국에 한번 가 봐야겠어. (웃음) 예전에 같은 집(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 저랑도 싸웠어요. 빨래줄 같이 사용도 못 해요. 그 무시 때문에, 저 때려요. 빨래는 밀어(내고), 그 무시.

마리아 데일 씨의 자녀들도 ‘아빠 집(친할머니 댁)’보다 ‘엄마 집(필리핀의 외할머니 댁)’이 더 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인들은 결혼 이주 여성은 모두 본국에서 ‘못살아서 왔을 것’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빨래 줄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때리고 빨래는 옆으로 밀어 버리던 이웃 집 아줌마는 대표적인 “이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문화 교육도 많이 시켜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였다.

로비야 울다 씨에게 한국은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인해 그다지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 남편과 이혼 후에도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병원비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로비야 울다 경찰 조사는 못하고 그냥 검찰만 넘어갔어요. 그 사람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정말 저희 나라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비야 울다 씨에게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처럼 약자들이 당한 피해는 아랑곳없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였다. 이혼 후 위자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로비야 울다 씨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출근해서 상담해야 하는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일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자신의 처지도 힘든 상황에서 상담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 같아 그만두었다.

로비야 울다 근데 옛날에는 너무 사실 맨날 싸운 거 문제만 들으니까, 또 현재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는 대로 설명하고 그 방법이 설명을 주지만, 그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앞에 더 가면 나는 상처 받을 거 같아서 그만 둔다고 결정했어요. 거기는.



이주노동자상담소가 있는 농양동성당

지금 일하고 있는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는 일하는 게 심적으로 힘들지는 않다. “가족처럼 지내서 좋고, 누가 높고 낮고가 없고, 가끔 힘들긴 하지만 서로 방법을 찾아 해결하니까” 좋다는 것이다. 아직도 과거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지만, 로미야 울다 씨는 현재 심적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외국

인 근로자의 상담도 하고 통역도 하면서 한국에서의 10년 제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던 쿠엔 티 킴 티엔 씨는 드라마처럼 “완벽한” 생활을 꿈꾸고 왔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들으며, 자신은 착한 남편과 잘 지낼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엔 티 킴 티엔 그냥 솔직히. 좀 살다가 (보니까) 우리 남편 되게 착해요. 그래서 결혼 잘했다 생각 들어요. 저는 네. 시집에 잘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결혼 이민자 거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해서, 술 한 잔 먹고 자거나 텔레비보거나 대화도 잘 안 하고, 쉬는 날에는 ‘피곤하니까 쉬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집을 때) 생각이 남편(한국인) 나이(가) 많이 있으면 우리한테 잘해 주라고(잘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일하니까 상담 많이 하는데 거의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남편들) 95% 그래요.

쿠엔 티 킴 티엔 씨는 남편과 “주말에 시장도 가고,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고” 비교적 만족해하며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쿠엔 티 킴 티엔 씨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어려움

은 주로 주변으로부터 들은 간접적인 것이다.

면담자 무시 받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쿠엔 티 김 티엔 저는 없는데. 근데도 바깥에 다니다가 활동기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지만. '애는 드럽다.' '냄새난다.' 그런 거 들었는데 저 말고 다른 근로자들이. 원래 우리 일하면서 진짜 여기 와서 일하면서 근로자 집에 (가)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만, 돈도 잘 못 받고, 한국 사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항상 외국 사람이란 거 되게 차이 있는 거예요(외국 사람을 차별대우해요.) 우리는 사실 뭐든지 다 같이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이 한국인이니까. 그 사람이 돈 많고, 같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 오늘 (비싼 거) 사 줬어. 나중에 나도 똑같이 사줘. 아니면 다른 거 사면, 짜장면 사면, 그건 저 아니고 그렇게 사주기 힘들대(한국 사람이 비싼 것을 사면 나도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한국 사람을 사주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쿠엔 티 김 티엔 씨는 자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지만" 그것을 들은 다른 베트남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엔 티 김 티엔 저기 근데 사실은 만약에 저처럼 살면 문제없으면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면 한국이 좋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있어요.

4. 여성 이주자들의 삶과 의정부

마리아 데일 씨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직 한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다. 의정부에서 14년 정도를 살고 있지만 부대찌개가 맛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며, 필리핀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올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의정부

는 마리아 데일 씨에게 확실한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면담자 그래도 1995년에 한국 분 만나서 1997년에 결혼하고 1999년부터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의정부가 약간 나의 제2의 고향이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마리아 데일 네, 들어요. 왜냐면 다른 데(로) 떠나가기 불안할 거 같아. 왜냐면 여기는 계속 살았어요. 다른 데는 못 갈 거 같아. 그런 마음 있어요. 바뀌는 불안한 마음 있어요. 다른 동네 가면 불안해요.

면담자 의정부가 많이 편해졌구나.

마리아 데일 네.

마리아 데일 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시청 쪽 도서관에 자주 다닐 수 있어서 좋았고, 예전보다 “제일시장이 깨끗해져서 좋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프로그램은 양주시가 더 활발한 거 같고 의정부시는 “조용-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데일 씨는 의정부의 다문화 프로그램 중 자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놀림을 받아 힘들어 했는데 상담 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마리아 데일 그 저희 딸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예요. 그때 문제 생겼어요. 1학년, 2학년은 괜찮았어요. 엄마(랑) 같이 (학교에) 가면 애들 좋아해요. 그 후에 3학년은(3학년이 되니) 자꾸 친구들(이) 엄마가 외국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 엄마가 피부 까마니까. 저희 딸은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엄마 학교 가지(오지) 말라고. 그 매일매일 데려가잖아. 근데 갑자기 못 하니까 걱정해요(되어서) 뒤에 따라가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요. 그래 저도 진짜 저도 마음 아팠어요.(웃음)

딸이 나중에는 “엄마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놀리는 친구를 언필꼬 질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리아 데일 씨는 그 당시 출입국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무료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딸과 함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요즘 로비야 울다 씨의 기쁨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상담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이다.

면담자 살면서 제일 즐거운 일은 뭐예요?

로비야 울다 즐거운 거 뭐 여기서 상담한 거 해결하면 완료되면 너무 기뻐요. 지금은 그거예요. 돈 있고 없고 기쁘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는 거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있다고 행복 하(다)는 생각 한번도 없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해야 기쁘고 행복한데. 제가 많이 봤어요.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있을 때 계란 하나 간장 놓고 그릇 같이 여러 명 먹고 그랬는데도 행복했거든요. 옛날이나 현재도 그냥 누구 저 좋아하면 저도 똑같이 좋아하고 그래요. 저의 행복이에요.

결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던 한국이지만, 로비야 울다 씨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계획도 없고 의정부를 떠날 생각도 없다. 현재 살고 있는 의정부에 아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있던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받았던 ‘고통’이 이제 의정부에 정착해 살며 서서히 ‘편안함’으로 바뀌고 있다.⁶

쿠엔 티 김 티엔 씨에게 의정부의 자랑은 ‘제일시장’이다. 그리고 의정부예술의전당 같은 곳에서 상연되는 뮤지컬 같은 공연을 딸과 함께 보는 것도 좋아한다.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운영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삶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요리도 해 보고, 놀러도 다니는 것이 “되게 좋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니고 싶은 곳에 마음껏 다니기엔 버스 노선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였다. 젊은 사람인 본인은 스마트 폰을 쓰기 때문에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있지만 연로한 노인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는 것이다.

쿠엔 티 김 티엔 씨에게 의정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제2의 고향은 아니다.” 하지만 생활이 익숙해졌고 베트남 음식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음식에 적응하였다. 쿠엔 티 김 티엔 씨는 필자에게 부대찌개 골목에 맛있는 식당 한 군데를 추천해 주기도 하였다.

⁶ 한편,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로비야 울다 씨는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아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쿠엔 티 킴 티엔 또 인제 생활 익숙한 거예요. 처음엔 음식도 그렇고 근데 한 달 동안만 여기 안 맞았는데 한 달 지나면 다 맞아요. 베트남 음식 먹고 싶지 않아. 시장에 가도 다 한국 음식. 이제는 거기 고향 음식 생각안 나.

출신 국가와 결혼 배경이 각기 다른 3명의 이주 여성들은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한국에서 시집살이와 부부 갈등 등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스스로 헤쳐 나갔다. 또한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도움을 받아 가며 의정부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하지만 마리아 테일 씨가 말하듯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의정부에서 이 세 여성의 삶은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여 백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삶을 일군 여성들

의정부에 있어서 미군 부대는 지난 6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충실히 안보를 담당하게 한 ‘명예로운 훈장’이지만, 기지촌이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아픈 상처’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의정부에 주둔해 온 미군 부대는 의정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훈장’과 ‘상처’라는 두 개의 상반된 언설이 늘 공존하였다. 그러나 의정부가 군사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군 부대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 또는 ‘역사적 멍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냄으로써 아름답고 소중한 교훈이 되며, 이로써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미군 부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중 가장 많은 부대가 의정부에 존재해 왔다.¹ 현재 남아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이 2016년 이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 의정부는 더 이상 미군 부대가 존재하지 않는

1 의정부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북쪽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기에 다른 지역보다 주한미군의 기지가 많았다. 2007년 일부 미군 기지 반환 이전까지 캠프 홀랑워터, 캠프 라과디아,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카일, 캠프 잭슨, 캠프 에세이온, 캠프 시어즈 등 총 8개 주한미군 기지가 의정부에 배치되어 있었다.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주둔 시기나 위치 등을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시정40년사』(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04)와 의정부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전에 폐쇄된 캠프 필라우, 캠프 인디언은 물론이며, 기지의 명칭도 없이 주둔하던 부대도 많았다고 한다.



현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펼칠 때가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기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정부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삶을 일궈온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 미군 부대의 주둔, 도시의 발전, 기지촌 형성의 역사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발효되자 주한미군은 의정부에 주둔할 미 1군단 예하 부대의 주둔지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에 미군의 기동계획에 따라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야전 천막으로 세워졌던 보급기지과 통신지휘소는 영구적인 건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자갈과 돌뿐인 가능동 벌판에 미 1군단의 핵심인 제2보병사단의 사령부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건설되었고 사단사령부를 중심으로 통신, 공병, 포병대를 비롯한 기타 지원 및 배속부대가 들어섰다. 의정부2동에는 미 1군단 사령부의 직속 항공대가 건설되어 지휘 및 통신을 목적으로 한 경비행기가 뜨고 내렸으며, 가능동과 녹양동에는 통신부대가, 양주 덕정리에는 공병부대와 병기병참부대가 들어섰다. 금오동과 송산동에도 공병부대(현 캠프 스탠리)가 들어섰다.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부대는 제36야전공병단이었다. 캠프 스탠리에 지휘 본부 및 주요 부대를 두고 캠프 인디언, 캠프 에세이온, 캠프 잭슨 등에 예하 부대를 분산 배치 하였으나, 1969년에 발표된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에 따라 1971년에 철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36야전공병단이 있었던 캠프 스탠리에는 미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와 항공대가 들어섰고 캠프 인디언은 폐쇄되어 한국에 반환되었다. 미 1군단 예하 제36야전공병단은 전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틈틈이 의정부 시내의 도로 건설, 수해 복구, 학교 운동장 건설 등을 지원하였다. 오늘날 교육도시 의정부를 있게 한 ‘경민학원’ 설립 초기 각급 학교의 건설과 발전에도 제36야전공병단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도시의 경관 역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군수물자 보급 및 병력 이동을 위한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난에서 돌아온 원주민들과 각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부대 주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군사도시라는 특징과 한계 속에서 미군 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필지의 세분화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거쳐 상권이 형성되었다. 당시 미군 부대로부터 나오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미군을 상대로 하는 점포들이 기능동과 의정부동을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군부대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한 상권은 미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소비처 역할을 하면서 점차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넓혀 나갔다.

기지촌 내의 점포들은 ‘○○클럽’과 같은 외국인 전용 술집뿐 아니라 미군 부대 PX(Post Exchange)에서 흘러나온 외제품 판매상, 암달러상, 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결혼 중개업소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교통망이 확장되고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전후 의정부의 인구는 급증하였으며, 점차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의 정부는 1963년 경기도에서 수원에 이어 두 번째이자, 경기 북부 최초로 시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한국전쟁 직후 기지촌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주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정부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되며 유흥업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다. 1970년대 기지촌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소집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서의 사명감을 교육 받기도 하였다.² 당시 고산동 기지촌 입구와 기능동의 군단 정문 앞, 안골과 송추



캠프 스탠리와 인접한 고산동 빼빼마을 입구(좌)와 부대 후문 골목(우)

방향에서 흘러내리는 하천변에 150여 개를 상회하는 미군 전용 클럽이 성업을 누리기도 하였다.³

한편 정부는 미군 당국의 미군 장병들의 복지와 위생 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지촌 윤락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성병 진료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와 이익, 인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지촌이 의정부의 도시화와 대한민국의 경제적 도약에 기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두운 역사로 취급되며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인식되어 온 것은 바로 의정부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기지촌 여성들이 오랫동안 소외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한 시민 단체 ‘두레방’이 의정부에 세워진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기지촌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돕고 있다.

본 장에서는 1997년부터 두레방 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님(1953년생) 원장과 1960년대 의정부로 시집와 1970~1980년대 고산동 캠프 스탠리 주변에서 함바 식당(飯場, はんば)⁴ 운영과 임대업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녀들을 키워 온

2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에 악을 쓰다 : 김연자 자전 에세이』, 삼인, 2005.

3 이상의 서술은 2004년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에서 발행한 『시정40년사』 제1권의 「제2편 인문환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 ‘현장 식당’ 또는 ‘노무자 합숙소’라는 뜻의 일본어이나 본고에서는 구술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함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양암자(1936년생) 씨의 이야기를 통해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삶을 일군 여성들의 삶을 추적하고, 이를 가지고 의정부의 역사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유명님 원장이 16년째 의정부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두레방과 양암자 씨가 의정부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주택은 캠프 스탠리⁵ 외벽을 따라 위치해 있다.

2. 의정부의 역사적 조건을 활용하며 봉사하는 삶

양암자 씨는 1936년 경상남도 사천에서 ‘윤택한 생활’을 하던 집안의 6남 6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잠시 하였으며,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양재학원을 다니며 디자인의 꿈을 키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집안의 성화로 28살이 되던 1963년에 직업군인으로 경상남도 사천에 내려와 어머니와 살고 있던 민락동 출신 진기석씨를 만나 결혼하였다. 이후 조치원, 양평, 철원을 거치며 부임지를 옮겨 다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1966년 남편의 전역과 함께 시댁의 본가가 있는 의정부로 돌아오게 되었다.



양재학원 다니던 시절의 양암자 씨(1960년대 초반)

하지만 사천에서 들던 바와 달리 시댁은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그

5 캠프 스탠리는 이름도 없이 벌판에 야전 천막을 세우고 부대가 주둔하다가 1955년 4월 15일부터 미 1군단을 지원하는 제3601전공병단의 주둔지로 공식적인 묘를 열었다. 이후 1958년 제3601전공병단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스탠리 대령(Col. Stanley)의 이름을 따 캠프 스탠리로 명명되었다. 캠프의 부지 면적은 미군 주둔지 중 가장 큰 240만㎡(약 600ac)이고, 1971년 제3601전공병단이 철수한 이후 미 2사단의 포병연대와 항공부대 일부가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1권, 2004, 837쪽; 주한미군 캠프 레드클라우드 공식 홈페이지(<http://redcloud.korea.army.mil>) 참조].

많다던 논문 커녕 방 한 칸도 없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가세가 기운 이유는 아이들만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신념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하였으나 매마침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가 미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면담자 (시어머님은) 6·25 때 혼자되시고?

양암자 우리 시누님 때문에. 시누님(큰시누)을 갖다가 미군이 어떻게 달라 그러는 거를 아버님이 막아서 안 줬대요. 그러니 싸우고 안 주니까 마 총을 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상처를 입고.

면담자 그 일이 민락동에서 있었어요?

양암자 다 서울로 갔(있)는데 피난을 민락동에 왔지. 민락동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숨어 가 있는데 미군이 와서 우리 큰 시누님을 봐 가지고 그때에 큰 처녀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총을 (시아버지에게 쏘서) 여기 허벅지를 관통을 했어요. 그때 약이 없으니까 앓다가.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인자 아드님 따라서 우리 어머니는 다니시고⁶

미군 장병의 눈에 띈 큰시누를 보호하려다 다리에 총을 맞은 시아버지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앓다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39살에 혼자되어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다. 그리고 직업군인이 된 아들을 따라 부임지를 옮겨 다니던 중 사천에서 양암자 씨를 머리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66년 남편 전역 후 의정부로 돌아온 양암자 씨 가족은 “고향의 땅이니 집이니 다 없앤 상태에서 시누님이 판잣집 해 놓은 데(현 고산동 주택가)”에서 살림을 시작하였다.

의정부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동업자와 서울에서 사탕공장을 하겠다고 떠나자 양암자 씨도 함께 서울로 갔다. 하지만 양암자 씨의 서울 생활은 길지 못하였다. 당시 “(미군) 부대 공사가 많아” 시어머니는 고산동 ‘판잣집’에서 시누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하여 함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살고 있던 집은 현재는 방 4개가 있는 단독 주택에 양암자 씨 가족이 살고, 마당이었던 빈터에 방 3개를 원룸 형태로 지어 방마다 월세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방 2개에 넓은 마당이 있던

6 2013년 4월 11일 고산동 양암자 씨 자택에서 진행된 1차 인터뷰이다.

집이었다.

그런데 함바 식당 운영을 두고 시어머니와 사위 간에 뜻이 맞지 않아 충돌이 있자,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울로 뛰어와 “나는 ○○이 아버지(사위) 무서워서 뛰어왔네. 니 좀 내려가자, 니 좀 내려가자.”고 하였다. 이에 양암자 씨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와서 별별 떨고. 부모를 따라야 되잖아요. 당신은 직원들하고 (여기에서 계속 일해요), 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의정부로) 간다.”고 말하고 자녀들과 의정부로 돌아왔다. 시누이의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마찰 후 자기 집으로 간다고 떠났고 시누이도 남편을 따라 나가면서 양암자 씨는 자연스럽게 함바 식당 일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양암자 씨는 약 2년 간 함바 식당을 운영하였다.

면담자 그리고 궁금한 게 밥집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함바집. 그것도 이 장소에서 한 거예요?

양암자 여기 부대에 공사가 많이 들어왔어. 공사판이. 지금 (다른 건물들이) 신축된 (자리예요). 옛날에는 여기 산이었거든요. 미군 부대가. 거기서 일하러 오는 사람을 내가 밥을 했어요. 식당처럼. 이 집에서 했어요. 내가 요기서 생활을 했고, 이 사람들 세놓기 전에 아직 이 집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함바를 했었어요⁷

함바 식당 운영에 시어머니는 “쌀만 씻어놓으면 밥만 해주고” 양암자 씨가 거의 혼자서 하루 세끼 매번 5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였다.

면담자 혼자 하셨어요?

양암자 네. 한 50명을 치루니까 놀래더라고요. 어찌 식모도 안 데리고 하냐고. 어떤 사람은 밥을 부대에 갖다 주라(기저다 달라고) 그래요. 여기 밥상 딱 채려(차려) 놓고 밥만 퍼 놔 놓고 가면은, 내가 이고 부대까지 가요. 그 사람들 “식모 데리고 한다.” 그러더라고. 이까짓 거 하는 데 무슨 식모를 데리(고 하)나. 우리 엄마(시어머니) 밥솥에 불만 넣어 주시면 이만한 무쇠솥에 다 밥을 한 거 하고, 그럼 다른 거 반찬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국 하나 푹 안쳐 놔 놓으면은, 연탄불에 끓을 것이고, 나물 무치고, 생선 튀겨 주고 또 다른 반찬이라든지 그렇게

7 2013년 4월 20일 고산동 양암자 씨 자택에서 진행된 2차 인터뷰이다.

하면 다섯 가지 딱 한군데 놔 놔다가 이 손님 이 타임(시간)은 몇 사람, 저 타임은 몇 사람 접시만 딱 갖다 놔 놓으면 담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힘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식모를 데리고 한대요, 다 밥 먹고 나가고, 이고 갔다 온 거 그 자리에서 씻어 버리고.

양암자 씨는 이렇게 하루 세끼 밥을 차려 팔며, 식사 준비를 위해 시장에도 날마다 다녔다.

면담자 일주일에 (시장을) 몇 번이나 가셨어요?

양암자 야휴 날마다 당겼지요, 저녁밥 딱 끝나고 나면 시장에 늦은 시간 있잖아요, 그때 가요, 그것도 택시 탈 줄 모르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버스를 타고 그래 왔어요, 또 어떤 때는 시골에서 (농사지어 팔려고 동네에 온 사람들이) “사세요, 사세요.” 할 때는 그때 또 사고.”

양암자 씨는 지금은 당시 밥 한 끼에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계산도 빠르고 몸도 재빨랐다고 하였다.

양암자 참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계산만 해도 그 사람, 아저씨 몇 개 나왔어요, 그릇 몇 개예요, 그럼 아- 이쯤마 벌써 계산했어? 그럼 계산이 끝났네, 그 정도로 머리가 있었는데도 요즘은 바보예요, 안돼요.

당시 함바 식당은 양암자 씨 집 외에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양암자 씨는 “식모를 데리고 하는 다른 식당과 달리” 거의 혼자 반찬 다섯 가지를 해서 하루 세끼를 팔았고, 또 한 집안의 종부로서 시제 및 기제사도 빼놓지 않고 모셨다. 2년 동안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덕분에 생활도 됐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서울에서 시작한 사탕공장은 2년도 채 못 되어서 망하고 말았다.

양암자 그렇게 (함바 집을) 2년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2년도 못 돼서 망해 가지고 와요, 그 돈 한 푼이 없대요.

부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식당을 접게 되는데다가 남편의 사탕공장도 망했던 차에 경상남도에서 건축업을 하는 “몇 켤리는 부자”였던 양암자 씨 친정 형부가 양암자 씨 남편에게 사천 지역의 농협 직판장 총무직을 제안하였다. 이에 양암자 씨 부부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경상남도 사천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3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처가살이가 싫다.”며 서울로 물건을 하러 간다고 나간 뒤 사천으로 내려오지 않고 의정부의 본가로 돌아갔다. 이에 양암자 씨도 “아버지 없는 애들을 만들 수 없어” 자녀들과 의정부로 왔다. 의정부로 와서 보았더니 집 마당에 시택의 이모부가 방을 여러 개 지어 세를 놓고 있었다. 이모부는 3년만 있다가 넘겨준다고 하였고, 3년 후 양암자 씨는 그 방들을 넘겨받아 세를 놓은 돈으로 살림을 일구고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하였다.

양암자 그래 오니까 우리 이모부가 저 앞에 카도(角, 角, 모퉁이)를 돌아서 들어오는 길가 집 있죠?

거기다가 마당이었는데 방을 지어서 세로 놔 먹는다고 (방들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천에서 의정부로 다시 온 게 큰아들(1965년생)이 9살 무렵이었으니, 1970년대 중반 경부터 캠프 스탠리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자리하였던 집 마당에 방들을 지어 월세를 받아 살림을 꾸리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세를 받다가 나중에는 캠프 스탠리로 올라가는 길가와 바로 접하고 있던 방 두 개를 터서 미군 전용 클럽업자에게 세를 놓았고 조금 지나 그 옆에 있던 방도 당구장 영업자에게 세를 놓았다.

처음 세를 놓았던 클럽 업자는 몰래 대출을 받으려 양암자 씨 남편에게 “집 때문에 관계가 있으니 도장을 달라.”며 사기를 치려다 발각이 되어 쫓겨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다시 클럽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양암자 씨는 골목 안쪽에는 살림집을 짓고 캠프 스탠리로 올라가는 골목과 접하고 있던 길가의 방들은 클럽과 당구장용으로 임대해서 약 10년 동안 세를 받아 살림에 보태고 자녀들 교육비로 충당하였다.

하지만 이후 미군 부대 규모가 축소되고 클럽이 줄면서 클럽이 자리하였던 공간은 다시 방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도 양암자 씨는 캠프 스탠리로 올라가는 길에 접한 원룸 형태의 방 2개와 살림집으로 들어오는 골목 안쪽에 있는 방 2개를 계속 세를 놓고



양암자 씨가 세를 주었던 뽕밭마을 당구장과 클럽 앞(1970년대)

살고 있다. 남편이 “방송국에도 다니시고, 연륜이 되어서 나오고 그랬을 땐 또 자기 나름대로 아파트에도 나가시고, 생활은(생활비는) 보태 줬다.”고는 하지만 자녀 셋이 커가며 교육비가 한참 들 때였기에 클럽과 당구장, 그리고 방들에서 나오는 월세는 양암자 씨 가족의 생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클럽의 문을 닫으면 클럽 안의 소리는 외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지춘은 조용한 동네는 아니었다.

양암자 술 먹고 오는 사람 있지, 싸우는 사람 있지. 또 여기 가운데(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었어요. 어마, 우물이 있으니까 무섭네, 혹시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미군들이 무서워 양암자 씨는 미군만 보면 “방에 뛰어 들어와 딱 숨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괜찮아졌다.”고 하였다.

양암자 씨는 미군부대 주변에서 이렇게 클럽, 당구장,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방세를 받으며 세 자녀를 키웠다. 큰아들(1965년생), 작은아들(1968년생), 막내딸(1970년생) 모두 지금도 살고 있는 고산동에서 학업을 마치고 배필을 만나 독립해 나갔다. 큰아들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직으로 나갔고, 작은아들은 호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여 “지 밥벌이는 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군 부대가 있는 기지촌에서 자녀들이 별 탈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양암자 씨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면담자 아니, 보시기에는 걱정은 안 하셨어요?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양암자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어릴 때요, 미군이 퇴근하는 시간 5시쯤 되면은요, 어디서 놀다가도 다 데려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 지금 재밌게 노는데 좀 더 놀자 그래도 이 시간까지다 그러면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공부를 하던지 텔레비전을 보던지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길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우짜(어찌) 저렇게 정성스럽게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느냐 그러지만도, 그게 아니고 자식을, 그래서 참 애들은 곱게 컸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자녀들이 성장하며 한참 교육비가 들 때 마침 미군 부대 주변에 “방이 많이 필요했더라서”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하던 월세를 잘 모아 ‘활용’하였다. 누구 하나 방세 안 내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었지만 딱 한 번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던 엄마가 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 엄마가 녀 달 치나 밀린 방세를 가지고 왔을 때는 “방 두 개 말고 하나짜리 얻어라.”며 가지고 온 방세를 도로 돌려주기도 하였다.



베벨마을 골목

이후 양암자 씨는 시누가 용현동에서 운영하던 공장에도 나가 “한 번 보내면 600만 원씩 보내야 하는” 둘째 아들 유학비도 보낼 수 있었고,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대학을 안 가겠다는 딸은 “나 딸 하나뿐이야. 근데 왜 니가

8 양암자 씨는 “건전한 가정 육성과 자녀 교육에 힘쓴 것”에 대한 공로로 1989년 의정부시장이 수여하는 제17회 어버이날 표창장을 받았다.

대학을 못 가. 오빠만 왜 가.” 하면서 등록금을 호주머니에 넣고 “억지로 끌어다가 차 태워 가” 대학에 입학시켰다.

양암자 씨는 1950년대 이후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변 상권의 부흥과 1960년대 이후 공업화라고 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역사적 조건을 활용하여 한 가정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시켜 더 이상 돌볼 가족이 남아있지 않다. 이에 양암자 씨는 현재 “불쌍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니눔의 샘’을 찾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의 역사적 변화는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경상남도 사천에서 살던 한 여성의 삶에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그녀 역시 능동적인 자세로 순탄치만은 않았던 자신의 삶에 의정부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새겨 넣었다.

3. 가장 취약한 여성들의 친정 ‘두레방’

1986년 의정부에 대한민국 최초로 기지촌 윤락 여성의 복리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간인 ‘두레방’⁹이 세워졌다. 지금은 고산동의 캠프 스탠리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가평동 ‘한미연합사령부’ 앞에 사무실을 열었다. 두레방의 설립자는 문혜림 씨¹⁰이다. 그녀는 “미국인으로 남편 문동환 목사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두 번이나 감옥에 갇힌 사이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지촌 미군 전용 클럽에서 미군들을 상대하는 한국 여성들이 법적·의료적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는 그런 여성들을 돕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두레방의 시작이었다.”¹¹

한국에서 생활하던 미군들은 정부로부터 온갖 편의를 제공 받았지만, 기지촌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정기적인 성병 검사뿐이었다. 또 미군들의 폭행과 혼인을 빙자한 사기 등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들로부터 상처를 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9 두레방의 영문명은 ‘My Sister’s Place’이다.

10 본명은 해리엇 페이 핀치벡(Harriet Pay Pinchbeck)이며, 1936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였다.

11 「편견 어둠 기지촌 여성에 희망의 등불로」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21일.

에 문혜림 씨는 미국 기독교단에서 받은 선교 자금을 가지고 한국 장로교와 손을 잡고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유영님 원장은 당시 “국가적인 환경이 기지촌 여성들을 선교 대상으로 보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사회복지라는 시스템이 별로 없던 환경이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care)해야(보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 환경이 아니었고, 국가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시작했던 것”¹² 이지만 선교와 복지의 대상인 성매매 여성들과의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고 하였다.

두레방의 초대원장인 문혜림 씨는 가장 먼저 기지촌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이들이 성병을 검사받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 식사에 초대하고, 영어도 가르쳐 주며 점점 친해졌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 나중에는 상담은 물론, 요리, 영어 등 기지촌 여성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여 이들을 다방면에서 도울 수 있게 되었다.¹³

1986년 3월 가능동에 두레방 사무실을 개소한 후 그 다음 달부터 송산동 캠프 스탠리 후문 기지촌에서 송산 영어교실을 열어 운영하였으며, 1988년 7월 고산동에 ‘송산 두레방’을 열어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0년에 들어서는 재정 문제로 가능동 사무실의 기능을 고산동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1991년 문혜림 초대원장의 사임 이후 이성혜 원장을 거쳐 1997년 유영님 원장이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레방이 설립된 1986년부터 2013년까지 27년 동안 두레방이 풀어야 할 문제는 다양하였다. 기지촌 여성들과 윤락업주와의 선불금 문제와 체불임금 문제, 미군과의 국제결혼 또는 이혼 문제 그리고 이제는 국적을 달리해서 들어오는 아시아 각국과 러시아 출신 여성들의 비자 및 본국 귀환 지원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두레방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했으며,

12 2013년 5월 2일 고산동 두레방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13 「이우정 평화상에 유영님 씨」, 『국민일보』 2005년 5월 30일; 「한국 민주화 위해 싸운 피란 눈의 선교사」, 『미주 뉴스 앤 조이』 2009년 6월 13일.

'천장'처럼 포근한 매춘여성 쉼터

기억속에서 이야기

동두천·이정부 두레방

매춘여성의 현실을 그린 기차
 한 편의 이야기 '두레방'이 수
 천 매춘여성들 중을 방조하여
 그들의 외로움, 슬픔, 눈물, 자
 사를 이해하고 있다.

최근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온 매춘여성들의 이야기를 다
 료한 '두레방' 영화는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만 유혹당 한다는 '매춘'을 알
 리는 데 도움을 주고, 매춘의
 현실을 알릴 뿐 아니라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고 있는 매춘여성의 처우를 이해
 하기 위한 '두레방' 영화는 매
 춘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임신·배신등 절절한 고민거리 상담 주력 미군상대 분쟁해결도...혼혈아 양육 힘써

매춘여성의 현실을 그린 기차
 한 편의 이야기 '두레방'이 수
 천 매춘여성들 중을 방조하여
 그들의 외로움, 슬픔, 눈물, 자
 사를 이해하고 있다.

만 유혹당 한다는 '매춘'을 알
 리는 데 도움을 주고, 매춘의
 현실을 알릴 뿐 아니라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고 있는 매춘여성의 처우를 이해
 하기 위한 '두레방' 영화는 매
 춘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기차(좌)의 상영이 끝나고 두레방(우)의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레방은 매춘여성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여자의 처우를 알릴 뿐 아니라 매춘의 현실을 다룬 '기차'와 '매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내는 '두레방' 영화는 매춘

두레방 관련 기사(『한겨레신문』, 1991년 2월 28일)

기지촌 여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한 법적 지원 뿐 아니라 임파워링 (empowering, 주인 의식 부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신경 써 왔다.

한국의 기지촌 역사에 있어서 1990년대 후반은 변화의 시점이었다. 한국인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거의 빠져 나가고 그 자리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짙 아시아 각국과 러시아 출신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두레방이 있던 고산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로 이 전환의 시점에 현재 유명님 원장이 제3대 원장으로 부임해 왔다. 유명님 원장은 1953년생으로 1997년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에 부임하여 60세를 넘긴 현재까지 두레방의 원장을 맡고 있다. 인생의 중장년을 의정부와 의정부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복지과 인권을 위해 쏟아 부은 셈이다.

현재 두레방이 위치 한 곳은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기지촌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장소이다.¹⁴ 캠프 스탠리로

14 『아내에게 바치는 '떠돌이 목자의 노래' - 문동환 목사 미국인 아내 문혜림 여사와 '두레방'』, 『오마이뉴스』 2009년 9월 30일.



두레방 문혜림 초대원장(우)과 유영님 원장(좌)¹⁶

올라가는 길 좌측 입구에 캠프 스탠리와 담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은 캠프 스탠리 외벽을 따라 전주 이씨 종중과 토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빼빼이주대책위원회’가 걸어 놓은 현수막들이 일렬로 붙어 있다.¹⁵

유영님 원장은 두레방에 부임해 오기 전에는 특별히 성매매 여성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은 없었다.

유영님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인데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어요. 한신대학교라고. 여기가 들어다보면 이 두레방이란 단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단체데. 그냥 간단하게 신학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느님의 선교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개입하는 하나님. 그런 신학이에요. 기독교인의 책임이 무엇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신학이다 보니까. 크리스천(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죠.¹⁷

유영님 원장은 “교회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졸업과 함께 바로 현장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다. 유영님 원장은 대학 졸업 후 『현존(現存)』이라는 기독교 월간지를 출판하던 ‘한국신학연구소’와 기독교 출판사인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기자 및 편집자로 일하였

15 '빼빼'은 고산동을 칭하는 것으로 마을 주변에 배나무 밭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하고, '한 번 들어오면 밭을 뺄 수 없는 곳'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빼빼는 전주 이씨의 지파인 모 종중의 소유지였는데, 1960년부터 기지촌이 형성되자 많지 않은 임대료를 받으며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전주 이씨 종중에서 임대료를 평당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인상하였다. 이에 미군이 빠져나간 마을에서 장사가 안 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비롯한 빼빼 주민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게' 되었다. 이에 빼빼 주민들이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주 이씨 종중에 항의하고 의정부에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의정부 뺨뺨 마을을 아시나요?』 『경향신문』 2011년 12월 6일 참조).

16 2009년 9월 30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아내에게 바치는 '떠들이 목자의 노래' - 문동환 목사 미국인 아내 문혜림 여사와 '두레방'에 실린 사진이다.

17 2013년 5월 2일 고산동 두레방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으며, 1980년대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창단 멤버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기독교 장로회 목사인 남편과 선교활동을 위해 캐나다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1997년부터 두레방 원장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유영님 원장이 부임한 1997년 당시 “미군은 줄고 클럽은 열서너 개 정도 있었다. 여성들은 한 100여 명 정도 있었고 1998년이 되자 필리핀 여성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지촌 상권이 죽어가고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수가 줄고 있었다고 해서 기지촌 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자체까지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문제가 과거와 유사한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문제는 무엇인지를 우선 정리하고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유영님 원장은 두레방이 “이미 상당한 많은 활동들을, 대단한 활동들”을 해 왔고, “나만 독특하게 해낼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선 이전까지 해온 활동을 모아 『두레방 이야기』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들인가를 검증해서, 아닌 프로그램들은 없애고, 새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다시 만들어 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다.

두레방의 대표적 전업 사업 프로그램인 빵 만들기라든지 매일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이라든지, 혼혈 아동을 위한 공부방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은 “별로 의미가 없고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되어 폐지하고, 그 대신 기지촌 여성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시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예 프로그램과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예나 미술 자체가 “치유효과가 있기도 하고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생활인 감각을 되살리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두레방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집중하였다. 그 외에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셀프 카메라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마을문고 개설을 통한 책 읽기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점점 더 외국인 여성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이들이 1년 단위로 떠나고 또 새로 들어오기를 반복함에 따라 “프로그램 중심으로는 사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상담 내용도 바뀌고 활동의 무게 중심이 자연히 외국인 여성 중심으로 가게 되었다.” 유영님 원장 부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2004년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것이었다. 이 법은

“성매매 여성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법”이었다.

유영님 그러니까 (과거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이란 법이 있어서 성매매는 이미 불법이에요. 그런데 ‘성매매 방지법’을 왜 다시 만들었냐하면, 민간단체들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만든 법인데,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범법자였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 구매자는 거의 처벌하지 않았어요. 성 구매 행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용납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의 집단은 성 판매와 구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알선 업자나 소위 업주라고 표현하는 장소 제공자,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시각이 없었던 거죠. ‘성매매방지법’이 갖는 의미는 피해자 보호법과 처벌법 두 법이거든요. 그 피해자 보호법에는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화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이 법의 특성이예요. 그리고 성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부터 이 법안이 실현되도록 온갖 인프라(infra 기반)를 만들어 내는 게 다 민간단체 간의 협의 하에 만들어 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두레방이 많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구조지원 사업비’라고 하는데, 처음에 로또(복권) 기금으로 나가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기금 사업, 기금을 만들어냈어요. 한 사람당 760만 원의 법률, 의료, 자활 사업(에) 그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법을 통해 “외국인의 경우도 지원 체계 안에 넣을 수가 있어 귀국 지원까지 가능해졌고” 법률 해석을 따로 받아 과거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연로한 여성들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영님 원장은 지난 16년간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모두 안타까웠고”, 특히 과거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윤락업에 종사하다 이제는 연로해진 할머니들의 삶에 대하여 “상식 이상으로 (삶의 궤적이) 험악해서 그냥 이 수준이면 ‘살아낼 만한 인생이다.’의 수준을 넘는 삶을 살았다.”고 안타까워하였다. 하지만 기지춘 여성들이 재화에 성공하여 스스로 윤락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며 윤락업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된 것은 그간 느낀 가장 큰 보람이었다.

가령 결혼 후 다른 남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남편의 극심한 폭력 때문에 의정부 기지촌으로 오게 된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당시 1990년대 후반이었음에도 집을 떠나 오갈 데가 없자 무가지에 실린 ‘숙식제공’ 같은 광고를



두레방

보고 클럽에 고용되었다. 이후 이 여성은 윤락업주로부터 도리어 빛까지 지는 등 전형적인 착취를 겪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며 ‘성매매로 인한 빛은 무효다.’라는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녀는 두레방의 도움 속에서 오랜 싸움 끝에 빛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유영님 원장은 이 여성이 “처음에 두레방 드나들 때는 업주가 볼까봐 막 벌벌벌 떨고 식은땀이 나고 그랬는데, 힘이 없다가 ‘임파워링’이 되고 많이 당당해”졌다고 하였다.

유영님 원장의 말대로 임파워링은 “갑자기 한두 번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유영님 오랜 과정을 거쳐야 ‘임파워링’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지켜봐 주고 지지해 주고 그 온갖 이야기 들어 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건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게 두레방의 ‘파워’(power)다 그런 생각을 하죠.

두레방은 현재 성매매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령의 여성들이 여전히 “친정집

처럼 드나들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들이 겪고 있는 비자 문제, 임금 착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대체로 “미군이 사라짐과 동시에 기지촌 여성들도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기지촌에는 분명 과거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가 남아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윤락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되었던 기지촌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독특한 공간이 오늘의 발목을 잡는 어두운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50년을 정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는 지금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아픔까지 역사에 남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여 백

- 제1장 ————— 최고의 전통 시장, 제일시장
- 제2장 —————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 제3장 ————— 의정부 특산물, 송산배
- 제4장 ————— 육군 306보충대의 이모저모
- 제5장 ————— 도시 속의 산업단지, 용현산업단지

제4편

이곳저곳에
따리를 튼
삶의 현장

최고의 전통 시장, 제일시장

1. 한국전쟁 이후 5일장에서 상설 시장으로

의정부의 현대사는 한국전쟁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과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항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 마음, 통일이 되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휴전선 가까운 곳에 터전을 잡았고, 의정부에도 다수의 실항민이 정착하였다. 또한 의정부는 휴전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휴전 후 의정부에는 공장 등의 산업 시설 대신 미군 부대가 주둔하여 군사 시설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미군과 군용물자 이송을 위한 도로망이 정비되었으며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미제 군용품이 의정부로 쏟아져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등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교통의 요충지인 의정부로 집결되게 되었다.

의정부제일시장(이하 제일시장)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의정부에 터전을 잡고 상업에 종사하던 실항민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상가화를 통해 상설 매장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1959년

1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5권, 2004, 593~594쪽.

제1공설시장(현 제일시장)이 개설되었다.¹ 당시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은 제일시장의 주력 상품 중 하나였다. 1984년 시장환경개선사업 당시 제일시장 상가 번영회에 취업해 현재 총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병빈(1954년생) 씨에 의하면 이러한 물건들은 제일시장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찾아볼 수 있었으나, 단속이 심해지는 등 판매가 어려워지자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요즘에도 일명 ‘양키(Yankee, 미국)’ 물건을 구하기 위해 손님들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시장 좌판 남쪽 구역에 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곳과 필리핀 등지에서 수입해 온 미군 군복 등을 파는 의류 매장이 몇 군데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제일시장에서 ‘황해제유’라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최병엽(1943년생) 씨는 제일시장이 1950년대에 5일장으로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황해도 출신으로 1·4후퇴 때 피난을 내려와 전라북도 군산과 부산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휴전 이후 의정부에 정착하였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미군 부대 경비원으로 3년간 근무하였고, 누님의 기름가게를 이어받아 시장에서 기름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 5일장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최병엽 옛날에 여기 의정부3동에 5일장이라고 있었어요. 그제 60년도 넘었네.

면담자 60년 넘게?

최병엽 60년 넘게, 전에, 아니 60년 전에. 그제 보니까 5일장이 있더라고 우리 집 앞에.

면담자 네.

최병엽 쌀집도 있고, 쌀, 나무, 버섯, 이런 거 파는데, 5일장에. 그제(의정부3동 5일장) 있다가, 그제 헐리면서, 하교방(판잣집, 여기서는 목조건물의 형태) 식으로, 여길(현 제일시장 위치) 또 하교방 식으로 해 가지고 3평씩.

면담자 3평이요? 3평이면 딱 이만큼이네요.

최병엽 요거, 요거, 그래.

면담자 아이고.

최병엽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장사했어. 거기(의정부3동 5일장)서는 (나는) 장사를 못했고, 거 돈이 있어야지.

면담자 그러니깐요.

최병엽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 앞에서 살았다는 거야.

면담자 아, 사시다가.

최병엽 살다가 이게, 고거. (의정부3동) 5일장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시장을 만들더라고, 논하고 밭하고 다 메꿔 가지고.²

최병엽 씨에 의하면, 1950년대 의정부3동으로 이주하였을 당시 집 앞에 건물이나 노점이 일정한 형태로 정리되지 않은 5일장이 있었는데 그게 헐리면서 현 제일시장 자리(의정부1동)에 목조로 된 하꼬방(판잣집) 형식의 시장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시장은 서울과 경기 동북부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정해진 장날 외에도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시장이 상설화되자, 정식으로 상설 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1년여가 지난 1954년 10월 11일 '의정부 제1공설시장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송병익을 비롯한 102명의 상인들이 동참하였다. 이 조합은 공터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의정부시의 사유지였던 이곳에 3평짜리 하꼬방을 지어 제1공설시장을 만들었다. 제1공설시장은 상설 시장으로 운영되었지만, 5일장의 전통이 끊긴 것은 아니었다. 전라남도 순천 태생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이천휴(1942년생) 씨는 당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냈다.

면담자 그니까 사장님 20대시면 1942년, 1952년, 1960년대시겠네요. [이천휴 : 그치 1960년대지.]
1960년대 중반 정도 8만 원 가지면 어.

이천휴 돌이 먹고 살고 남더라고, 그래도 그게 적어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때 인제 시장에 쌀점(쌀가게) 마당이 있었어. 이 안에가, 이 쌀점 마당이었어, 쌀점 마당이 있었어, 광장, 광장.

면담자 여기가 광장이었어요?

이천휴 쌀, 장, 장, 5일장 서고, 광장이었는데, 그때는, 그때, 이제 이런 좌판에, 좌판 하나 마련해 가

2 2013년 5월 15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황해제유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의정부 제1공설시장(1963년)³

지고, 고추하고 마늘 장사를 했지, 고추하고 마늘 장사를,⁴

이천휴 씨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18세에 의정부에 사는 누나들의 권유로 의정부에 왔다가, 다시 강원도 원주 군부대에 근무하던 형에게 가서 6년간 생활하였다. 24세가 되던 해에 다시 의정부로 돌아온 그는 미군 부대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가, 좀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구시장(제1공설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5일장이 서는 쌀점 마당(쌀가게 광장)에 좌판을 깔고 고추와 마늘을 파는 것이었다. 당시 구시장은 목조건물에 기와를 올린 하꼬방 점포들이 등을 맞대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형태였다. 이 목조 점포는 각각 3평씩으로 현재 제일시장 점포(6평)의

3 QSL 아마추어 라디오 정보 제공 홈페이지(<http://www.qsl.net>).

4 2013년 7월 24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제주담집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절반 규모였다. 이천휴 씨에 의하면, 구시장에는 이런 골목이 8개나 되었다고 한다.

면담자 여기 처음. 그니까, 구시장일 때는 여기 모습이 어땠어요? 아까 광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천휴 하꼬방집이지. 이렇게. 하꼬방집인데 요렇게 쪽 한 채 있고 쪽 해서 1호 골목, 2호 골목 뭐 이렇게 쪽 해서 8호 골목까지 있었어.

면담자 어- 그때도 꽤 컸네요, 그때도.

이천휴 그렇죠, 그니까 이게 하꼬방집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골목은 리어가 하나 갈 정도고, 그리고 인제 6호 골목, 7호 골목, 8호 골목에는 6호, 7호, 8호 골목에는 색시들 막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걸 다 싹 헐어 버리고 인제 새로 진거지.

면담자 그럼 사장님은 여기 이런 데 골목 앞에서 장사하셨었어요?

이천휴 아니, 요 골목이 있는 데 여기가 6호 골목이 있었어요, 6호 골목 앞에는 쌀점 마당이라고 광장이 있었어. 그리고 또 1호 골목 저쪽 꼬터리(꼬트머리) 1호 골목에도 저 한쪽 끝에는 광장이 있었고.

면담자 아- 이런 데서.

이천휴 어, 광장이 두 개가 있었어. 여기 하나 있었고 저 꼬터리(꼬트머리) 1호 골목에. 이 건물 저 꼬터리(꼬트머리) 거기다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야채, 그런 것이 이제 광장 옆에 야채 팔고 있었어.

이천휴 씨의 구술을 종합해 보면, 구시장은 목조로 된 하꼬방 점포들이 일렬로 총 8줄이 늘어선 형태였고, 매일 물건을 파는 상설 시장이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아직 5일장의 전통을 유지하며, 쌀점 마당 등 시장 앞에 있는 두 개의 광장을 중심으로 달력 끝자리 5, 10일마다 장이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설 시장과 5일장의 전통이 혼합된 시장의 모습은 현재 남아 있는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예를 들어 성남의 모란시장 역시 현재 상설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5일장의 전통이 남아 있어 달력 끝자리 4, 9일에는 상설 점포 외에 수많은 좌판이 생기는 등 규모가 훨씬 커진다. 구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구시장의 6~8호 골목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이천휴 씨에 따르면, 이 6~8호 골목은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골목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골목이 자리한 시장이 상



제일시장 기공식(1977년)

설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시장이 상설화되자 이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자 상가번영회 회원이 320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시장 상인들이 늘어나며 점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상가번영회는 1976년 시로부터 1만 5,110㎡의 공터를 구입해 새로운 시장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77년부터 1978년까지의 공사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대형 시장인 '제일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2. 재래 시장에서 현대화된 상설 시장으로

제일시장은 문을 열자마자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당시 의정부를 비롯한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 등 주변지역에 이렇다 할 만한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병빈 씨와 최병엽 씨는 당시의 호황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면담자 여기 지하철이 뚫리면서 장사가 좀 더 잘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고병빈 잘되는 거 보기도 여기 시장이 옛날에 진짜 그 '돈통'에 돈을 밝아서 버릴 정도로 아침 새벽에 한 6시부터 저녁 문 닫을 10시까지 바글바글했었어요. 그 이유는 옆에 (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100m 위에, 100m 위에 종합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각기 각 군데서 전부 다 여기 와서 집합을 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그, 차 타고 와서 구입해서 다 갔었는데, 지금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사가 버렸어요⁵

면담자 예전에 시장이 가장 잘되던 때가 언제쯤이세요?

최병엽 이게, 시장 짓고 그때부터 잘되게, 됐어요.

면담자 그때부터 북적북적했어요?

최병엽 아 그럼요, 여기 뭐, 여 골목에 자전거는 끌고 다니질 못해, 사람이 꽉 - 차니까, 그때만 해도 사방에서 다 왔으니까.

면담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시장만 해도 다 논, 밭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최병엽 : 논하고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밭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여기 시장만 덩그러니 있고 집도 별로 없고 논밭이었는데도, 그렇게 잘되셨어요? 장사가?

최병엽 아니 포천, 연천 뭐 다 왔다니니까 그때, [면담자 : 그 정도로요?] 거긴 5일장뿐이 없잖아, [면담자 :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와서 장을 보고 갔지, [면담자 : 아, 아.] 서울 가려면 멀고 그러니까 중간지역이잖아, [면담자 : 그렇죠, 딱 중간이죠.] 농촌에서, 포천에서도 오고, 아래에서부터 법원리 파주에서도 여기 장보고,

면담자 파주에서도.

5 2013년 5월 31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상가변영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1980년대)

최병엽 그러니까 경기도 한수 이북은 거의 왔다고 봐야 돼.

면담자 여기가 교통 되,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면.

최병엽 교통 그래도 제일 낫지, 여기서.

면담자 의정부 통해, 서울에서 의정부 통해서 버스가 (다녔기 때문인가요?).

최병엽 그럼 버스 다 있었으니까.

자가용 승용차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당시 시장에 가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버스였다. 당시 서울에서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는 대부분의 버스가 의정부 구 버스터미널에 정차하거나 이곳에서 출발하였다. 경기 북부가

의정부를 중심으로 묶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의정부로 장을 보러 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덕분에 구 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시장은 최고의 호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제일시장은 점포를 모두 개인이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나·다·라동의 4개 동과 좌판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가동과 라동에는 주로 의류 점포가, 나동에는 수입품·커튼·이불·의류·과일·채소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들어서 있고, 다동은 식당·방앗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동과 다동에는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수도 사용이 필요한 점포들이 입점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외 좌판도 권역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면담자 좌판도 권역이 있어요?

고병민 네. 동쪽은 '특'이라고 해 가지고 1호부터 약 한 50호까지 있어요. 1호부터 50호. 여기는 그 뭐냐면은 야채하고 생선 코너(가게)예요. 고담에 '특'이 원래 동쪽에 있는 걸 '특'이라고 해요. 특1호부터 있고, 고담에 서. (서)1호부터 그것도 한 50호까지 있는데요. 요기는 그 먹자골목이에요. 먹자 코너. 고담에 남. 남1호서부터 남도. 어- 45호까지 정도 있는데. 45호. 정확한 호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수입품하고 수선집이 있어요. 수입품. 수선. [면담자 : 수선이요?] 네. 옷 수선. 옷 리폼(reform)하는 거요. 고 다음에 저기 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 남. 북. 동서남북이 아니라 특서남북이거든요? 북은 어. 70호까지 있어요. 69호. 69호. 북1호부터 북69호. 여기는 뭐냐면 반찬. 반찬하고 고담에 어. 저기 빈대떡. 전. 전집. 만두집. 고런 걸로다가 대략 포진돼 있다고 보면 돼요. 수선 집하고 신발 가게 코트머리로 야채 가게는 있어요. 야채까지만 써 주세요. 거기 있는데 거기는 크게 권역별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우선 반찬. 전. 어- 야채가 많이 포진을 해 가지고 있죠.

이처럼 권역을 나누자, 상가번영회는 질서 있게 시장을 관리할 수 있고, 손님들은 시장에서 보다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비슷한 품목이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 한두 번만 시장에 와 보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있는 구역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점포들 간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제일시장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하였으며, 독립된 건물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던 구시장

과 달리, 큰 지붕 아래에 있는 하나의 단층 건물을 구획을 나누어 점포 단위로 나눠 놓은 모습이었다.

이천휴 이제 좀 시원하기는 시원해요. 아케이드(아케이드, arcade) 공사하면서 정부에서 돈 받아 가지고 주차장도 허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아케이드(아케이드) 공사 저 위에 주차장을 안 해 놔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스라보(슬래브, slab, 여기서 슬레이트 지붕을 지칭)가 닳아 가지고, [면답자 : 여기요? 바로 여기 이렇게.] 예, 지금 3층으로 올려 노니까 요기, 요기 2층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니까 3층에서 다 공사를 해 놔서 2층엔 뜨겁지 않아. 근데 공사 안 했을 적에는 막 내리피여 가지고, 계란도 익을 정도야. 숨 막 맥혀서 있을 수가 없어. 작년에서부터 이제 에어컨 달았잖아. 그리고 또 3층 주차장 올리고, 여긴 시원하잖아.

면답자 어, 그럼 3층 주차장은 그럼 언제 만든 거예요?

이천휴 3년 전에.

면답자 아, 3년 전예요? [이천휴 : 어.] 어 - 저는 이게 신 공사 하면서 그때 다 만들어 놓 줄 알았어요. 주차장이랑 여기 3층까지.

이천휴 아냐, 아냐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 짓고 삼십몇 년만에.

면답자 그렇죠, 그러면 1978년엔가 공사할 때, 그때는 1층하고 지하 1층만 있었던 거예요?

이천휴 그렇지. [면답자 : 아-.]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바깥으로만 있었지.

개장 당시 제일시장은 슬레이트(slate) 지붕의 단층 건물이었으며, 건물들 사이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름에는 '날계란이 익을 정도로' 더웠고, 비라도 오면 도로에서 물이 튀어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가게에서 나온 오물들과 빗물이 뒤섞인 구정물이 고여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하였다.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면답자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시장에 계셨어요?

고병빈 저는, 1984년도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될 때에 들어왔어요. 환경개선사업, 시장에 이제 그 재



환경개선사업 후 변화된 제일시장

래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특화 사업이 한참 진행될 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간판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우리는 한 100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약 100억 (원) 정도, 주차장 건축 사업 및 간판. 그 다음에 바닥 보수, 화장실 보수, 뭐 에어컨, 냉난방, 이런 거 해서 한 근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 이런 것도 물질적인 것도 하지만은 정신적인 교육도 시켜준단 말이예요, 그게 '상인대학'이라는 거예요.

고병빈 씨에 의하면, 1984년 이래 제일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 3층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처음 이 시장을 만들었을 때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지만, 1984년 고병빈 씨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2층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고병빈 씨는 아마도 1980년대 초반에 2층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로 인하여 2층의 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해지자 3층에 주차장을 만든 것이 2010년경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내 각 점포들의 간판을 통일하는 작업들도 병행되었다.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었던 시장 점포들의 간판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비만 내리면 물이 튀었던 시장 내 도로를 깔끔하게 포장하는 동시에 배수로를 확보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건

물 2층 주차장 입구에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각 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에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건물들 사이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비가 오더라도 시장 내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해, 깔끔하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환경개선사업들을 통해 제일시장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케이드로 지붕을 막아 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낮에도 점포마다 전등을 켜야 하지만, 3층을 새로 증축해 주차장을 만들어 지붕으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데다, 아케이드 사이로 통풍이 잘되어 점포 안은 한결 시원해졌다. 또한 시장의 중앙에는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터마당’이라는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벤치와 책 등을 비치해 시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문화 행사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3. 전통 시장의 위기와 제일시장

제일시장 현대화에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투여한 것은 우리나라 전반에 불어닥친 전통시장의 위기와 관련이 깊다. 전통 시장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파고들었다. 도로가 확충되고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가 많아진 동시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마트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대형 마트에서의 소비가 더 편리하다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전통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전통 시장 주변에까지 대형 마트나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전통 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더욱 더 감소하게 되었다.

면담자 시장이 요즘 밖에서 듣기에는 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좀 어떠세요?

최병엽 아, 요기도 저기 (대형) 마트가 새로 생겨서, 저거 열면 아주 치명상이야. 저기 요즘, 재래 시장 바로 100m도 안돼. 한 50m 되나? [면담자 : 네.] 그 사이애다 저런 걸 차리고 여기 나와

면. 그, 뭐 백화점(과 대형 마트) 두 개 있고 여기 건너가면, 그 전엔 이 시장을 다 봐 먹었어요. 저, 포천, 동두천, 운천 쪽도 오고, 또 저, 저 뭐야 거. 거기가 어디래나? (파주) 법원리. [면담자 : 법원리.] 거기서도 여기 시장 봐 오고 그랬어. 그때는 거 시골 시장이니까 5일장이잖아. 살 거 없으니까 의정부시장에서 다 봤어요. 여기 딱 차서 골목에 자전거를 못 끌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면담자 : 아, 아.] 지방에서 다 오니까.



구술자 최병엽 씨

면담자 이 주변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어요?

최병엽 옛날부터 제일 컸죠. [면담자 : 아, 아.] 경기도에 뭐한 1~2등 같걸요. 큰 걸로, 면적으로 계산하면.

면담자 근데, 근데, 저거(대형마트) 들어오고 나서(는 어떤가요?).

최병엽 저거 들어오고 뭐, 저 마트서부터 들어오니까 서서히 안되는 거. 지금은 뭐 상인들이 더 많아. 손님보다. (쓴웃음) 참, 큰일이야. 이게.

면담자 제가 신문 기사로 읽기로 그래도 뭐, 여기서 시장 살리기 노력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병엽 많이 했지. 하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줘야지. [면담자 : 예, 근본적인 게 어떤 걸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은 시장 근처에 있으면 사실 안되거든. 한 2km, 3km 떨어져야지. 아, 여것도 생기고 여것도 생기고 이게 정확하게 시장 끝에서 (거리가) 저거. [면담자 : 바로 옆.] 저 500m도 안 돼요. 한 3, 400m뿐이 안 돼.

최병엽 씨의 말과 같이 제일시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의정부민자역사에는 백화점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회룡역 부근에는 대형 마트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기능역 부근에는 SSM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는 의정부민자역사에 입점할 계획이었던 대형 마트는 ‘의정부제일시장 상가번영회’ 등의 강한 반발로 입점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전통 시장을 외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전통 시장은 60~70대 시민들이 향수를 경험하기 위해 가는 곳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최병엽 오히려 나이가 60(세), 70(세), 60(세) 넘는 양반들이 시장을 많이 가. 재래 시장.

면담자 그렇죠.

최병엽 옛날 그거, 그거 재밌었거든. 이것 좀 깎아 달라면 깎아 주고 덤 달라 하면 더 주고 그러니까 고 맛에 노인네들은 거기 갈라고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최병엽 씨는 전통시장이 노인층과 달리 젊은층에게 외면받는 이유에 대하여 젊은이들 대부분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카트에 담아뒀다가 계산대에서 값만 치르면 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대로, 사람을 만나,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제일시장과 바로 붙어 있는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 반해, 제일시장 안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전통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시장 전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즉 전통 시장 안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품목이 있는 반면, 점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장사가 안되는 품목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닭과 같은 품목은 전통 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닭집을 운영하는 이천휴 씨는 장사 수완이 좋기도 하지만, 추석과 설, 초복, 중복, 말복을 포함해 1년에 최소 5번의 대목을 보는 데다, 시장 맨 앞의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덕에 매일 1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병엽 씨는 장사가 이전보다 안 되기는 하지만, 점포를 운영할 만큼은 되는 듯하였다. 그와 한 시간가량 인터뷰하는 동안, 고추, 기름, 깨를 구입하거나 가격을 문의하는 손님들이 이따금씩 다녀갔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24세에 송산 윤씨 집안에 시집와 제일시장에서 “기지장사”로 시작해 현재는 숙녀복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월용(1938년생) 씨는 이미 단골이었던 손님들까지 대형 마트와 아파트 상가의 숙녀복 매장 등에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벌어놓은 돈을 까먹어 가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이러

한 불경기가 전통 시장의 위기뿐만 아니라 제일 시장 건물에 가진 구조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면담자 여기 2층에 상가번영회? [이월용 : 네.] 거기. 거기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월용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시장. 내 생각에는 시장도 또 잘못 진 거 같어. 옛날같이 이렇게 양쪽(쪽)으로 등을 지게. 여기도 저기도 전면으로(전면이 되게) 쪽쪽 지으시면(지었으면) 옛날같이. 그렇게 지었으면 어땠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시장 짓는 걸 잘못 진 것 같아요. 그니까 전면만 뱅뱅 돌려서 (장사가) 되지. 가운데는 (장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운데까지 쪽쪽 치니까. 양쪽(쪽)으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으니까지는 다 전면이 되잖아요. 그니까 손님들이 이제 글로 왔다 갔다. [면담자 : 지나다니시면서.] 아, 그러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지었으면 어땠 뻔했나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들더라고요). [보조 면담자 :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은, 깨끗하긴 하고 그런데 가운데가 죽는 거지. 가운데, 여기) 아래로만, 전면(으로)만 다니는 거지.⁶



구술자 이월용 씨

제일시장 내 각 동 사이의 중앙 통로는 널찍한 데다 사방으로 트여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반면, 각 동의 안쪽 통로는 유리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데다가 폭도 좁아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중앙 통로에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거기다 중앙 통로 주변의 상가들에서도 안쪽 상가들이 파는 것과 비슷한 물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굳이 이 안쪽에 있는 상가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이월용 씨가 구시장과 같이 널찍한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 모든 상가가 널찍한 통로에 접하도록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시장 큰 통로 주변에 위치한 최병엽 씨의 가게에는 계속

6 2013년 6월 8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 금강패션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제일시장 평면도

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반면, 안쪽에 위치한 이월용 씨와 이천휴 씨의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천휴 씨는 시장 맨 앞쪽의 좌판을 하나 더 마련해 안쪽 가게에서는 냉장고에 닭을 보관하고, 바깥쪽 좌판에서 닭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4. 제일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오늘날 전통 시장의 위기 속에서 제일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시장환경개선사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상인대학'⁷이다. 제일시장에서는 2010년 제1회 상인대학을 개최한 이래, 2013년 제4회까지 이 대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매

⁷ 상인대학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교육이다.

회 약 50명씩 총 200명가량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상인대학의 주요 교육 내용은 친절 교육과 서비스 교육이다. 이 대학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물건 안 사 가지고 가면 소금 뿌리고, 욕하고, 바뀐 주지 않고, 현금 아니면 안 되었던” 시장 상인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점차 서비스 정신을 갖추게 되었다. 제일시장에서 ‘제주담집’을 운영하는 이천휴 씨는 상인대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면담자 아, 그거(상인대학)는 어,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이천휴 인제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상인 교육을. 근데 이제 받는 사람만 받지. [면담자 : 네, 그렇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쪽 한 달 동안 1주일에 두 번씩 받아가지고 졸업을 시켜 줬어요. 장사하는 거, 손님 다루는 거, 또, 응? 그런 거 다 배우는 거지 뭐, 상식적인 거.

면담자 그거 배우(고), 배우고 나시니까 좋으세요?

이천휴 어, 그렇죠. 왜냐하면 손님 다루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손님을 받아야 되고, 손님을 어?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훨씬 좋지. 유리하고, 상인 교육은 진짜 내가 받아 보서 그런데, 다 받아 봐야 돼. 그거 받고 나서 손님 대하는 게 천지차이로 달라요. 맨 - 돈 주는 거, 손님 얼굴 보는 거, 손님한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거 다 배우게 되니까는 확실히 유리하고 안 배우던 사람은 거, 다 한 번씩 배워 봐야 돼.

그는 상인대학을 졸업한 후,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자평하였다. 이는 또한 상인을 대하는 손님의 태도나 반응 역시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 교육을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인들이 많다고 한다.

면담자 여기서 뭐 상인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상인 교육 그런 거는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이월용 :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어요? 주변에 분들도 한 번도.

이월용 그러게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

면담자 아, 그러셨어요? 무슨 상인대학이라고

이월용 어, 그런 건 몰라.

면담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가 금요일인가? 그랬거든요.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월용 : 예.] 여기. 여기 시장에서 뭐 2시부터 무슨 교수가 와서 누구 교수가 와서 서비스에 대해서 뭐 알려 준다고 하니까, 강의한다고 하니까 와서 들으시오 하고 방송하더라고요.

이월용 아. 근데 몰라. 우리 그런 것도 몰라. [면담자 : 아, 이쪽은 잘 안 들리나 봐요.] 아-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지 잘 못 들으니까. 뭐, 예시로 듣지 뭐, 누가 그걸 그냥, 근데 갈 수가 있어? 가게 비워 놓고 뭐 그거 들으러 갈 수 없지. 방송으로나 해 주면 몰라도, (웃음) 방송으로 허(하)면 어떻게 들을까. 가게 비워 놓고 그거 들으러 갈 수 있냐구. 어느 날 문 닫고 노는 날이나 강의를 해 주든가. 그잖아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손님이 뭐, 강의. 뭐, 강의라고. 뭐, 최대한 손님한테 잘해 줄라고 하지 뭐, 그래도, 뭐 지금은 바지를 하나 사도 카드 (결제), 티 하나 사도 카드 (결제). 그래서 뭐 다 카드 (결제). 최대한 싸게 해 가지고 카드 (결제). 그러면 참 곤란한 거야.

이처럼 시장 안쪽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상가변영회에서 주최하는 상인대학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상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송을 통한 강의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안쪽 통로로 손님들이 좀 지나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다. 다른 점포들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월용 씨와 같이 혼자서 운영하는 점포들은 그런 교육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이러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교육 외에도 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제일시장을 문화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고병빈 예. 특산물이 없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화 시장이라고 와서 보고 시장 구경 한번 하고, 또 고담에 여러 가지, 곳곳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만들어 놔는데, 고 만들어 놓 것을 보고 즐기고 여기, 또, 무대가 있어요, 가운데에, 가운데 중앙 무대가 있어 가지고 그 무대에서 일 행사를 가끔 해요, 요번, 저 3월 달부터는 계속 둘째, 넷째 주, 특판 행사를 해요, 특판 행

사는 뭐냐면, 그, 물건을 싼 걸 사다가, 아니, 물건을, 저, 공장도 가격으로 구매하다가 그냥 손님한테 싸게 파는 걸 특판 행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인제, 저, 하는데, 고걸 하면은 고 한 시간 동안에 와서 인제, 노래자랑도 하고, 노래자랑하는 사람한테도 인제,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이거, 저기, 시장에서 전용으로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해줘요, 노래 부르는 사람 전원에게, 예, 그래서 어- 인제 3월 달도 했었고, 4월 달도, 5월 달도 했었고, 인제, 6월 달도 할 계획이거든요,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넷째 금요일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인제, 어- 그니까, 와서 시장 한 바퀴 둘러보고, 또 거기서 음악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즐기고 어떤 사람이 또 와 가지고, 뭐, 여기 관내에서 그 미술 동아리 애들이 동아리하고 비보이들이 여기서 공연도 했었고, 요 주변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저기, 저, 이, 뭐여, 색소폰으로다가 그, 클래식 음악도 여기서 한 번 한 적도 있고 또 노래자랑 할 때는 여기 관내에 그 의정부 색소폰 동호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 음악도 한 시간 동안 연주도 해 주고 그랬어요, 가요, 가요 연주, 그니까 여기 와서 인제 그러니까 즐긴다 이거죠.

이처럼 제일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된 문화 시장 만들기 운동에는 시장 상인이나 상가변영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다. 시장에서는 매월 두 차례씩 중소기업청의 협조 하에 좋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동시에, 지역 내의 다양한 공연 예술인들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술 동아리나 색소폰 동아리 같은 지역의 아마추어 공연 예술인들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시장은 이런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에 시장을 알리고, 시민들이 한번이라도 더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제일시장 3층에는 주차장 한쪽에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락원'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들어섰다. 이 다락원에는 각종 디저트, 타로(tarot) 카드 점, 와플, 미숫가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주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필자가 다락원을 찾은 2013년 6월경 다락원은 거의 폐점 상태였다. 고병빈 씨에 의하면, 다락원은 시작한 지 2~3개월 만에 거의 폐점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장 바로 옆 거리의 넘치는 젊은이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일시장 3층 다락원 카페

이와 더불어, 제일시장은 대형 마트와 비슷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카트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시장에 온 손님들이 손에 장바구니나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 역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당시 들여놓은 카트가 150대였다.

고병빈 그리고 이제, 카트도 있었어요, 카트가 백 한 오십(150) 개 됐는데, 여기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터지다 보니까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버려 가지고 지금 150개가 4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면담자 하나도 없어요?

고병빈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객의 비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이 이것도 이제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뭐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스폰(sponsor)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자부담금도 좀 있었죠, 스폰 받았어도, 지금은 다 저거한 상황이고,

시장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카트를 끌고 가는 고객들을 제어할 인력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없었던 까닭에 카트는 도입 4년 만에 전부 사라지고 현재는 예전과 같이 장바구니나 비닐봉지에 구입한 물건을 들고 시장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제일시장 상가번영회와 상인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알리고, 고객이 찾는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고, 노래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이 상인과 손님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며 한숨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번영회에서는 주변에 대형 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도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고객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들의 바람대로 1970~1980년대와 같은 호황은 아니더라도 시장 상인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서민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여 백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1. 부대고기의 기원

부대찌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한 곳곳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물을 재조리한테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서민들에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물은 귀중한 식량이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주변 지역에는 ‘존슨탕’이나 ‘꿀꿀이죽’, ‘잡탕찌개’와 같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물들을 재조리한 요리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의정부의 부대찌개는 일정한 레시피를 형성해 오면서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내에 ‘부대찌개 거리’가 형성되는 등 의정부의 역사와 연결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북쪽에 맞붙어 있으며 동두천, 포천, 연천 등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인 의정부에는 8개의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¹ 이러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나 세탁소 직원, 단순 노무자,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는 한국

1 2007년 일부 미군 부대의 이전 및 철수 이전까지 의정부에는 의정부동의 캠프 폴링워터(Camp Falling Water), 의정부동·가능동의 캠프 라과디아(Camp La Guardia), 용현동의 캠프 스탠리(Camp Stanley), 금오동의 캠프 시어즈(Camp Sears)·캠프 에세이온(Camp Essayon)·캠프 카일(Camp Kyle), 호원동의 캠프 잭슨(Camp Jackson), 가능동의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등 8개의 미군 기지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인 노무자, 미군 부대 주변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 미군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 등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통해 미군의 음식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의정부에서 미군과 관련된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의정부 출신으로 1980년에 의정부1동 부대찌개 거리에 '경원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해 온 이종희(1944년생)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면담자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많았었죠?

이종희 그렇죠, 여기가 조건이 '부대고기'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부대가 네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 미 1군단. 또 여. 저 서울 나가는데. 지금 떠났죠, 거기 거. 거기가 뭐라 뭐라고 그러더라? 이름이 다 있는데. 그리고 송산 또 미군 부대 비행기장. 그담에 또, 요기 저- 지금 청사. 뭐야 거. 2청사(경기도청 북부청사) 가는데 부대 다 떠났잖아. 기름 탱크 있는데.

면담자 네. 다 떠났어요.

이종희 다 떠났어. 거기? 거기도 미군 부대가 거기(에서 물건이) 많이 나왔어. 물건이 많이 나왔어. 거기가. 금오리 옛날에는 금오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를 금오동이라고 그래. [면담자 : 금오동.] 금오동. 어.

면담자 이름만 바꿨네요.

이종희 어. 금오동이라고 그래. 거기가 있지. 또 동두천에서도 많이 올라와. 2사단.

면담자 아- 그렇죠.

이종희 동두천. 그치? 2사단인가? 거기? 응. 동두천에서도 물건이 많이 올라 왔어. 그 사방이 부대가 많으니까 부대고기 음식하기가 아주 적절한 좋은 의정부 가운데가. 좋았어요. 물건. 나오는 게 많아서. 그래서 여기가 더 부대고기가 유명해졌나봐.²

미군 부대에서 흘러 나온 음식을 아우르는 용어가 '부대고기'이다. 현재는 햄과 소시지, '간고기(민스, mince)' 혹은 '방망이고기'³ 정도로 부대찌개의 재료가 정착되어 있어 이들만을 부대고기로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초기에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2 2013년 6월 5일 의정부2동 경원식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3 햄버거에 쓰이는 고기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갈아서 양념해 놓은 것이다. 갈아 놓았다 해서 간고기, 또는 방망이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방망이고기라 불렀다.

음식물들이 미군 부대로부터 흘러나왔고, 이때 흘러나온 고기를 통틀어 부대고기라 불렀다.

이종희 내가 이 부대고기 시작하기 전에는 정식으로, 이런, 소세지(소시지)나 햄이나 요런, 그 방망이 고기라고 있는데, 그건 햄버거 해먹는 고기야. 고기 간 거, 고런 거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것들을, 그런 걸로 안 하고, 그 부대에서 인제 뭐, 식당에서 먹다가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한 거 안 먹은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모아 놨다가 들고 나와서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 거기에 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응, 양고기, 또 베이컨, 또 저, 소세지도 있고, 또 고기가 '잡탕고기'라고 그래 가지고 별게 다 들어.

이처럼 최초의 부대고기에는 현재의 부대찌개와는 달리, 양고기, 베이컨, 소시지, 칠면조, 거기에 빵이나 케이크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음식들 중에서 먼저 빵이나 케이크와 같은 곡류를 재료로 한 음식들이 먼저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칠면조나 양고기 등, 비교적 미군 부대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육류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점차,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고, 재료 수급도 비교적 쉬운 소시지와 햄, 방망이고기 등이 점차 부대고기의 재료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부대고기를 한국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재가공해 만들어 낸 음식을 통틀어 '부대고기 요리'라고 불렀다.

2. 부대고기 볶음에서 부대찌개로 - 오뎅식당 이야기

의정부에서 부대찌개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오뎅식당'을 운영하는 허기숙(1934년생) 씨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대찌개 이전에 부대고기 요리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잡탕찌개'라고 불린 '부대고기 볶음'이었다.

면담자 음- 볶아서, 파는 게. [이종희 : 음.] 그러면, [이종희 : 잡탕찌개라고 그래. 아주 잡탕찌개라고 그랬어요?

이종희 응, 잡탕찌개. 처음에는 그게 잡탕으로 식당에서 모아 가지고 이제 물론 뭐 안 먹은 것도 이제 가지고 나오겠지만 또 깨끗한 거 뭐. (미군 부대) 식당에 다니는 종업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몇 집 없었지 그때 소수지. 물량이 많이 못 나오니까. 그게 그전엔 금오리에 있었지. 그게 지금도 한 군데 있어. 음. 지금도 그게 나오는지 있더라고.

면담자 금오리에 이게 있어요?

이종희 아니, 가능동. [면담자 : 가능동.] 응, 가능동에 한 군데 아직도 있어. 고거 파는 데가. 할머니가.

면담자 이거는 또 처음 듣는, 고급 정보네요?

이종희 이게 시초예요. 부대고기. 이게, 그게 시초로 부대고기가 시작한 거야. 그담에 '오댕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찌개를 이렇게 국물 있게 파는 거는 이 오댕집 아주머니가 원조가 맞아.

의정부 부대찌개의 원조로 알려진 오댕식당의 허기숙 씨 역시, 최초에는 이런 형태의 볶음 요리로 식당을 시작하였다.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난 허기숙 씨는 해방 정국에 경찰이었던 오빠가 사망 하고 뒤이은 한국전쟁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사방공사에 참여하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서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다 만 18세가 되던 1953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의정부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다. 결혼 당시 서울에서 전차 운전수를 하고 있던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 입대를 하였다. 이에 허기숙 씨는 친정으로 돌아와 친정 식구를 돌보며 7년을 지냈으며, 그 와중에 아이가 태어났다. 남편이 제대를 하고 다시 전차 운전수를 하면서 가정 형편은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서울에 전차가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전차 운전수였던 남편은 역무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남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고, 그들 가족은 서울을 떠나 남편의 고향이었던 의정부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서울에 전차가 사라지면서 그녀의 남편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남편은 퇴직금으로 의정부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을 사기 당하였다. 이 바람에 집안 형편은 다시 어려워졌고, 다시 그녀가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진 것이 없었던 허기숙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의정부 부대찌개의 원조 오뎅식당(좌)과 허기숙 씨(우)

돈벌이는 손수레에서 먹을 것을 파는 포장마차였다. 이에 그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군청이나 시장, 주택가 등지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자의 몸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포장마차 장사를 할 '자리'를 구하는 일이었다. 상점이나 가정집 앞에서 장사를 하려면 매 번 그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녀는 미군 부대에 다니던 어느 집주인이 자기네 집 담벼락 앞에서 장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 줘 현재 오뎅식당 본점이 있는 건물 앞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집이 있는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양주군청이 자리 잡고 있어 직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목이 좋은 편이었다. 몇 년 동안이나 그 집 담벼락 앞에서 장사를 하던 중, 그 집주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허기숙 씨에게 자신의 집을 사라고 권했다. 그래서 그녀는 “집안에서도 보태 주고 그냥 어떻게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서” 이 집을 구입하였고, 가정집이었던 이 집을 개조해 장사를 하게 되었다. 이 집에 들어와 장사를 할 때만 해도 주요한 메뉴는 어묵 요리와 어묵국이었다. 그러다 우연찮게 한 손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의를 받게 되었다.

허기숙 부대가 많으니까 양색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오뎅(어묵)을 하는데 이제, 들어올 적에 돈 좀 벌여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오뎅도 먹고, 우동도 먹고, 이제 그러고 설랑 개네들도 들어가고 그래요. 아, 근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 오뎅도 잡숯고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말을 해 줄 테니 들어 볼래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니깐 저기 이걸 내가 고기를 갖다 줄 테니까 이걸 허지(하지) 마라 그래요. 오뎅을 허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열다섯 사람 밥만 해주래요. 그러면 열다섯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섯씩, 오늘 다섯, 내일 다섯, 모레 다섯, 그게 다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요기가 뒷(뒷마루)만 뺐었어요. 그전에 이걸 지금은 수리를 해서, 뒷마루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기를 갖다 두면은 산 같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고기가 이, 여, 이젠, 뭐야 그냥 그때는 애들이 신발이나 신었어요? 그때도? 그냥 낚 달라고 그러고 그랬죠. 그 시절에 그래서 난 내가 겪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여기 쪼금 아저씨들 밥만 해 주면 되니까 저기만 받으라고 한 달 해서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고기를) 은박종이에다 이렇게 저렇게 말아 가지고 차 가지고 가져왔어요.

면담자 고기를 차 가지고.

허기숙 아뇨, 식당에 있으니까,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군들 해주고 나오는 걸 쓰레기장 두고 나가거든요, 그니까 거기서 싸 가지고 나가죠, 우린 구경도 못해요, 그런 거 그럼, 배에다 이렇게 차고 이렇게 큰 옷을 이렇게, 이렇게 입고설랑 이력하고 온다고, 와서, 우리 집(에) 다 쏘 아놔.⁴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무자들 중 식당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미군들이 먹고 남긴 육류를 모아 와서 그것을 한국식으로 재가공해 밥이나 술과 함께 먹기 위한 마땅한 식당을 찾다가 오뎅식당을 찾게 된 듯하다. 그들은 허리에 복대를 차듯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릇과 식기 등을 허리에 차고 와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가고, 일부는 허기숙 씨에게 주기도 했다. 허기숙 씨는 당시에 받은 그릇과 식기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미군 부대 근무자들이 부대고기를 빼오기 시작하자, 허기숙 씨

4 2013년 5월 30일 의정부1동 오뎅식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는 이를 활용한 요리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 부대고기 볶음이다.

허기숙 그러면 그냥 큰 저기애다설랑은, 저기애다 썰어 가지고 해서, 난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저기 파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화덕이 연탄불로 다 해, 연탄불로 다 연탄불, 연탄불보다 하는데 어휴 그때 생각하면, 그때 스텡(스테인리스, stainless)이 나왔어요, 스텡, 스텡이, 그때는 스텡이 나왔는데요, 그걸로다가설랑은 부대고기를 볶아 주면 못 먹어. 다 타 가지고 밑에서, 아유- 그래서, 그냥, 저, 우리, 지아부지(남편)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설랑 우리 이 밑에, 마루 밑에, 그 전에 이렇게 솔뚜껑을 몇 개 놔서, 그냥, 아, 그걸 꺼내 가지고 설랑은 요 밑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콩지를 저기 가서 이렇게, [면담자 : 잘라가지고,] 아니 그니까 자르지도 못해, 뽕개지면(부식지면) 어떡해, 불로다 대려 가지고 강따시로 이만큼 띄어, 그래 가지고 다섯 갠가 해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다가 돼지기를 바르지,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들기름하지(바르지) 그래 가지고 끼얹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볶으니깐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허기숙 씨가 당시 부대고기를 볶음 요리로 내놓게 된 이유는 아마도 마땅한 조리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햄과 소시지 등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식재료들을 조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볶아서 술안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볶음에 사용하는 도구였다. 연탄의 경우, 화력이 센데다 화력 조절이 거의 불가능해, 열전달이 빠른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이 쉽게 타버렸다. 이 때문에 바닥이 두꺼워 열전달이 늦은 조리 기구로 무쇠 솔뚜껑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부대고기 볶음 요리는 이 식당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당시 가격은 300원이었는데, 허기숙 씨의 말에 의하면 날개 돌친 듯 팔려나갔다고 한다. 사실 반찬이라기보다는 술안주에 가까웠던 이 메뉴는 양주군청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직장인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술 한 잔씩 할 때, 이 요리를 안주로 삼았던 것이다.

이 요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허기숙 씨의 오댕식당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그때부터 허기숙 씨

는 1달이면 11번씩이나 세관을 들락거렸다. 장사를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세무서에 멍하니 앉아 있다 나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가 더 이상 세관 출입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리던 즈음이었다. 대신 1달에 2번의 위생 검사가 행해졌으며 가게를 깨끗이 정비하고 확장하라는 지시 정도를 받게 되었다.⁵

3. 부대찌개의 탄생과 부대찌개 거리의 형성

부대고기 볶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1980년대, 부대고기를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찌개로 만들어 달라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이때까지는 손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술손님들이 점차 얼큰한 국물이 있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안주를 삼을 요량으로 이러한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1988년경부터,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고기에 물을 부어 찌개를 만들어 공기밥과 함께 팔기 시작하였다.⁶ 처음에는 어묵국 국물을 부어주다 점차 육수를 개발해 부어 주었으며, 느끼함을 줄이기 위해 전통 재료인 김치, 고추장과 떡, 신선한 야채를 넣어 얼큰하고 시원하게 끓여 내었다.⁷

현재 오뎅식당의 부대찌개는 초기와 같이 바닥이 두껍고 넓은 그릇에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햄과 소시지, 젓갈을 넣지 않은 김치와 두부, 굵직하게 썰어놓은 대파, 당면, 라면 등을 넣어 끓여 내고 있다. 초기에는 라면이나 당면 등을 넣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두 가지 재료가 부대찌개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⁸ 반찬 역시 간단한 편으로, 다른 식당의 다채로운 상차림과 달리, 어묵과 김치, 무짬지가 전부로 초기의 반찬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뎅식당이 자리 잡은 거리는 양주군청 근처의 살림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택가였다. 그러나 1959년에 이 곳에 자리를 잡은 오뎅식당의 장사가 잘되자, 주위에 하나 둘씩, 부대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 늘어났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1960년대 양주군청

5 홍정덕, 「의정부 부대찌개 기원에 관한 검토」, 『한복사학』 8, 2011, 225~259쪽.

6 홍정덕, 「의정부 부대찌개 기원에 관한 검토」, 『한복사학』 8, 2011, 240쪽.

7 「의정부 부대찌개를 아시나요」, 『연합뉴스』 2001년 8월 14일.

8 식당에서는 라면이 익으면 바로 건져 먹으라고 권한다. 라면에서 나온 전분 등이 국물을 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명식당 부대찌개

옆 골목 일대에 부대고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준비한, 부대찌개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1980년 이 거리에 부대찌개 전문 식당인 경원식당을 열어 운영한 이종희 씨에 의하면, 개점 당시 이미 5~6개의 부대찌개 식당이 운영 중이었다고 한다.⁹

면담자 아! 그럼 사장님이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그쪽에는, [이종희 : 그때는 부대고기.] 부대고기집들이 좀 있었어요?

이종희 다 있었지 오명집 바로 앞이니까 지금 '형네집'하고 마주 보고 있으니까 경원식당이.

면담자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들어가셨을 때는 이미 오명집, 형네집.

⁹ 이종희 씨는 의정부1동 부대찌개 거리에서 1980년에 부대찌개 전문점 경원식당을 열어 1995년까지 운영하다 동생에게 넘겨주고, 현재는 의정부2동에서 경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부대찌개 거리에 위치한 경원식당 건물에는 "since 1990"라고 해 경원식당이 1990년에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종희 씨와의 인터뷰 중 "장사를 하기는 이제 1978년부터 했지만은 부대고기만 전문으로 한 거는 이제 1980년도부터 했지.", "우리는 주방장이 27년째 있어요.", "거기 가서 부대고기 장사를 15년 하면서 웬지 깊으면서 조금 벌어 가지고 지은 거지." 등의 언급을 볼 때, 1980년에 부대찌개 식당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희 '초원식당', '보영식당'.

면담자 어, 거기도 오래됐어요?

이종희 '진미식당', 그 정도.

면담자 다섯 개, 적어도 다섯 개.

이종희 그리고 '친구네'.

면담자 친구네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이종희 '아우네'가? 뭐 형네집 동생이 했어. 아우네. 아

우네 라고, '상나무집'이라고 했더라고, 그렇게

있었고, 나중에 생긴 게 '장흥식당', '한양식당'.

그리고 또 고 아래 아- '의정부식당', '양주식

당', 그 이후에 생긴 거야. 다 양주식당, 의정부식당 그게 다. 우리 나하고 있을 때 여섯 일곱

집? 그것 밖에 안 됐어. 오뎅, 형네, 경원, 보영, 초원, 그렇게 하고 하나는 상나무집 거긴 아우

네라는 데고, 그렇게 있었을 거야. 여섯 집밖에 없었을 거야.

면담자 아우네가 상나무집이에요?

이종희 응. [면담자 : 같은데?] 그 아우네가 뭐 하나 생긴 것 같은데? 고 아래에다가.



경원식당의 이종희 씨

이종희 씨는 의정부에서 태어나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체국에서 15년을 근무하였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였다. 그런데 자녀가 자꾸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 두고, 1년 정도 육아에 전념하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정부경찰서 옆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갖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시청 공무원인 남편과 이 지역 토박이이자 교육공무원이었던 친정아버지의 인맥 덕분인지 장사가 잘되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메뉴를 하다 보니 식재료 조달이 힘들어 친정집이 있는 부대찌개 골목에 건물을 세워 부대찌개 한 메뉴만 취급하는 경원식당을 개업하였다.

그녀가 경원식당을 연 후에도 계속해서 부대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문을 열었다. 장흥식당, 한양식당, 의정부식당, 양주식당, 오미락 등 찌개와 볶음을 포함한 부대고기 요리를 취급하는 전문 식당들이 들어섰고, 이 거리가 '부대찌개 거리(명물찌개 거리)'



부대찌개 거리

로 자리 잡아가며 부대찌개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서울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부대찌개를 먹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이 골목을 찾아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골목이 좁고, 주차 시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였기 때문에 부대찌개 식당 주인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손님들이 끌고 온 자가용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였다. 그들은 주로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우곤 했는데, 그럴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였다. 그래서 식당 주

인들은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이종희 씨의 경우 이 동네가 원래 고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식당들은 이 때문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였다. 소송까지 치달았다가 최근에 일단락된 상호명과 관련된 모 식당 간의 분쟁 역시, 그 시작은 주차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¹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부대찌개 거리의 부대찌개 전문 식당 수는 한창 때 20여 곳이나 되었고, 2013년 현재는 14개의 부대찌개 전문 식당이 영업 중이다. 이 골목에는 평일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특히 오행식당에는 연세가 지긋한 노년층이 주로 찾아오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과거와 같은 주차 전쟁은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손님과 이들의 자가용 승용차가 집중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전후로 자동차가 뒤엉켜 혼잡을 빚고 있다.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해지자 1990년대에는 부대찌개라는 명칭이 과거 기지촌의 어두운 이미지를 되새김질시킨다고 하여 이를 ‘명물찌개’로 고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부대찌개라는 명칭을 ‘의정부 명물찌개’로 고치기 위해 의정부시는 1998년 11월, 의정부1동 부대찌개 거리의 명칭을 ‘명물찌개 거리’로 바꾸었다. 시는 거리 입구에 ‘환영 명물 의정부찌개 거리’라는 노란색 간판을 세우고, 시 주도로 식당 간판의 상호를 부대찌개에서 명물찌개, 또는 의정부찌개로 바꾸는 등 홍보를 시도하였다. 2006년부터 ‘의정부 명물찌개 축제’를 개최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에서는 매년 10월 10일 ‘의정부시의 날’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대찌개 관련 행사를 여는 등 의정부찌개, 혹은 의정부 명물찌개라는 이름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부대찌개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명물찌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 명물찌개와 부대찌개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명물찌개라는 말은 거의 퇴출되었다. 현재 부대찌개 거리를 포함한 의정부 지역 내의 부대찌개 가게들은 대부분 간판의 상호명을 부대찌개로 다시 고쳐서 표기하고 있다. 또한

10 이 분쟁은 주차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한 모 식당 주인이 상대방의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빚어졌다.

명물찌개? 그래도 부대찌개죠!

의정부시, 개명했다가 원상복귀

“명물찌개가 대체 뭐죠?”
경기 의정부시에는 한때 명물찌개라고 써 붙인 간판이 쉽게 눈에 띄었다. 명물찌개는 의정부시가 시의 대표음식인 부대찌개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용어다. 부대찌개는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으로 자리잡았음에도, 1990년대 말 경기 파주에서 미군부대의 음식찌개기가 식재료로 공급된 사건이 터지며 그 이미지가 곤두박질쳤다.
시는 대표음식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름을 과감히 바꿨다. 1998년 11월 의정부1동 ‘부대찌



부대찌개의 고향 의정부 1동 부대찌개 거리의 과거와 현재 모습



개 거리’를 ‘명물찌개 거리’로 바꾸는가 하면, 시 주도로 식당의 간판을 바꿔가며 홍보를 강화했다. 또 2006년 가을에는 제1회 의정부 명물찌개축제를 개최하며 ‘명물’의 명예회복을 노렸다.

하지만, 역시 부대찌개는 부대찌개. 비록 6·25전쟁 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햄과 소시지, 다진 고기 등을 끓여 먹으면서 자리잡은 ‘조리한’ 부대찌개였지만, 그 이름은 시의 오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지 않았다. 현재 명물찌개라는 말은 거의 퇴출됐다. 부대찌개 거리를 포함해 의정부의 부대찌개 가게들은 대부분 부대찌개로 복귀했다. 의정부 명물찌개축제도 2008년 3월부터 부대찌개축제로 이름을 바꿨고, 이제는 시 공식문서에도 부대찌개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떤 지역에서는 김치찌개도 명물찌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었다”고 명물찌개 용어변경의 실배 이유를 설명했다.

김철훈기자 chkim@hk.co.kr

의정부 부대찌개 명칭 변경 기사(『한국일보』 2010년 10월 17일)

2008년에는 거리 입구의 간판도 현재와 같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로 바꾸고, 축제의 명칭도 2008년부터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로 바꾸었다. 이제는 시 공식 문서에서도 부대찌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¹¹⁾

4. 부대찌개 재료 수급의 변화

의정부 부대찌개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가 햄과 소시지, 방망이고기라 불리는 다진 고기 등을 통칭하는 부대고기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부대고기는 부대찌개의 핵심이다. 앞서 허기숙 씨가 말한 것과 같이 부대고기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노무자들이 몰래 반출하면서부터 한국인들에게 전해졌다. 당시 이들이 반출해 온 것은 잔반, 즉 남은 음식이었다. 이들은 미군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중 괜찮은 것들을 몰래 모아서 부대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점차 부대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부

11 「명물찌개? 그래도 부대찌개죠!」, 『한국일보』 2010년 10월 17일.

대고기만으로는 그 수요가 충당이 되지 않았다. 부대고기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미군 부대 노무자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부대고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고기는 항상 부족했고, 이러한 부대고기 품귀 현상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이들이 ‘양공주’, 또는 ‘양색시’라고 불리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었다.

면담자 그, 부대고기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이제 재료 같은 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종희 재료 같은 건 처음에 시작할 적엔요? (미군 부대) PX에서 나온 거, 불법이야, 그거 세금, 뭐, 그거 (미군 부대) PX에서 나온 거는 사실, 그때는 조사 다녔어. 그래서 껍데기를 다 까버리고 하고 감춰 놓고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수입이 정식으로 되는 게 없어 가지고, 내가 처음에 부대고기 장사할 적에는 (미군 부대) PX에서 외국인하고 사는, 즉 말하자면 양색시라고 그러냐? 국제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미군 부대) PX에서 자기네 먹을 것 처럼 사 가지고 와서 팔아먹는 거. [면담자 : 음- .] 그런 보따리 장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그 물건을 사서 했어요. (미군 부대) PX에서 나오는 거 미군 부대에서, 근데 사실 그거 불법이거든? 그래서 걸리는 거야. 세금 안 낸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한 10년은 그렇게 했어요. 1990년대까지 그걸 그렇게 해다가, 나중에 지금 ‘제일제당’에서 정식으로 수입해.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직접 대주지. 제일제당에서 수입이 돼 가지고 이제는 세금 내고 가지고 오는 걸로 쓰죠. 첨에는 다 불법. 부대에서 나오는 것 사서 했어요.

면담자 양색시들은 어떻게, 어떻게 양색시들 개인(이 사서 팔 수 있었나요?).

이종희 개인이 몇 개씩 사서 모았다가 파는 거지. [면담자 : 모았다가.] 그렇지.

면담자 그걸 사장님한테 가지고 (와서 팔았군요?).

이종희 열 개 구매(한다고 얘기해 놓으면), 그러면 전화가 와. 이제 여기 몇 개 모아 났으니까 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지내들도 많이 한꺼번에 못 사거덩? [면담자 : 네, 네, 네.] 뭐, 식구들 먹을 것처럼 해서 네다섯 개씩 사다가, 이렇게 해서 모아 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전화를 하면 내가 가서 가져오고, 실어오고, 그러면 그이네들을 또, 그것만 주서서(주워서) 모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보따리 장사들이. [면담자 : 아-] 그런 사람도 있고 직접 또 그 양색시들이 전화해 주면은 내가 가서 가져오는 집이 있고, 그 한군데 가지고는 안 돼. 여러 사람이 갖다 줘야 돼.

면담자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양공주들은 그럼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셨어요?).

이종희 그냥 뭐 사람들 소개로 [면담자 : 아-] 사람들 소개로 그리고 부대 근처에는 오래 있으니까 가면은. [면담자 : 아-] 부대 근처에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지. 지금은 다 떠났지. 지금은 없지.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정에서 소비할 물품을 사는 척하며 부대 고기를 구입한 후, 이것을 직접 식당에 팔거나 부대고기를 취급하는 보따리 장사에게 팔았다. 이 때문에 당시 부대고기들은 식당에 판매될 때 상표가 거의 제거된 상태였다. 자신이 먹기 위해서 산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다 뜯어내고, 이것을 되팔았던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부대고기를 보따리 장사에게 팔았으며 보따리 장사들은 이를 모아 두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식당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부대고기가 항상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식당에서 대개 10명 정도의 보따리 장사와 거래를 하였다. 하지만 부대찌개 식당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부대고기는 항상 부족한 편이었다. 이럴 때 식당 주인들은 미군 부대 근처에 찾아가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로부터 직접 재료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로를 통해 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허기숙 씨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안정적으로 영업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부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 중 일부는 햄과 소시지를 직접 생산하였고, 일부는 정식 경로를 통해 이를 수입하였다. 1991년 12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생선 살코기와 곡식 가루가 섞인 혼합 소시지가 대부분이었으며, 돼지 살코기로만 만들어진 고급 소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혼합 소시지를 부대찌개에 쓰면 전분이 흘러 나와 국물이 탁해지고 소시지 자체는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부대찌개 식당에서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 나오는 소시지를 사용하였다.¹²

12 「돼지고기 소시지 국내 첫 생산, 육가공전문가 롯데햄 임중호 과장」, 『동아일보』 1991년 12월 7일. 이 신문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육가공 회사인 롯데햄에서 고급햄을 개발해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지만 부대찌개 식당 주인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고급햄을 부대찌개 식당이 사용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았다고 하였다.

면담자 아니, 한국에서도 햄을 만들잖아요?

이종희 아- 그게. 한국산은 아직까지도 한국은 고기가 비싸잖아 미국에 비해서, 응? 미국에 비해서 고깃값이 비싸잖아. 소고기가 그니까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한국 국산 소세지(소시지)를 끓이면, 그 100% 고기가 아니고 밀가루가 들어가 가지고 찌개를 끓이면 이렇게 부풀어 커져. 그건 국산이야, 커지는 거는. 그리고 짜지가 않아. 국산은 짜지가 않아 맨입에는 좋은데. 그, 이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소시지)는 미제는 짜, 짠 대신, 찌개를 하면은 고기가 100% 오그라들어. 대신 고소해. 그리고 국산은 고기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부풀어 밀가루가 들어가서, 그래서 맛이 천지 차이야. 국산은, 응.

면담자 초기, 초기에, 초기에 실수도 많이 하셨겠어요?

이종희 다르지(다르지), 근데 우린 첨부터 국산을 안 썼기 때문에 몰라. 이걸 국산으로 찌개가 안돼. 봐봐 벌써, 그래서 부대찌개야. 이걸 미군 부대찌개, 부대가 미군 부대를 얘기하는 거지. 한국 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대가 그래서 부대찌개.

부대찌개 식당에서 한국산 소시지나 햄을 사용해 보지 않았을 리 없다. 부대에서 나오는 햄과 소시지의 양이 적어 식당 운영이 힘들 때면, 그들은 국내산 햄과 소시지를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미국산 햄과 소시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한국산 재료들을 사용했을 때와 미국산 재료를 사용했을 때 국물과 그 속에 든 재료의 맛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맛의 변화는 손님들 또한 쉽게 눈치를 챘을 것이고, 이 때문에 부대찌개 식당에서는 수입산 햄과 소시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수요가 발생하자, 1990년대 이후 국내 대기업에서 미국산 부대찌개 재료를 정식으로 수입하면서 현재는 “몇 박스씩” 저장해 뒀다가 사용할 정도로 풍족해졌다.¹³

13 이종희 씨는 “지금은 그냥 원하는 대로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차떼기로 오지. 차로 와, 박스로 해서, 몇 박스씩 딱딱 내려놓으면 이제 그걸 금방 쓰는 게 아니라 썰어 놔야 되잖아. 썰어서 놔야 얼렁얼렁 쓰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은 저장을 많이 해놓고 쓰지.”라고 언급하였다.

5. 대를 이어가는 맛

오늘날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의 식당들은 두 가지 면에서 그 맛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는 수십 년 된 단골들의 확보이다. 이 지역의 식당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세월만큼 손님들과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 가게에 틀러 인간적인 교류를 해 나간 수많은 단골들이 있었다.

허기숙 나도 그냥 그냥 살아요. 이렇게들 오셔서 잡숫고 가시면 찌개가 뭐, 단골로 오시는 분들, 35년, 한 25년, 45년,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삼백 원, 오백 원, 육백 오십 원, 네, 고렇게, 고렇게 가요, 팔백 원, 팔백 오십 원, 고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천 원이 됐어요, 천 원 됐을 때, 그때 오시면, 이, 저, 천 이백 오십 원 그렇게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 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야, 팔천 원이거당? 1인분에, 지금요.

이에 대해 이종희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희 우리 있는 주방장이 27년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홀에 서빙하는 아줌마가 17년째 있고 그 다음에는 3년 됐고 3년짜리가 지금 둘인데, 그리고 종업원들도 내 식구같이 하니까 27년씩 있지, 남들이 어떤 사람은 내 신랑이냐고 그래, 몇 살 차이 아니거든? 환갑, 잔갑 지났으니까 62센가? 내가 70(세), (나랑) 8살 차이니까, 남이 저렇게 오래있겠냐, 혹시 신랑 아니예요? 모르는 사람은 물어봐, 단골손님들이 늘 주방에 저분이 있으니까 아저씨나고, 손님한테나 종업원한테나, 좀 후하게 대해 주면 오래있어, 내 식구처럼, 너무 아박하게 따지지 말고, 그럼 그게 이제 맛이 변하지 않는 비결이야, 한 사람이 계속 몇십 년동안 하니까 음식의 맛이 변하지 않지, 그리고 나도 편하고 (마음 놓고) 어디 가고 믿고, 해외여행을 한 달씩 가도 걱정이 안 되고, 다 아는 사람,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덜 맵게 해 주고 당면 좋아하는 사람은 당면 더 넣어주고 27년을 있었으니까, 개개인의 단골손님을 꿰고 있으니까 다 알아서 넣어주고 내가 없어도, 내가 있으면 "애! 여기는 덜 맵게 해라," 이렇게 안 해도 주방장이 다 알아서, 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라면 (더 넣어 주고).

부대찌개 거리의 식당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은 편이다. 35년, 40년 된 단골손님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 식당에 오기 때문이다. 그런 손님들은 식당 주인과 일반적인 식당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서는 교류를 하기도 한다. 이종희 씨가 말한 바와 같이 식당 주인은 개개인의 입맛에 맞추어 양념을 조절하기도 하고, 재료의 양을 조절하기도 한다. 또한 단골들은 식당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일례로 오뎅식당의 경우 원래 허기숙 씨는 오뎅식당 본점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안 단골손님들이 제지하고 나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현재 오뎅식당 건물은 100년도 넘는 역사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식당 건물이 바뀌면 맛도 바뀔 거라는 등, 이 집을 무너뜨리면 다시는 안 오겠노라는 등 손님들이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기숙 씨는 본점이 있는 건물을 며칠 동안 수리하여 그대로 운영을 하고, 대신 분점을 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오래된 단골손님들은 100년이 넘는 건물, 50년이 넘는 손맛에서 향수를 느끼며,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들 역시 단골손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공유하였다. 맛은 물론이고 오래된 건물이 자아내는 분위기며 추억을 통해 부대찌개의 맛과 전통이 세대를 뛰어넘어 전승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래된 식당 자체가 브랜드화 되면서 식당 주인의 가족들이 하나둘 부대찌개 식당업에 뛰어들면서 일종의 가족 기업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부대찌개의 맛과 전통이 전승되는 것이다.

면담자 어, 손자 분도 지금 이거 부대찌개 (식당) 하세요? 아까 전화 받으신 분.

허기숙 요기 저 별관, 별관을 지었어요, 손님이 하도 줄을 서서요.

면담자 별관은 그러면 손자 분이 하시는 거? 그렇구나. 아까 전화 드리니까 본관에 말해 놓겠다고 계속 그러셔서 같이 안 계신가? 그랬는데 별관에 계셨구나.

허기숙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아젠, 이유, 또 사연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손님들이 이 집을 절대로 (새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면담자 : 왜요?] 우리는 집을 (새로) 지면 맛도 떨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짓기만 해보래 안 올테니까, 저기서 별관은 (새로) 지었어요, 안 가보셔서 그렇죠? 요 오다 보면 별관 있죠? 우리가 언제 여기 손님을 이제 겨울에나 봄에나 이렇게 줄

들을 서서 서있으니까 그냥 우리 팍 차면 그리 보내요, 다 그리 보내요.

부대찌개의 전통에 대해 이종희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면담자 부대찌개는 다들 전통으로 가시네요. [이종희 : 그렇지.] 기업을 잇는.

이종희 거기도 손주까지 가업이 된 거야. 우리도 아들한테까지 가업이 된 거야. 지금. [면담자 : 그러니까.] 형제 다 끌어들이고 이제 아들까지. [면담자 : (웃음)] 근데 우리같이 형제가, 여러 형제가 하는 집도 드물어. [면담자 : 아-] 이렇게 아들까지 하는 집도, 우리가 원래는 하나 또 서울에 역삼동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만뒀어.

면담자 그건 왜 접으셨어요?

이종희 그, 역삼동에 집세가 비싸니까 타산이 안 맞아. [면담자 : 아-.] 남자 동생 하나가 거기서 했어. 올케가, 올케(까지) 셋이서 한 거네. 하나는 큰동생은 독일(에) 광부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살고, 그러니까 나머지 세 동생이 다 부대고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역삼동에 있는 동생은 그만뒀어. 그래서 지금 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둘은 계속 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넷이 하는 거지.

면담자 친정에서 은인으로 아시겠어요. 친정을 다 세우셨잖아요.

이종희 친정에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누나 때문에 내가 부대고기를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동고고, 또 다 잘돼. 우리 동생들 장사가 뭐 나보다 더 잘되는 거 같아. 부대고기 골목에서.

의정부에서 시작한 부대찌개 식당이 가족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를 이어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들은 살림이 윤택해지기까지 하였다. 면담 내내 허기숙 씨는, “내가 부대고기를 해서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다.”며 뿌듯해 하였다. 허기숙 씨의 경우, 손자 두 명과 사위까지 부대찌개 식당 영업에 뛰어들어, 부대찌개 거리 내에 본관과 별관,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 분점을 내 식당을 운영 하고 있으며, 조카는 ‘의정부부대찌개’라는 상호로 서울과 용인에서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종희 씨의 경우도, 부대찌개 거리 내의 경원식당은 둘째 남동생이, 경기도 산본에는 막내 동생이, 장암동에서는 큰 아들이 경원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은 둘째 아들과 의정부2동의 경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부대찌개는 식당 주인들이 어려운 시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식당의 메뉴로 시작해, 오늘날 가족간 대를 이어가며 맛을 지켜가는 가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들이 부대찌개를 가업으로 삼아 그 맛과 전통을 이어가면서, 오늘날 부대찌개와 부대찌개 거리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음식과 장소인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추억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

서민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여 백

의정부 특산물, 송산배

1. 송산 이야기

‘송산(松山)’이라는 지명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인물인 조견(趙涓, 1351~1425)의 호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조견의 생애에 대해서는 “조선이 개국되고 형 조준(趙浚, 1346~1405)으로 인하여 개국공신에 책록되었다.”는 설과 “조준의 간곡한 출사 권유가 있었지만 고려에 절의를 지켜 은거했으며, 자손에게도 고려에의 절의를 당부하였다.”는 이설이 있다.¹ 후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의정부시에서 발행한 『의정부지명유래』에서는 이를 정설로 받아들여 송산 지역의 기원과 연관시키고 있다. 즉, 조선초기 호가 송산인 조견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세 왕조의 부름을 여러 번 받았으나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서 한거(閑居)한 데서 그 지명 유래가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송산 지역의 유래에 대하여 안동 권씨(安東權氏) 집성촌인 높으피(高山)마을에서 태어나 1978년부터 현재까지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권석주(1948년생)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http://encykorea.aks.ac.kr>).



도농 복합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송산동

면담자 송산이라는게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권석주 그니깐 여기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게, 고을이 12(개라서 이곳을), 12송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저, 요기요. 보면요, 저거 있잖아요, 요기 민락골 보면 삼귀마을에 세 분이 와 가꼬(가지고), 이조시대(조선시대) 때 고려 말에 와가꼬, 요, 요, 요 송산사(松山祠)가 있었어요. 송산사가 있어서 송산이다. 인제 이렇게 그 양반들이 세 분인가 고려 말에 충신들이 이성계한테 불려가니까 반대해 가지고 요기 와서 내가 요기 삼귀마을에 있을 때.²

이처럼 지역 주민들도 의정부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고려에 대한 충의(忠義)를 지킨 충신들이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송산을 충의의 고장으로 인식하였다.

이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송산동은 의정부시의 동쪽과 동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

² 2013년 5월 3일 산곡동 권석주 씨 자택에서 진행된 1차 인터뷰이다.

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으로는 남양주시 별내면, 북쪽으로는 포천시 소흘읍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송산동은 오늘날 행정구역상 2개의 행정동, 즉 송산1동과 송산2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개 동을 합친 총 면적은 26.77km²이다. 송산1동은 용현동(龍峴洞), 고산동(高山洞), 산곡동(山谷洞) 등의 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송산2동은 민락동(民樂洞), 낙양동(洛陽洞) 등의 2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그 중 송산2동은 송산지구와 민락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도농 복합 지역에서 점차 신도시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 반면, 송산1동은 용현산업단지, 신·구 주택단지, 전통적 농촌 지역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미군 부대(캠프 스탠리, 노스타 사격장)가 위치해 있어 상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송산이라는 지명은 5개의 법정동을 아우르는 행정동의 명칭으로서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송산’ 또는 송산의 순우리말인 ‘솔피’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송산교회, 송산성당, 송산배구클럽, 송산석재, 솔피초등학교, 솔피집(식당), 솔피공인중개사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명칭이나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

2. 한국의 배 역사와 송산배

한반도에서 배가 최초로 재배된 시기는 삼국시대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6세기경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익도(益都) 출신인 가사협(賈思勰)이 지은 농서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우리나라의 배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문헌상 처음으로 등장하며, 11세기 중국 송(宋)나라에서 간행한 『신당서(新唐書)』에는 발해의 오얏·배 등이 소개되어 있다.³ 이를 근거로 국내 대부분의 한국의 문헌 자료에서는 한국 배의 기원을 삼국시대로 보고 있다. 한국의 문헌 자료에서 배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 『식화지(食貨志)』에 배나무의 식재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이를 미루어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http://encykorea.aks.ac.kr>).

볼 때 당연히 재배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고려 명종 18년에는 배나무를 심어 소득을 높이도록 나라에서 권장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며 배는 주요 과수로 재배되었으며, 품질이 좋은 상품을 골라서 왕실에 진상했다는 다양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⁴

조선시대에 먹골(현 서울시 중랑구 묵동과 신내동을 비롯한 봉화산 일대) 지역은 배의 주요 산지였다. 이 지역은 배의 주요 소비지인 수도 한성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봉화산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밭농사가 발달되어 있어 과수 농사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 봉화산을 중심으로 한 먹골 배의 산지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남양주까지 확장되었다. 충청북도 충주 태생으로 1990년대부터 송산동 지역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홍석범(1946년생) 씨는 남양주와 먹골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홍석범 그니깐, 요기. 여. 여기. 저기. (경기도 남양주시) 청왕리 있지? 청왕리(에)서부터 남양주야. 그니깐, 거기서 부터 먹골배잖아. 예? [면담자 : 아- .] 원래 먹골은 (서울시 노원구) 태능(태릉) 있는데 그쪽, 거기가 먹골이고, (그) 동네가 먹골, 거기고. 이게 양주, 양주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 양주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저기.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까지 양주였었어. 그잖아?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 있는 데까지 양주고, 이 한수 (이북)는 다 양주란 말야. 파주 어쩌구허(하)지. 다 양준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러저리 다 찢겨먹고 해(하)다 보니끼는, (경기도) 양평까지도 다 양주, 그쪽, 저기 아니야. 그니까 지금, 다 남양주시로 댔잖아. 게니까 양주, 원양주는 얼마 안 남은 거지 뭐. 이리저리 다 찢개지고, 게니까(그러니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청왕리서부터 남양주시니끼는 먹골배야. 그냥 원 먹골은 태릉, 저기 있는데, 저, 저기 있는데, 거기가 그 먹골이지. 게 그쪽으로 다 아파트 들어오고, 다 저기(개발) 돼가꾸서 (배 과수원이) 없잖아. 옛날에 그 상봉역부터 봉화산(까지) 있지? 위에, 옛날에 봉화 올렸던 데란 말야. 저기 신이 이렇게 똑같애, 동서남북으로 봐도 똑같어. 우(산 위)에 올라가면 거기 우물도 있고, 불 넣던 자리도 있어. 고(그) 밑에 들은 옛날에 웅기 굽는 데도 있었어요.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 야냐. 지금, 게 봉화산, 그러면 봉화가 그, 저기, 그 한양으로 이렇게 해서 개성에서

4 『成宗實錄』卷234, 成宗 20年 11月 13日 丁卯; 『中宗實錄』卷4, 中宗 6年 8月 17日 甲午.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 봉화. 그래서 봉화산이고 그 동네도 저기 되는데, 게(그게) 고쪽 이쪽 뒤로다가 배나무 허구. 뭐허구 많고, 그래서 먹골하고 이쪽으로 다 돼있던 텐데. 아, 지금. 거기서 먹골이 여기 청왕리까지 먹골이지 뭐야. (웃음) 남양주시니깐 먹골이지. 그니까는 양주 먹골배 그러는 거야. 그니까 남양주시니깐 다 써먹는 거지. (웃음)⁵

서울 태릉 지역이⁶ 중심이었던 먹골배 생산지가 남양주까지 확장된 것은 양주라는 지역의 변천과 관련이 깊다. 홍석범 씨에 의하면, 근대 이전 양주의 범위는 현재의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에서 경기도 양평군의 일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양주가 근대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해되어 다른 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새로운 시군으로 독립하여, 먹골배가 주로 재배되던 태릉지역은 서울에 편입되었으며, 별내면 지역은 남양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남양주에서는 이전에 속하였던 양주라는 지명과 연관되어 있었던 먹골배라는 명칭을 끌어와 ‘남양주 먹골배’로 상품화해 버렸다. 이로써 먹골배의 재배 지역은 최초의 봉화산 자락뿐만 아니라 수락산을 둘러싼 옛 양주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먹골배는 서울 동북부, 구리, 남양주시 등에서 생산되는 배를 통칭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먹골배는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나오는 인분 등 퇴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의정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한참 늦은 196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배가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 1960년대 이 지역에서 최초로 배를 심은 사람은 유명수 씨였다. 그가 얼마 동안이나 배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 오랫동안 배 농사를 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의 자녀들은 배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배 농사를 포기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이어오는 배 농사를 시작한 것은 권석주 씨의 아버지인 권병두(1926년생) 씨와 윤관희 씨이다.

5 2013년 6월 11일 산곡동 홍석범 씨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6 서울 중랑구의 지하철 7호선 먹골역과 봉화역 사이의 봉화산 자락에는 아직도 먹골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다. 또한 신내동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북부간선도로 주변에도 먹골배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7 구술자 권석주 씨와 홍석범 씨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으며, 홍석범 씨는 조선시대 당시 권세가 있었던 내시들이 이 지역에서 배를 재배했다는 풍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병두 씨는 당시 고산동에 위치한 높으피마을이라는 안동 권씨 집성촌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의정부교도소가 들어서게 되자 마을이 해체되었다. 이 때문에 그 지역에 세거하던 안동 권씨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권병두 씨는 바로 근처에 있던 검은돌마을(흑석마을)에 자리를 잡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시작하였다.

검은돌마을은 권씨 일가가 이전에 살던 높으피마을보다 해가 잘 들지 않아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병두 씨는 밭농사 위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던 중 눈에 배가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이 지역의 농기들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벼농사를 지었으며, 일부는 복숭아 등 과실 농사를 지었으나 별 재미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양주 등에서 재배하고 있었던 배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 두 사람이 배 농사를 시작한 것은 1968년이다. 이때부터 ‘송산배’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78년이 되자 권병두 씨에 이어 그의 아들인 권석주 씨가 본격적으로 배 농사를 시작하였다. 권석주 씨는 1972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처음 시도한 것은 소를 키우는 것이었다. 과주에 사는 친구로부터 소를 기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시작했으나, 얼마 후 소 사육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배농사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78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밭을 사서 배 농사를 시작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 일대에 배 농사를 짓는 농가는 권석주 일가와 윤관희 일가, 단 두 가구뿐이었다. 그 이후 강창신 씨, 홍석범 씨 등이 배 농사를 시작하며 점차 배 농사를 짓는 농가 수가 증가하였다.



구술자 권석주 씨

면담자 어, 그,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 아까 여쭙봤던 건데, 그 선생님 농사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동네 사람들 배 농사 별로 안 지었다고 그랬는데, [권석주 : 벼농사?] 배, 배, [권석주 : 네, 얼마 안됐어요.] 배 농사 안 짓다가 선생님 댁이 굉장히 잘되서 따라 하신 거시죠?

권석주 아니죠, 그때는, 여기는 저쪽에 배가 다 양주 먹골배 쪽으로만 다 아니간, 그땐 복숭아를 심었는데 복숭아, 몇 집이서, 그러다 이제 배나무 심어 가지고 배가 잘되니까 복숭아 심은 사람들이 다 배나무 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땅이 없는 사람은 못 심을 거 아니유, 그니까 몇 집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임야에 있는 사람 몇 집만 있었지, 그땐에 늦게 서야 논을 메꾸고 배나무 막 심은 거지, 논도 메꾸고, 뭐, 벼도 메꾸고 좋아지니까 뭐, 다 웬만한 데, 요 옆에 길, 저기 배나무 있죠? 다 그게 논이었어, 다, 그게, [면담자 : 배가 벼보다 (수익성이 높았나요?),] 수확이 많지, [면담자 : 수확, 아, 손도 좀 덜 가고요?] 이, 이, 이 앞에 이거 다, 이게 다 논이었는데 다 메꾸고 다 밭으로 써먹잖아.

송산 지역에서 배 농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먹골배에 밀려 배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배나무를 별로 심지 않았다. 그 대신 복숭아를 심어, 먹골배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복숭아는 저장하는 것이 어려워 제철에 생과일로 단시간 내에 팔아야 하였다. 지금처럼 복숭아를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상품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숭아는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고, 쉽게 물러지는 통에 제때,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배는 과육이 단단해 저장이 용이했고, 쉽게 물러지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추석과 설에 제수용으로 올라가야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대목을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숭아 농사를 짓던 이들은 점차 복숭아나무를 베어 버리고 배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벼농사 초기에는 산기슭 등에 밭을 가진 사람들만 배나무를 심었다. 길가 근처의 땅은 다 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배나무를 심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 농사가 잘되면서 논을 떼워 밭을 만들어서라도 배를 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송산 지역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일조량이 적어 벼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권석주 어유, 벼야 뭐 나오요? 벼는 나오는 게 없지, 벼는 잘못되면 뭐 푼 값 받지. 여기는 해가 짧아 가지고 이랫녘으로 (진라남도) 나주나 이런 쪽으로, 평야보덤도(평야보다도) 여긴 뭐가 단점 이냐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저요.

송산 지역에서 조금 더 나가 의정부교도소(옛 높으뢰 지역) 근방으로만 가도 이 지역보다 해가 더 길다. 송산 지역의 경우 동쪽에는 용암산 자락이, 서쪽에는 수락산의 봉오리들이 버티고 있는 반면, 서북쪽으로 갈수록 이 산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고, 소출 또한 적었다.

이렇게 시작된 송산배 재배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의정부에서 총 재배 면적이 40~45ha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며 최고조를 이루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56개 농가에 총 재배 면적 36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이 지역으로 4개 가구가 귀농해 오면서 농가 수와 재배 면적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3. 송산배와 먹골배

송산배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넘어서야 할 경쟁 상대는 이웃한 남양주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먹골배였다. 사실 송산배와 먹골배는 재배 지역이나 품종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지는 않는다.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숫돌고개와 박수고개를 경계로 마주보고 있다. 43번 국도를 타고 의정부시에서 남양주시로 향하노라면, 송산배 재배지인 고산동을 통과하자마자, 먹골배 재배지인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즉,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나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경계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배의 명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학터널 근처까지 해당하는 남양주 땅에서 생산되는 배는 먹골배로 칭해지고 있으며, 이 지역 농가들은 이 배를 판매하는 ‘먹골배 특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청학터널을 지나 1km도 채 되지 않는 지점에는 송산배를 판매하는 첫 판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 적어도 산곡동 김은돌 지역의 경우는 수락산 자락이라는 점까지도 먹골배와 일치한다. 게다가 송산배와 먹골배는 재배 품종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



43번 국도 상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경계

면담자 선생님, 아까 그, 저, 선생님도 아까 여쭙보셨는데 그, 남양주 먹골배가 유명하잖아요. 먹골배 하고 여기는 좀 많이 달라요? 선생님?

권석주 고, 고, 고거에 대한 건, 저 양반도 얘기했는데 먹골배라는 자체가, 어떻게 된거냐 하면, 한참 서울에 그, 정화조 청소도 못하고 그 인분이 많았잖아요, 그니까 이게, 서울 번두리가 사대가 막 나오다 보니까 신내동 이쪽, 육사(육군사관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이 망우리고개 이쪽으로 나갔단 말이예요, 중계동 이쪽으로 그래서, 고계 그 인분이 나가면서 지금 먹골배라는 게 뭐냐면, 그 장심랑이에요, 그계.

이에 대해 홍석범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면담자 이 먹골배하고 여기하고는 송산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니까, 그,

홍석범 내가 그거를, 이 농사를 지면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나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먹골배라는 것이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면담자 : 그렇죠.] 어, 그, 그 지역 이름이 고을 이름이 먹골이야. 게 내가 알기로는 먹골이 뭐냐내면은 옛날에 내시들이 그 궁에서 나

와서 몰려 살던 동네가 먹골이다 그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알고 있거든. 다른, 이걸 정확한 문헌인지 몰라. 그거는, 그래서 그, 거기서 왜 먹골배가 유명했냐면은 그래도, 그 내시들이 나와서 살아도 끝밭은 좋잖아. 그니까는 서울 장안에 있는 인분을 줘다 농사를 졌대. 그래서 거기, 그 인분으로다가 거름이 충분한 거지. 그니까는 맛이 좋고, 저기해서 진상도 허고, 했다 하는 그런, 누구한테 들었나? 그런 저기를 했는데, 뭐, 누가 그 비유해서 한 애긴지 헷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먹골이지, 먹골이라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냐. 거기도 신고고, 여기도 신고고 다 신고종잔데, 그니까 먹골역도 있잖아. 전철역 그 먹골이라는 게, 고 옆에 동구릉이 또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먹골이 해서 먹골배가 유명하다 그러는 거구.

1960년대 배 재배 초기에는 송산배와 먹골배 모두 장십랑(長十郎) 품종의 배였다. 구술자들이 언급한 대로 장십랑 품종을 인분 거름으로 키워내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해 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장십랑보다는 신고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두 지역에도 장십랑 대신 신고를 더 많이 심게 되었다. 하지만 신고는 장십랑에 비해 크기가 더 크기는 하지만, 쉽게 바람들이가 생기며 푸석푸석해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신고배의 바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석회질 비료의 사용은 신고배의 바람들이 문제는 해결했으나, 장십랑배를 딱딱한 돌배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점차 이 두 지역 모두 장십랑에서 신고로 종자를 바꾸게 된 것이다.⁸

이처럼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가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골배의 역사가 더 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송산배보다는 먹골배를 더 많이 알고 있다. 권석주 씨는 과거 배를 판매하기 위해 서울의 홍은동시장에 갔을 때 수락산을 경계로 하여 남양주까지의 배는 환영을 받았으나, 그 이북 지역, 즉 송산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배 재배의 역사와 더불어 재배 면적의 차이 역시 송산배와 먹골배 간의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남양주 먹골배는 586개 농가가 553.4ha에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신고배 사이사이에 장십랑을 남겨 뒀는데, 신고배가 꽃가루가 적어 수정이 잘 안되는 반면, 장십랑은 꽃가루가 많아 다른 나무까지 수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분수로 남겨둔 것이다.

서 매년 1만여 톤을 생산하는 반면, 의정부 송산배는 60여 농가에서 1,000여 톤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⁹ 그래서인지 43번 국도를 타고, 의정부에서 남양주를 통과하는 동안, 송산배 직판장은 2곳이 보인 반면, 먹골배 직판장은 10여 곳을 볼 수 있었으며,¹⁰ 때로는 3~4개의 직판장이 연달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송산배는 인지도나 재배 면적·생산량 면에서 먹골배에 훨씬 뒤지고 있지만, 작목반 조직 등을 통한 농민들의 노력과 의정부시의 지원, 판로의 다각화 등을 통해 점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4. 송산배의 자리 잡기

1) 판로의 개척

배는 빠르면 묘목을 심은 지 3년이면 열매를 볼 수 있지만, 나무를 더 키우기 위해 꽃을 따내는 편이고, 그 후 2년, 즉, 묘목을 심은 지 5년이면 과실수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처럼 배 농사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확이 가능하였지만 정작 문제는 판로가 없다는 데 있었다. 남양주의 먹골배와 같이 역사가 깊고, 이미 일정 정도의 판로가 있는 지역의 농가와 달리, 송산배 재배 농가들은 배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어디에 팔아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1978년부터 송산배를 키워 온 권석주 씨의 경우 배를 팔기 위해 가장 먼저 의정부에 있는 시장을 찾았다.

면담자 처음에 이제 배 농사 시작하셨을 때, 그 판로가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셨어요?

권석주 그 당시에는 정말 판로가 없어서, 의정부, 그 당시에는 운송, 운송이 또 문제죠, 따는 것도 지게에다가, 제가 (배 발 경사가) 45°정도 돼요, 배밭이. 그 지게에다가 큰 가고(かご, 대나무 바

⁹ 「남양주시 먹골배 ↔ 송산배 의정부시 “보이지 않는 최고 경쟁”, 『농업인신문』 2001년 9월 28일.

¹⁰ 물론 송산배의 주 재배 지역 중 하나인 갯바위마을이 43번 국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갯바위 마을의 직판장이 큰길에서 안 보인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구니) 하나 짚어지고 거기다 새끼줄 짚어
지고 따 가지고, 그걸 지고 내려오는 거에
요. 인제.

면담자 그러니까 지게 큰 거 하나 메고 옆에다.

권석주 뒤에다 걸지. 이렇게 걸고, 배는 상하면 안
되니까. [면담자 : 그렇죠.] 그래 가지고
얼루(어디로) 갖고 가느냐. 길도 그땐 없었
어요. 길이 없으니까. [면담자 : 여기. 이
길.] 아. 이 길 말고 내려오는 길. [면담자 :



송산배

아. 저 위에서.] 그럼, 리어카를 갖다가 가지고 한참 한 100m 끌어다 어느 마당에다 놓으면
그 경운기를 가지고 이젠 심는데, 합판 놓고 두 단, 세 단 쌓는 거야. 거기에다 그러면 한 열
댓 개씩 싣고 나가. 그 당시에는 손으로 재는데, 내가 저울을 사 가지고 일일이 달았어요. 달
아 가지고 50g 다니까 정확하잖아. 의정부 철원상회.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영복. 이
사람이 위탁 상회를 했어요. [면담자 : 아. 위탁 상회요.] 거기로 싣고 나가는 거예요.

면담자 그제 철원상회가 저기 제일시장 그 근처인가요? [권석주 : 네.] 지금 청과물시장 있는데?

권석주 네. 세 번째 골목이요. 하나. 둘. 세 번째 골목. 그 사람이 부인이랑 같이 그걸 하는데 수유리.
우이동 사람들이 배를 사는데 가고로 하나에 2,500원, 3,000원. 지금 돈, 100개 이상을 담아
서, 120개를 담아서 나가 가고에다가. 큰 가고에다가. 그냥 수유리서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그냥 딱. 착. 잘 받을 땐 3,000원이고, 뭐 최고 좋아도 3,500원이고 2,500원서부터. [면담자 :
한 개당 아니면.] 한 박스. [면담자 : 한 박스. 120개 들어있는.] 한 가고. 그 당시엔 그게 그
렇게 받았단니까.

면담자 한 박스 이거.(웃음) [권석주 : 한 가고.] 그러니까.

권석주 가고로 싸야 돼. 가고.

면담자 가고가 뭐예요?

권석주 대나무로 만든 가고가 있어요.

면담자 대나무로 만든 거요?

권석주 지금은 그게 없어요. 몰라요. 대나무로 만든 넓적한 걸로 짜 가지고 이만한 거 있어요. 지금
은 거 어디 가서 구경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운임비가 3,000원이야. 경운기 운임비가. 휘발

유 엔진 나오는 거 일제. 그걸 갖고 나가서 3,000원 갖고 나가서 거기다 갖다가 짝 철원상회 에다 놓으면 그냥 저녁에 저울질 다 했잖아. 배가 맛도 좋고 저울로 싹 달았으니까 아- 이거 야냐. 오면 한 입에 싹 쳐 넣는 거야. 위탁비 빼고 뭐하면 한 3만 원.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지. 그땐 그것도 큰돈이야. 그때는, 하루 노동비가 500원, 600원 갈 때니까 우리 일당이. 남자들이. [면담자 : 하루 일당이 500원, 600원할 때요?] 우리 농촌에 품값이 500원, 600원 갈 때예요. 그때가 오기 나가서 일하는 데는 700원 받고, 그럴 때걸랑. 그때가.¹¹

권석주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배를 사러 온 상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의정부에 있는 위탁상에서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한 배를 사가곤 했는데, 권석주 씨는 몇 년 동안 그 위탁상을 통해 배를 판매하였다. 당시 권석주 씨는 다른 농가와 달리 배 하나하나를 저울에 달아 크기와 무게가 비슷한 것끼리 담는 등 배 출하에 신경을 쓴 편이었다. 당시에 배 값은 비싼 편이었는지, 남성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500~600원 정도 할 때, 하루 3만 원가량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다 서울 흥은시장에서 장사하는 이 지역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상회에, 이번에는 가고보다 작은 나무 궤짝으로 하루에 200짝 정도를 ‘포터’ 트럭으로 보내어 판매하였다.

한편 송산 지역의 농가들은 일반적인 출하 방식인 시장을 통한 출하와 더불어 1990

년대 말부터 하나둘씩 마을 입구에 소매점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권석주 씨는 대체로 상회에 직접 배를 출하하였기 때문에 이런 소매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2001년 즈음에야 주변의 도움으로 판매점을 지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소매점을 통한 직접 판매가 활성화되어 송산배 농가들은 생산한 배를 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오늘날 송산배 농가에서는



갯바위마을 입구의 소매점

11 2013년 8월 5일 산곡동 권석주 씨 자택에서 진행된 2차 인터뷰이다.

수출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배를 판매하고 있다. 송산배가 주로 수출되는 지역은 대만과 홍콩,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다. 권석주 씨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송산배친환경작목반과 송산과수작목반 등 두 작목반에서 총 17명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50t 내외의 배를 수출하고 있지만, 2012년에는 태풍 때문에 배가 다 떨어지고, 병충해까지 입어 38t 정도밖에 수출을 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배 품종은 조생종인 원황과 장십량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서 장십량이 돌배 현상이 일어나며 딱딱해지자 많은 농가들이 장십량 품종의 배나무를 베어 버렸는데, 이를 남겨 놓은 농가들에서는 장십량 품종을 수출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석범 그제, 지금 우리나라 배 수출하는 것이 조금 해잖아. 배 수출을 하는데도 지금 뭐 12월 달까지, 열두 달, 1월 달까지 이래 아마 저장하고 있다가 서서히 보서 내보내는데, 개네들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대만이나, 유럽이나 미국 그쪽으로다가 쪼끔씩, 쪼끔씩 나가는 것이 전국적으로다가 좀 나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개네들이 또 중간에서 보는 애들이 장난질하고 또 저기 해서 하면 또 국내 배 값이 비싸면 이게, 그래,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이게 뭐 키로(kg) 당 1,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금년에 - 물가 상승률로 해서 1,100원을 받든지, 1,010원을 받든지 계약을 딱 해면은 이것이 비싸든 싸든 줘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다 안 그럴거든, 수출보다 국내가 비싸면은, [면담자 : 국내로 돌려야.] 어, 돌려 버리고서 거기서 지원받은 거 되려 돌려줘 버리면 끝나는 거야, 게, 제 그것이 지금은 인제 많이 완회되고 정립이 됐어요. (경기도) 안성에서 그런 일이 많아 갖고서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그 답에 수출 못 받아준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첨에 약속한 건 약속한대로 가야지, 그니까 농사가 그래.

홍석범 씨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등으로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었다. 수출 단가는 계약 시에 확정되는 반면, 국내 판매가는 생산물량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연재해 등으로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것보다 당장의 이익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초로 계약하였던 수출 물량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 이는 그 다음 해 수출 계약 물량이 줄어드는 것

으로 되돌아 왔다.¹² 그러나 점차 농민들의 시선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에 맞춰지게 되면서 점차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써 안정적인 수출을 통한 판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작목반 조직

송산 지역에서 배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가 점점 증가하자, 지역 농가에서는 배 재배 방법 및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이며, 나아가 의정부시 등 정부 당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검은돌마을과 갯바위마을에 각각 하나씩 작목반을 조직하였다. 이에 당시 검은돌마을에서는 심상진 씨, 갯바위마을에서는 진문순 씨가 각각 주축이 되었다. 송산배를 재배하는 지역은 크게 앞서 언급한 검은돌마을과 갯바위마을로 나뉜다. 검은돌마을은 수락산 자락, 갯바위마을은 부용산과 용암산 자락에 자리한 마을로, 이 둘 사이에는 약간 넓은 평야가 있고, 43번 국도가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두 마을 사이에 자리한 평야에서는 주로 논농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 마을의 배밭은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이 두 작목반이 하나로 합쳐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두 개의 작목반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 이들 작목반에서 친환경 또는 저농약 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이 나와서 또 하나의 작목반을 조직하였다. 갯바위마을에서 12명, 검은돌마을에서 6명이 참가한 이 작목반은 홍석범 씨가 반장을 맡았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원래 고가구 만드는 일을 하였던 홍석범 씨는 1990년에 의정부로 이주해 왔다. 이주 초기 홍석범 씨는 원래 하던 고가구를 만드는 일을 겸하여 농사를 조금씩 지었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과 농장을 관리할 사람을 구하



수락친환경작목반 홍석범 반장

¹² 수출은 이어지는 절에서 이야기하게 될 정부 지원 문제와 엮여 있어, 농민들에게는 자못 민감한 사안이다.

기가 힘들자 199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그가 친환경·저농약 농법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사건 때문이었다.

홍석범 그래. 이제, 내가 농사를 짓고 유기농을 해야 되겠다하는 동기는, 내가 그때 여기 와 가지고서 토끼도 좀 키웠었어. 근데 이제 '청왕리마트'에 가서 보니까는, 어, 배추 껍질이 여간 또 많아. 아, '저거 가져가면 한 며칠 동안 토끼풀 안 뜯어도 되겠다.' 그래 트럭을 가져가서 실어다 줬는데, '이거면 며칠은 먹겠지.' 하고서 줬는데 아침에 가니까 7~8마리가 다 죽었어. 근데 이거 죽은 거 상태를 보니까, 이거 뭐 어제까지도 팔팔하게 잘 뛰어놀던 놈이 뭐가 와서 물어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금방 병에서 실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다 흐트러져 죽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준 건 어제 배추 밖에 없단 말이야? 아- 이게 농약을 해서 그렇구나.

농약을 친 배추를 먹고 키우던 토끼가 죽은 것을 본 그는 아내가 그 배추로 담근 김치를 몽땅 버리게 하고, 그길로 친환경·저농약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농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농사 기술을 배웠다. 그러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친환경·저농약 관련 작목반을 조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갯바위마을 편은 친환경을, 검은돌마을 편은 저농약을 표방하며 갈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검은돌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수락작목반까지 내부의 갈등으로 해체를 겪게 되었다.

면담자 1985년에 (작목반) 두 개가 생겼다가 인제 그 갯바위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빠져나가신 거죠? 많이. 그다음에 여기 수락작목반. [권석주 : 네.] 수락작목반이 그 해체. 한 번 해체됐다고 하셨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때 잘 안됐다고 그러셨는데.

권석주 아, 안된 거는 서로가 의견들이 안 맞고, 앞으로 인제 작목반이 내부의 사정이니까, 그래 가지고 해체를 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인제 시작을 하는데, 시청에서도 인제 힘들잖아요, 각자 할래니까. 근데 이제, 저 해체한 사람들도 일부가, 인제 저 사람들은 여섯 명이 허고 있으니까, 저농약으로, 그니까 우리 사람들만 안 하니까 대고 허자, 허자. 그래 가지고 지원 사업이고 뭐고 받을려면 해야 된다 해 갖고 다시 뭉친 거예요, 그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

금 그쪽에 했다. 거기 세 사람은 권뒤 버리고 지금 세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면담자 : 어 - 그럼 저농약 그러면 무농약 아니?] 저농약. [면담자 : 저농약 거기.] 여기 수락. 수락작목반에 저농약(작목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하고 합쳐 있었어. 저쪽에는 따로따로 헤어져 버렸고, 갈라졌고. 우리는 수락작목반 안에 저농약(작목반)하고 같이 했다고. 저농약(작목반)이 여섯 명이 있었고, 나머지가 일반. 인제 단원들이 모여 가지고 허다가 안 맞으니까 서로가 해줬는데, 그 여섯 사람은 자기네끼리 갔고, 저농약(작목반). [면담자 : 저농약(작목반)끼리 저농약(작목반)으로] 갔고, 아니 그 사람은 따로 수락작목반에. [면담자 : 아 - 수락작목반 저농약(작목반).] 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배 연구회라는게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그니깐 거기서는 저쪽 저 친환경(작목반)하고 저농약(작목반)하고 합쳐 가지고 해 불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같이 뭐, 인제, 교육 연수도 가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그냥 갈라지고 말았고, 그것도 합치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우리 송산작목반, 저기, 친환경(작목반) [면담자 : 네, 친환경(작목반)이 홍석범 선생님이.] 아니, 여긴 저농약(작목반). [면담자 : 여기가 저농약(작목반) 이에요?] 저기 친환경(작목반)이 열두 명 있어요, 열두 명이 지금도 꾸준히 수출을 열두 명이 다 해요. 그 사람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수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처럼 50여 가구밖에 안 되는 송산배 재배 농가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재배 방식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을 쓰는 방식을 관행재배라고 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 농법을 유기농·무농약·저농약으로 나눈다.¹³ 송산배 재배 농가는 재배 방식과 갯바위마을과 검은돌마을이라는 지역에 따라 작목반이 분화되어 2013년도 기준 4개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송산과수작목반(검은돌마을 지역)은 해체되었던 수락작목반이 2008년에 다시 결합한 작목반이다. 수락작목반이 해체되면서 흩어졌던 인원 중 20명 정도에 다른 과일을 재배하는 이들까지 참여하면서 회원이 24명이 되었다. 이들의 재배 면적은 약 16ha 정도이며, 1년에 4차례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13 유기농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식으로,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무농약은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되,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만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저농약은 화학비료는 1/2 이내로 사용하고, 농약 뿌리기 횟수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의 1/2 이하로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사용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갯바위마을 배밭



검은돌마을 배밭

5. 송산배의 미래

의정부시가 송산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5년경이었다.

면담자 배 농사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에요? 1980년대? 아
까 1980년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권석주 글썽 정확치는 않아도 한 1985년 정도, 작목반이 구성되면서 지원이 된 거예요. [면담자 : 그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 같은 거 없었구요?] 그땐 뭐 배라구, 배 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도 그런데, 옛날엔 포장이, 가고로 나올 땐 뭐 지원을 어떻게 허우, 그나마 (나무) 꺾어도, 꺾
짜도 한참 나왔어요 저 사과 박스, 그제 한참 나왔을 때 나오다가 이 박스 나온 건 내가 보기
엔 한 15kg, 15kg 나올 때 내가 알기론 한 20한 5년쯤 아마 30년 채 안 됐어요, 15kg, 7.5kg
도 없었어요.

이 시기는 송산배 작목반이 조직되는 시점과 비슷하다. 이전까지 소규모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하던 배 재배 농가가 작목반을 조직하면서 정부 당국
의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가장 먼저 지원이 시작된 분야는 배 포장 박스에 대한 것이

었다. 과거 가고나 나무 껍질에 배를 담아 판매하던 것을 박스에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15kg들이 종이 박스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면서 송산배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였다. 홍석범 씨는 ‘우르과이라운드’ 때 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고 언급하였다.

홍석범 게서 지금 농사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정부 시책도 그렇고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땀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뭐 어찌고 해 가꼬서 이 교수들도 그랬었어. 대한민국에 다 배나, 배 심으면 된다고, 전국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배가 젤 좋단다고, [면담자 : 그랬죠]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신고 나무 심고 애목나무 7,000원, 9,000원씩 가는 거 7,000원 가는 거 3,500원씩 보조해 주고 심으라는 거여. 응?

면담자 그니까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가 1994년도 그때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홍석범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 배 심어도 된다고 했어. 그때 사과나무는 망한다고 다 베었어. 포도나무 베고 뭐 지금 한 거.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뭐 농기계 반값 뭐 지원 이렇게 해 가꼬서 했는데. 아. 경운기가 200, 230만 원 짜린데 새 거가. 내가 산다고 그러면 100만 원을 보조를 해줘. 그럼 난 130만 원이면 산단 말야. 어, 이놈의 거 논 해다가 고장 나서 AS센터 부르면 20, 30만 원씩 들어가. 부속 한 몇 개 같으면은. 거 두 개 가느니 하나 새 거 사는 게 낫잖아. (웃음) 그니까는 논두렁에 쳐 박아 두고 새로 또 사는 거야.

이처럼 1990년대 중반 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송산 지역에 배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가 많아지면서, 의정부시에서도 배 재배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송산배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 및 관수 시설 확충비 1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생산되는 송산배 전량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송산배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하였다.¹⁴ 실제 의정부시는 당시부터 매년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송산배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14 「의정부시, 송산배 지역특산물로 육성」, 『연합뉴스』 1995년 2월 3일.



고산동 송산배 농가

현재 송산배에 대한 의정부시의 지원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와 ‘배 연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기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종자 보급, 배 꽃가루 보급, 수출 관련 지도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배 연구회에서는 연찬회(研鑽會) 개최를 비롯해, 배 생산과 관련된 기자재들을 공급하는 등 배 농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송산배 농가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는 것이 송산배 재배 농가의 농법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송산배는 역사가 길지 않은데다, 재배 농가 수 또한 적기 때문에 기술 보급이 늦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농기계의 경우, 농지가 넓고, 농가가 많은 지역은 기계를 빨리 들여놔서 비교적 쉽게 농사를 지었는데, 송산배 재배 지역은 기계 보급이 늦은 편이고, 선진 농법 역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늦게 보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 지역의 배 재배 농가에 비하여 출발이 늦은 송산배 농가들은 작목반 활동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배 재배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배 연구회와 같이 의정부에 기반을 둔 지역 내 커뮤니티(communitiy)와의 연계를 통

해 지속적으로 좋은 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국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전국의 배 농가들과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배 농가의 경우, 친환경 농법으로 배 농사를 짓는 농가 수가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해 활동하는 편이다.

홍석범 어, 왜 짓느냐. 그럼 그나마도 지어야지 어떻게 해 그럼?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그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래. 내가 지금 전국에 친환경동호회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전국 각지에 다 있어.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서 경기도, 전라도, 그냥 다 해서 해는데 회원들은 한 200명 된다고 해드래도 오프라인(off-line) 모임하면 한 40~50명씩은 모여요. 참 그 모임에 좋은 게 뭐냐면 이 농사 기술을, 농사 기술을 거기가면은 서로 아르켜(가르쳐) 줄라구 그래. 웬만한 사람은 안, 아- 예를 들어선 안 아르켜 줄라구 말 안 해는데, 거가면 서로 아르켜 줄라구 그래. 참 그 모임이 희한한 모임이고 저기해서 게 뭐가 잘못 뭐가 어떻다고 인터넷으로 뭐 좀 올리면 누가 또 답장을 해 주든 해 주고 응? 그런 모임이 1년에 두 번씩 하고서 하는데, 이제 그니까 거기 그럼 모임에는 제 교수들도 두 명이 항상 참석을 해, 개네들도 회원으로다가 참석을 하는데 그 교수들을 뭐라고 해나면 여기 오면은 자기는 어떠한 그 식물에 대해 깊이는 알아도 넓이는(넓게는) 모른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깊이는 몰려도 넓이는 알니까는 여기 오면 자기가 배우고 간다 그니까는, 뭐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이렇게 사례 발표하고 그래면은 서로 거기서 듣고서 또 문답으로다가 또 허고 거기서 뭐 학술 저거나 무슨 수치 계산적으로 하는 거는 교수들이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시험 데이터(data)도 해 주고 뭐 도 보조도 해 주고 그래는데, 거 참 모임이 그건 좋아요, 그니까 우리는 1년에 봄, 가을로다가 두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임하는 데 열일 제쳐놓고 1박 2일씩 가, 가면 1박 2일이거든.

친환경 농법의 경우, 관행재배에 비해 어려움이 더 많은 편인데다 실패의 경험이 많아 공동체의 응집력이 강한 편이다. 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간 각 농가의 노하우(know-how)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경험으로 터득한 각각의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농가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농법뿐만 아니라 관행재배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들도 이와 비슷하게 1년에 한두 차례 연찬회 등을 통해 배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으로 견학을 다니며 선진

농업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점차 다른 지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오늘날 의정부 송산배는 지역을 넘어서는 명품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민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육군 306보충대의 이모저모

1. 306보충대의 연원

보충대(補充隊)는 전입해 오는 보충 병력을 접수·관리하고, 충원을 필요로 하는 편성 부대에 분배·배치하는 부대이다. 즉, 보충대란 부대 배치를 받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보충되어 오는 병력이나 개별적인 전속 명령을 받은 장병들을 충원, 또는 보직 명령이 발령될 때까지 수용하고 숙식의 제공, 봉급 및 수당의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행하며, 동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상급 부대로부터 충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시가 하달되면 그 명령에 의해서 해당 부대에 충원 또는 보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곳이다.¹

대한민국 육군에는 102보충대와 306보충대가 있고, 보충대에 입대한 이들은 입대 후 신병 교육 임무까지 담당하는 논산 육군훈련소와는 달리, 여기서 개인 물품을 지급 받은 후 3박 4일가량을 대기하며 자신이 배속된 부대의 신병교육대로 가게 된다. 이 중 306보충대에 입소한 이들은 주로 경기도권 부대에, 102보충대에 입소한 이들은 주로 강원도권 부대에 배속된다. 보충대는 또한 전방의 1군, 3군 부대에 배치된 육군훈련소 퇴소병이 자대로 옮기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¹ 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http://doopedia.co.kr>) 참조.



용현동 306보충대 정문

306보충대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부산 동래에서 제2보충대 5보충중대로 창설되어 1958년 의정부시 호원동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1989년 용현동으로 재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06보충대가 이전되기 전 용현동의 성골 인근은 산, 밭, 논으로 이뤄진 곳이었으며, 민가가 그리 많지 않은 시 외곽 지역이었다. 따라서 부대 이전 시 교통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306보충대의 이전지로 선택되었다.

〈표 1〉 102보충대 및 306보충대 개요

| 구분 | 102보충대 | 306보충대 |
|-----|---|---|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 배출지 | 육군 1군사령부 예하 동부전선 10개 사단 신병교육대 | 육군 3군사령부 예하 서부전선 15개 사단 신병교육대 |
| 역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제주 모슬포에 제1훈련소 창설 • 1953년 춘천 근화동으로 이전 후 1987년 현재 위치로 재이전, 연간 4만 8,000여 명 배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 부산 동래에 제2보충대 5보충중대 창설 • 1958년 의정부 호원동으로 이전 후 1989년 현재 위치로 재이전, 연간 7만 6,000여 명 배출 |

출처 : 『눈물젖은 장정을 고향 102·306 보충대 사라진다』, 『세계일보』 2012년 11월 12일.

본장에서는 306보충대가 자리 잡고 있는 의정부 용현동과 이곳 주민들, 특히 43번 국도에서 성골길을 따라 306보충대 앞까지 이르는 300m 정도의 거리에 형성된 식당가를 대상으로 306보충대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2. 306보충대의 용현동 이전과 토지 수용

306보충대가 용현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306보충대가 1989년 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전하기 적어도 3년 전부터 주변의 토지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니, 1985~1986년 사이에 토지 수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306보충대의 이전이 결정되었을 당시, 용현동의 예정지는 의정부 시 외곽에 위치한 논, 밭과 야산으로 이루어진 허허벌판이었다. 거주 인구가 적고, 경작지가 대부분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더하여, 서울과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들과 가깝다는 점 등이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에게 부대 이전 소식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그 중 한 명이 현재 306보충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남이순(1952년생) 씨이다. 고산동 갓바위마을 출신인 그녀는 7남매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나 집안의 굶은일을 도맡아 하다가 20세에 용현동 별고개마을로 시집을 왔다. 결혼 당시 그녀의 남편은 구두 재단사로 일하면서 농사도 겸하고 있었는데, 당시 경작하던 밭 대부분이 306보충대 예정지 안에 속해 있었다. 부대가 들어오기 전 시작된 토지 수용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는 지난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격양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면담자 땅이 수용될 때 보상비는 제대로 나왔어요?

남이순 보상비, 그때 돈으로 7,000원, 8,000원뿐이 못 받았어요.

면담자 7,000(원), 평당이요? 아니면 전체가?

남이순 평당.[면담자 : 평당.] 평당, 평당 7,000원이면 뺏긴 거죠, 뭐 그때는 아아 소리도 못하고 뺏긴 건데.

면담자 아- 그러면 그때 이 동네 그 평당 시세는 어느 정도였는데요?

남이순 그때만 해도 시세가 몇만 원씩 갔죠. 5~6만 원씩 갔죠.

면담자 5~6만 원 갈 때?

남이순 그때 7천 원이었으니까. 5만 원, 6만 원은 갔죠.

면담자 근데 왜 아야 소리도 못하고 뺏기셨어요?

남이순 옛날에는 뭐 저기 정부에서 하는 건 아야 소리 못 했어요. 뭐 누구 한 사람 나가서 한번 얘기 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안 뺏기겠죠.

면담자 아. 그렇죠. 그냥 이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땅 수용돼 버린 거예요?

남이순 그렇죠. 그냥 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부대로 넘긴 거죠. 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면담자 그때 넘길 때 그러면 시에서 주도를 했던 건가요?

남이순 그렇죠. 시에서 주도를 한 거죠.²

가족의 생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던 밭이 하루아침에 군부대 예정지로 수용이 된 데다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정부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던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토지수용은 의정부시에서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토지가 헐값에 반강제적으로 수용되자 많은 주민들이 좀 더 저렴한 농토를 찾아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거나,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남이순 씨의 가족은 턱없이 적은 보상비를 가지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부대 앞에서 식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부대와는 달리 매주 한 번씩 입영식이 있어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다. 2012년 11월 12일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매년 306보충대로 입영하는 인원은 7만 6,000명가량으로, 이를 52주로 나누면, 매주 약 1,500명이 이 부대에 입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영자를 배웅하러 온 가족과 친지를 합치면, 입영식이 열리는 화요일 점심에만 최소 3,000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남이순 씨 가족은 도시화된 의정부 시내와는 달리 거의 농촌에 가까운 외곽 지역에서 이만한 유동 인구가 발생하는 곳은

2 2013년 5월 31일 용현동 솔뫼집 식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거의 없다는 판단하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 보다는 이 지역에서 식당을 열기로 하였다.

3. 306보충대 앞거리 식당가의 형성

306보충대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식당 영업을 시작한 것은 어느 중국 식당이었다. 그러나 장사가 시원치 않았는지, 그 식당은 영업을 시작한 지 3~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에 남이순 씨는 그 중국 식당 자리에 세를 얻어 '술피집' 식당을 열었다. '술피'라는 명칭은 송산(松山)의 순우리말로 용현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송산1동)의 명칭으로, 인근의 술피초등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남이순 그거 (보상비) 찾아와서 저기 뭐 쓸게 별로 없었죠. 7천 원씩 찾아봐야 돈 얼마나 되요?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 얻어 가지고 한 거죠.

면담자 여기 아, 그럼 여길 세로 얻으신 거예요?

남이순 저쪽 앞에 지금 건물 짓죠? 하얏게? 그거 얻어서 장사 시작했는데, 게 남의 건물이니까 이거를 사 가지고 짓고 나온 거죠.

면담자 저쪽에서는 그럼 몇 년?

남이순 저쪽에서도 한 거의 20년은 했을 걸요? 한 십몇 년, 한 18년 정도 했을 거예요. 한 18년 정도.

면담자 힘드셨죠? 장사 처음 시작하실 때, 첨에 첨부터 그 음식 (핑, 닭, 오리, 보신탕 등) 하셨어요?

남이순 네, 처음서부터 음식 했어요, 할 줄 몰랐는데요, 그냥 뭐 허다 보니까 되더라구요, 왜냐면 핑도 키우구요, 닭도 옛날엔 키웠어요, 핑 낸 집은 우리 집뿐이 없어요. 의정부시에서, 그래 가지고 핑 키우고, 닭 키우고, 키우다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요리해서 팔은 거죠, 지금까지 키워 가면서 해요, 지금도, 그때서부터 키운 거예요.

면담자 핑 키우자고는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남이순 아니, 원래는 우리 동생이 (경북 구미) 접성서 핑을 키웠어요, 키우니까 언니도 한 번 키워 보라고 그런 소릴 하길래, 뭐 그때서부터 핑을 키워가지고, 옛날에는 핑을 키워도 소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면담자 마침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았네요.



306보충대 앞 솔뫼집 식당

남이순 네.

면담자 한 쪽에선 팽 키우래서 팽 키우기 시작했고, 한쪽에선 땅을 뺏기니까 그, 그 땅 뺏겨 버리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고.

남이순 그때부터 팽하고, 닭하고, 보신탕하고 시작한 거죠. 팽, 닭, 보신탕.

면담자 지금까지(요?).

남이순 네.

면담자 30년 동안(이요?).

남이순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한 30년 넘었죠. 지금? 그래 팽, 닭을 키우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팽을 키웠는데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장사를 시작한 거죠. 이 앞에 식당이 누가 들어와서 짜장면을 한 3개월 히더라구요, 히더니 손들고 나가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얻어서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죠.



용현동 306보충대 앞 임진강 식당

술피집은 306보충대 앞 허허벌판에 위치한 유일한 식당이었다. 이 식당이 들어선 지 5~6년이 지난 후에야 두 번째 식당인 '임진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역시 술피집 식당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임진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호(1959년생) 씨는 양주 출신으로 의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다. 양주가 고향이기는 하지만 양주에는 이렇다 할 만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로 통학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와 그의 아내는 의정부 토박이나 거의 다름없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을 서두른 이용호 씨는 첫째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입대하였고, 딸이 4살 되던 해에 제대를 하였다. 제대 후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4년 동안이나 막일을 한 돈으로 송산에 슈퍼마켓을 차렸으며, 동시에 양주 축협에 취직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던 그의 가족은 별안간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에 연루되어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가 힘들게 하는 것을 본 처가의 친척이 돈을 빌려 주어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임진강 식당이다. 그가 어디에

식당을 차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을 소개해 준 사람이 남이순 씨의 남편이다. 이용호 씨는 1995년경 지역의 자율 방범대원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마침 자율 방범대원 활동을 함께 하던 남이순 씨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이용호 씨의 사정을 들은 남이순 씨의 남편은 마침 솔피집이 바로 건너편에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피집 식당에서 5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리에 세를 얻어 식당을 운영해 볼 것을 권하였다.

이용호 씨가 처음 임진강 식당을 차릴 당시인 1995년경만 해도 306보충대 주변 지역은 여전히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허허벌판이었다.

면담자 보충대가 거의 생기면서부터 거의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

이용호 부인 생기어서 얼마 안 있다가 온 거죠, 이제 원조는 저기 '솔피'라고.

면담자 솔피(집)식당.

이용호 부인 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온 거고.

면담자 어- 오셨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겠어요?

이용호 부인 아무것도 없었죠.

면담자 다 논, 밭이었죠?

이용호 부인 네. 그리고 저희 고 앞에 하고 저기 솔피집하고 마주 보던 그 집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다 밭이었고, 다 그랬죠.³

이렇게 이 지역에서 식당을 시작하게 된 이용호 씨가 선택한 메뉴는 매운탕이었다. 그의 아내가 이미 분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원채 음식 솜씨가 좋았고, 지인이 임진강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어서 깨끗하고 좋은 물고기를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호 씨가 임진강 식당을 솔피집 식당 맞은편에 차리면서 1990년대 후반, 이 지역에는 2개의 식당이 영업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다른 식당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다.

3 2013년 7월 25일 용현동 임진강 식당에서 진행된 이용호 씨의 인터뷰에서 함께 증언해 준 이용호 씨 부인의 인터뷰이다.

면담자 그러면 이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래 다 여기 사시던 분이세요?

남이순 아니에요. 저기, 요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 '임진강'만 빼놓고, 다 요 근처, 요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예요). 요기 '송죽'하고, '임진강'하고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예요.

면담자 아, 송죽하고 임진강만?

남이순 네. (송죽하고) 임진강만, 그리고 다 여기 토배기(토박이)들.

면담자 그분들도 다 여기에 다 땅, 땅 흡수되고? 흡수되고 들어오신, 흡수되서, 이제 사장님하고 비슷한 사례이신 거죠?

남이순 그렇, 그렇다고 봐야죠, 길이라도 들어갔으니까.

면담자 아- 길로, 길로 뺏겨 버리고.

남이순 그렇다고 봐야죠.

이처럼 이 지역의 식당가는 306보충대가 들어서면서 삶의 터전인 농토가 수용되어 살 길이 막막해진 이 지역 출신 사람들과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젊은 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무게에 눌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4. 306보충대 입영일과 식당의 운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식당가는 큰길인 43번 국도에서 성골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식당에는 평소 단골들 말고는 별로 찾는 사람이 없다. 이 골목이 비좁은데다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기 때문이다. 이 거리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곳은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성골마을과 성골마을 내에 위치한 꿈틀자유학교, 그리고 의정부시농업기술지원센터가 전부이기 때문에,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다. 필자가 이 지역을 찾았을 때, 공사 차량이나 군용차량을 제외하고는 낮 시간대에 운행하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길 역시 뜸하였다. 더군다나 밤이 되면, 거의 아무도 이 거리에 드나들지 않아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



306보충대의 평소 한가한 모습(좌)과 입영일인 매주 화요일 입영자·가족·친지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우)

나 306보충대에서 입영식이 열리는 화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화요일 오후, 306보충대의 입영식 시간이 가까워 오면, 골목 초입에서 306보충대 정문에 이르는 약 300m 남짓한 거리는 입영자를 태운 차량과 입영자 및 그 가족, 친구들과 북새통을 이루고, 식당마다 손님들로 가득 찬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에는 식당에 고용되어 입영자들에게 필요한 불펜, 깔창, 손목시계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 상인들과 그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 날은 이 골목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까지 호황을 가져다 준다. 골목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솔피초등학교 앞까지 도로가에는 차들이 뺨뺨하게 주차되어 있고, 이런 차들을 감독하기 위한 순찰차와 경찰이 배치된다. 그리고 인도에는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이 일제히 306보충대를 향해 한 방향으로 걸어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골목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들은 ‘의정부 부대찌개’, ‘입영 장병 환영’과 같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거나, 대형 주차장 주변으로 야외 식탁을 놓는 등 306보충대로 입영하는 이들과 이들을 배웅하러 온 가족·친구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날 주로 잘 팔리는 음식은 의정부를 대표하는 부대찌개이며, 불고기·갈비탕과 같은 음식도 잘 팔린다. 이 지역의 식당들은 각기 다른 주메뉴를 갖

추고 있음에도 이날만큼은 이런 음식들을 내놓는다. 음식의 준비와 조리 시간이 짧아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306보충대의 존재가 식당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식당가 사람들은 306보충대에만 의지해서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 1주일 중 306보충대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화요일 점심시간뿐이다. 이날의 '대목' 장사로 식당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식당들은 단골손님이 되기 어려운 외지인들이 주로 찾는 화요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먼 곳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한번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다시 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찾아오거나, 이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도록 하여 단골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이 지역의 식당 중 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찾아온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미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장과 안면이 있는 단골손님들이었다.

면담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영은 화요일인거죠?

남이순 네. 화요일.

면담자 그때는 북적북적하겠어요?

남이순 근데 그날은, 화요일 날은 평하고 닭을 못해요. 그날은 저기 불고기 하고, 뭐 부대찌개밖에 못해요.

면담자 아- 바빠서.

남이순 그럼요. 할 수가 없어요. 평하고 그거는 화요일 날은 못하고 평일 날(하고), 화요일(은 점심 장사) 딱 접고 세 시면 접고 네 시서부터 시작하죠.

면담자 음- 네 시부터는 이제 다시 평하고 닭. 아-.

남이순 그날은, 그 화요일 날은 부대찌개하고 불고기밖에 못해요.

이웃하고 있는 임진강 식당도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화요일 점심에는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맛있는데다가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나 미리 조리를 해 놓았다가 끓이기만 하면 되는 불고기·갈비탕 정도를 내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몰려드는 손님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 대목날 장사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웅호 부인 그래서 참 보충대 이 장사는 참, 보충대도요 지금 뭐 옛날처럼 뭐 하루 장사가 아니에요.

면담자 어, 그래요?

이웅호 부인 그럼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는 음식은 저는 진짜 성심성의껏 하죠.

면담자 아-, 이제 보충대 온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오니까.

이웅호 부인 그러니까요.

면담자 아-.

이웅호 부인 그래서 이 장사도요 하루 장사라고 얼렁설렁하고 그렇게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처럼 이 주변의 식당들은 306보충대 덕분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생기는 대목을 누리면서도 다른 요일에도 손님을 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요일의 점심과 저녁에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이 식당들을 찾고 있다.

5. 306보충대와 식당가의 변화

306보충대 인근 식당들은 평상시 영업으로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화요일 대목에 의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화요일 점심 대목에는 식당 앞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몰리는 동시에, 테이블 회전율도 다른 요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각 식당에서는 좌판을 설치해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면 쿠션이 좋은 깔창, 전등이 달린 볼펜, 야광 전자시계, 수첩 등을 판매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좌판은 식당의 허락이 없이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목 시간 동안 식당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다른 요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306보충대의 입영식 시간이 기존의 오후 1시에서 1시 반으로 늦춰진 이래, 2013년 오후 2시로 30분 더 늦춰지면서 화요일 대목 장사에 지장이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면담자 아, 보충대는 그,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남이순 아니요, 화요일 날 한참 장산데, 한 시까지 할 때는 좀 장사가 됐는데, 한 시 반으로 또 언기



306보충대 앞 식당가 주차장

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이게. 두 시로 연기가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점심을) 다 먹고 와요. 그래 장사도 안돼요. 이제, 요즘에, 안되는지가 거의 한. (미상자에게) 야! 안 되는지 몇 개월 됐냐? [미상자 : 1월부터 안됐죠.] 1월서부터냐?

면담자 올 1월부터 이 두 시로 바뀐 거예요?

남이순 (미상자에게) 1월서부터 바뀐 거야? 그러고 나서는 다 먹고 오고 장사가 안돼요.

면담자 그렇죠.

남이순 요 주변 사람들은 진짜 굶게 생겼어요.

입소 시간이 2시로 변경된 후인 2013년 6월경에 필자가 306보충대 식당가를 방문하였을 때도 식당가 앞에는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차가 들어서 있었다. 그럼에도 식당가에서는 입소 시간이 오후 2시로 옮겨지면서 손님이 뚝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손님이 떨어진 게 이 정도라면 1시에 입소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306보충대의 변화 하나가 식당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니, 식당 입장에서 306보충대를 곱기만 한 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식당가의 불편한 심기는 그간 306보충대와외의 소원한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식당가 사람들에 의하면 306보충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보충대 소속의 군인들이 이 지역 식당가에서 회식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면담자 (웃음) 그 부대하고는 관계가 좀 어떠세요?

이용호 부대하고는 관계는 그게 첨에는 좋았는데, 시작하면서도 별로 안 좋아요.

면담자 어? 어떤 면에서(요)?

이용호 서로 도움도 주지 않고, 서로 도움 받지도 않고, 여기 만약에 하사관(부사관)이 온다 이거야. 장교들이 (식당에) 안 와요. 불편하니까 알죠. 장교가 오면 하사관(부사관)이 안 오고, (전화 통화로 잠시 중단)

면담자 네. 장교하고 하사관 그 관계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용호 네. 그게 안 좋아요. 그니까 첨에 옛날에는, 옛날에는 첨에 제가 시작했을 때 20(년), 18년 전에 저쪽 가게 있을 적에는 편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편하게는 안 해요. 내가 여기 장사 하면서도 의정부시청 직원이 우리 집에 많이 알고, 많이 와요. (그러면) 2청사(경기도청 북부청사) 직원들이 안 와요. 불편하니까. 제가 또 검찰 직원들도 우리 집에 많이 와요. 그럼 저기 판사, 그런 거예요. 불편하니까 서로, 부딪치기 싫으니까. 직급이 낮으면 인사도 해야 되고, 먹다 말고 일어나서 거기서도 뭐 “자네 자주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애네들은 거의 다 외곽에 나가서 먹지 식당 가까운 데는 안 와요. 고런.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306보충대) 대대장도 오시고 저는 뭐 대대장 얼굴은 알지만, 개별적으로 밥 먹는 건 없고 저한테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어보고, 제가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면은 같이 협조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요구 사항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100%. 그런 거죠.⁴

이용호 씨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대 이전 초기 306보충대와 식당 간의 좋았던 관계는 부대 내 신분과 계급으로 인한 기피 문제 등으로 점차 군 간부들이 서로 마주치기를

4 2013년 7월 25일 용현동 임진강 식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꺼려해 인근에 있는 식당을 피하면서 점차 소원해졌다. 이는 특히 부대의 규모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데, 부대의 규모가 클 경우 이런 기피는 좀 줄어들지만, 306보충대는 대대급 부대로 근무 장병 500여 명 중 간부는 100여 명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더욱이 그 중 영외에서 출퇴근을 하며 외부에서 자유로이 회식이 가능한 직업군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대장과도 친해서 군인들이 지역 식당을 자주 찾곤 했는데, 요즘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 및 회식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비해 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대와 지역의 특성상 306보충대가 대민 지원과 같은 민·군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거리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대민 지원을 가끔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 식당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당가 사람들이 부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3년 전쯤부터 시작된 부대 앞 도로 확장 공사 역시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5년경 문을 열어 거의 15년 간, 한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던 이용호 씨는 시로부터 도로 확장을 위해 갑작스럽게 식당을 이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306보충대 진입 도로에 대한 확장 공사 때문이었다. 원래 성골길은 승용차 2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다. 그런데 306보충대의 입영식 날 방문객 차량이 많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지자 부대 진입 도로를 2배 가량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이용호 씨가 운영하는 임진강 식당은 성골길 입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이용호 씨는 멀리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는 바로 근처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하고 306보충대 정문 바로 앞에 식당 건물을 새로 세워 그쪽으로 이전하였다. 이용호 씨의 경우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그저 오랫동안 장사하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쳤지만, 다른 식당의 경우 식당 한쪽의 토지가 주차장으로 수용되는 아픔을 또 다시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미 306보충대가 들어설 때 토지가 수용되는 아픔을 겪은 식당가 주민들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자 할 말을 잃게 되었다.

면담자 네, 여기 저희가 인제 그, 지도로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요즘 근데 지도가 좋아서 사진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건물 생기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솔매(집) 식당 근처에 여기 식당하나 식당이 임진강으로 돼 있던데.



306보충대 앞 도로의 공사 전(좌)·후(우) 비교⁵

이웅호 부인 거기가 저희가 했던 자리예요.

면담자 그러시죠?

이웅호 부인 그 자리에서 했다가 거기가 이제 도로 그 저기 뭐야 수용이 돼가지고, 도로가 이제 넓혀진다고 그래 가지고 수용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전으로(그 전에) 이제 그 허가가 나니까 여기다 짓고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사 왔어요, 재작년 10월 달에. 여기서 뭐 여기니깐 한 100m?

면담자 100m도 안 되죠.

이웅호 부인 얼마 진짜 안 되죠, 저희 또 위낙에 매운탕으로 소문난 집이라 멀리를 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짓는다고 해서 여기로 저희가 옮긴 거예요, 그리고 또 얼른 비워 줘야지만, 이거,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해서 빨리 비워 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도로가 이게 지금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웃음)

면담자 그러게요.

이웅호 부인 그 저희는 그 자리가 좋았어요, 그래도.

⁵ 좌측 사진은 다음 지도 홈페이지(<http://map.daum.net>) 로드뷰에서 수집하였다.

면담자 어, 그 자리가 여기보다 더 좋은 (이유).

이용호 부인 좋지는 않은데, 저희는, 저희는 이제 거진 여기서, 지금 여기 만 19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십몇 년을, 한 15년을 했는데 그 자리가 좋았는데, 빨리 뭐 도로가 하루아침에 빨리 될 거 같아서 빨리 이거를 인제 비워 달라고 해서 우리는 또 급한 마음에, 또 매운탕은 이 매운탕은 이 저- 저기 뭐야 음식을 어디 가서 진짜 이렇게 저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소문 저희는.

면담자 소문이죠.

이용호 부인 네, 그쪽에 있을 때 워낙에 소문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어서 요기 다 진다고 해 가지고 여기다 급하게 오게 된 거예요, 이 자리를.

이전을 통보할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공사를 할 것처럼 재촉을 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는 306보충대를 지나 의정부농업기술지원센터로 가는 길에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성골길 입구에서 306보충대 앞 까지도 이미 도로 확장은 했지만, 배관 매설이나 도로포장과 같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덕에 이 일대에는 곳곳에 건설자재가 쌓여 있다. 필자가 조사를 위해 이 지역을 처음 찾은 2013년 4월에는 공사가 거의 중단되었다가, 그해 7월이 되어서야 조금씩 공사가 재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용호 씨는 이런 모습이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306보충대는 타지인들이 의정부를 처음 만나는 얼굴과 같은 곳인데, 이런 곳의 도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 자재와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그들이 의정부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도로 확장에 더해, 2014년에 306보충대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식당가 주민들의 동요는 더욱 심해졌다. 2012년 언론을 통해 군 당국이 경기도 의정부의 306보충대와 강원 춘천의 102보충대를 오는 2014년경 해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군 내부 및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지난 2009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충대 해체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 따라 "부대 개편 및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306·102보충대 해체 시기를 2014년으로 앞당기기



내년 말 해체될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 306보충대 앞에서 지난 19일 입영 장병들이 입소하고 있다.

전행민기자 hminjon@kyeonggi.com

북적이던 의정부 입대 풍경 사라지나

군 당국, 재배치 계획에 내년 말 해체 검토 주변 음식점·여관 등 영업활동 타격 불안

매주 화요일마다 입대하는 장병과 가족들로 붐비던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가 내년 말이면 영원히 추억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의 일환인 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306 보충대 해체는 지난해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최근 육군본부와 병무청이 합의를 통해 말 국방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큰 상황변화가 없는 한

내년 말 해체를 결정할 것이 예상된다. 306 보충대가 해체되면 장병의 근무부대 분류는 병무청이 하고 장병들은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접 입대하게 된다.

306 보충대는 지난 1952년 부산 동래에서 제2보충대 5보충 중대로 창설돼 1958년 의정부 호원동으로 옮겨와 1989년 지금의 자리로 왔다.

육군에 입대하는 장병의 35% 정도인 매년 8만여명 가량이 이곳으로 입소해 입영식과 함께 3박4일 동안 머무르고 자대배치를 받는다.

장병들은 보충대에서 보급품을 지급받고 3군사령부 예하 서부전선 15개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교한다.

매 기수마다 3천~4천명이 입소해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장병은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306 보충대는 서부전선 부대에 근무한 대한민국 남성 누구에게나 친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306 보충대 출신인 김모씨는 “보충대 인근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가족과 의정부 부대찌개를 먹은 뒤 입소한 기억이 생생하다”며 “306보충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충대가 해체된다는 소식이 인근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

주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입영할 때 입영장병과 가족 등 평균 1만여명에 달해 붐볐던 거리를 기대할 수 없고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변 이용업소 및 목욕탕, 여관 등의 업소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6보충대 주변 한 음식점 주인은 “보충대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걱정”이라며 “입영장병과 가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06보충대가 해체돼도 다시 군사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620@kyeonggi.com

의정부 306보충대 해체 기사⁶

로 했다.”는 것이다.⁷ 이 소식을 접한 식당가 주민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다. 첫 번째 반응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⁶ 「북적이던 의정부 입대 풍경 사라지나」, 『경기일보』 2013년 11월 21일.

⁷ 「보충대 입영 역사속으로」 2014년 해체 검토, 『연합뉴스』 2012년 11월 11일.

면담자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306(보충대)이 딴 데로 옮긴다(해체한다).
그 얘기가 있던데.

이용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면담자 혹시나 이게 떠난다면(해체한다면) 하긴 뭐 사장님은 워낙 단골들이 많아서 전혀 지장은 없
으시겠네요.

이용호 제가 여기는 뭐.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내려보낸다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면담자 작년 그 신문 뒤져보니까 11월에.

이용호 아, 나왔어요. 텔레비(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가든 안 가든 저는 상관이 없고.

이용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은 단골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306보충대가 이전한 이후에 식당을 개업했기 때문에 부대 이전 당시 토지를 수용당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식당의 경우, 화요일 대목을 못 보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식당 영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식당들의 경우, 306보충대가 이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역시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있어, 306보충대가 이전한다하더라도 식당 유지에 별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306보충대가 떠나면 우리는 다 굶어죽게 생겼다.”고 말한다. 이는 그만큼 306보충대 입영일 대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306보충대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경험이 있는 식당 주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이미 빼빼⁸ 등 미군 기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2013년 12월 1일 자로 306보충대를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⁹ 306보충대가 용현동으로 이전한지 25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보충대가 해체되면 보충대 대신 병무청에서 직접 장병 부대 배치를 하여 장

8 1953년 고산동 일대에 캠프 스탠리가 주둔하면서 인근 빼빼마을에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9 「호국 요람」 306보충대 5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연합뉴스』, 2013년 12월 5일.

병들이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통보받은 부대의 신병교육대로 바로 입소하게 된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12월 2일 열린 군·관 실무협의회에서 306보충대 자리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건의한 상태이며, 이에 대하여 군은 교통 여건으로 인하여 훈련장 이전보다는 다른 군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06보충대가 해체되면 1989년 부대 이전시 토지를 헐값에 수용당하였던 원주민들과 이 부지를 군용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군과 시 당국 간의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6보충대 앞 식당가 사람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아픔과 세상살이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이곳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부대 진입로 확장이나 부대 이전 소식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식당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도로 확장 공사 및 부대 해체 후 토지 활용 문제와 관련된 일들이 잘 해결되어, 이들이 웃으면서 좋은 음식으로 손님을 맞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민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도시 속의 산업단지, 용현산업단지

1. 용현산업단지의 선정과 입주

용현산업단지는 1995년 1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조성된, 경기 북부 최대 공업 단지이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지역의 행정, 문화, 교통, 교육의 중심지이자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축으로서 우수한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며, 서울을 비롯한 포천, 동두천, 양주, 남양주 등 시장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 동부를 관통하는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경우 도로의 북단인 서울 상계동 시계에서 10분대에 산업단지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지역에 지방산업단지가 설립된 것이다.

용현산업단지는 원래 1998년까지 조성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다. 1996년 10월 15일자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1998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시설 용지 25만 8,807㎡, 지원시설 용지 6,209㎡, 공공시설 용지 9만 3,575㎡ 등 모두 35만 8,591㎡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조립 금속 및 기계 장비 업체 39개, 식음료 업체 18개, 섬유 및 의류 업체 14개 등 모두 71개의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특히 의정부시에서는 시 직영으로 2,942㎡의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 임대 또는 분양할 방침이었다.¹

1 「의정부 용현동에 대규모 공단」, 『매일경제』 1996년 10월 15일.



용현산업단지 전경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분양의 저조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97년 분양 당시 IMF 구제금융 사태가 가져온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과 평당 107만 원으로 산정된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들이 최초 분양 공고가 난 1997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한 곳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² 이에 의정부시는 1999년 10월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 설치비인 도비 28억 원을 포함한 시 예산 68억 원을 지원하여 분양가를 63만 3,000원으로 낮추었다.³

2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분양 전무」, 『매일경제』 1997년 10월 1일.

3 「용현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연합뉴스』 1999년 10월 12일.

〈표 1〉 용현산업단지 기본 계획상의 업종별 배치 계획

(단위 : m² · 개)

| 최초 | | | 변경 | | |
|-----------|---------|-----|-----------------------|---------|-----|
| 업종 | 면적 | 업체수 | 업종 | 면적 | 업체수 |
| 섬유 · 의류 | 55,093 | 39 | 섬유 · 의복, 조립 · 금속 등 | 207,483 | 101 |
| 조립 · 금속 등 | 141,389 | 62 | | | |
| 아파트형 공장 | 2,940 | - | 아파트형 공장 | 2,940 | - |
| 계 | 210,423 | 101 | 계 | 210,423 | 101 |

출처 : 「용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09-0013호, 2009년 3월 6일)」, 붙임「용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비고 : 위 계획은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입주 업체 수는 입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용현산업단지에서 ‘쥬지티빈스’라는 커피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시정(1962년생) 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면담자 용현산업단지 처음 오실 때 의정부시청에 사장님이 먼저 제의를 하신 건가요? 들어가겠다고.

노시정 그렇죠, 용현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때 분양가가 좀 높았어요. 평당 한 100만 원이 좀 넘었죠. 넘었는데 내가 (시청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분양은 우리가 빨리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시에서 딱 약도를 내놓고, 좋은 자리를 고르래요. 롯데마트가 있었어. 노동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를 낮추는 게 결정이 됐다. 아직 공표는 안했다.” 분양가가 63만 원인가 얼마인가? 65만 원인가? 좋은 자리를 하나 고르래. 그래서 골랐죠. 롯데마트 옆에가 상당히 자리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었죠). 네.⁴

이처럼 부지를 조성하고도 분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던 의정부시에서는 분양가를 낮추어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입주 조건을 종전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서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 완화하기도 하였다.⁵ 분양이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1999년 11월까지도 분양률이 27%에 머물러 있었

4 2013년 7월 31일 용현동 쥬지티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5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전망」, 『연합뉴스』 1999년 11월 24일.

6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건축규제 완화 - 10년의 한(恨) 풀고 새로운 도약의 길 열다」, 『의정부인터넷뉴스』 2011년 4월 20일.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담당 부서인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 성북구 삼양동 등 용현산업단지에 입주할 만한 기업이 있는 곳을 찾아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완화와 시청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2000년 이후 단지 내 부지가 조금씩 분양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노시정 씨가 분양을 받을 당시 분양가는 이미 평당 63만 원으로 낮춰져 있었으나, 여전히 분양은 저조하였다. 노시정 씨가 입주신청을 하기 위해 시청에 방문했을 때, 자신보다 먼저 입주를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에서는 그에게 산업단지의 지도를 보여주며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노시정 씨가 2001년 공장을 건설해 입주하였을 당시, 용현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10~15개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처럼 저조한 분양의 결과, 용현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은 2007년에 조성이 마무리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열악한 기반 시설과 산업단지 내 위치한 문화재와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에 부지를 분양받아 그해에 입주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유앤아이(주)'의 한 관계자는 입주 당시 이 지역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입주 초기 공장 주위에 전기를 공급할 전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전신주가 세워진 다른 공장에서부터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다 쓰기도 하였으며, 인터넷 선로도 가설되어 있지 않아, 주문 업체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용량에 한계가 있는 어룡배수지만으로 이를 충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에 입주한 기업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며 용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경기도 기념물 제37호)'와 관련된 문제가 차차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입주 초기 이 문화재와 관련한 별다른 제약이 없었으나, 2002년 2월 25일 「경기도 지정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며 주변 건축물이 고도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도 지정 문화재의 외곽 경계 300m 이내의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문부 장군묘 인근 300m 내에 위치한 공장들은 높이와 층수와 관련한 건축 행위가 제한되며 공장 개축 및 증설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⁶



정문부 장군 묘

2. 기업 유치 노력과 입주의 시작

현재 용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미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 몇몇은 당시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그리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 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그 중 용현산업단지에서 커피 관련 업체인 (주)지티빈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시정 씨는 후자에 속한다.

노시정 씨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전북 지역에서 지내다, 군대를 제대하고 공무원에 임용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노시정 씨는 공무원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필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생을 따라 필름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그는 서울 송파 지역에서 독일의 '아그파(Agfa)' 필름 국내 총판 업체를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그는 의정부 용현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추

진하였다. 노시정 씨가 용현산업단지에 입주를 신청해 분양을 받고 공장을 건설한 비슷한 시기에 의료 기기 제조 업체인 유엔아이(주) 역시 이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현재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시정 씨와 입주부터 유엔아이(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⁷는 입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면답자 그럼 분양받으신 것은 2000년 이전이시겠네요.

노시정 그렇죠, 분양은 1998, 1999년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OOO : 1999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했거든요] 2001년이 우리가 저기를 했으니까. [OOO : 유엔아이같은 경우는, 2000년도 1월 달에 분양을 받았어요] 우린 1999년도가 맞을 거예요.

면답자 그럼 굉장히 빨리 받으신 거네요.

노시정 빨리 받았죠, 빨리 받았는데 좀 늦게 들어왔죠, 입주를. 건물을 좀 늦게 지었죠.

면답자 그때 (서울) 송파에서 아주 잘 나가고, 그러셨을 때 같은데.

노시정 그렇죠, 이제 임대해서 쓰니까. [면답자 : 아, 임대하셨어요?] 임대료면은 여기 뭐 완전히 웅자반아서 땅을 사서 그 이자보다도 임대료가 더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노시정 씨가 이 곳을 택한 데는 임대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입주 직전 그가 사업체를 운영하던 서울 송파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임대료가 비싼 반면, 용현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부지의 분양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을 시에 그 대출 비용이 송파의 공장 임대료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다. 매마침 용현산업단지의 분양가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평당 63만 원 정도가 되자, 그는 마침내 이 지역에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다.

면답자 다시 입주 초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입주 초기 여기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노시정 여기는 좀 벌판이었죠, 산업단지는 산이었고, 저 앞쪽으로는 지금이야 아파트가 있지만 논이었죠, 논. 그때 이제 조성할 때 기억이 나요, 조성할 때 땅을 보러 오는데 길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오는 길을 장화를 신고 들어와 가지고, [OOO : 흙탕물이었어, 비포장 도로.] 그런 상

7 구술자가 개인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이하 구술 자료에서 실명 대신 OOO으로 표기하였다.



용현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1990년대)

황이었고 공간이 조성이 됐는데 초기에서 분양이 전혀 안되니까, 의정부시에서 분양가를 내려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한 번에 경쟁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분양 안되는 땅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들도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서서히 산업단지가 메꿔지는 방식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2001년 노시정 씨가 대표로 있는 (주)지티빈스가 입주할 당시, 용현산업단지는 입주한 업체들이 거의 없어서 맨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황량한 곳이었다. 이 산업단지에 다른 기업들보다 비교적 빨리 입주한 기업 중 하나인 유엔아이(주)는 노시정 씨가 운영하는 업체보다 부지 분양은 늦게 받았지만, 공장을 빨리 지어 2000년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이 업체는 고도상 산업단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공장 준공 당시 공장 마당에서 바라보면 그 앞은 아무 것도 없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며 하나둘씩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해, 지금은 빈 공간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공장들이 가득 들어찼다.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이 하나둘씩 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기반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초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언급한 전기, 통신, 상수도 공급 등의 문제 외에 좁은 도로와 풍암으로 이루어진 지반도 업체 운영에 문제가 되었다. 이 산업단지에 들어선 업체들 대부분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자재와 생산품을 실어나르는 큰 트럭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공단 내 도로의 폭이 좁고, 조성 당시 약속된 도로가 시공되지 않아 수송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인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시에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 예산 부족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조성된 부지의 지반에도 문제가 있었다.

면담자 아. (웃음) 정말요? 여기 다 황토였나요? 맨바닥?

○○○ 언덕을 갖다가 산을 깎아서 조성해 놓은 토지에 조성해 놓은 잔디기 때문에 비탈지게끔 이렇게 돼 있죠.

노시정 돌이잖아요 바닥이.

○○○ 풍암이에요 풍암. 푸석푸석한 돌 있죠? 그걸 풍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 깨지지도 않아요. 흙 같으면 피내면 되는데, 애 먹었어요. 임반이 나와 가지고.

면담자 지을 때도 고생하셨겠네요.

○○○ 그렇죠, 지질 같은 거 따져서 파일(pile) 박아야 되고.

공장 안에 무겁고 큰 기계들을 들여놓아야 하기 때문에, 공장 건설에 있어서 튼튼한 지반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풍암 지대로, 파일이나 기둥을 박을 때, 잘 박히지 않거나, 박힌다 하더라도 잘 부서져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공장 건설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공장 건설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애로 사항에도 불구하고 용현산업단지는 낮은 분양가와 시 공무원들의 유치 노력에 힘입어 2007년 입주가 완료되었다.

3. 용현산업단지의 장단점

최초 계획보다 늦게 입주가 완료된 용현산업단지는 몇 가지 장점과 또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용현산업단지가 가진 첫 번째 장점은 편리한 교통이다. 이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 가운데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으로 여러 간선도로가 뚫려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 운송이 가능하다.

면담자 음, 교통은 괜찮으신 건가요? 이쪽이? 아무래도 수출입하고 그러시면 큰 도로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동부간선도로도 연결돼 있구요.

노시정 뭐 조금 나오면 순환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있고 전혀 뭐. [○○○ : (도로 여건이)좋아요.]

면담자 입주하실 때부터 동부간선도로가 뚫려있었나요?

○○○ 그렇죠, 그 당시에는 뚫려있었죠.

노시정 아니 순환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톨게이트에서 여기 오는데 20분 그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 : 교통은 요충지죠.] 부산에서 올라오면 인천보다 훨씬 가깝죠.

면담자 그렇습니까?

노시정 그렇지. 인천은 부산에서 올라오면 한참 더 가야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

용현산업단지의 관계자들은 아마도 부산에서 물건이 올라오면, 인천으로 가는 것보다 의정부로 오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동부간선도로와 서부순환로에서 산업단지가 그리 멀지 않아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진출입이 용의하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으면 20분 이내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단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좁은 도로들을 통과해야 하고, 아직 시에서 약속한 도로가 뚫리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편리한 교통 때문에 기업인들 사이 공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용현산업단지가 가진 두 번째 장점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노시정 그리고 의정부 산업단지에 정말로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력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모집 광고를 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쉽게 모집이 가능 한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장점이예요. 그러나 고급 인력은 틀리죠(다르죠). 유엔아이처럼 박사급을 원한다든지 특별한 인력을 원할 경우에는 틀리지만(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생산 인력들은 의정부 용현산업단지만큼 좋은 곳이 없다. [면담자 : 이거는 참 신기한데요.], [○○○ :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주변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산업단지니까.] 도심 안에 있어요. 도시 안에 센터가 있는 거예요. 산업 단지가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면담자 그렇구나.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안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 주변은 항상 구인 광고가 항상 붙어 있어요. 전봇대마다. 얼마나 사람이 모집이 안됐으면 날마다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쉽게 사람을 구하신다니까 저는 신기해요.

노시정 말 그대로 도심 안에 있어요.

면담자 아, 그러니까 소비도시인데 소비도시 안에 생산 단지가 들어오니까.

노시정 그런데 고급 인력들은 (채용이) 원활하지가 않죠.

면담자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 북부에는 산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2차 산업들이. 그래서 여기다 공단을 세우면 사람 수급하는 게 문제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네요. 제가 생각한 거 하고는.

○○○ 큰 산업단지는 아니니까 작은 산업단지니까 그 정도 수요 충족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어요). 하이레벨(high-level)의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딴 데보다 원활하지 않지만.

노시정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들이 반월이나 안산, 인천 그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황폐화가 됐어요. 땅값들도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떨어진 게 없어. 여기. 산업단지에 들어오려는 회사들이 많아요.

경기 서남부 지역과 달리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그간 이렇다 할 만한 공업단지가 없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휴전선과 가까워 대부분의 부지에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만 해도 미군 기지를 비롯한 많은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업단지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 두 번째는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 조건 때문이다. 안산의 반월·시화공

단의 경우 바다를 간척해 공단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었지만, 산지가 대부분인 경기 동북부에서는 이런 큰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의정부나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 등 경기 동북부의 도시들은 모두 군부대나 개별 군인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소비도시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3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층이 지역 내로 눈을 돌리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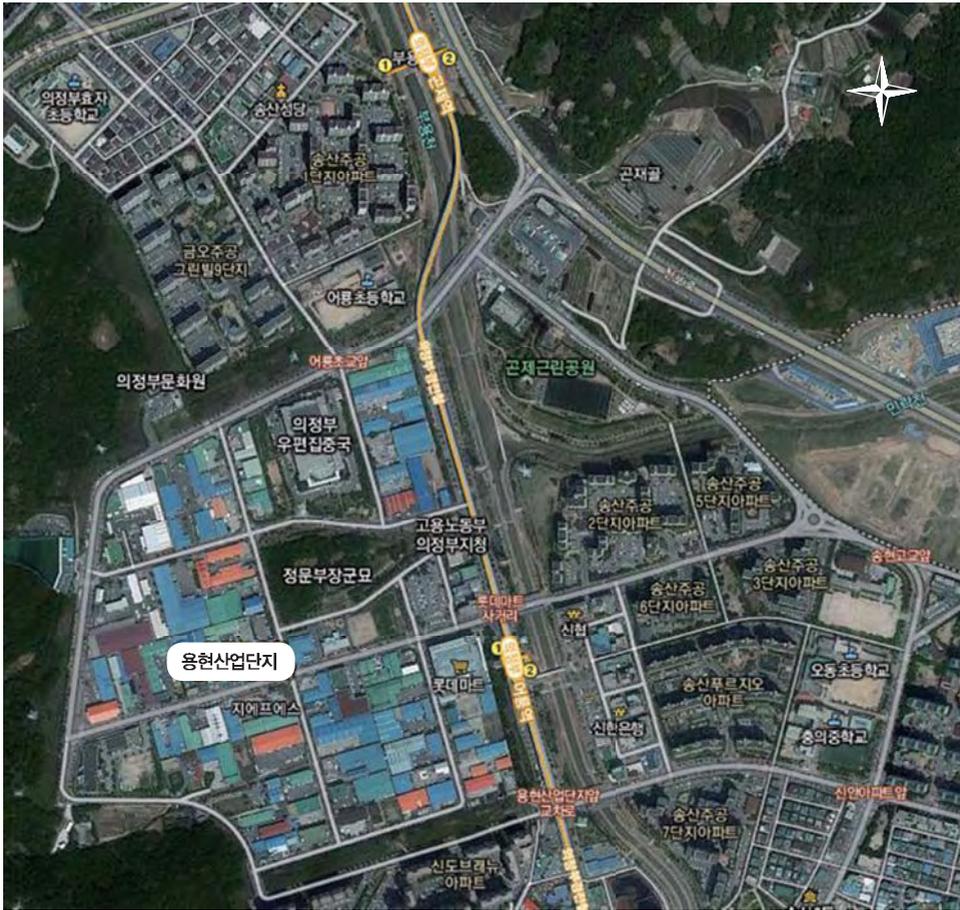
용현산업단지가 가진 교통과 인력이라는 커다란 장점 한편에는 크고 작은 단점들도 존재한다. 첫 번째 단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에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내에 도 지정 문화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입주 업체들은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던 단계에는 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단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산업단지가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면담자 이거 말고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

노시정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공해는 아니지만 (저희 공장의 경우) 연기가, 커피 볶는 연기가 날 수 있어요, 많이 나죠. 어떤 때는, 주변이 아파트다 보니까 공해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항상 보고 있으니까, [OOO : 연기 나요?] 커피 볶는 데 연기 나죠? [면담자 : 커피 볶는 냄새도 같이 날텐데, 냄새는 안 맡으시고,] 멀리서 보니까, 산업단지니까 다 공해(라고 생각)하지. (웃음) 주거지가 다 밀접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감시를 하고,

면담자 아, 그게 문제죠.

노시정 그리고 여기 주위에 노인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면담자 : 이를 갈아요?] 어디에서 뭐(연기가) 나는데, 가서 데모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점은 주거지에 너무 근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해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위성 지도로 본 용현산업단지⁸

용현산업단지는 서쪽과 북쪽이 산으로 막혀 있는 반면, 남쪽과 동쪽이 아파트 단지
와 맞붙어 있다. 이처럼 아파트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기와 같이 공해로 의심되는 사건
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용
현산업단지에서는 타 산업단지에 비해 민원을 자주 접하고 있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용현산업단지가 가지는 입지상의 장점이 더 크기 때문

⁸ 다음 지도 홈페이지(<http://map.daum.net>) 스카이뷰.

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용현산업단지로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산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더 이상 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4.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용현산업단지의 특징 중 하나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다는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섬유·의류, 조립·금속, 기계 장비, 전자 등 1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섬유·의류 업체로 36개 업체에 73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에 전기·전자가 27개 업체에 525명, 석유화학이 10개 업체에 16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 109개 업체에 1,99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⁹ 이는 단지 내 1개 회사에 평균 20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다른 공단에 비해 적다는 점 또한 특징 중 하나이다. 용현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인 근로자는 섬유 공장 쪽에서 몇 명을 본 것 외에 이 산업단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이나 인천의 남동공단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이 산업단지가 도시 내에 위치해 있어 단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인력 수급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경기 북부에 이렇다 할 산업단지가 없는 데다, 소비도시인 의정부 시내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다른 산업단지와 인력 수급을 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한국인만으로도 인력이 쉽게 충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인지 상호 간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단지 내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와 의정부시와 대화하기 위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몇몇 뜻있는 기업인들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중 한 사람이 현재 용현산

⁹ 의정부시, 『의정부 용현일반산업단지』, 2012.



한국을 대표하는 완구업체 아카데미 과학

업단지 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시정 씨이다.

당시 아날로그 필름을 취급하던 노시정 씨는 이미지 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며 자신의 사업이 사양길로 들어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현산업단지 기업인 협의회를 발의하고 입주 기업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인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분이 모든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업주들을 설득해 기업인협의회를 발족시킨 분”이라고 노시정 씨를 소개하였다. 노시정 씨를 비롯한 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들이 설립 계기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기업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기업인협의회 창립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기업인협의회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기업인협의회가 만들어졌는지, 그때 총무이사로 활동하셨다 하시니까.

노시정 계기가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산업단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또는 의정부사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합니다. 조성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법 그대로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애초부터 입주하는 시작부터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이 입주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규제를, 잘 하자고 규제를 하겠지만, 결국은 기업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도 좀 있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를 조성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우리 뜻도 의정부시에 전달을 해서 산업단지가 잘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산업단지 안에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사유재산 침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화재 앞에 건물들을 2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건물을 지어야 기업 활동을 하든 그런 걸 하죠. 그러면 개인이 의정부시에 가서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아. 법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우리 산업 활동을 잘하자는, 규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풀어야 할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산업단지를 블록, 블록(구역을 나누어) 하나의 업종을 묶어 놔요. 말이 안되죠. 그래서 좀 그걸 풀어 달라. 산업단지 안에 소음 없고, 공해 없는 그리고 오염이 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은 어떤 업체든지 들어와서 어디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섬유업체가 들어오면 저 블록에서 자리가 남아 들어오는 거야. 딱 데는 자리가 났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그래서 업종 제한도 기업인협의회에서 풀었죠. 또 그런 기업인 협의 활동, 그런 기업인들의 이익이라든지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서 기업인협회를 조성을 했죠. 지금은 많은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고 차기에정도 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업인협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시정 씨의 말처럼, 기업인협의회는 의정부시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노시정 씨는 입주 기업인들이 이 같은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하였지만, 몇몇은 말도 못할 정도로 이를 반대하였고, 대다수 기업인들도 이 단체의 설립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노시정 씨 등은 입주 업체의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였고,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인 대부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면담자 아. 네.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초기에 기업인협의회 만드실 때 시장님하고 아까 그 회장님(㈜토펅스 김재문 회장) 두 분이서 주도하신 거세요?

노시정 꼭 그렇지는 않구요. 물론 기업인협의회가 탄생하게 된 기본적인 기초는 산업단지 입주 사

장님들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 산업단지 만들었는데 왜 협의회조차 없느냐? 그러면 그 산업단지 사장님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다만 그런 생각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몇몇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했죠. 내가 해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봉사 좀 해라. 봉사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펙스' 사장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영섭 사장도 그렇고. [OOO : '신영섭유' 신영섭 사장님.], [면담자 : 신영섭유요?] 네, 그 세 사람이 일일이 방문하고 가입시키고 기업인협의회 초석을 잘 만들어 놨다 봐야죠. 홈페이지도 만들고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규제 완화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면담자 그때 방문하시면 사장님들이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노시정 대부분은 흔쾌히 했는데 몇몇 사람은 완전히 무슨 이상한 사람 오듯이 쳐다보곤 했죠. 지금도 그래요. (웃음)

노시정 씨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8년 11월 기업인협의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참여한 것은 아니며, 2013년 현재 산업단지 내 132개 기업 중, 70%에 해당하는 99개의 기업만이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설립 초기 5개의 분과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공동 구판 사업, 기업 규제 개혁 사업, 복리 증진 사업, 홍보와 봉사 사업, 기타 사업이 그것이다. 그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역시 기업 규제 개혁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와 관련된 규제의 완화 요구였다. 기업들의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된 2003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며 문화재 주변에 공장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자, 기업인협의회가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단일한 창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기업인협의회는 의정부시와 더불어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4월 7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규제 완화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건물의 중·신축과 관련하여 정문부 장군묘 경계 100m 내 구역은 종전 '현상유지', 즉 중·개축 불가에서 '전·측면은 최고 높이 11~14m(3층) 이하, 후면은 17~20m(5층) 이하'로 문화재 경계 100~300m 이내의 구역을 거리별로, 또 종전 '14~17m(4~5층)' 이하에서 '최고 높이 17~20m(5층)' 이하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창립 총회(2008년)

에 따라 그간 공장 개축 및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인근 53개 업체의 건물 증축이 가능해졌다.¹⁰

이 외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업종과 업종별 구역에 제한한 기본 계획 역시 입주 기업인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었다. 용현산업단지는 기본 계획상 금속·조립, 섬유·의류, 식음료 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의 구역도 기본 계획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그대로 따를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싶은 업체의 수가 줄어들뿐더러, 그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기업인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 1월 의정부시 지역경제과와 경기도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9년 3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용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업종별배치계획변경을 이끌어내며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구역에 관계없이 산업단지 내 어느 곳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건축규제 완화 - 10년의 한(恨) 풀고 새로운 도약의 길 열다」, 『의정부인터넷뉴스』 2011년 4월 20일.

‘정문부 장군 묘역’ 고도제한 완화

(도기념물 제37호)

道, 의정부 용현동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경기도 기념물인 의정부 용현동 정문부 장군 묘역 주변 용현산업단지 건축물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부시 용현동 379의 32 도 기념물 제37호 정문부 장군 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1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묘역 울타리 내 현상보존구역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만 허용된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

인 2구역은 평슬래브 건물은 3층·최고 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건물은 3층·14m 이하만 허용된다.

또 100~200m 이내인 3구역은 평슬래브 5층·최고 높이 17m 이하, 경사지붕은 5층 이하·최고 높이 20m 이하이며, 300m 이상은 경기도 문화재 조례규정에 따른다.

이는 종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는 현상 유지 및 기존 건물 높이 이상 재건축때 심의, 100~200m 이내는 4층·14m 이하, 200~300m는 5층·17m 이하로 규제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문화재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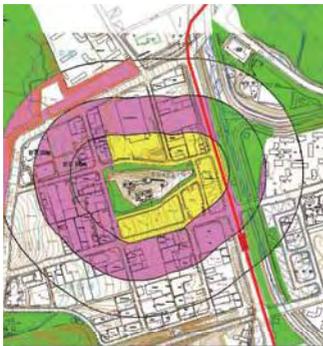
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정문부 장군 묘역 남쪽 지원시설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체를 구역 구별 없이 고도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산업단지 분양 당시 문화재 규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지난 2003년까지도 규제가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해 규제하는 바람에 공장 증·신축 등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고도제한으로 용현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용지 등 1천500㎡는 공지로 방치되고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용현산업단지 건축 고도제한 완화 관련 기사¹¹



| 구분 | | 범례 | |
|-----|--|---|---|
| | | 허용기준 | |
| | | 평슬래브 | 경사지붕(3:10 이상) |
| 1구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보존구역(건물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허용 | |
| 2구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4m 이하 (3층 이하) |
| 3구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20m 이하 (5층 이하) |
| 4구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함 | |

2011년 규제 완화 전후 정문부 장군묘 주변 건축물 높이 관련 규제의 변화¹²

11 「정문부 장군 묘역(도 기념물 제37호) 고도제한 완화」, 『경기일보』 2011년 4월 18일.

12 문화체육관광국. 「의정부시 정문부장군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바람

용현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최고의 산업단지로서 입주 기업인들은 이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의 경제 발전과 나눔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2013년 시에서 시 승격 50년을 맞아 진행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교류에도 제 몫을 다 하고 있다.

노시정 우리 의정부시 50주년 그때도 많이 기부들 했죠. [○○○ : 그때도 한 2천만 원어치.] 기업인들이 그런데는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업들은 물품들이 있어요. 좋은 물품들이 본의 아니게 판매되지 않고 쌓여 있는 것들은 끌어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도 하고.

○○○ 올해가 의정부시 시 승격 50주년 되는 행사를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의정부시에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가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것 중에 요 의정부시장님께 방문했을 때 같이 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품목이 이겁니다. 요거는 '유엔 아이'에서 낸 거구요. 이것은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낸거구. [면담자 : '아카데미과학'에서. 아이구.] 거의 한 천만 원어치 기증을 했습니다.

용현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은 의정부시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네팔 휴먼스쿨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의정부 출신 산악인 엄홍길의 히말라야 고봉 완등을 도운 현지 세르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국제적인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히말라야 고봉 16좌와 동일한 수인 16개의 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에 진행한 네팔 산티푸르 휴먼스쿨 스리 칼전저티초등학교 기공식에는 기업인협의회 회장이 동행하여 학용품 250만 원, 장난감 150만 원, 의류 600만 원 등 1,000만 원가량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드러나지 않게 사회봉사와 기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 용현산업단지의 기업인들은 산업단지가 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지역 내 봉사와 나눔의 실천은 물론이며, 용현산업

단지가 소비도시 내에 들어선 유일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지방 재정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기업인협의회가 조직되면서 시 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기업인들이 더욱 더 기업하기 편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그래서 이 협회를 잘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시 당국과 기업이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나가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민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議政府市史 5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 찾아보기

㉠

- 가능1동 153
- 가능1리 57
- 가능2동 180
- 가능2리 57
- 가능3동 69
- 가능국민학교 250
- 가능동 69, 90, 93, 150, 156, 160, 171, 177, 181, 182, 192, 204, 285, 286, 295, 296, 332
- 가능역 318
- 가능초등학교 256
- 가래울 57, 83
- 가외말 37
- 가운대말 37
- 가재울 57
- 가갯말 38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87
- 갓바위마을 45, 364, 366, 374
- 강지형 127
- 강창신 127, 128, 130, 137, 139, 140, 162, 164, 191, 208, 355
- 개발제한구역 51, 65, 114, 178, 184
- 검은돌마을 34, 36, 38, 41, 49, 51, 60, 114, 355, 364, 366
- 결혼이주여성 273
- 경기도북부여성회관 68, 182
- 경기도 전통증가 1호 223
- 경기도청 북부청사 199, 208
- 경기 북부 행정타운 159
- 경기상공신문 158, 178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187, 199, 208
- 경기통계사무소 의정부출장소 68
- 경민대학교 171
- 경민학원 286
- 경원선 83, 126, 130, 136, 161, 197
- 경원식당 330, 337, 338, 347
- 경진철 40
- 경주 최씨 34
- 고령 신씨 34, 36, 48
- 고령 신씨 문충공 종약회 50
- 고령 신씨 문충공파 34, 38, 40, 46, 50
- 고병빈 307, 312, 314, 316, 323, 324
- 고산동 40, 42, 45, 48, 52, 60, 108, 111, 114, 119, 181, 216, 220, 225, 286, 289, 296, 352, 355, 357, 374
- 고산리 175
- 고산보금자리주택단지 108
- 고산초등학교 132
- 고흥안경원 147
- 공영주차장 78, 80
- 곽일준 59, 66
- 광재병원 125
- 광흥시장 69
- 교의선 철도 161
- 구성마을 35, 36, 38
- 구시가지 68, 124, 144, 147, 157, 183
- 구획정리 사업 68
- 국가안보신문 145
- 국군 7사단 136
-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40
- 국제결혼 343
- 군사보호시설 205
- 군사시설보호구역 114, 117, 181, 184
- 궁말 57
- 권병두 354
- 권석주 350, 354, 356, 358, 360, 362, 365, 367
- 귀락마을 234, 236, 248
- 그린벨트 162, 179, 180, 201, 205, 223, 249
- 금오국민학교 83, 84
- 금오동 60, 83, 107, 118, 176, 180, 182, 186, 285, 330
- 금오리 57, 61, 151, 330, 332
- 금오지구 184
- 기업인협의회 398, 406, 408, 410
- 기제사 46, 48, 221, 225, 291
- 기지촌 181
- 김규호 144, 146, 148, 150, 169, 172, 178, 193, 194, 196, 198, 205, 209
- 김덕열 134
- 김삼용 176, 186, 188
- 김양남 47
- 김영태 57, 70, 72, 90, 92
- 김용남 233, 236, 238, 240, 242, 243, 244, 246, 249
- 김인순 215, 219, 220, 222, 228, 230
- 김주 47
- 김진수 60, 62, 83, 93, 96, 98, 103
- 김창환 76
- 꿈틀자유학교 380

㉡

- 나눔의 샘 295
- 낙양동 35, 52, 352

낙양동 원주 원씨 215
 낙양리 57
 남구 56
 남양주 91, 115, 125, 179, 354, 357
 남이순 374, 379, 380, 382, 384
 노동복지회관 68, 74, 78, 80
 노시정 394, 396, 398, 402, 405, 410
 노인복지회관 74, 78
 노해면 82, 91, 115, 143
 녹양동 34, 57, 69, 83, 150, 155, 177, 181, 182, 202, 204, 285
 녹양동 버들개마을 56
 녹양동성당 267
 녹양동장 56
 녹양리 57
 녹양초등학교 250, 259, 260
 농가 232
 농업 232
 농업기술센터 70, 369
 농촌 232, 236, 238
 농촌지도소 70, 162
 농협중앙회 128
 높으뵈 350
 높으뵈마을 355
 능골 57, 83
 능안마을 35, 36, 39

㉔

다락원 56, 324
 다례 체험 223
 다문화 277, 280
 다문화가족 266, 281, 282
 대동이발관 125
 대림산업 60
 대중 214
 대중가 214
 대추나무 집 250, 263
 대트 매수 사업 65

대한청년단 132, 134
 대형 마트 317, 318, 325, 326
 덕릉고개 132
 덕수봉 39
 도봉구 174
 도봉산 107
 도시 개발 사업 63, 65
 도시개발추진위원회 64, 69
 도시계획 42
 독바위 52
 독바위마을 34, 36, 38, 40, 44, 49, 59, 60, 86, 108
 동구 56
 동남장미1차아파트 184, 187
 동두천 75, 82, 91, 94, 109, 111, 114, 124, 141, 146, 159, 161, 176, 191, 199, 306, 313, 318, 328, 330, 392
 동두천시 112, 206
 동막 57
 동부간선도로 392, 400
 동족 마을 40, 46, 52
 동창회 100
 동창회보 102
 두레방 287, 288, 295, 298, 300, 302
 두레방 이야기 299
 둔뱀이 57

㉕

로비야 울다 267, 272, 274, 277, 281
 롯데마트 394
 류기정 36, 38, 41, 42, 51, 60, 69, 114, 117
 류세구 34, 36
 류세구 묘역 49

㉖

마리아 테일 267, 270, 272, 274, 276, 279, 280, 282

만가대 42, 57, 72, 137
 명물찌개 거리 340
 모내기 71, 72
 목장 239, 243
 묘제 47
 문예회관 77
 문중 214
 문혜림 295, 296
 문화재 보호구역 395
 문화상 254
 미 1군단 191, 330
 미 1군단 사령부 58, 74, 150
 미 1군단 수송부 151, 154
 미 2사단 사령부 171
 미 5군단 군사고문단 157
 미 7사단 129
 미 8군 60
 미 9군단 137
 미 10군단 137
 미군 기지 이전 공사 67
 미군 기지 이전 사업 64
 미군 비행장 57
 미우미호텔 168
 미 제2보병사단 286
 민락 2지구 53
 민락골 351
 민락동 34, 40, 47, 53, 57, 69, 74, 78, 86, 93, 106, 186, 218, 288, 352
 민락동 여양 진씨 215
 민락리 57
 민락약수터 39
 민락지구 184, 352

㉗

박세당 216
 박수고개 357
 박용우 216, 219
 박종휘 76

박태규 151, 154
 박해 249
 반남 박씨 34, 216
 발곡 57
 발이슬리 83
 배 연구회 366, 369
 배영국민학교 84
 배영초등학교 90
 백학 102
 백학봉사단 101, 103
 비들개마을 83
 버스터미널 314
 별말 34, 57
 범골 56
 베드타운 99, 114, 175, 177, 178, 207
 별내[C 107
 별내국민학교 86, 130
 별내면 83, 91, 127, 130, 175, 352, 354, 357
 별고개마을 374
 보금자리주택지구 40
 보영식당 338
 보훈회관 145
 본죽양 57
 본민락 37, 57, 74
 본민락마을 35, 39, 40, 44, 57, 69, 78, 86, 88, 93, 106, 108
 본지일 57
 봉제사 214
 부대고기 볶음 331, 335
 부대고기 요리 331, 338
 부대찌개 279, 328, 330, 336, 338, 340, 343, 344, 346, 348, 382
 부대찌개 거리 328, 330, 336, 339, 340, 346, 348
 부대찌개 골목 263, 281, 338
 부용산 50, 364
 북구 56
 북부상공회의소 179
 불천위 46
 불천지위 48
 비넬사 60
 비상대책위원회 40
 빼빼 37, 51, 72, 138, 165, 390
 빼빼마을 60
 빼빼이주대책위원회 298
 人
 사기막 132
 사당 48, 51, 52
 사당제 221
 사패산 107
 산곡동 34, 37, 39, 41, 44, 59, 86, 111, 114, 191, 208, 352, 357
 산곡리 127, 130, 137, 162, 175
 산곡저수지 38
 산북리 126
 산신제 40
 산업 단지 201
 산제사 39
 삼귀 57
 삼귀마을 35, 351
 상가번영회 311, 314, 320, 323, 324
 상계동 392
 상금오 57
 상나무집 338
 상설 시장 308, 310
 상인대학 316, 321, 322
 새말 57, 83
 생태공원마을 244
 서계문화재단 223
 서계 박세당 고택 체험프로그램 223
 서낭당 제사 39, 45
 서림예식장 237
 서부순환로 400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400
 성골 373
 성골길 374, 386, 388
 성골마을 380
 성모병원 186, 188
 소방서 68
 소종가 214
 솔피 352, 376
 솔피집 352, 376, 378
 솔피초등학교 352, 376, 381
 송동현 147
 송병익 308
 송산 330, 350, 356, 376, 378
 송산1동 352
 송산2동 352
 송산과수작목반 363, 366
 송산교회 352
 송산동 35, 69, 108, 182, 285, 351
 송산동 캠프 스탠리 296
 송산로터리 93
 송산리 151
 송산배 73, 350, 352, 357, 358, 360, 362, 364, 366, 368, 371
 송산배구클럽 352
 송산배 지원 사업 368
 송산배 직관장 360
 송산배친환경작목반 363
 송산사 47, 351
 송산석재 352
 송산성당 352
 송산역 187
 송산 영어교실 296
 송산지구 184, 352
 송양초등학교 53, 86
 송용득 125, 126, 130, 132, 134, 140, 143, 196, 201
 송죽 380
 송진호 62, 85, 88, 94, 99, 104, 117
 송추IC 107

쇠골 57
 수도권 전철 181
 수도권 전철 1호선 174, 181
 수락산 107, 130, 354, 357, 364
 수락작목반 365, 366
 순천환의원 75
 순화공고개 132
 순환도로 400
 숫돌고개 357
 승문당 93
 스포츠센터 80
 시·군 통합 추진 지침 111
 시둔면 124
 시민회관 74, 78, 80, 90, 181
 시설관리공단 74
 시의버스터미널 153
 시장환경개선사업 307, 321
 시정40년사 124
 시제 46, 49, 50, 52, 221, 223, 225, 226, 230, 291
 시화공단 401
 식량 증산 71
 신곡1동 182
 신곡2동 182
 신곡동 57, 69, 74, 83, 125, 182, 216
 신곡리 57
 신곡지구 184
 신세계백화점 181, 347
 신세휴 44, 50, 52, 59, 60, 86, 108, 109, 116, 118
 신숙주 34, 48, 50
 신숙주 묘 48
 신시가지 64, 68, 74, 158, 182, 198
 신시가지 개발 사업 63, 64, 66, 68, 80
 신시가지 조성 사업 64, 68
 신영섬유 407
 신영섭 407
 신영우 44, 61
 신중대 78
 신탄민 142, 306
 심대평 64
 심상진 364
 ○
 아랫골은골 57
 아랫말 57
 아랫선들 57
 아카데미과학 410
 안동 권씨 350, 355
 안병용 40
 애향회 145
 양경순 184, 186
 양암자 215, 218, 220, 225, 226, 228, 230, 290, 292, 294
 양주 43, 44, 47, 94, 111, 114, 162, 176, 198, 215, 216, 285, 306, 353, 354, 378, 392, 402
 양주경찰서 133
 양주공립국민학교 82
 양주공립보통학교 82, 86, 126
 양주공립소학교 82
 양주공립상소학교 82
 양주국민학교 82, 250, 252, 254
 양주군 69, 74, 82, 91, 112, 115, 124, 126, 132, 143, 175, 196
 양주군청 128, 133, 136, 333, 335
 양주면 34, 56, 124, 126, 128
 양주문화원 74
 양주밤 130
 양주시 115, 206
 양주식당 338
 양주여자고등학교 90
 양주여자중학교 90
 양지말 37
 여룡 57
 여룡배수지 395
 엄홍길 410
 여양 진씨 215
 역전 로터리 124
 영석고등학교 72
 오행식당 331, 332, 334, 336, 346
 오행집 332, 337
 오목 57
 오미락 338
 외국인 노동자 267
 의지인 110, 248
 용암산 357, 364
 용현동 42, 57, 184, 187, 201, 225, 294, 352, 373, 374, 376, 390
 용현동 산업단지 179
 용현리 57
 용현산업단지 352, 392, 394, 396, 398, 400, 402, 404, 408, 410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394, 405
 우시장 128
 우체국 128
 옷말 37
 원기영 206
 원선 47, 216
 원유선 216
 원주민 109, 144, 190
 원주 원씨 215
 원황 363
 월남민 142, 144, 158, 173, 190, 193
 뒀골은골 57
 뒀말 57
 뒀선들 57
 유명수 354
 유엔아이(주) 395, 397, 398, 410
 유양리 82
 유영남 287, 296, 298
 유천 47
 윤관희 354
 을지대학 180

을지대학교 119
 읍면동장출신동지회 81
 의고플프회 100
 의고농구회 100
 의고동창회 102, 104
 의고축구회 100
 의일동지회 187
 의정부1동 62, 74, 85, 90, 168, 180, 250, 263, 330, 340
 의정부1리 56
 의정부2동 63, 150, 171, 180, 202, 285, 347
 의정부2리 56
 의정부3동 145, 180, 307, 308
 의정부3리 56
 의정부4동 59
 의정부4리 56
 의정부 KSC 144
 의정부갑종농업학교 89
 의정부경전철 187
 의정부경찰서 338
 의정부고등학교 90, 92, 94, 100
 의정부고등학교 동창회 100
 의정부공업고등학교 89, 91
 의정부교도소 355, 357
 의정부 구 버스터미널 313
 의정부농업고등학교 86
 의정부농업기술지원센터 388
 의정부동 57, 84, 93, 156, 286
 의정부리 56, 69, 82, 124, 126, 196
 의정부 명물찌개 축제 340
 의정부문화회관 78
 의정부문화원 74, 76, 124
 의정부민자역사 318
 의정부버스터미널 153
 의정부 부대찌개 141, 332, 340, 381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341, 345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341
 의정부상이군경회 143, 206
 의정부 색소폰 동호회 324
 의정부서중학교 68
 의정부서초등학교 68
 의정부 수용소 128
 의정부시농업기술지원센터 380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7
 의정부시 대학생 모임 97
 의정부시민회관 77, 98
 의정부시설관리공단 78, 80
 의정부시 실례조사 156, 190, 196
 의정부시의 날 340
 의정부시청 99
 의정부시학생회 97
 의정부식당 338
 의정부 실내 병상장 80
 의정부실내체육관 102
 의정부실업고등학교 89, 92
 의정부여교 동창회 103
 의정부여자고등학교 90, 94, 100, 338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동창회 101
 의정부여자중학교 88, 90, 94, 100
 의정부역 60, 68, 88, 96, 125, 126, 129, 147, 158, 176, 185, 186, 209
 의정부예술의전당 77, 80, 281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267
 의정부읍 34, 56, 74, 124, 126, 128, 132, 134, 136, 144, 150, 152, 156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267, 278
 의정부 적십자봉사회 187
 의정부 제1공설시장 조합 308
 의정부제일시장 306
 의정부제일시장 상가변영회 318
 의정부종합고등학교 69, 89, 90, 92
 의정부중앙국민학교 62, 84
 의정부중앙초등학교 82, 84
 의정부중학교 86, 88, 91, 92
 의정부지명유래 350
 의정부지방검찰청 199, 208
 의정부지방법원 208
 의정부청년회의소 97, 98
 의정부초등학교 72
 의정부 톨게이트 400
 의정친목계 187
 이귀용 57, 58, 61, 74, 78, 81, 83, 109
 이만수 144, 157, 158, 166, 168, 173, 175, 176, 178, 182, 205, 206
 이민섭 77
 이병식 109, 110
 이복오도민회 경기연합회 142
 이성계 35, 351
 이성준 74
 이성혜 296
 이승만 148
 이영복 361
 이용호 378, 383, 385, 386, 388, 390
 이월용 319, 320, 322
 이종희 332, 337, 338, 340, 342, 344, 346, 347
 이주노동자 404
 이주민 109, 169, 190, 193, 202, 204
 이준계 38
 이종인 47
 이천휴 308, 310, 319, 321, 322
 인구 구성비 191
 인구 분포 110
 임진강 식당 382

ㄸ

자금동 69, 180
 자연 마을 40, 57
 자일동 234
 자일리 57
 작복반 364, 366
 집탕찌개 331, 332
 장곡동 182

- 장기숙 151, 154, 171, 177, 191, 194, 202, 204
- 장수원 56
- 장십량 359, 363
- 장암동 34, 160, 182, 215, 216, 347
- 장암동 반남 박씨 215
- 장암리 57
- 장암지구 184
- 장애인 복지회관 68
- 장흥식당 338
- 재래시장 310, 324
- 재실 51
- 저농약 제배 364
- 전국의국기관노동조합 144
- 전주 류씨 34, 36, 38
- 전주 류씨 낙봉공파 34, 46, 49, 50
- 전주 이씨 종중 298
-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38
- 전통 시장 317, 318
-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 223
- 전통 혼례 223
- 접빈객 214
- 정문부 장군묘 395, 407
- 정자마을 35, 36
- 제1공설시장 307, 308
- 제일시장 98, 142, 144, 153, 167, 168, 176, 280, 281, 307, 308, 312, 314, 316, 319, 320, 322, 324
- 제일시장 상가변영회 326
- 조건 34, 47, 52, 106, 350
- 조건 선생 유희비 53
- 조경희 259
- 조정녀 233, 234, 236, 238, 248
- 조경희 143, 145, 157, 198, 206
- 조종호 35, 40, 43, 47, 74, 80, 86, 88, 106, 108, 115
- 조준 35, 350
- 종가 214, 222, 230
- 종자집 214, 219, 222, 225, 228, 230
- 종법 214
- 종부 214, 224, 230, 291
- 종손 214, 216
- 종친회 46, 52
- 종합복지회관 68, 80, 182
- 주내면 82, 125, 126
- 주말농장 244
- 주택공사 206
- 주택문제 184
- 중금오 57
- 중량천 69, 187, 198
- 중앙감리교회 125
- 중앙국민학교 82, 250, 253
- 중앙로 88
- 중앙역 97
- 지계부대 148
- 지방행정동우회 81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112
- 직동수련원 80
- 진기석 216, 218
- 진문순 364
- 진미식당 338
- 김성춘 49, 350
- ⊕
- 철원상회 361
- 청소년복지회관 68
- 청소년회관 80
- 청운문화제 103
- 청운산악회 100, 103
- 청운장학회 100
- 청운체육회 100
- 청학터널 357
- 초원식당 338
- 총인구조사 124
- 최경수 56, 83
- 최병엽 307, 308, 312, 317, 318, 320
- 최승천 250, 252, 254, 256, 258, 260, 262, 264
- 최양화 251, 252, 254, 256
- 최형숙 215, 219, 220, 224, 228
- 추동마을 57, 74, 83
- 축산업 232
- 축석고개 132
- 취락 구조 157
- ㉠
- 캠프 라파디아 171, 180
- 캠프 레드클라우드 171, 177, 181, 193, 284
- 캠프 스탠리 37, 60, 117, 118, 181, 284, 286, 288, 292, 295, 297
- 캠프 시어즈 180
- 캠프 에세이온 60, 181, 286
- 캠프 인디언 286
- 캠프 잭슨 181, 284, 286
- 캠프 카일 180
- 캠프 홀링워드 171, 180
- 쿠엔 티킴 티엔 267, 269, 270, 274, 278, 281, 282
- ㉡
- 탐석 57
- 택지 개발 181, 184
- 택지 개발 사업 184
- 토박이 40, 42, 45, 56, 58, 60, 69, 74, 78, 86, 96, 106, 108, 110, 113, 114, 117, 191, 193, 378
- 토지구획정리사업 181
- 토지대장 67
- 토지 수용 374, 391
- 토지 환매권 66
- 통계연보 232
- 통일버 70

II

파밭막마을 59
 평양 조씨 34, 47, 53
 평양 조씨 현령공파 34, 40, 46, 52
 평양집 97
 평화로 161
 평화아파트 176, 186, 188
 포천 75, 124, 132, 136, 146, 161, 162, 306, 312, 318, 328, 392, 402
 포천군 127
 포천시 80
 포천시 소흘읍 352
 피난민 132, 142

III

하금오 57
 하금오동 180
 하꼬방 126, 153, 154, 204
 하수처리장 40
 하천 127
 한가족센터 80
 한국감정원 의정부지점 68
 한국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80
 한국노무단 193
 한국인 노무자 부대 148
 한국전쟁 86
 한국토지주택공사 40
 한국통신 의정부전화국 68
 한글 창제 사적비 48
 한래개울 132
 한미연합사령부 295
 한복신문 191, 208
 한성정미소 126
 한양식당 338
 한진버스 88
 합바 식당 287, 290
 해방 128
 해방촌 37

해성제사공장 92
 행정구역 통합 114
 행정타운 68, 74, 180
 향군회관 68
 향우회 194
 향토문화 교육원 및 연구소 76
 허가숙 331, 332, 334, 343, 345, 346
 형네집 337, 338
 호남향우회 194
 호암국민학교 253
 호원동 63, 92, 133, 160, 181, 373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391
 호원리 56
 홈플러스 188
 홍건호 142, 158, 162, 167, 168, 178, 180, 191, 208
 홍석범 353, 355, 358, 363, 368, 370
 홍우준 64, 66
 환경개선사업 315, 316
 황해제유 307
 회룡골 147
 회룡문화제 68
 회룡역 318
 회양공파 36

議政府市史 ⑤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 집필위원

제1편 다양한 토박이들의 삶 _____ 김혜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 제1장 동족 마을 토박이들의 어제와 오늘
- 제2장 시 발전과 함께 한 토박이들
- 제3장 학교 동문들의 고향 이야기
- 제4장 토박이들이 그리는 내 고향의 미래

제2편 이주민의 고향 만들기 _____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 제1장 해방 전후 의정부 지역으로 온 사람들
- 제2장 한국전쟁이 남기고 간 사람들
- 제3장 시 승격 이후 이주한 사람들
- 제4장 1980년대 아파트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 제5장 이주민이 바라는 희망도시 의정부

제3편 다양한 여성들의 삶 _____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 제1장 종갓집 며느리의 회로애락
- 제2장 농촌에 시집온 여성의 삶
- 제3장 대를 이은 여교사의 생애
- 제4장 이주 여성의 삶
- 제5장 미군 부대 주변에서 삶을 일군 여성들

제4편 이곳저곳에 뿌리를 튼 삶의 현장 _____ 서민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 제1장 최고의 전통 시장, 제일시장
- 제2장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 제3장 의정부 특산물, 송산배
- 제4장 육군 306보충대의 이모저모
- 제5장 도시 속의 산업단지, 용현산업단지

議政府市史 5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발행일 — 2014년 6월 19일

발행인 —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발행처 —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집·디자인 — ㈜디자인소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6길 55 전화 02-514-5164

인쇄 — ㈜세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7길 55 전화 02-2278-2608

의정부시사 전8권, 2014

의정부문화원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123 전화 031-872-5678

ISBN 979-11-952972-5-2 94900

ISBN 979-11-952972-0-7(세트)

의정부시사

의정부시사(전 8권)

- 제1권 — 의정부의 생활공간
- 제2권 — 매성, 양주, 의정부로의 변천
- 제3권 — 의정부의 현대생활
- 제4권 — 의정부의 마을과 민속
- 제5권 —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 제6권 — 역사 향기 깃든 의정부
- 제7권 — 자료로 살펴본 의정부
- 제8권 —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미래출



94900
0 791196 297252
ISBN 979-11-962972-5-2
ISBN 979-11-962972-0-7(세트)